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36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0. 8. 31

< 大韓中國學會 >

고 문 : 성파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이재하(경성대)
부 회 장 : 김세환(부산대) 서석홍(부경대) 이철리(경남대) 임수암(경남정보대)
감 사 : 김태관(동의대) 진광호(부산외대)
연구이사(겸 위원) : 김용운(동아대)
연구윤리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창경(부경대) 박제진(동서대) 유병태(인제대)
하영삼(경성대)
총무이사 : 이화범(경성대)
학술이사 : 강경구(동의대) 김윤경(신라대) 박노중(동아대) 정해용(신라대)
최낙민(한국해양대)
편집이사(겸 위원) : 김창경(부경대)
편집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명구(명지대) 김태만(한국해양대) 문병순(경남대)
오만중(전남대) 이규일(영동대) 이정남(고려대) 양만기(제주한라대)
장호득(단국대)
섭외이사 : 김태만(한국해양대) 이문혁(세명대) 이중희(부경대)
기획이사 : 김언하(동서대) 김진영(부산외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이웅길(동서대)
출판이사 : 신흥철(동아대) 오창화(경성대) 정옥근(동의대)
운영이사 : 김민정(부산정보대) 김소현(동아대) 김인호(동의대) 김종현(동아대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현태(경남대) 남덕현(부산대)
류영표(경성대) 정원호(동의과학대) 박경송(영산대) 박기현(인제대)
박부열(진주보건간호대) 박안수(마산창신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신석찬(부산여대) 왕옥지(동명대) 왕충의(부산외대)
이경미(동서대) 이상도(울산대) 이치한(창원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정태업(부산외대, 중국어학부) 심형철(신라대) 정현철(경상대) 최세운
(고신대) 한중호(동주대)
연 락 처 : 총무: (051)663-4267(연구실), 010-7252-1887 whabum@ks.ac.kr
편집: (051)629-5342(연구실), 011-579-1334 cgkim@pknu.ac.kr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이 학술지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中國學

第36輯

2010年 8月

目 次

강식진·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1
진광호·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 도입	31
정윤철·新HSK의 이론적 토대 분석과 향후 對外漢語教學에의 영향 관계 모색--《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동참조기준》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49
김세환·孔子的 好色과 守禮--《詩經·關雎》를 중심으로	75
김영옥·김래관·唐 傳奇 <杜子春傳>과 芥川龍之介 <杜子春> 비교	97
이장휘·蕭子顯의 《南齊書·文學傳論》 역주	115
류영표·蘇頌 後使遼詩 注釋(I)	145
이은상·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에 관한 試論	185
方珍平·新时期小说叙述方式的新意：内涵论	209
譚阿勇·唐宋时期商业信用问题研究	233
신상철·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	251
■ 부록	
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외)	287

CHINESE STUDIES

Volume 36

Aug.2010

A Contrastive Study on Phonological Change of Segment Phonemes in Chinese and Korean Language / <i>Kang, Sik-jin</i>	1
A Study of Korean - Chinese Language Tandem / <i>Jin, Kwang-ho</i>	31
A Study on the Theoretical Basis of New HSK and the Influence of New HSK on Chines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 <i>Jung, Yun-chul</i>	49
Confucius Lust and Courteous : Focused on «Shijing · guanju(詩經 · 關雎)» / <i>Kim, Se-hwan</i>	75
A Comparative Study of Tang Dynasty Novel 「DuZi-chun zhuan」 and Akutagawa Ryunosuke's 「TuTze-chun」 / <i>Kim, Young-ok · Kim, Taekuan</i>	97
A Translation with Explanatory Notes about the Xiaozixian(蕭子顯) Annotated Biography of Wenxuezhuanlun(文學傳論) in History of the Nanqi(南齊) Dynasty / <i>Lee, Jang-hui</i>	115
Interpretation of the Poetry by SuSong(蘇頌) during his Second Visitation of Liao(遼)(I) / <i>Ryu, Young-pyo</i>	145
An Essay on Jiannan Literati's Discourses on Material Culture and Distinction in Late Ming China / <i>Lee, Eun-sang</i>	185
The New Narration Styles of the Chinese Novels of the New-era(1970's~1990's) : A Discussion from Valuation Perspective / <i>Fang, Zhen-ping</i>	209
A Study of Business Credit in Tang and Song Dynasties / <i>Tan, A-yong</i>	233
Origin and Developments of the Chinese 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 / <i>Shin, Sang-cheol</i>	251
■ Appendix	
Editorial Rules of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287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강식진**

<목 차>

1. 연구목적과 내용	3-2-4 중국어 'r/z'의 발음 오류로 인한 유음화 및 비음화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소 결합 제약	3-2-5 '-ㄱ' '-ㄷ' '-ㅂ'의 비음화
3. 음소 결합의 제약에 의한 음운 변동	3-3 두음법칙
3-1 연음	4. 노력 경계의 음운변동
3-2 자음접변	4-1 구개음화
3-2-1 'ㄹ'의 순행 유음화	4-2 자음 위치 동화
3-2-2 'ㄴ'의 역행 유음화	5. 결론
3-2-3 'ㄹ'의 비음화	[참고문헌]
	[论文摘要]

1. 연구목적과 내용

한국어와 중국어¹⁾는 음소의 분포, 음절의 구조, 음소 결합의 제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음운변동에도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두 언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음운변동을 서로 비교하고,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중간언어²⁾에 나타나는 음운변동과 관련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 논문에서 “중국어”라 함은 중국에서 정의된 “普通话”를 지칭한다.

2) 중간언어(中介語; interlanguage)는 근사체계(approximative system), 개인 특유의 방언(idiosyncratic dialect), 과도기적 언어 수행(transitional competence)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것은 Larry Selinker,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10, 1972) pp.209~241,

된 오류의 내용과 원인을 대조이론³⁾적 방법으로 밝히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음소 결합 제약에 의한 음운변동⁴⁾ 9종, 노력 경제의 음운변동 19종, 표현 강화를 위한 음운변동 3종 등으로 모두 31종의 음운변동이 있고⁵⁾, 중국어에는 결정적 변동 6종, 수의적 변동이 12종으로 모두 18종이 있다. 이들 중 성조의 변동이 7종이고, 분절음의 변동이 11종이다.⁶⁾

중국어의 결정적 음운변동은 거의 성조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이에 상응하여 잘못 전이될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가 성조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지식에서 잘못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성조의 변동은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한국어의 음운변동 규칙이 중국어 학습에 전이되기 위해서는 중국어

William Nemser,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9(2), 1971) pp.115~123, Corder, S. Pit, 《Idiosyncratic Dialect and Error Analysis》(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9(2), 1971) pp.161~170 참조.

3) 대조이론에 대해서는 Charles C. Fries, 《Teaching English as Foreign Language》(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참조.

4) 어느 형태소의 음소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변동”이라 하며 여기에 적용된 규칙을 변동 규칙이라고 한다. 음운변동은 대개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이어질 때 혹은 그것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현상이다. 통시적인 음운의 변화를 “변천”이라 하고 공시적인 것을 “변동” 또는 “변이”라 한다. 음운의 변천에는 자생적 변천과 결합적 변천이 있으며, 음운변동은 대부분이 결합적 변동이고 자생적 변동은 많지 않다. 결합적 변동은 일정한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 변동과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수의적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음운 규칙(phonological rule)은 음소와 변이음 사이의 규칙(이음규칙)과 음소와 바뀐 음소와의 사이에 내재된 규칙(변동 규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소와 이음간의 규칙을 허용,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어제·오늘》(샘문화사, 서울, 1985년) pp.288~289에서는 “음운 규칙”이라 하였으며, 양순임, 《말소리》(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p.88에서는 “이음규칙”이라 하였다.

5) 허용,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어제·오늘》-(샘문화사, 서울, 1985년) pp.288~289.

6) 林焘, <北京话的连读音变>(《北京大学学报(人文科学)》, 1963年 第6期) 참조.

에도 같은 음운 조건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한국어의 음운 변동 중 중국어에도 같은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규칙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할 변동 규칙은 연음, 자음접변 중의 ‘ㄹ’과 ‘ㄴ’의 유음화, ‘ㄹ’의 비음화, 그리고 특이한 현상으로 중국어 ‘r/ʐ/’ 음가의 오류에 기인한 유음화 및 비음화, ‘-ㄱ’ ‘-ㄷ’ ‘-ㅂ’의 비음화, 두음법칙 및 구개음화, 자음 위치 동화 등이다.

중국어는 모든 음절에 성조가 있고 또 음절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단음절성 등에서 음운론적으로 한국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점이 있지만, 음소의 분포와 대립 자질, 음절의 구성 등의 면에서는 두 언어 사이에 공통점도 상당 수준 존재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음소분포 및 대립자질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과 같이 “연음” : “격음” : “격음”이 대립하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k] [kh], [t] [th], [p] [ph]와 같이 “연음” : “격음”만 대립한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는 중국어의 발음에 대한 변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p] [t] [k]의 변이음인 된소리 [pʰ] [tʰ] [kʰ]에 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 반면, 중국어 화자가 ‘ㄱ’ ‘ㄲ’, ‘ㄷ’ ‘ㄸ’, ‘ㅂ’ ‘ㅃ’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어의 ‘ㄹ’은 ‘거래[kəɾɐ]’ ‘느리다[nirida]’, ‘노리게[norige]’와 같이 초성 위치에 있을 때는 설측음 [l]로 발음되고, ‘날씨[nalsʰi]’ ‘빨래[pʰalɐ]’ ‘멀다[mɛ:da]’와 같이 종성 위치에 있을 때는 탄설음 [ɾ]로 발음되지만, 중국어에는 [l]이 음절 끝에 위치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탄설음 [ɾ]도 없으므로 중국어 화자는 한국어 발음에서 이를 권설운 [ʌ]으로 대체하는 보편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l]에 대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음절구조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중국어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어의 모든 음절에 반드시 성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점이겠지만, 분절음의 음절구조도 많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음절은 초성(음절초), 중성(음절핵), 종성(음절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어 분절음 음절은 성모와 운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모는 다시 운두, 운복, 운미로 나누어진다. 성모는 음절

초에 해당하고 운두와 운복은 음절핵에, 운미는 모음 /i/, /u/와 향음 /-n/, /-ŋ/ 중의 하나이며, 운미 /-n/, /-ŋ/는 중성 자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음절 끝 중성 자음에 대해 유표적인 음절말 장애음을 허용하는 CVC 체계의 폐음절 구조이고, 중국어는 음절 끝에 향음 /-n/과 /-ŋ/만을 허용하는 CV 체계의 개음절 구조이다. 하지만 중국어의 자음 운미 /-n/과 /-ŋ/는 음운변동의 측면에서는 음절말 자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언어의 음절구조 제약(syllable structure constraint)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특히 음절말 자음이 중국어에는 /-n/과 /-ŋ/의 두 개 뿐인데 반해, 한국어에는 ‘ㅂ/p/’ ‘ㄷ/t/’ ‘ㄱ/k/’ ‘ㄴ/n/’ ‘ㄹ/l/’의 7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는 중국어보다 중성에 위치하는 자음이 많기 때문에 음절수가 많고 음운변동 역시 복잡다양하다. 음절핵을 중심으로 자음을 추가하여 음절을 형성할 때 자음은 중성에 위치하기 보다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초성 자리를 우선적으로 채우려는 성질이 있다. 자음이 초성에 위치하게 되면 조음 기관을 교대로 개폐하게 되어 발음하기가 편해지지만, 중성에 자음이 있어 자음과 자음이 이어지거나, 모음과 모음이 이어지게 되면 불편한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이어지는 위치에서 음운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해 훨씬 풍부한 음운변동 현상을 보이며, 한국어의 복잡한 규칙을 중국어 화자가 학습하기에는 무척 어렵겠지만, 반대로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의 음운변동 규칙을 그대로 전이하여 일으키는 오류 또한 없지 않다. 예를 들면, ‘栏杆/lángān/’을 [난간]으로, ‘蓝色/lánsè/’를 [난써]로 발음하는 경우는 한국어 화자의 두뇌에 갈무리 된 두음규칙이 중국어에 전이된 것이며, ‘单衣/dānyī/’를 [따니]로, ‘欢迎/huānyíng/’을 [화닝]으로 발음하는 것은 한국어 속의 연음규칙을 중국어에 전이하여 생긴 오류이다. ‘韩流/hánliú/’를 [할류]로, ‘真理/zhēnlǐ/’를 [쩨리]로 발음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의 /ㄴ/유음화 지식을 그대로 중국어에 전이한 결과로 빚어진 오류이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소 결합 제약

음운론적 음절(phonological syllable)은 한 언어의 특징으로 규정되어지게 되는데, 중국어나 한국어의 분절 음절구조는 음절 구성 요소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 이상의 모음을 포함하고, 이 모음이 음절의 중심인 성음절(成節音; syllabic sound)이 된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풀어쓰지 않고 음절별로 모아쓰는 음소문자이다. 한국어의 음절수는 표기된 자수(字數)와 일치하고, 중국어 역시 하나의 한자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⁷⁾ 중국어나 한국어의 음절은 아주 익숙한 발화 단위가기 때문에 구태어 단음(單音)의 가청도(可聽度; 响度; sonority) 등으로 음절의 구성을 살피는 음성학적 음절(phonetic syllable)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도 음절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다.

음절은 음소가 평판적 구조(flat structure)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로 이루어진 언어도 있다.⁸⁾ 한국어 음절은 초성(음절초; onset), 중성(음절핵; peak, nucleus), 종성(음절말; coda)의 평판적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initial) 운모(final), 성조(tone)로 구분되며, 운모는 다시 운두(medial), 운복(vowel), 운미(ending)로 이루어져 있다. 운미는 모음일 수도 있으며 자음일 수도 있다. 자음 운미를 음절말(coda)로 본다면, 중국어 음절 역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절초(onset)인 성모와 음절핵(nucleus)인 운두 및 운복과 모음 운미 /i/와 /u/, 그리고 자음 운미인 음절말(coda)의 평판적 구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⁹⁾ 하지만 한국어에

7) 하나의 한자가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예외는 권설운을 표기하는 “儿”과 “什么” “怎么” 따위에 쓰인 “么”뿐이다.

8) 전상범, 《음운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년) pp.399~405 참조.

9) 허용,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샘문화사, 서울, 1984년) pp.168~169와 허용,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어제·오늘-》(샘문화사, 서울, 1985년) p.117에서는 중국어의 운모는 성조를 받을 수 있는 날덩이기 때문에 향음의 자음 운미 /-n/과 /-ŋ/가 있는 비성운모(鼻聲韻母)까지도 하나의 음절 자위(음절핵; syllable nucleus)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어(漢語)의 자음 양성운미(陽性韻尾)인 향음 /-m/ /-n/ /-ŋ/와 입성운미(入聲韻尾)인 과열음 /-p/ /-t/ /-k/는 앞의 운복과는 관계없이 서로 /p/와 /m/ 양순음, /t/와 /n/는 설첨음 /k/와 /ŋ/는 설근음으로 서로 대립되어 있으며, 또한 북방방언에서는 입성운미 /p/ /t/ /k/가 각기 독립적으로 사라지게 되며 아울러 양성운미의 /-m/도 /-n/에 합류하게 된다. 이러한 소실과 합류 과정에서 어떤 운미도 앞의 운복에 종속된 현상을 보이지 않은 점과 상당수 방언에서 앞의 운복과는 무관하

서는 음절말이나 음절초의 자음이 음절핵인 모음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평면구조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인 향음 /n/과 /ŋ/는 운미로서 운복에 소속된 것이므로 우분지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다.¹⁰⁾

한국어의 음운론적 음절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iVCf(“i”는 초성, “V”는 중성, “f”는 종성)

Ci의 초성 위치에는 19개 자음 중 ‘ㅇ/ŋ/’을 제외한 18개가 올 수 있으며, V의 위치에는 10개의 단모음과 12개의 중모음이 올 수 있고, Cf의 위치에는 ‘ㅂ/p/’ ‘ㄷ/t/’ ‘ㄱ/k/’ ‘ㅁ/m/’ ‘ㄴ/n/’ ‘ㅇ/ŋ/’ ‘ㄹ/l/’의 7개의 자음이 올 수 있으며, Ci나 Cf는 1개이거나 없을 수 있다.¹¹⁾ 또 V는 모음 또는 활음(滑音; 과도음; gliding sound)과 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Ci은 없거나 하나만 사용되고 복자음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어두 초성에서 ‘ㄹ/l/’과 ‘ㄴ/n/’은 형태소 내부의 제약을 받게 된다.

중국어의 음운론적 음절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1+V1+V2+V3/C2

중국어의 음절을 계층적인 구조로 보면 성모 C1은 초성에 해당하고 운모 V1+V2+V3/C2은 운(韻;rhyme)에 해당한다. 또 V1+V2은 핵모음(Nucleus), V3/C2는 음절후부(coda)이고 C2는 음절말 자음으로 향음인 /-n/ 혹은 /-ŋ/만 충당된다. 이중 V2는 반드시 있어야 음절이 형성되며,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계 /n/과 /ŋ/을 분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자음 운미는 음절핵의 한 부분이 아닌 음절말 자음(coda)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현대 중국어의 음절은 음절말에 향음을 허용하지만 장애음을 허용하지 않는 개음절(開音節; opened syllable)이다.

10) 양순임, 《말소리》(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p.133 참조.

11) 허용, 《국어음운학》(서울, 샘문화사, 2001년 2월 중판) pp.228~229 참조.

V1, V2, V1+V3/C2, V2+V3/C2, V1+V2, V1+V2+V3/C2

성모 C₁의 음운론적 특징에 따라 결합 가능한 운두 V₁이 결정되며, 음절후부 V₃와 C₂는 서로 상보적 관계이다.

중국어의 성모는 ‘b/p/’ ‘p/ph/’ ‘m’ ‘f’, ‘d/t/’ ‘t/th/’ ‘n’ ‘l’, ‘g/k/’ ‘k/kh/’ ‘h/x/’ ‘j/tɕ/’ ‘q/tɕh/’ ‘x/ɕ/’ ‘zh/tʂ/’ ‘ch/tʂh/’ ‘sh/ʃ/’ ‘r/ʒ/’ ‘z/ts/’ ‘c/tsh/’ ‘s/’의 21개이고¹²⁾, 모음은 모두 10개가 있는데, 이중 ‘i’ ‘u’ ‘ü/y/’ ‘a’ ‘o’ ‘e/ɛ/’ ‘ê/ɛ/’ ‘er/ə/’의 8개는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이 될 수 있지만, ‘-i/ɿ/’는 ‘zh/tʂ/’ ‘ch/tʂh/’ ‘sh/ʃ/’ ‘r/ʒ/’와, ‘-i/ɿ/’는 ‘z/ts/’ ‘c/ts/’ ‘s/s/’와만 결합되어 음절을 이루는 모음이다. 10개의 모음 중 ‘i’ ‘u’ ‘ü/y/’가 운두이고, 운두는 성모와 운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모(介母)”라고도 한다. 운미의 위치에는 모음 /i/ /u/ ‘o/u/와 자음 /-n/ /-ŋ/이 올 수 있다. 실질 음가에 따른 운모는 모두 35개로 다음과 같다.

- 단모음 운모(10개): a, o, e, ê, i, u, ü/y/, ɿ, ʅ, ɤ
- 복모음 운모-이중모음(5개): ia, ie, ua, uo, ye
- 삼중모음(4개): iao, iou, uai, uei
- 비성운모-n(8개): an, ian, uan, ü/y/an, ən, in, uən, ü/y/n
- ŋ(8개): aŋ, iaŋ, uaŋ, əŋ, iŋ, uəŋ, uŋ, ü/y/ŋ

한국어의 음운론적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은 11종, 음성적 음절구조는 8종이 있고¹³⁾ 이를 중국어 음절과 대비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중국어	
음운론적 음절	예	음성적 음절	음절	예
V	아	[V]	[V]	啊/a/
GV	와	[GV]	[GV]	呀/ja/
			[VV]	爱/ai/
			[GVV]	要/jiao/

12) 汉语拼音方案和 실질음가가 다를 때는 // 속에 IPA로 표시하였다.
 13) 최명옥, 《국어음운론》(경기도, 태학사, 2004년 8월) pp.71~72 참조.

CV	가	C[V]	C[V]	那/na/
CGV	과	C[GV]	C[GV}	家/teja/
			C[VV]	高/kao/
			C[GVV]	快/k'wai/
VC	악	[V]C	[V]C	安/an/
GVC	완	[GV]C	[GV]C	万/wan/
CGVC	꺠	C[GV]C	C[GV]C	天/t'jan/
CVC	산	C[V]C	C[V]C	三/san/
VCC	읽	→VC		
CVCC	값	→CVC		
GVCC	값	→GVC		

<보기> G : 활음, V : 모음, C : 자음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가장 빈번한 오류 중의 하나가 음절말 자음의 발음이다. 중국어 화자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ㅂ/p/’ ‘ㄷ/t/’ ‘ㄱ/k/’ ‘ㅁ/m/’ ‘ㄴ/n/’ ‘ㅇ/ŋ/’ ‘ㄹ/l/’ 등 7개의 자음 중 중국어에도 있는 ‘ㄴ/n/’과 ‘ㅇ/ŋ/’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발음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 화자는 이들 발음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n/이나 /ŋ/으로 교체하여 발음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배음운론적으로 중국어의 음절구조가 음절말 빈핵을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 즉 중국어가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장애음으로 음절이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이러한 음절구조 때문에 야기되는 다른 오류는 종성 자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혹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때의 종성 자음의 발음이다. 한국어에서는 모음 사이에 위치한 자음은 반드시 연음되어 발음하게 되지만, 중국어 화자는 음절말 빈핵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어 음절구조에 맞게 자음을 생략하고 모음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또 중국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음소의 예로 이중모음 ‘ㄷ/ya/’가 있다. ‘ㄷ’즉 ‘ㅣ’+‘ㄷ’의 이중모음은 중국어에는 없지만, 중국어에는 /i/+aŋ/와 /i/+aŋ/은 있으나 이들은 모음 /a/가 약화되어 /in/과 /iŋ/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중국어 화자의 중간언어 음운에는 /iæn/와 /iæŋ/을 /in/과 /iŋ/으로 발음하는 중간언어 현상이 존재한다.¹⁴⁾

14)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받침과 관련된 중간언어 음운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음절구조와 관련된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중간언어 음운 현상은 매우 복잡하지만,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은 /-n/과 /-ŋ/밖에 없으며, 또 한국어에서 /-ŋ/은 연음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의 중국어 중간언어 음운 현상, 특히 음절말 자음의 음운변동은 /-n/과 관련된 것뿐이므로 매우 단순하다.

3. 음소 결합의 제약에 의한 음운변동

음소의 연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이러한 제약에 의해 일어나는 음운변동으로는 음절구조 조정, 두음법칙, 자음접변 등이 있으며, 특히 음절구조 조정에는 연음(連音; blenis), ‘ㅎ’ 끝소리 자리 바꾸기, 겹받침 줄이기, 일곱 끝소리 되기 등이 있다. 이들 중,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학습 과정에서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는 음운변동은 연음, 자음접변, 두음법칙 등이며, 중국어의 음절말 자음에는 ‘ㅎ’이나 겹받침 및 장애음이 없기 때문에 ‘ㅎ’ 끝소리 자리 바꾸기, 겹받침 줄이기, 일곱 끝소리 되기 등은 중국어에서는 근본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변동들이다.

3-1. 연음

한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어두 음절일 때는 초성 음가 없이 모음으로 발음되지만, 종성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음(連音; lenis)이라고 한다.¹⁵⁾ 연음은 모음과 모음 사

윤영혜, <중국어, 일본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지배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언어와 언어학》 39집,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07년)

윤영혜, <중간언어 음운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음교육의 효과 연구-중국어 화자들의 받침발음을 중심으로->(《한국어 교육》 19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2008년)

15) 양순임, 《말소리》 (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pp.172~173에서 “뒤따르는 형태소 첫소리가 모음이라도 형식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아닐 경우 연

이에 자음이 하나 있을 때 그 자음은 초성의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형태소 구조에서 종성에 있던 자음이 실제 음절 단위의 발음에서는 초성으로 조음된다. 이는 음절핵을 중심으로 음절을 형성할 때 자음을 초성에 배치하여 조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어, 영어, 독일, 불어와 같은 폐음절어에서는 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어의 자음운미 /-n/과 /-ŋ/은 운복과 분리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도 음성학적으로는 초성 자음이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어에는 원칙적으로 연음이 나타나지 않거나 적어도 한국어와 같은 종성이 다음 음절 초성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수준의 연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에서 필연적인 연음 규칙을 그대로 중국어 학습 상에 적용하는 오류가 많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초성은 없거나 하나만 사용되고 복자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자음 19개 중 ‘ㅇ/ŋ/’을 제외한 18개가 초성에 위치할 수 있으며, 특히 어두 초성에서 ‘ㄹ/l/’과 ‘ㄴ/n/’은 형태소 내부의 제약을 받게 되고, 중국어에서는 성모 21개가 모두 초성에 쓰일 수 있다.

음되지 않는다. /밭이랑/에서 ‘-이랑’이 조사일 경우 연음되고 구개음화하여 [바치랑]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음소 배열이 같아도 ‘이랑’이 명사일 경우 연음되지 않고, 음절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규칙을 거쳐 [반니랑]으로 된다. /값이/에서 ‘-이’가 조사이므로 /ㄴ/가 연음되지만, /값있다/에서 ‘있-’은 어간이므로 /ㄴ/가 연음되지 않고 겹자음 탈락 규칙이 적용된다. /값있다/[가빈다], /밭이랑/[반니랑]의 음절 발음이 연음되지 않는 것은 뒤 말이 실질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실질형태소 앞’이라는 형태론적 조건은 ‘휴지 앞’이라는 음운론적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결국 자음이나 휴지가 뒤따를 경우 연음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말이 빨라지면 음절 사이 휴지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연음이 일어나는 범위 역시 유동적이 된다. 실례로 /논이랑/에서 ‘이랑’이 명사이든 조사이든 [노니랑]으로, /논의/의 ‘의’가 조사이든 ‘논의(論議)’이든 [노늬] 혹은 [노니]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음절 사이의 휴지 적용 여부에 따라 연음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허웅, 《국어음운학》(샘문화사, 1985년 초판, 2001년 중판) p.265에서는 연음규칙에 대해 “이어나는 두 휴식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말이 빨라지면 휴식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는 유동적이다.”라고 하여 그 예로, 「할*일」 사이에 휴식을 두면 [hal*il]로 발음되지만 휴식을 허물면 /halil/→[haril]이 됨을 들었다.

한국어의 초성 18개

ㄱ ㅋ ㆁ ㆁ ㄷ ㅌ ㄷ ㄴ ㄹ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중국어의 초성 21개

p ph m f t th n l k kh x ts tsh s te teh e tʃ tʃh ʃ z

한국어에서 초성이 없는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ㅇ’을 넣어 표기하지만 실제 ‘ㅇ’은 음가가 없음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음성형 음절수 2,738개 중 초성이 없는 음절수는 146개로 전체의 5.33%이고, 표기형 음절수 111,722개 중에 초성이 없는 음절수는 588개로 전체의 5.26%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에서 초성이 ‘ㅇ’인 낱말은 아주 많아 10% 훨씬 넘으며, 또 조사는 사용 빈도가 다른 품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데 조사 중에는 “...이” “...에게”, “...으로”, “...을” 따위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많고, 용언의 활용에서도 어미에 “으”가 자주 사용된다¹⁶⁾는 점에서 보면, 한국어에서 초성이 없는 음절의 출현 빈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초성이 없는 음절을 영성모[零声母; zero-initial] 혹은 무성모[无声母]라고 한다. 중국어의 영성모 음절은 35개로 분절음 음절수의 약 11%에 해당한다.¹⁷⁾ 비록 영성모는 초성 없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지만 중국어는 음절이 독립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의 역할을 하는 단음절적 특징이 뚜렷하고, 최소한 음절은 하나의 형태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음절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짙어 비록 성모가 없는 음절이라 할지라도 모두 순수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발음된다.¹⁸⁾

(1) 순모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음절-대부분의 영성모

① 음절 /i/ /u/ /y/은 마찰성분이 수반되어 반모음 [j] [w][ɥ]로 실현

16) 천영수,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에 대하여>, (《한글 새소식》 366권, 한글학회 2003. 2. 5.) p.5.

17) 张秋娥, <普通话零声母的音位分析>(《殷都学刊》第二期, 1995) p.103.

18) 张秋娥, <普通话零声母的音位分析>(《殷都学刊》第二期, 1995) 참조.

되며,

- ② /i/ /u/ /y/가 활음이 된 음절에서 /i/ /u/ /y/는 마찰 성분을 띄고 과도음(過渡音) 역할을 하면서 [j] [w][ɥ]로 실현된다.
- ③ 운두 없이 운복이 저모음과 중모음인 음절은 초성 자리에 유성마찰음 [ɣ]나 후두 파열음 [ʔ]가 실현된다.
- ④ 중국어 음절말 자음 /ŋ/에 개구호의 영성모 음절(a, o, e, ai, ei, ao, ou, an, en, ang, eng, er)이 연결 될 때는 아래 예와 같이 앞 음절의 운미 /ŋ/를 연음하는 것이 아니라 뒤 음절 초에 /ŋ/를 추가한다.¹⁹⁾
 平安/píng'ān/[píng'ŋān]
 定額/dìng'é/[dìng'ŋé]
 嬰兒/yīng'ēr/[yīng'ŋér]
- ⑤ 어기조사 ‘啊/a/’는 순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기 때문에 앞 음절에 따라 연음이 일어난다. ‘啊/a/’의 특수한 연음은 다음과 같다. 연음 후의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대용하기도 한다.

앞 글자 음(汉语拼音)	「啊」의 변음	대용한 자	예문
-a -e -i -o -ü	a → ja	呀	看戏呀
-ao -ou -u	a → wa	哇	很好哇
-n	a → a	哪	有人哪
-ng	a → ŋa	啊	好香啊
zhi chi shi ri er	a → za	啊	老师啊
zi ci si	a → za	啊	公子啊

(2)순모음으로 발음되는 음절--극소수의 영성모 음절로, 대표적인 것이 감탄사 ‘啊/a/’이다. 감탄사 ‘啊/a/’는 다른 음절과 음운론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연음과는 무관하다.

중국어에서 순모음으로 발음되는 영성모는 감탄사의 ‘啊/a/’ 뿐이며, 연음되는 영성모도 어기조사의 ‘啊/a/’ 뿐이다.

중국어 영성모와 한국어의 초성 없는 음절의 발음이나 연음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큰 차이점은 단연 중국어의 거의 모든 음절이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 역할을 하는 단음절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한어병음 방안(汉语拼音方案)에서도 음절 간 독립성을 표기하기 위해 아래 예와 같이 영성모의 운두 [i], [u], [ü]를 [y] 혹은 [yi], [w] 혹은 [wu],

19) 林焘, <北京话的连读音变>(《北京大学学报(人文科学)》, 1963年 第6期) p.21.

[yu] 등으로 표기하여 음절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또 운복 [a] [e] [o]가 음절의 처음인 영성모는 앞 음절과의 분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격음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软卧/ruǎn+uò/ → [ruǎnwò]
 欢迎/huān+íng/ → [huānyíng]
 西安/Xiān/ → [Xi'ān]

중국어의 대부분 음절은 형태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절은 독립적으로 발음되며 또한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어를 한자로 표기하게 되면 자연히 모든 음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보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절간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고 한국어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연음이 된다면 자칫 다른 의미의 음절이 될 수도 있다.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 상의 중간언어에는 연음의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²⁰⁾ 반대로 중국어에는 연음이 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낱말들의 예와 같이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의 필연적인 연음을 그대로 중국어에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논이[노니]	
논에서[노네서]	
논이랑[노니랑]	
논안[노난]	: 论案/lùn'ān/[lùnān]
논어[노너]	: 论语/Lúnyǔ/[Lúnǔ]
논의[노너] 혹은 /노니/	: 论议/lùnyì/[lùni]
肝癌/gān'ai/[gā nái]	晚安/wǎn'an/[wǎ nān]
棉袄/mián'ǎo/[miá nǎo]	金额/jīn'é/[jī né]
感恩/gǎn'en/[gǎ nēn]	男儿/nán'ér/[ná nér]
单一/dānyī/[dā nī]	单音/dānyīn/[dā nīn]

20) 중국인의 한국어 연음규칙 오류에 대한 연구의 논문이 있다. 양순임,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한국어 교육》 18권 3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7년)

欢迎/huānyíng/[huā níng]	文玩/wénwán/[wó nán]
君王/jūnwáng/[jū nuáng]	贪污/tānwū/[tā nū]
参与/cānyù/[cā nǚ]	半月/bànyuè/[bà nüè]

3-2 자음접변

자음접변이란 종성 자음에 초성 자음이 이어질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닮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 혹은 양쪽이 서로 닮아 두 소리 모두가 바뀌기는 음운변동이다.

한국어는 음절말 자음은 7개나 되지만 중국어에는 비음 자음 /-n/과 /-ŋ/ 밖에 없고, 또 ‘ㅇ/ŋ/’는 한국어에서 초성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한국어의 자음 접변과 비교할 수 있는 중국어 속의 자음은 /-n/ 뿐이다.

초성 자음 19개와 종성 자음 7개의 연접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결합의 제약을 요약할 수 있다.²¹⁾

- (ㄱ) ‘ㄴ’와 ‘ㄹ’은 그 차례가 어떻든 이어나지 못한다.
- (ㄴ) 첫소리 ‘ㄹ’은 ‘ㄹ’ 이외의 다른 끝소리에는 이어나지 못한다.
- (ㄷ) 끝소리 ‘ㄱ’ ‘ㄷ’ ‘ㅂ’은 ‘ㄴ’ ‘ㄹ’에 앞설 수 없다.
- (ㄹ) /ㅇ/는 어떠한 끝소리에도 이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약을 받는 자음이 연접되면 이 중 하나가 연접될 수 있는 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2-1 ‘ㄹ’의 순행 유음화

아래의 예와 같이 종성 /ㄹ/ 뒤의 초성 /ㄴ/이 앞의 /ㄹ/에 동화된 것이므로 이를 순행적 유음화(流音化;lateralization)라 할 수 있다.

찰나[찰라]	실내[실래]	월남[월람]
칼날[칼랄]	설날[설랄]	달님[달림]

21) 허웅, 《국어음운학》(샘문화사,1985년 초판, 2001년 중판) pp.269.

위와 같은 자음접변 현상은 한국어에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중국어에는 음절말 종성 /ㄹ/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이런 규칙을 터득하여 바르게 발음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국어 화자의 중국어 학습에 음운 전이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음운변동이다.

3-2-2 ‘ㄹ’의 역행 유음화

아래 예는 앞 음절의 종성 /ㄹ/은 뒤 음절의 초성 /ㄹ/에 동화된 것이므로 이를 역행적 유음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주로 한자어이면서 두 음절이 모두 의존형일 때 나타난다.

신라[실라]	진리[질리]	한류[할류]
Finland[필란드]	online[올라인]	Henly[헬리]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의 이러한 /ㄹ/의 역행 유음화를 중국어 학습에 전이시켜 아래의 예와 같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

辛 辣/xīnlà/[xillà]	新罗/xīnlúo/[xilluó]
辛劳/xīnláo/[xilláo]	真理/zhēnlǐ/[zhēllǐ]
韩流/hánliú/[hállíu]	新郎/xīnláng/[xilláng]
展览/zhǎnlǎn/[zhállǎn]	扳拉/bānlā/[bállā]

3-2-3 ‘ㄹ’의 비음화

아래의 예는 뒤 음절 초성 ‘ㄹ’이 앞 음절의 종성 ‘ㄹ’에 동화되어 비음화한 경우이다. 이들은 종성 ‘ㄹ’과 초성 ‘ㄹ’을 경계로 앞이나 뒤의 말 중 하나가 자립형태소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앞 음절의 ‘ㄹ’이 유음화하여 ‘ㄹ’이 되지 않고 뒤 음절의 ‘ㄹ’이 ‘ㄹ’에 동화되어 비음화한다.

신라면[신나면]	라면류[라면뉴]	음운론[음운논]
다윈론[다윈논]	생산량[생산냥]	장안로[장안노]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의 위와 같은 /ㄹ/의 비음화를 중국어 학습에 전이하여 중간언어의 음운을 형성하게 된다.

辛拉面/xīnlāmian/[xīnnāmian]
拉面类/lāmianlèi/[lamiànnèi/
音韵论/yīnyùnlùn/[yīnyùnnùn]
多元论/duōyuánlùn/[duōyuánnùn/
生产量/shēngchǎnliàng/[shēngchǎnniàng]
长安路/cháng'ānlù/[cháng'ānnù]

아래 예와 같이 뒤 음절 초성 'ㄹ'은 앞 음절의 종성 'ㄴ'에만 동화되어 비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앞 음절의 비음 종성 'ㄹ'과 'ㅇ'에도 동화되어 비음화하게 된다.

감로[감노] 삼라[삼나] 침략[침낙]
양로[양노] 동력[동녁] 장력[장녁]

중국어에는 'ㄹ/m/' 종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가 이를 전이시켜 발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ㅇ/ŋ/' 종성에 의해 일어난 'ㄹ/l/'의 비음화 현상을 중국어에 전이시켜 오류를 일으키는 예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养老/yǎnglǎo/[yǎngnǎo] 公里/gōnglǐ/[gōngnǐ]
动力/dònglì/[dòngnì] 张力/zhānglì/[zhāngnì]
冰冷/bīnglěng/[bīngněng] 兵乱/bīngluàn/[bīngnuàn]
上梁/shàngliáng/[shàngniáng] 长老/zhǎnglǎo/[zhǎngnǎo]

3-2-4 중국어 'r/z/'의 발음 오류로 인한 유음화 및 비음화

중국어의 권설 성모 'zh/tʂ/' 'ch/tʂ' 'sh/ʂ/' 'r/z/'는 한국어에 유사한 음소조차도 없기 때문에 많은 한국어 화자가 학습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반대로 한국어의 전이에서 비롯된 오류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권설 유성 마찰 성모 'r/z/'는 많은 한국어 화자가 이 음소와는 완전히 무관한 유음 /l/로 발음하는 오류를 통상적으로 범하게 된다. 이는 이

발음을 표시하는 한어병음방안의 ‘r’을 영어의 ‘r’과 동일한 음으로 착각하거나 한국어의 유음 ‘ㄹ’이 설탄음 /r/과 설측음 /l/로 실현되는 데서 잘못 전이된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운미가 ‘-n’인 음절 뒤에 성모가 ‘r/ㄹ’인 음절이 연결될 때 /-n/은 ‘r/ㄹ’에 동화되어 아래 예와 같이 권설 비음 /-ŋ/으로 변하게 된다.

(A) /-n/+ /ㄹ/의 음운변동	
干扰/gānrǎo/[-ŋㄹ-]	安然/ānrán/[-ŋㄹ-]
转让/zhuǎnràng/[-ŋㄹ-]	暗弱/ànruò/[-ŋㄹ-]

한국어 화자는 ‘r/ㄹ’을 유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앞 음절의 운미 /-n/이 유음화하거나 ‘r/ㄹ’이 ‘n’으로 동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오류는 ‘沾染/zhānrǎn/’ ‘鲜肉/zhǎnròu/’ ‘缠扰/chánrǎo/’ ‘孱弱/chánruò/’ ‘禅让/shànràng/’ ‘善弱/shànruò/’ ‘苒荏/rǎnrěn/’ ‘忍让/rěnràng/’과 같이 첫음절의 권설 성모를 바르게 발음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운미 /-n/이 ‘r/ㄹ’에 동화되어 ‘-ŋ’으로 발음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부터도 ‘-n/’ 다음 ‘r/ㄹ’의 발음 오류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r/ㄹ’을 /l/로 발음하게 됨과 동시에 한국어의 /-n/의 역행적 유음화 혹은 순행적 유음화를 전이시킨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安然/ānrán/[allán]	[ānnán]
天壤/tiānrǎng/[tiānnǎng]	[tiállǎng]
谦让/qiānràng/[qiānnàng]	
转让/zhuǎnràng/[zhuǎnnàng]	
干扰/gānrǎo/[gǎllǎo]	
烦扰/fánrǎo/[fánnǎo]	
困扰/kùnrǎo/[kùnnǎo]	[kùllǎo]
猿人/yuánrén/[yuállén]	
本人/běnrén/[běnnén]	[běllén]
传人/chuánrén/[chuállén]	
频仍/pínréng/[pinnéng]	

兼容/jiānróng/[jiānnóng][jiǎllóng]
 侵入/qīnrù/[qīllù]
 引入/yǐnrù/[yīnnù]
 溫軟/wēnrúan/[wēnnuán]
 浸潤/jìnrùn/[jīllùn]
 纖弱/xiānrùo/[xiǎlluò]
 暗弱/ànrùo/[ànnuò]

3-2-5 ‘-ㄱ’ ‘-ㄷ’ ‘-ㅂ’의 비음화

한국어에서 아래 예와 같이 앞 음절의 종성 자음 ‘-ㄱ’ ‘-ㄷ’ ‘-ㅂ’은 뒤 음절의 초성 비음 자음에 동화되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ㅇ’ ‘-ㄴ’ ‘-ㄹ’으로 동화하게 된다.

국난[궁난]	곡물[궁물]	먹는다[멍는다]
닫는다[단는다]	만물[만물]	받는다[반는다]
감문[감문]	답농[답농]	밥먹다[밤먹다]

고대 중국어에 있던 입성 운미 /-p/ /-t/ /-k/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모두 소실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의 ‘-ㄱ’ ‘-ㄷ’ ‘-ㅂ’의 비음화가 중국어 학습에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다.

3-3 두음법칙

한국어에서 특정한 음소가 단어의 첫음절에 위치할 때 자기 음가로 발음되지 않고 다른 음가로 바뀌거나 탈락하는 현상을 두음법칙이라 하는데, 이에는 ‘ㄹ’ 두음법칙과 ‘ㄴ’ 두음법칙이 있다.

한자어의 첫음절에 ‘ㄹ’ 혹은 ‘ㄴ’ 선행모음 앞의 초성 ‘ㄹ’은 탈락하며, ‘ㄴ’ 혹은 ‘ㄴ’ 선행모음 이 외의 모음 앞의 초성 ‘ㄹ’은 ‘ㄴ’으로 교체되고, ‘ㄴ’ 혹은 ‘ㄴ’ 선행모음 앞의 초성 ‘ㄴ’은 탈락한다.

流水/liúshuǐ/(유수)	: 下流/xiàliú/(하류)
老人/lǎo-rén/(노인)	: 長老/zhǎnglǎo(장로)
乐园/lèyuán(낙원)	: 快乐/kuàilè/(쾌락)

女人/nǚrén/(여인) : 男女/nánnǚ/(남여)
 匿名/nímíng/(익명) : 隱匿/yīnnì/(은닉)

위의 예와 같이 한국어 속 한자어에 적용되는 두음법칙은 중국어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낱말의 첫음절이 아니면서도 ‘ㄹ’ 선행모음 앞에서 ‘ㄱ’이 탈락한 한자어도 있지만 이들 모두 중국어에서는 음운변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罗列/luóliè/(나열)	队列/duìliè/(대열)
分裂/fēnliè/(분열)	陈列/chénlìè/(진열)
比率/bǐlǜ/(비율)	倍率/bèilǜ/(배율)
自律/zìlǜ/(자율)	旋律/xuánlǜ/(선율)
韵律/yùnlǜ/(운율)	失恋/shīliàn/(실연)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무척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래 예와 같이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음을 중국어 발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일어나는 현상이다.

龙年/lóngnián/[yóngnián][lióngnián][nóngnián]
 龙灯/lóngdēng/[yóngdēng][lióngdēng][nóngdēng]
 笼统/lǒngtǒng/[yǒngtǒng][liǒngtǒng][nǒngtǒng]
 聋哑/lóngyǎ/[nóngyǎ]
 弄错/nòngcuò/[lòngcuò]
 嘲弄/cháonòng/[cháolòng]
 戏弄/xìnòng/[xìlòng]

유음(流音; liquid sound)은 구강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모음에 가까운 비전형적인 유성 자음이어서 음운변동에서도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어두의 초성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알타이 계통 언어의 공통적인 음운 특질로 인정되고 있으나, 외래어의 경우 두음법칙이 적용될 환경이 있어도 아래의 예와 같이 그대로 발음하게 된다.²²⁾

22) 양순임, 《말소리》(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p.212.

리그, 리듬, 리메이크, 리모델링
라면, 라이더, 룡린, 로그인, 로봇, 레슬링, 레저

유음 ‘ㄹ’은 음절의 초성일 때는 탄설음(彈舌音; flap) ‘ㄹ/r/’로 발음되고, 종성일 때는 설측음(舌側音; lateral) ‘ㄹ/l/’로 발음 된다. 따라서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중국어에는 탄설음이 없기 때문에 두 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초성의 ‘ㄹ’을 설측음 ‘ㄹ[l]’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²³⁾, 반대로 한국인은 모든 중국어의 초성 설측음 /l/을 탄설음 [r]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라면→: 한국어 화자:[ramjən] 중국어 화자: [lamjən]
람다→: 한국어 화자:[ramda] 중국어 화자: [lamda]
라틴→: 한국어 화자:[ratin] 중국어 화자: [latin]
拉面→: 중국어 화자:[lāmian] 한국어 화자: [rāmian]
拉姆达→: 중국어 화자:[lāmüdá] 한국어 화자: [rāmüdá]
拉丁→: 중국어 화자:[lādīng] 한국어 화자: [rādīng]

4. 노력 경제의 음운변동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어나는 음운변동은 동화, 축약, 생략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거의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언어에서든 동화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음운변동이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력 경제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동화해서 발음할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상대방은 알아듣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동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어나는 동화에는 구개음화(palatalization), 모음조화(vowel harmony), ‘ㄴ’불규칙 활용, ‘ㄷ’불규

23) 신호철,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003년 6월) pp.260~263.

칙 활용, ‘ㅣ’역행동화, 자음 위치 동화 등이 있다. 이 중 같은 음운 조건이 형성되거나 상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어의 음운변동은 구개음화와 자음 위치동화 등이다.

4-1 구개음화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은 다음 예와 같이 치경과열음 ‘ㄷ’ ‘ㅌ’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에서 경구개과찰음 ‘ㄷ’ /tc/ ‘ㄷ’ /tc^h/로 변동하게 된다.

굳이[구지] 굳히다[구치다] 받이[바치] 끝이다[끄치다]

위와 같은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은 중국어에 같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의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 반대로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i/ 모음에 선행되는 구개음 /tc/ /tc^h/ /c/가 있기 때문에 발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ㄷ’ ‘ㅌ’ 이외의 치경음 ‘ㅅ/s/’ ‘ㅆ/sʔ/’ ‘ㄴ/n/’ ‘ㄹ/r/’도 /i/ 및 /j/ 앞에서 구개음화하여 /e/ /eʔ/ /ɲ/ /ʎ/가 된다. 구개음 /e/ /eʔ/ /ɲ/ /ʎ/는 치경음 /s/ /sʔ/ /n/ /r/의 변이음으로서 이음규칙에 해당하는 음운 변화이다. 이 중 ‘ㄴ’은 /i/ 및 /j/ 앞에서 구개음화하여 치경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뀐 후 어두에서는 ‘니/ni/’ ‘냐/nja/’ ‘녀/njə/’ ‘뇨/njo/’ ‘뉴/nju/’의 /ɲ/가 탈락하여 아래와 예와 같이 ‘이/i/’ ‘야/ja/’ ‘여/jə/’ ‘요/jo/’ ‘유/ju/’가 되었다.²⁴⁾ 따라서 한국어의 어두에는 ‘ㄴ’과 /i/ 및 /j/와 결합한 음절이 거의 없는 반면 중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尼姑/nígū/니고[이고]	酿造/niàngzào/양조[양조]
女工/nǚgōng/녀공[여공]	尿素/niàosù/뇨소[요소]
纽带/niǔdài/뉴대[유대]	

반면 중국어에서는 /k/ /k^h/ /x/와 /ts/ /ts^h/ /s/ 뒤에 /i/ /y/ 모음이

24) 양순임, 《말소리》(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pp.254~256 참조.

이어질 때 통시적으로 이들 음가 자체가 구개음화하여 /tɕ/ /tɕʰ/ /ç/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새로 추가된 음소가 되었다.

4-2 자음 위치 동화

한국어에서는 아래 예와 같이 치경음(‘ㄷ’ ‘ㄴ’)→순음(‘ㅁ’ ‘ㅂ’)→연구개음(‘ㄱ’) 자음이 차례로 종성-초성으로 연결되면 종성 자음의 조음 위치는 초성 자음의 조음 위치로 변동하게 된다.²⁵⁾

- 치경음(‘ㄷ’ ‘ㄴ’)→순음(‘ㅁ’ ‘ㅂ’)
- 든보다[듭보다] 꽃밭[꼇밭→뽇밭]
- 신발[심발] 준비[쭌비]
- 신문[심문] 눈물[눔물]
- 치경음(‘ㄷ’ ‘ㄴ’)→연구개음(‘ㄱ’ ‘ㅇ’)
- 듣고[득꼬] 손가락[숙까락]
- 한국[항국] 손가락[송까락]
- 순음(‘ㅁ’ ‘ㅂ’)→연구개음(‘ㄱ’)
- 밥그릇[박끄륜]입가심[익가심]
- 감기[강기]담그다[당그다]

중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지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종성은 /-n/과 /-ŋ/ 밖에 없다. /-n/은 뒤에 연결되는 초성 자음의 조음 위치에 다음 예와 같이 동화된다.

- 치경음/n/→순음/m/
- 金镑/jīnbàng/[jimbàng]
- 安排/ānpái/[āmpái]
- 人民/rénmín/[rémmín]
- 치경음/n/→연구개음/ŋ/
- 韩国/Hánguó/[Hāŋguó]
- 辛苦/xīnkǔ/[xīŋkǔ]
- 很好/hěnhǎo/[hěŋhǎo]

25) 양순임, 《말소리》(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pp.238~240 참조.
 허웅, 《국어음운학》(샘문화사, 1985년 초판, 2001년 중판) pp.276~277 참조.

- 치경음/n/→경구개음/ŋ/
软件/ruǎnjiàn/[ruǎnjiàn]
感情/gǎnqíng/[gǎnqíng]
感谢/gǎnxiè/[gǎnxiè]
- 치경음/n/→권설음/ŋ/
班长/bānzhǎng/[bānzhǎng]
半场/bànchǎng/[bànchǎng]
本身/běnnshēn/[běnnshēn]
信任/xìnrèn/[xìnrèn]

자음 위치 동화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임의적 변동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화된 형태로 표기하지도 않는다. 중국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여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래의 발음대로 말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한국어의 음절은 전형적인 음절말 장애음 유표적인 CVC체계이고, 중국어의 음절은 음절말 장애음을 허용하지 않는 개음절이지만 음절말에 향음 /-n/과 /-ŋ/이 올 수 있는 체계이다. 초분절 요소인 성조의 유무를 제외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소 결합 제약에 있다.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이 ‘ㅂ/p/’ ‘ㄷ/t/’ ‘ㄱ/k/’ ‘ㅁ/m/’ ‘ㄴ/n/’ ‘ㅇ/ŋ/’ ‘ㄹ/l/’의 7개인데 반해 중국어는 /-n/과 /-ŋ/의 두 개 뿐이다. 이러한 음절말 음소 결합 제약의 차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변동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어의 31종의 음운변동과 중국어의 18종 음운변동 중, 한국어의 음운변동이 중국어의 음운조건에도 부합하여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 학습에 전이시킬 소지가 많은 변동 규칙으로는 연음, 자음접변 중의 ‘ㄷ’의 순행 유음화, ‘ㄴ’의 역행 유음화, ‘ㄹ’의 비음화, 중국어 ‘r/z/’의 발음 오류로 인한 유음화 및 비음화, ‘-ㄱ’ ‘-ㄷ’ ‘-ㅂ’의 비음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자음 위치 동화 등으로 이들은 모두 음절말 자음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한국어에서 종성 자음 음절과 초성이 없는 음절이 결합할 때는 연음 되지만 초성 자음이 있는 음절이 연결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음운변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종성 자음이 /-n/과 /-ŋ/ 밖에 없으므로 뒤에 이어지는 음절에 따라 일으키는 음운변동은 아주 미미하다.

종성 자음 음절과 초성이 없는 음절이 결합될 때 한국어에서는 CVC+V(C)가 CV+CV(C)로 조절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n/ /-ŋ/ 종성 음절 뒤에 영성모 음절이 결합되어도 영성모의 첫 모음을 반자음으로 변화시키거나 [ɣ-] [ʔ-] [ŋ-] 등의 초성을 추가하여 단음절어적 특징을 유지하고 연음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화자는 종성 /-n/을 영성모의 초성으로 연음하는 전이현상의 오류가 나타난다.

/-n/ /-ŋ/ 종성 음절 뒤에 성모가 있는 음절이 연결 될 때, 중국어에서는 /-n/이 뒤 음절의 자음이 /-n/과의 조음 위치 동화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한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음운변동을 일으킨다.

‘ㄹ’의 순행 유음화는 중국어 학습에 전이될 소지가 없는 음운변동이고, ‘ㄴ’의 역행 유음화와 ‘ㄹ’의 비음화 및 ‘-ㄱ’ ‘-ㄷ’ ‘-ㅂ’의 비음화는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 학습에 전이시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운변동이다.

한국어 화자가 ‘r/z/’을 유음으로 잘못 발음하여 앞 음절의 어미 /-n/이 유음화하거나 ‘r/z/’이 ‘n’으로 동화되기도 하는 특이한 현상도 나타난다.

두음법칙은 중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음운변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이시키는 예가 있다.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은 중국어에 같은 조건의 음운현상이 없으므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 ‘-ㄴ’이 /i/ 및 /j/ 앞에서 치경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뀐 후 어두의 /ɲ/가 탈락하여 결국 초성이 없는 ‘이/i/’ ‘야ja/’ ‘여/jə/’ ‘요/jo/’ ‘유/ju/’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두에는 ‘ㄴ’과 /i/ 및 /j/와 결합한 음절이 거의 없는 반면 중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어에서는 /k/ /kʰ/ /x/와 /ts/ /tsʰ/ /s/ 뒤에 /i/ /y/ 모음이 이어질 때 통시적으로 이들 음가 자체가 구개음화하여 /tɕ/ /tɕʰ/ /ç/로 바뀌어 새로 추가된 음소가 되었다.

한국어에서는 치경음(‘ㄷ’ ‘ㄴ’)→순음(‘ㅂ’ ‘ㅁ’)→연구개음(‘ㄱ’)의 순

으로 자음이 차례로 종성-초성으로 연결되면 종성 자음의 조음 위치는 초성 자음의 조음 위치로 변동하게 된다. 중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지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종성은 /-n/과 /-ŋ/ 밖에 없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변동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원래의 발음대로 말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선규, 《중국어언어학》(민음사,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49, 1990년)
- 송지현, <한국인의 중국어 발음상의 문제점>-언어간섭의 복잡성을 중심으로 역양과 음절길이 분석-(《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제17호, 2001)
- 서정목, <대조분석이론에 관한 연구-음성·음운측면을 중심으로>-(《언어과학연구》 제23집, 언어과학회, 2002)
- 신호철,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003년 6월)
- 양순임,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청취 음성학적 오류 분석>-(《한국어교육》 17권 3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6)
- 양순임,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한국어 교육》 18권 3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7년)
- 양순임, 《말소리》(도서출판 박이정, 2009년)
- 윤영혜, <중국어, 일본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지배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언어와 언어학》 39집,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07)
- 윤영혜, <중간언어 음운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음교육의 효과 연구-중국어 화자들의 받침발음을 중심으로>-(《한국어 교육》 19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8)
- 전상범, 《음운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천영수,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에 대하여>, (《한글 새소식》 366권, 한글학회 2003)
- 최명옥, 《국어음운론》(경기도, 태학사, 2004)
- 허 용, <한국어교육을 위한 중간 언어 음운론 기초 연구: 지배음운론적 관점에 입각한 한국어 모음현상 분석>(《언어과학연구》 제25집, 언어과학회, 2003)
- 허 용, <중간언어 음운론에서의 간접현상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한국어교육》 15권 1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004)
- 허 용,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어제·오늘》(샘문화사, 서울, 1985)
- 허 용,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샘문화사, 서울, 1984)
- 胡裕树, 《现代汉语》(上海教育出版社, 1979)
-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高等教育出版社, 2002年 增订3版)
- 李明兴, <北京话两类连读音变的特征架构分析>(《第六届全国现代语音学学术会议论文集(下)》, 2003)
- 林 焘, <北京话的连读音变>(《北京大学学报(人文科学)》, 1963年 第6期)
- 裘锡圭, 《文字学概要》(商务印书馆, 1988)
- 王理嘉, 《现代汉语》(北京, 商务印书馆, 1993)
- 王理嘉, 《音系学基础》(北京, 语文出版社, 1991)
- 王理嘉, 《北京语音实验录》(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5)
- 张 斌, 《简明现代汉语》(复旦大学出版社, 2006)
- 张秋娥, <普通话零声母的音位分析>(《殷都学刊》第二期, 1995)
- 张志公, 《现代汉语》(人民教育出版社, 1982)
- 甄晓婕, <英汉语音变异对比分析>(《宁波工程学院学报》, 20卷3期, 2008)
- 竺家宁, 《聲韻學》(國立編譯館, 臺北, 1993)
- Charles C. Fries, 《Teaching English as Foreign Language》(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Larry Selinker,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10, 1972)

William Nemser,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9(2), 1971)

Corder, S. Pit, 《Idiosyncratic Dialect and Error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9(2), 1971)

[论文摘要]

<汉语与韩语的语流音变对比研究>

韩语音变凡31种：因受音位结合制约而产生的音变有九种、为求发音便捷而产生的音变有十九种、为提高表现力而产生的音变有三种。汉语普通话音变凡十八种：不自由音变有六种、自由音变有十二种。其中变调(tone-sandhi)有七种，音段音位音变有11种。音节内部的语流音变多为受相邻或相近音素的感染而产生，一般不受语速影响，属于受环境制约的不自由音变。

根据笔者的研究，韩语音变能够与汉语普通话音变对等并适用于汉语普通话音变条件的类型非常之少，这种情况对汉语普通话教学非常不利。本论文在汉韩音变对比研究的基础上，着重讨论了以下问题：连音(lenis)；头音规则(initial law)；辅音接变(辅音同化；consonant assimilation)；‘ㄹ/’及‘ㄴ/n/’同化为流音(liquid sound)；‘ㄹ/’的鼻音化、‘-ㄱ/-k/’‘-ㄷ/-t/’‘-ㅂ/-p/’的鼻音化；舌面音化(palatalization)；辅音发音部位同化；误解普通话的‘r/z/’的音值而产生的流音化及鼻音化等等，并对在汉语普通话学习过程中产生的偏误和干扰，进行了分析和研究。

韩语母语者在普通话学习过程中，产生偏误和干扰的最基本原因在于音节末辅音数目和分布的不同。虽然韩语的音节结构与普通话一样属于CVC模式，但是普通话的音节末辅音只有/-n/和/-ŋ/两个，而韩语的终声辅音有‘ㅂ/p/’‘ㄷ/t/’‘ㄱ/k/’‘ㅇ/m/’‘ㄴ/n/’‘ㅇ/ŋ/’‘ㄹ/l/’七个，除‘ㅇ/ŋ/’以外六个终声辅音都能转移到零声母的头音，把CVC+V(C)模式调整为CV+CV(C)模式，而普通话具有单音节语言的特征，/-n/和/-ŋ/两个韵尾都不能转移到后接零声母的头音。韩语母语者按照自己的语言规律，往往将普通话的韵尾/-n/连音到后接零声母的头音，因而产生发音偏误。

韩语的七个终声辅音在后接初声辅音的音节而冲突两个辅音时, 必须进行调整, 而在普通话中只有由韵尾/-n/引起的少数同化。韩语母语者经常将韩语的终声‘ㄴ/n/’引起的各种变音, 直接应用到普通话的发音中, 进而发生发音偏误。

辅音发音部位同化亦存在同样的情形, 辅音发音部位同化是为发音方便而产生的自由音变。在韩语里呈现出的复杂语音变化, 在汉语普通话中却呈现得比较单纯, 如果过分强调同化可能会导致无法沟通, 所以, 在汉语普通话语音教学过程中, 教学重点应该放在非音变语音教学上。

总之, 本研究认为, 汉语与韩语的语流音变规律, 是汉语普通话语音教学之关键, 只有了解并掌握了这些规律, 方能有效地预防普通话学习过程中容易发生的语音偏误并提高普通话的教学效率。

[논문요약]

한국어에는 음소 결합 제약에 의한 음운변동 9종, 노력 경제의 음운변동 19종,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음운변동이 3종으로 모두 31종의 음운변동이 있고, 중국어에는 결정적 변동 6종, 수의적 변동이 12종으로 모두 18종이 있고, 이들 중 성조의 변동이 7종이고, 분절음의 변동이 11종이다.

한국어의 음운변동 중 중국어에도 같은 조건이 형성될 수 있어 중간언어 음운을 형성할 수 있는 변동 규칙은 무척 제한적이며, 이 논문에서는 연음, 두음 법칙, 자음접변, ‘ㄹ’과 ‘ㄴ’의 유음화, ‘ㄹ’의 비음화, 그리고 특이한 현상으로 중국어 ‘r/ㄹ’ 음가의 오류에 기인한 유음화 및 비음화, ‘ㄱ’ ‘ㄷ’ ‘ㄴ’의 비음화, 구개음화, 자음 위치 동화 등에 걸쳐 중국어 학습 상에 나타나는 전이 혹은 간섭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분절음에 대해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오류 원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가 모두 CVC 체계이지만, 종성 자음이 중국어에는 /n/과 /ŋ/의 두 개 뿐인데 반해, 한국어는 ‘ㅂ/p/’ ‘ㄷ/t/’ ‘ㄱ/k/’ ‘ㅁ/m/’ ‘ㄴ/n/’ ‘ㅇ/ŋ/’ ‘ㄹ/l/’의 7개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ㅇ/ŋ/’을 제외한 6개의 자음이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종성 자음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CVC+V(C)를 CV+CV(C)의 형식으로 조절하지만, 중국어는 단음절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연음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화자의 중국어 학습에서 이를 연음하는 오류가 발생하며, 또 뒤 음절의 초성 자음과 연결될 때는 어떤 형태이든 자음끼리의 충돌로 인한 변동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종성 자음 /-n/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음 위치 동화 현상 정도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의 종성 ‘ㄴ/n/’이 일으키는 각종 변동을 중국어에 전이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자음 위치 동화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한국어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중국어에서는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 종성 ‘ㄴ/ㄹ’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각종 변동을 중국어에 전이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자음 위치 동화는 노력 경제의 수의적 변동이다. 지나친 동화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래의 발음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어의 정확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변동의 상호 대비적인 이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음운변동 대조, 음절구조 비교, 중국어 오류분석, 음소 결합 제약, 연음, 두음법칙, 자음접변, ‘ㄹ’의 유음화, ‘ㄹ’의 비음화, 구개음화, 자음 위치 동화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30·中國學 第36輯(2010.8)

<빈 페이지>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진광호*

<목 차>

1. 서 언
2. Tandem 학습법의 소개
3. 도입의 필요성
4. 운영과 해결 과제
5. 결 언

1. 서 언

지금 국내에는 많은 중국 유학생이 들어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도 근 500여명¹⁾의 중국 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더 많은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의 중국어 학습자 역시 수업 시간 외에 중국어 화자와의 많은 대화를 통한 학습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어 전공 학생들이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여 여러 차례 중국인 유학생을 친구로 연결해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의 관계가 오래 지속 되지 못하였다. 필자는 그 원인은 연결만 시켜주었지 사후 관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였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어학부 교수

1) 필자 재직교의 2010.04.13일자 통계에 의하면, 중국 학생 학부 448명 대학원 92명, 대만 학생 학부 3명 대학원 2명으로 총 545명의 중국어 모국어 화자가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

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접목시켜 상호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독일의 보쿰대학에서 Tandem 학습법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유럽에 보급하여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에 필자의 재직 학교에 이를 도입하였다.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뜻을 같이 하는 교수와 협력하여 교내에 Tandem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2009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3학기 째 실험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유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베트남, 태국, 러시아, 터키, 일본) 학생들도²⁾ 대상으로 하여 점차 확대시켜가고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Tandem 학습법을 중국어 교육학계에 널리 알리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분들의 연구동참을 유도하여 Tandem 학습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Tandem 학습법의 소개

1) 정의

Tandem 학습법은 국내에는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³⁾, 유럽(특히 독일)에서는 1980년대 독일에서 개발되어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방법 중의 하나이다. Tandem이란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래는 ‘둘이 타는 자전거’를 뜻하거나, ‘둘이 서로 협력하여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다. 둘이 호흡을 맞추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명의 외국어 학습자가 한 조를 이루어 50:50을 기본 원칙으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를 파트너에게 가르쳐 주는 외국어 학습방법을 Tandem 학습법이라 칭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한다.⁴⁾

2) 이 학과들은 태국어 7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언어 구사자가 10명 이상 재학하고 있다.

3) 필자가 아는 국내의 Tandem 학습법 관련 연구 논문은 필자 재직 학교의 하수권(독일어과, 1999 외 몇 편), 송향근(언어학과, 2004) 두 교수가 있다.

- 두 명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학습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학습목표어로 배우기 원해야 한다.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도우며 학습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자율 학습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의 경우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1:1로 한 조를 형성해야 한다.

2) 학습의 논리적 근거

Tandem 학습법은 교수, 학생, 강의실 3자의 조합에 의한 기존의 일반적인 학습법을 전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강의실 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학습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습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하수권은 '상호 문화교류 학습', '자율학습', '학습과정의 개별화', '실제의 의사소통 체험'의 네 가지를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였다.⁵⁾ 이를 정리하고 필자의 생각을 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호 문화교류 학습

상호 문화교류 학습이란 독일어로는 'Interkulturelles Lernen'이라고 한다고 한다. 이는 독일어 교수법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외국어교육에서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 문화적 내용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고 전달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이한 문화권의 두 학습자가 문화적 차이를

4) 하수권 <한국에서의 상호자율학습 방법을 이용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가능성 연구> 외대논총 제19집 2호 93쪽 1999.2.

5) 위의 논문 94~99쪽 참조.

갖고 있는 학습주제를 선택하여, 이에 대해 목표어로 문화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언어학습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의 주제는 단순한 언어의 구사가 아니라 가능한 상호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크고 비교가 용이하고 흥미로운 것을 선택한다.

(2) 자율 학습

타율적인 사교육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 학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 학습 능력의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자율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하던 통제와 관리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andem 학습법은 두 명의 외국어 학습자가 50:50의 비율로 교사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학습자의 역할과 동시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강의실 안과 밖에서 모두 학습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교수, 학생, 강의실 이 3자의 조합에 의해 수행되던 학습이 학생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 학습과정의 개별화

많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목표와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각각에 맞는 학습과정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목표지향을 외국어 교육공학에서는 '학습과정의 개별화'라 칭한다고 한다. 학습과정의 개별화를 위해서는 집단 수업으로는 불가능하므로 Tandem 학습법을 통해 개별화, 조별화 작업을 하여 각 조가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가 있다.

(4) 실제의 의사소통 체험

학습 목표어의 모국어 화자와의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 교재나 여러 매체를 통한 정적인 학습보다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동적인 외

국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의문 사항이 있거나 오류 발생 시에 즉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습과 활용의 기회가 많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3) 특징

Tandem 학습법이 여타 다른 외국어 학습법과 구별되는 특징과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학습자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외국어의 모국어 화자 한 명과 학습 파트너로 짝을 이루어 면대면(face to face)으로 학습 목표로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한다. 예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이 조를 이루어 Tandem 학습을 하면, 중국어 학습 시간에는 한국인이 학생이 된다. 이 때 중국인은 한국인 학생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교사의 역할을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외국어 수업에서 ‘자기 주도형 자율학습’이 실현될 수 있다.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가 교사의 교수활동은 최소화되고,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활동이 수업의 주가 된다.

넷째, 획일화된 교재의 선택 없이 학습자가 학습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상황에 맞는 학습 자료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교수가 주제를 주고 주제에 맞추어 학습자가 학습 자료와 내용을 준비하는 형태와 주제와 학습 자료 모두를 학습자가 결정 준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다섯째, 외국어 수업의 목표가 단순히 언어 학습의 차원을 넘어 이문화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까지 확대 시킬 수 있다. 언어 소통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원칙에 의거 상호 이문화의 비교를 통한 언어 학습을 이룰 수 있다.

여섯째,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어의 모국

어 화자와 사귀게 된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자신의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를 전수하게 되므로,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간외교 차원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 파트너를 이룰 때 동성 간의 파트너가 효율적인지 이성 간의 파트너가 좋은 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일곱째, 강의실 이외의 장소와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 친구이며 학습 파트너로서 시간과 장소만 합의해 정해지면 개별적 만남을 통해 얼마든지 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하는 E-메일이나 채팅, 화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이를 E-Tandem이라고 한다. 전화상으로도 수업이 가능하다. 이들을 모두 원거리 Tandem이라고도 한다.

3. 도입의 필요성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로 모국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강의실 외국어 수업에서는 비록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거나, 심지어 현지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도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인 교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많은 학교들이 중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모든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의 절대 다수가 중국 유학생이라 한다 (전체의 70.5%)⁶⁾. 중국의 여러 대학에도 한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

6)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09년도 교육개발원 교육정책센터 통계)

구분	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몽골	기타
유학생 수	76,619	3,939	53,989	1,907	1,275	1,791	2,751	10,967
비율 (%)	100.0	5.1	70.5	2.5	1.7	2.3	3.6	14.3

생들이 상당수 재학 중이다⁷⁾. 한국에서의 중국인 학생, 중국에서의 한국인 학생은 서로의 목표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좋은 가용 조건이 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강의실에서의 외국어 수업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수업에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조건을 외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국내의 중국어 학습, 나아가 모든 외국어 학습에 도입하고 보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잘 형성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이를 활용한 Tandem 학습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교내의 게시판에 개별적으로 “OO외국어 Tandem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의 다양한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대학과의 교환제도 활성화, 어학연수의 다양화, 방학 중 중국어 캠프 등으로 대학에서 이들 유학생을 활용하는 새로운 외국어 학습법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능력 향상과 문

주 : 2009. 4. 1일 기준임.

7) 주요 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2008년도 교육개발원 교육정책센터 통계)

구분	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2007	217,959	59,022	42,269	16,591	19,056	18,300	12,795	8,707	14,400	26,819
비율	100	27.1	19.4	7.6	8.7	8.4	5.9	4	6.6	12.3
2008	216,867	62,392	57,504	16,774	17,274	17,000	10,792	10,183	1,923	23,025
비율	100	28.8	26.5	7.7	8	7.8	5	4.7	0.9	10.6

주 : 2008. 4. 1일 기준임.

자료출처 :

<http://edpolicy.kedi.re.kr/EdInfo/Edpolicy/EdpStatLst.php?LstCary=B00806&ContCate=B008060903&Classify=Stat>

화적 이질감 해소

-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 중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중국어능력의 극대화
- 강의실 안과 밖에서 더 많은 의사소통 기회의 제공 (파트너십)
-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자기가 학습할 내용을 자신이 준비하므로 학습의욕의 고취와 자율학습 능력 제고
- 중국어 학습을 통한 국제민간교류
- 교수가 강의하는 전통적 강의 방식의 대체
- 한국식 Tandem 학습법의 개발

유럽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동양의 문화, 정서, 교육환경, 학습자의 개성 등에 적합한 방식과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 운영과 해결 과제

1) 운영

현재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Tandem 학습법을 중국어-한국어Tandem 학습과 다국어 Tandem 학습으로 나누어 2학년 전공선택 교과과정에 배정하였고, 외국 학생은 한국어 교육원에서 각자의 전공에 따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1,2학기에 걸쳐 매학기 주당 2시간에 2학점 체제로 운영하며, 특성상 동시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4~50명 수용의 교실에서 약 10개조 20명을 기준으로 하나의 반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어학부의 경우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많은 관계로 두 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 1학기에는 한반 당 24명씩 총 48명이 수강하였다.

특히 다국어 Tandem은 해당 외국어의 유학생 수가 중국만큼 많지 않은 관계로 독립적으로 개설하기는 하지만 과에 따라 학생 수의 편차가 있는 편이다. 2010년 1학기부터 일본어학부에서도 아직 정식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필자 재직교의 Tandem 학습 교과목 개설 현황

학과(부)	교과목명	학기	학점/시간
중국어학부(주간)	중국어-한국어Tandem 학습 I (01,02 분반)	1	2/2
	중국어-한국어Tandem 학습 II (01,02 분반)	2	
러시아어과	다국어Tandem 학습 I	1	
	다국어Tandem 학습 II	2	
EU지역통상학과	다국어Tandem 학습 I	1	
	다국어Tandem 학습 II	2	
태국어과	다국어Tandem 학습 I	1	
	다국어Tandem 학습 II	2	
베트남어과	다국어Tandem 학습 I	1	
	다국어Tandem 학습 II	2	
중앙아시아어과	다국어Tandem 학습 I	1	
	다국어Tandem 학습 II	2	

수강신청은 개강 전후에 받아 학기 초에 한 학기 학습할 주제를 정해 주거나 한 주전에 다음 주의 주제를 정해준다. 학생들은 스스로 다음 주 자신이 학습할 내용을 관련 서적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해 와 모국어 화자 파트너에게 질문하고 토론한다.

중국어-한국어 Tandem과 다국어 Tandem은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갖고 독립적이고 개성 있게 운영하며, 2주에 한번 정도 담당교수들이 모여 각자의 운영사례에 대한 설명과 경험, 학생의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1) 운영 원칙

Tandem학습법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의 운영원칙과

지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로 파트너를 만들어 준다. 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파트너를 결정한다.
- 1:1로 수업하므로 출석을 매우 중요시 한다. 한 사람이 결석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수업이 불가능 해진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다른 조의 양해를 얻어 2:1 Tandem을 하게 한다.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는 경우 대리출석을 권고한다.
- 가능한 목표어로 대화하며, 50:50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상호성 원칙) 이 부분은 교수의 관리가 필요하다.
- 자기 주도로 학습과제를 준비하여 서로의 토론과 오류 수정을 거쳐 매주 제출한다. (자기 주도성 원칙)
- 주제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것으로 상호 비교를 통해 대화와 문화 습득이 가능한 것을 선정하며, 또는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택한다.
- 수업의 참여도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모집 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 선발 원칙임을 공지한다.
- 현재로는 파트너 간의 수준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 학생이 대부분 2학년 이므로 외국 학생도 한국에 온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트너 간의 수준 차이의 유무가 학습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은 합리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실험과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파트너 조합이 어떠한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 개강 시 상담을 통해 학습자가 한 학기 동안의 자기 나름의 학습 전략과 설계를 하도록 한다.
-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학습 전략과 진행과정, 성취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2) 운영 방식과 내용

수업은 강의실 내와 강의실 밖의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의실 내 수업은 2시간 중 1시간은 학습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학습 전략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화 Tandem이나 발음 Tandem, 작문 Tandem, 독해 Tandem, 숙제 도와주기 등을 한다. 나머지 한 시간은 주어진 주제에 따라 각자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오류 수정을 한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준비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비교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표어 표현방식과 어휘에 대한 질의와 오류 수정이 수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강의실 밖의 수업은 체험학습으로 한 학기에 한번 2인1조로 함께 문화체험을 하게 하여 체험 결과를 작문으로 써서 제출하게 한다. 예로 작년 2학기에는 파트너와 함께 부산의 자갈치 축제에 참가해 사진과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생선이름 서로알기를 과제로 주었다. 금년 1학기는 교내 축제에 같이 참가해 한·중 대학의 축제 문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조사해 보았는데, 가능하면 강의실 밖 체험학습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강의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며, 또 Tandem 학습이 강의실이라는 정해진 학습공간을 벗어나서도 좋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설정, 과제의 선정, 관리, 감독, 조정, 평가를 담당하며, 수업에서의 교수활동은 최소화하고 있다.

2010년 1학기 중국어-한국어 Tandem에서 부과한 주별 주제이다.

주차	주 제	비 고
1	Tandem 학습 소개, 파트너 정하기, 학습전략 상담	
2	음식문화 비교하기	학습준비일지 작성해 제출
3	가족제도와 구성, 호칭 알기	이하 같음
4	쇼핑문화 비교와 관련 표현 익히기	
5	미용실 미장원에서 관련 표현 익히기	
6	교통수단과 문화의 차이 비교하기	

7	은행 이용 시 관련 표현 익히기	
8	중간고사	
9	결혼관과 연애관 비교하기	
10	병원에서의 관련 표현 익히기	
11	양국의 여행지 소개하기	
12	축제 기간에 같이 축제체험 하기	파트너와 체험활동
13	축제 문화를 비교하기	결과물 제출
14	방학 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15	기말 고사	

※ 한국인 학생은 중국에 대해 중국어로 조사해야 하며, 중국인 학생은 한국에 대해 한국어로 조사한다.

※ 학습일지와 결과물은 학습 목표어로 작성한다.

(3) 평가

Tandem 학습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평가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업의 성취도를 한두 번의 시험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으며, 두 개의 외국어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 수준의 다양성 때문에 일괄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Tandem 학습법은 결과평가보다는 과정(수행평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Karin Kleppin은 “Tandem은 평가는 유창성을, 학습은 오류수정에 무게를 둔다”⁸⁾고 하였다. 이 역시 평가의 획일화가 쉽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작 때의 수준과 끝날 때의 수준 차에 의한 성취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치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단순한 측정 시스템으로는 절대적인 평가가 어렵다. 향후 Tandem 학습법의 연구

8) 독일 보쿰 대학의 Tandem 연구소 교수. 2010.02.08 부산외대에서 열린 초청 학술 강연회의 발표 원고에서 (통번역 하수권 교수)

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식의 개발은 큰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로는 출석(30%)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각이나 결석은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하고 있다. 이에 구두시험, 학습준비 일지의 완성도, 작문과제, 수업의 성실성, 중간과 기말의 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 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비율(%)	세부사항
출석	30	지각 20분까지 -2점, 20분 이상-3점. 결석 -5점
중간고사	25	구두(발음, 표현력, 유창성, 정확성) 15점, 필기(작문) 10점
기말고사	25	
과제물	20	학습일지, 체험학습 결과물, 수업태도 등

2) 해결 과제

유럽식 Tandem은 우리 동양인에게 여러 면에서 100%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우리 문화와 실정에 맞는 우리식 Tandem 학습법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 학생은 우리 보다는 토론과 자율에 비교적 익숙한 편이고, 한국 학생은 토론 문화에 덜 익숙하며, 약간은 타율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우리식 교재나 학습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 학습법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서 보다 우리에게 맞는 학습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현재 3학기 째 Tandem 학습법을 운영해 오면서 당면한 문제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 다양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실험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흥미 유발의 과제 개발

Tandem 학습은 교수의 Teaching이 아니므로 특정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재보다는 과제 개발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을 위한 지침서나 안내서, 또는 Tandem 학습에 유용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개념의 교재는 필요할 것이다.

- 수업 방식의 개선

현재 한 시간은 자유로이 개별 탄뎀을 하고 한 시간은 주제 토론을 하는 방식은 각 조 별로 50:50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철저히 50:50의 원칙에 따라 시간을 정해 받은 한국어로만 받은 중국어로만 진행시키는 방법의 도입을 고려중이다. 또 강의실 내의 수업과 강의실 밖 수업의 접목과 조화 등도 합리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 학점 제도의 개선 여부

현행 2 학점 2시간 수업을 3학점 3시간제, 혹은 3학점 4시간제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

- 수강신청 제도의 개선

지금은 한국 학생은 개강 전에 외국 학생은 개강 후에 수강신청을 한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 학생이 귀국했다가 개강이 임박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강 첫 주는 외국 학생의 수강 미신청으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 학생에게는 방학 전에 미리 수강신청을 예약 받는 방법을 써 보았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현재는 한 주 보강으로 보충하고 있다.

- 50:50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모색

시간을 정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교대로 대화하는 방법과 한국인은 중국어로 중국인은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50:50에 도달한다면 Tandem 학습은 상당히 성공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방식의 개발

매주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학습목표, 학습내용, 도달치, 수정사항 등을 기록하게 하여 평가에 참고하고 있으나, 학습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좀 더 세분화되고 등급화 된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 중간에 파트너 교체 여부

파트너와의 호흡, 성격, 성실성 등의 이유로 학기 중간에 파트너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파트너와 호흡이 잘 맞아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009학년도 2학기에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0%는 파트너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었다.⁹⁾ 그러나 고정된 파트너와 한 학기를 지속할 경우 자칫 대화 소재의 고갈이나 긴장감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파트너를 한번 교체해보는 실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Tandem을 영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의 적절성

현재는 종합적으로 Tandem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학습자의 학습전략에 따라 영역별로 나누어 '회화 Tandem', '발음 Tandem', '작문 Tandem', '독해 Tandem'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학습전략 수립을 위한 효율적인 학생 상담 방식

한 학기 수업을 위한 학습자 개인별 학습전략의 수립은 한 학기의 설계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후 설계와 전략대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도 Tandem 학습의 성과를 가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의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5. 결 언

9) 2009년 2학기에 중국어-한국어 Tandem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상학생 40명 중 36명이 파트너 교체를 원하지 않았고 4명만이 교체를 원하였다.

Tandem 학습법은 국내의 서양언어 교육학계에는 상호자율학습, 이중언어학습 등의 명칭으로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 중국어 교육학계에서는 생소한 이름이다. 따라서 이를 알리고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상과 같이 Tandem 학습법의 소개와 도입의 필요성, 운영,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일반 학술연구 논문과 같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학술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국내 중국어 교육계에 Tandem 학습법을 소개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경험을 위주로 쓴 보고서 형식의 글이다.

지금 캠퍼스 내에 수많은 목표어 화자인 중국 유학생을 두고도 중국어 학습을 위해 따로 학원을 다녀야 하고, 연수를 가야하고, 중국인 친구를 찾아 다녀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어 전공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은 서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이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엮어줌으로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언급했듯이 Tandem 학습법은 기존의 강의실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목표어 모국어 화자와의 1:1 면대면 수업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방법을 부정하고 모든 수업을 Tandem 방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강의실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내의 외국어 교육에 적극 도입이 된다면, 외국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상대국의 문화 이해와 교류에도 큰 몫을 하리라 믿고 있다.

도입하여 실시한 지가 이제 겨우 3학기에 불과하므로 걸음마 단계로 아직도 개선하고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필자 등 몇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보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제를 공유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또 각 교육기관의 실정에 맞는 개성 있는 Tandem 학습법의 개발에 힘이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하수권, <한국에서의 상호자율학습 방법을 이용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가능성 연구>, 《외대논총》 제19집 2호. (1999)
- 하수권, <한국에서의 독일어와 한국어 학습을 위한 상호자율학습방법 활용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 독일어》 10집. (2002)
- 송향근, <Tandem 언어 학습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헬싱키대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제7호. (2004)
- 하수권,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안>, 《한국독일어교육회》 제23집. (2008)
- 민춘기, <외국어학습에서의 자율학습과 학습상담의 활용가능성>, 《독어교육》 11집. (2008)
- 하수권, <이중언어학습법의 교육과정 및 수업 적용 방안>, 《한국독일어교육회》 제25집. (2009)
- karin Kleppin, <탄뎀 학습에서의 오류 수정>, 부산외대 Tandem 교수학습연구소 주최 초청 강연회 자료집. (2010.02.08)

<中文提要>

Tandem学习法用汉语叫‘互助学习法’。本来的意思是说‘两个人一起骑的自行车’，或者说‘一起骑自行车的行为’。后来就发展成表示两个人通过互相帮助而协助谋事的意思。把这样的方法应用到外国语学习上的，就称为Tandem学习法。就是不同母语的两个人组成一个组，像两个人一起骑自行车一样，以50:50为基本原则，每个人一面当学习者，一面当教师，互相学习，互相教授。Tandem学习法起源於1980年代德国的Bochum大学。现在是在欧洲很受欢迎的一种外国语学习法。但是国内汉语教育学界很少有人知道。

现在国内的外国留学生当中，中国留学生占的比率最高，他们都要学习韩国语与韩国文化，也都很需要韩国人的帮助，韩国汉语系的学生也都要学习汉语与中国文化，因此这两国的学生都是一个通过互助自己学习目标语的很好的学习条件。中国留学生都很愿意交韩国朋友，韩国的汉语系学生也是如此。如果研究出让这两国学生能够搭配起来的教学法的话，这两国学生们就能够非常有效地达成自己的学习目的，也对外国语学习法会有很大的帮助。

本研究从这一思路出发, 要找出可以把这样的条件活用到外语学习上的具体方法。所以笔者通过这篇文章, 给国内学者介绍Tandem学习法, 而且说明Tandem学习法在国内汉语教学上采用的必要性和具体运作上要解决的问题。我很希望今後国内学者们能共同关心, 共同研究, 并为本国的外语学习者所用, 能够开发出适合韩国的韩国式Tandem学习法。

주제어 : Tandem, 자기주도형학습, 상호자율학습, 면대면, 외국어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新HSK의 이론적 토대 분석과 향후 對外漢語教學에의 영향 관계 모색

- 《國際漢語能力標準》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정윤철*

— < 목 차 > —

1. 들어가기
2. 《國際漢語能力標準》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상관성
3. 《國際漢語能力標準》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체계상의 차이
4. 《國際漢語能力標準》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등급 분류상의 상관성
5. ‘新HSK’와 향후의 對外漢語教學
6. 나가기

1. 들어가기

중국의 대외 중국어 교육의 주무 부서인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이하 ‘漢辦’)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중국어 학습자들의 중국어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목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2009년 11월부터 ‘新漢語水平考試(이하 ‘新HSK)’를 시행하고 있다. ‘新HSK’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舊HSK’와 차이를 지니는데 그 중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면 첫째, ‘新HSK’는 ‘舊HSK’에 비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新HSK’는 필기평가와 구술평가로 평가를 이원화하였다. 둘째, ‘舊HSK’가 교육 과정과 다소 유리된 표준화된 평가

* 부산외국어대 중국어학부 조교수

었던 점에 반해 ‘新HSK’는 ‘考教結合’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 과정과 결합된 평가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 과정에 근거해 평가하고 또 평가를 통해 교육과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셋째, ‘舊HSK’가 初中高 3等 11級 체계였던 것에 비해 ‘新HSK’는 6級 체계를 이루고 있다.

‘新HSK’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어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교육 과정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新HSK’의 체계는 향후 중국 내의 중국어 교육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중국어 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新HSK’는 어떤 이론적 근거 내지는 기준에 따라 개발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汉办’의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먼저 ‘新HSK’의 개발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借鉴近年来国际语言测试研究最新成果…’라 하여 ‘新HSK’가 국제언어평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뒤이어 ‘新HSK’ 등급을 소개하면서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¹⁾과의 대응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은 중국어 교육의 국제적 표준 마련이라는 취지하에 2007년에 ‘汉办’이 제정한 지침이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은 2001년 유럽의회가 유럽 연합국의 공통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 제정한 지침으로 《国际汉语能力标准》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新HSK’는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토대 위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대한 이해는 ‘新HSK’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나아가 ‘新HSK’가 목적으로 하는 평가와 교육 과정의 결합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향후 중국 및 해외 중국

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는 영문 약어로는 《CEFR》, 《CEF》, 《CEFRL》 등으로 쓰이며 국문 대역 술어로는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참조 기준》,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동 기본 지침》 등으로 쓰인다. 본고에서는 술어 통일을 위해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어 교육의 지향점이 어떻게 변화해 갈 지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지침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新HSK’가 향후 對外漢語教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동참조기준》의 상관성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동참조기준》이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国际汉语能力标准》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목적

《国际汉语能力标准》에서는 제정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은 각국의 중국어 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제 중국어 교육의 지침이 되는 강령성 문건이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은 중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중국어 지식과 기능을 운용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각각의 측면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중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은 국제 중국어 교육 요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찬하며 중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참조 기준이 될 수 있다.(《国际汉语能力标准》‘说明’)

위에서 제시된 《国际汉语能力标准》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각국의 중국어 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교육인 ‘對外漢語教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식적 확장이라 할 수 있는데, 해외 여러 나

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화된 중국어 교육의 형태 및 기준들을 통합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호환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 요강과 교재,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화된 지침’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舊HSK’의 기본 지침이자 이전의 ‘對外漢語教學’의 토대가 되었던 《汉语水平等级标准》이 주로 ‘능력의 측정’에 주안점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큰 변화라 하겠다.

이러한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정 목적은 《유럽공통참조기준》과 매우 닮아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전 유럽의 언어 교육을 위한 수업계획, 교육과정 요강, 시험, 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한다. 이 《유럽공통참조기준》에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내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유럽공통참조기준》 1쪽)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전 유럽’ 즉 유럽 각국 내의 교육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일된 언어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또 수업계획, 교육과정 요강, 시험, 교재 등 언어 교육의 제반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지침이다. 지침의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 《国际汉语能力标准》는 기본적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2.2 원칙

《国际汉语能力标准》에서는 제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정 원칙은 국제 언어 능력 기준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이론에 입각해 언어의 실제 운용을 강조하고 동시에 중국어 자체의 특징을 구현한다. 언어 운용은 통상 각종 활동과 과제의 방식으로 출현한다. 언어 활동의 유형은 수용형(듣기, 읽기), 산출형(말하기, 쓰기), 상호형(대화나

서신 왕래 등)과 중개형(통역, 번역)으로 나뉜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의사소통 과정에 입각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能做某事)'를 언어 능력 기술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언어의 실제 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동시에 구어와 문어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중국어의 특징을 구현한다.(《国际汉语能力标准》'说明')

위에서 제시된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정 원칙은 《国际汉语能力标准》의 근간이 되는 교육 이론적 출발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바로 '의사소통적 언어능력 이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교육 방법의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이념을 일컫는다.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용어는 Dell Hymes(1972)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는 Chomsky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개념이 너무 편협하여 언어의 사회적, 기능적 역할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²⁾ 이후 여러 학자들은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은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하며 의미를 타협하는 능력을 말하며,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을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구분시켰다. 그리하여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과 타인과 기능적이고 상호 작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식간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国际汉语能力标准》는 바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 즉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은 다양한 활동이나 과제(task)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활동이나 과제를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수용', '산출', '상호형', '중개형'으로 나누고 있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이러한 교육 이념은 《유럽공통참조기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언어사용은(언어학습 포함) 인간이 개인으로서 또 사회적 행위자로서 일반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특히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행위이다. 인간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텍스트를

2) 高强, <对交际语言教学理论的几种误解>(山东: 山东师范大学外国语学院, 2007)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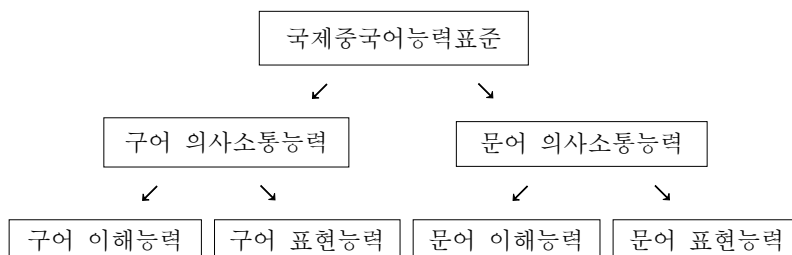
산출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언어처리과정이 관여되는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언어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 인간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에서 얻는 경험으로 능력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11쪽)

학습자나 언어사용자의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은 수용, 산출(표현), 상호행위, 통역이나 번역과 같은 언어중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적 언어활동에서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활동의 유형들은 각각 구어체나 문어체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는 양자 모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p1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언어사용 혹은 언어학습을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다. 또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은 수용, 산출(표현), 상호행위, 통역이나 번역과 같은 언어중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적 언어활동에서 활성화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정 원칙은 《유럽공통참조기준》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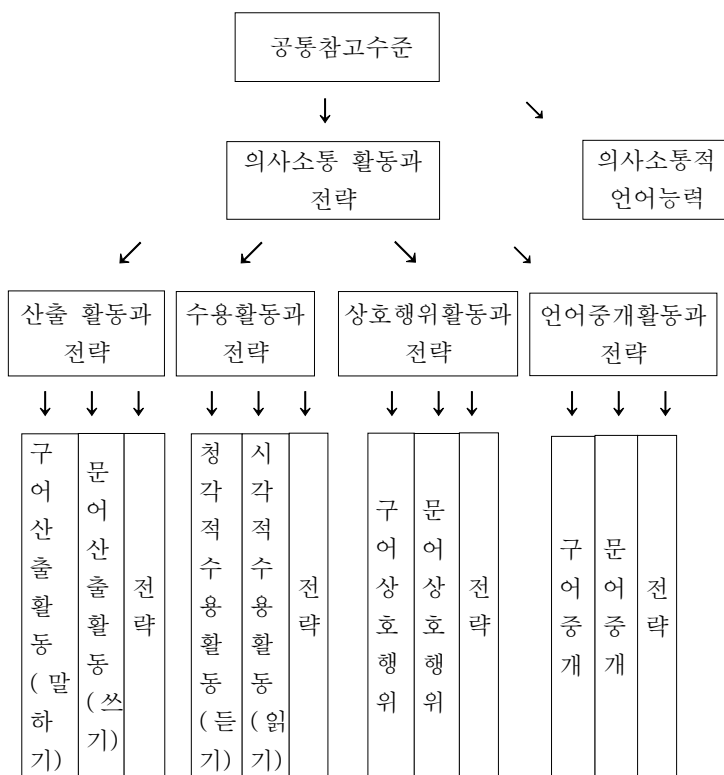
3.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체계상의 차이

《国际汉语能力标准》의 기본 구성 체계는 3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제1층위는 국제중국어능력기준에 대한 총괄적 기술 부분으로 중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에서의 언어 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2층위는 구어와 문어라는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의 각도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제3층위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구어 이해 능력과 구어 표현 능력, 문어 이해 능력과 문어 표현 능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언어 기능의 각도에서 볼 때, 구어 이해 능력은 ‘듣기’에 해당하며 구어 표현 능력은 ‘말하기’, 문어 이해 능력은 ‘읽기’, 문어 표현 능력은 ‘쓰기’에 해당한다.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정 원칙에는 언어 활동의 유형으로 수용형(듣기, 읽기), 산출형(말하기, 쓰기), 상호형(대화나 서신 왕래 등)과 중개형(통역,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목표 기술에 있어서는 상호형과 중개형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 《国际汉语能力标准》은 《유럽공통참조기준》과 차이를 지니고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의 4.4장 ‘의사소통 활동과 전략’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의사소통 활동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을 수용 활동, 산출 활동, 상호행위 활동, 언어중개 활동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다시 각각을 구어와 문어(수용활동의 경우는 청각적, 시각적)로 나누고 있다. 이를 《国际汉语能力标准》과 비교해 보면 《国际汉语能力标准》의 경우는 ‘구어’와 ‘문어’를 구분 기준하고 이를 다시 ‘산출’과 ‘수용’으로 하위 분류한 반면,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경우는 4가지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분한 후, 이를 각각 ‘구어’와 ‘문어’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또 목표 기술에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를 지닌다. 《国际汉语能力标准》는 제1층위부터 제3층위까지 모두 목표 기술을 하고 있는

데, 1급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층위 : 중국어능력 종합적 기술(1급)

개인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간단하고 기초적이며 매우 제한된 언어 자료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몸짓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고 매우 제한된 간단한 어휘를 사용해 자신을 소개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제2층위 : 구어 의사소통 능력(1급)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익숙하고 분명하며 간단하고 아주 간단한 담화를 대략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보통 몸짓이나 기타 수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장 간단한 어휘를 사용해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담화 속에 모어가 섞이거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제3층위 : 구어 표현 능력(1급)

능력 기술	과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타인의 안부 인사에 대답할 수 있다. •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가장 간단한 정보를 말할 수 있다. •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해 기본적인 요구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가장 기본적인 부탁이나 도움을 표현할 수 있다. • 보통 음성적으로 머뭇거리게 되며 몸짓에 의존하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 말하기 • 시간, 날짜 묻기 • 열차 시각 묻기 • 상대방의 주소와 전화 번호 묻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国际汉语能力标准》는 제1층위부터 제3층위까지 모두 각각의 등급에 맞추어 목표 기술을 하고 있다. 반면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는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1층위에 해당하는 ‘총괄적도’와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3층위에 해당하는 ‘구어산출 전반’, ‘문

어산출 전반', '청해 전반', '독해 전반', '구어 상호행위 전반', '문어 상호행위 전반'³⁾에 대해 목표 기술을 하고 있으며,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2층위에 해당하는 목표 기술은 없다. 양자의 목표 기술에서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경우 《国际汉语能力标准》의 제3층위에 해당하는 '구어산출 활동'에 구체적인 세부 활동에 대한 등급별 목표 기술이 있다는 점이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목표 기술 체계를 'A1'⁴⁾단계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층위 : 총괄척도(A1)

구체적인 요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묻고,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제2층위 : 구어 산출 전반(A1)

단순하며 보통 단절된 표현으로 인물이나 장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제3층위 : 혼자 말하기-경험을 서술하기(A1)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어디에 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총괄척도에서 각 등급별로 종합적인 목표 기술을 하고 있으며, '구어 산출 활동'에서는 먼저 '구어 산출 전반'에 대한 목표 기술을 한 후에, 세부적인 구어 산출 활동을 제시하고 각각에 등급별 목표기술을 하고 있다. '구어 산출 활동'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3) 《유럽공통참조기준》에 '구어 중개'와 '문어 중개'에 대한 목표 기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A1'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 분류한 언어 능력 등급의 하나로 '기초적 언어 사용'의 제1단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 참조.

‘혼자 말하기:경험을 서술하기’외에도 ‘혼자 말하기:논증하기’, ‘공지하기/안내방송 하기’, ‘칭중 앞에서 말하기’ 등의 등급별 목표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이러한 영역별 세부적 목표 기술은 《国际汉语能力标准》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사가 이러한 지침에 근거해 교육 과정이나 평가 등을 고안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 모두 제정 원칙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의 유형으로 수용형(듣기, 읽기), 산출형(말하기, 쓰기), 상호형(대화나 서신 왕래 등)과 중개형(통역, 번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럽공통참조기준》이 네 가지 활동 유형을 아우르고 있는 반면 《国际汉语能力标准》의 경우에는 수용형(듣기, 읽기), 산출형(말하기, 쓰기)만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영역별 목표 기술에 있어 《유럽공통참조기준》은 《国际汉语能力标准》에 비해 목표 영역이 넓으며, 각 목표의 층위적 구성도 더 세부화 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등급 분류상의 상관성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또 다른 차이 중의 하나는 등급 분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国际汉语能力标准》은 5급 체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유럽공통참조기준》은 6급 체계를 지니고 있다. 왜 《国际汉语能力标准》과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은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참고하면서 등급 체계는 5급 체계를 취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략 기존 對外漢語教學 및 舊HSK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 《汉语水平等级标准》의 분류 등급과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汉语水平等级标准》⁵⁾은 對外

5) 1988년 중국 對外漢語教學學會에서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試行]》을

漢語教學의 과학화와 규범화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에서 1995년에 출간한 중국어능력 등급 기준으로, 서언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용도를 보면 對外漢語教學과 舊HSK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중국어 교육 및 초중등 어문교육, 방언지역의 표준어 교육 등 그 활용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⁶⁾ 《汉语水平等级标准》은 '3等5級'의 구성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3等'은 '初等', '中等', '高等'을 말하며 '5級'은 '1級~5級'을 나타낸다. '3等'과 '5級'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等	級
初等	1級
	2級
中等	3級
高等	4級
	5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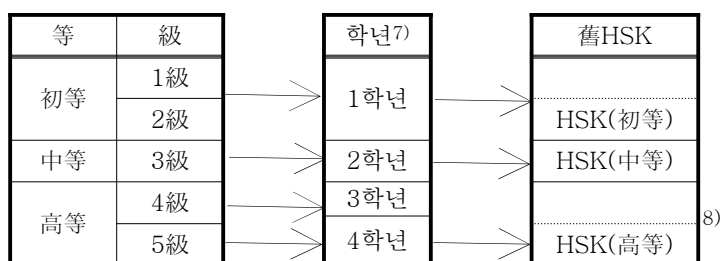
위의 표를 보면 '初等'과 '高等'은 각각 두 개의 등급과 대응된다. 이는 '初等'과 '高等'의 능력 분포를 넓게 보고 이를 구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汉语水平等级标准》에 기초해 만들어진 《语法等级大纲》, 《词汇等级大纲》, 《汉字等级大纲》 등의 등급 요목은 甲, 乙, 丙, 丁의 4級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시 위의 도표에 포함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발하였고 이후 몇 년간의 시행 과정을 거친 후,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주도로 1992년에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을 출간하였고 1995년에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을 출간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汉语水平等级标准》은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에 수록된 내용을 말한다.

6) 崔英林(1995:79) 참조.

等	級	《词汇等级大纲》	《汉字等级大纲》	《语法等级大纲》
初等	1級	甲級	甲級	甲級
	2級	乙級	乙級	乙級
中等	3級	丙級	丙級	丙級
高等	4級	丁級	丁級	丁級
	5級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等과 級, 《大纲》의 등급이 서로 상이한 체계로 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한 대응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복잡한 대응관계는 대학의 학년과 舊HSK의 등급의 상관관계를 따지게 되면 복잡성의 정도가 더 확연해진다.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汉语水平等级标准》의 '等', '級'구분과 '학년', '舊HSK 등급'의 대응 체계가 상이하며,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大纲》의 4급 체계와 舊HSK의 세부 등급까지 고려하게 되면 서로 간의 대응 관계가 매우 혼란스럽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등급 체계는 《国际汉语能力标准》에 오면서 일원화가 된다.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이에 근거해 개발된 《国际汉语教学通用课

7) 여기서의 '학년'은 중국 4년제 대외한어전공의 학년을 말한다.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試行]》(1988:4) 참조.

8) 刘英林, <关于汉语水平等级标准的几个问题>, (北京:语言文字应用杂志社, 1995), 84쪽.

程大綱》은 모두 ‘等’의 구분 없이 ‘級’으로만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國際漢語能力標準》의 경우 3장에서 제시했던 각각의 언어 능력을 상위 범주로 하여 이를 다시 1級에서 5級까지 5개의 등급 기준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의 경우는 아예 1級에서 5級을 상위 범주로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목표’, ‘언어지식’, ‘언어기능’, ‘책략’, ‘문화지식’으로 나누어 등급별 목표 기술을 하고 있다.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에는 8가지의 부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등급화 되지 않은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의 부록 역시 5級 체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⁹⁾

앞에서 언급했듯이 《漢語水平等級標準》의 주요 용도는 중국 국내의 對外漢語教學과 舊HSK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중국어 교육과 방언지역의 표준어 교육 더 나아가 初·中等, 어문교육까지 매우 광범위한 반면, 《國際漢語能力標準》과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은 국제 중국어 교육이라는 뚜렷하고 제한된 적용 영역을 지니고 있다. 양자가 이처럼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에서는 모두 5급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양자의 호용성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新HSK의 경우에는 이러한 5급 체계에서 벗어나 6급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등급 분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HSK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 주무 부처인 ‘漢辦’에서는 다음과 같이 新HSK의 등급과 《國際漢語能力標準》 및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등급 대응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9) 부록에는 「漢語教學話題及內容建議表」, 「漢語教學話題及內容舉例表」, 「中國文化題材及文化任務舉例表」, 「漢語教學任務活動示範列表」, 「常用漢語語法項目分級表」, 「漢語拼音聲母、韻母與聲調」, 「常用漢語800字表」, 「常用漢語1500高頻率詞語表」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中國文化題材及文化任務舉例表」, 「漢語教學任務活動示範列表」, 「常用漢語語法項目分級表」는 5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등급 구분 없이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다.

新HSK	词汇量	国际汉语能力标准	유럽공통참조기준
HSK (六级)	5000及以上	五级	C2
HSK (五级)	2500	五级	C1
HSK (四级)	1200	四级	B2
HSK (三级)	600	三级	B1
HSK (二级)	300	二级	A2
HSK (一级)	150	一级	A1

‘汉办’에서 新HSK와 참조기준의 등급 상관관계에 대해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新HSK가 등급 분류에 있어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참고했으며, 《유럽공통참조기준》과의 상호 인정과 등급 간 호환성에 큰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럽공통참조기준》은 기본적으로 6급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달된 언어 사용	C2
	C1
자립적 언어 사용	B2
	B1
기초적 언어 사용	A2
	A1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는 크게 ‘기초적 언어 사용’, ‘자립적 언어 사용’, ‘숙달된 언어 사용’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두 개의 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적 언어 사용’, ‘자립적 언어 사용’, ‘숙달된 언어 사용’는 전통적 분류 방법인 ‘初等’, ‘中等’, ‘高等’에 해당한다.

양자의 상호 연관성은 등급별 목표 기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¹⁰⁾

10) 이 부분은 양자의 상호 연관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新HSK의 경

1급/A1¹¹⁾

通过HSK（一级）的考生可以理解并使用一些非常简单的汉语词语和句子，满足具体的交际需求，具备进一步学习汉语的能力。《新HSK》

구체적인 요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묻고,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2급/A2

通过HSK（二级）的考生可以用汉语就熟悉的日常话题进行简单而直接的交流，达到初级汉语优等水平。《新HSK》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 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3급/B1

通过HSK（三级）的考生可以用汉语完成生活、学习、工作等方面的基本交际任务，在中国旅游时，可应对遇到的大部分交际任务。《新HSK》

우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실어서 객관적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양자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밑줄로 표기하여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1) 1급은 新HSK의 등급을 말하며 A1은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K》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짚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4급/B2

通过HSK（四级）的考生可以用汉语就较广泛领域的话题进行谈论，比较流利地与汉语为母语者进行交流。《新HSK》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5급/C1

通过HSK（五级）的考生可以阅读汉语报刊杂志，欣赏汉语影视节目，用汉语进行较为完整的演讲。《新HSK》

수준 높고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 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확연히 드러나게 어구를 찾는 일이 별로 없다.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6급/C2

通过HSK（六级）的考生可以轻松地理理解听到或读到的汉语信息，以口头或书面的形式用汉语流利地表达自己的见解。《新HSK》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이상에서 볼 때, 新HSK의 각 등급별 목표 기술의 핵심 내용이 《유럽공통참조기준》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新HSK가 등급 체계 뿐만 아니라 각 등급의 분류 기준도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참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新HSK’와 향후의 對外漢語教學

지금까지 ‘新HSK’개발의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新HSK’가 이론적으로 혹은 교육 이념적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어 교육이라는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볼 때, 단순한 영향관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공통참조기준》은 학습과 교수, 평가를 아우르는 포괄적 언어 지침이다. 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 큰 영향을 받은 ‘新HSK’ 또한 단지 이전 보다 개선된 ‘하나의 표준화된 평가’라고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TOEIC’이나 ‘TOFLE’, ‘TEPS’ 등과 같은 영어능력 평가나 ‘CPT’, ‘FLEX’ 등과 같은 중국어능력평가는 학습이나 교수과정을 포함하지는 않는 표준화된 언어평가들이다. 물론 ‘舊HSK’도 역시 이러한 성격의 평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新HSK’는 ‘考教結合’

를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 과정과 평가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는 ‘新HSK’는 향후 對外漢語教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물론 지금으로서는 ‘新HSK’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 관계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新HSK’가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이 유럽의 실제 언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접근을 통해 향후 對外漢語教學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을 위해 Goethe-Institut가 2007년부터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맞추어 모든 수준 단계의 언어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필 독일어(Profile Deutche)》라는 책을 제작하였다. 《프로필 독일어》는 참조기준을 개별 언어에 적용한 예로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수요목과 교재 개발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뱅크를 제공하고 있다.¹²⁾

프랑스 교육부는 중등 외국어 교육 계획과 평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2007년 10월 《중등 교육 단계 외국어 시행 참조표(Grille de référence-La pratique d’une langue vivante étrangère)》를 만들었는데, 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에 근거해 프랑스 중등 외국어 교육에 맞게 제정된 구체적인 문건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을 개별 국가의 언어 정책에 적용시킨 구체적인 ‘시행판’이라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프랑스의 《유럽공통참조기준》 적용 방침은 프랑스의 중국어 교육 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프랑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유럽공통참조기준》에 근거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가르치는 10개의 외국어에 대해 교육요강과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했는데, 프랑스의 제5대 외국어인 중국어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및 중국어 교육 전문가, 중국어 교사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및 대학입학시험 등 일련의 과정에 적용되는 중국어교육요강과 문화요강 및 시험요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12) 유럽평의회 편/김한란 외 옮김,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서울: 한국문화사, 2010), VIII장 참조.

13) 白乐桑·张丽, <《欧洲语言共同参考框架》新理论对汉语教学的启示与推动>, (北京: 世界汉语教学学会, 2008), 65쪽.

고 보완하고 있다. 또 2008년 9월부터 일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개설된 ‘중국어국제반(Sections Internationales de chinois)¹⁴⁾’의 학습요강과 평가요강도 《유럽공통참조기준》에 근거하고 있는데, 평가요강에서는 중국어국제반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A1-A2단계에 도달해야 하며, 졸업할 때는 B2-C1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각 그랑제콜(grandes écoles)¹⁵⁾에서도 부전공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공통참조기준》에 근거해 구체적인 교육요강과 평가요강을 개발하고 있다.¹⁶⁾

스페인의 경우에도 《유럽공통참조기준》을 활용한 언어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페인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보면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어떻게 스페인어 교육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¹⁷⁾ 또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 스페인어 교재도 이미 개발되어 출판되고 있는데, 2002년에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수준 구분인 A1, A2, B1, B2, C1, C2 체제를 받아 들여 출판된 최초의 스페인어 교재인 《Prisma》 이후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관련 출판사들은 스페인어 교재의 수준 표시를 A, B, C를 사용하여 대부분 표시하여 주고 있는데, 교재 수준에 관하여 이전의 교재 겉표지에 제시되어왔던 다양한 표기 양식을 대체한 이 새로운 표기 양식은 현재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재의 표준화된 표기 양식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⁸⁾

14) 중국어국제반은 우수한 학생을 위한 특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외국어 수업이 아니라 일부 교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국제반을 수강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매주 5시간의 수학수업을 듣는데, 3시간은 중국인 교사가 중국어로 가르치며, 2시간은 프랑스 교사가 프랑스어로 가르친다. “汉语国际班”：法国汉语教学的革命性变化 <http://www.france-en-chine.fr/> / 感觉法兰西系列网 참조.

15) 그랑제콜은 높은 경쟁률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소수 정예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엘리트층을 양성하는 프랑스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전통적인 엘리트 고등교육연구기관이다.

16) 白乐桑·张丽, <《欧洲语言共同参考框架》新理论对汉语教学的启示与推动>(北京: 世界汉语教学学会, 2008), 67쪽.

17) 최재철, <언어 교육을 위한 유럽공통 기본지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스페인어학회, 1997), 241쪽.

이처럼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을 단순한 외국어 능력 평가가 아니라 교육 과정과 교수, 평가, 교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정책은 대외 정책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정책이 ‘请进来’ 즉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는 ‘走出去’ 즉 ‘해외 진출’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진출’ 전략은 ‘국제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국어의 국제적 보급을 강화하여 중국어의 국제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인 것이다.¹⁹⁾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현재 여러 부처의 공동 협력을 통해 2004년부터 세계 각지에 ‘孔子學院’을 설립하고 있다. 孔子學院은 교사 자원의 배양, 해외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 교재 개발 등 다양한 교육적 사업과 투자를 통해 명실공히 중국어 국제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자연스레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교육 지침이나 등급 기준, 교육 요목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国际汉语能力标准》과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발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新HSK’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어 국제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나 등급 기준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유럽에서 이미 외국어 교육의 공통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럽공통참조기준》과 호환성을 확보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그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중국의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교육 요목의 등급체계가 전통적인 5급 체계에서 벗어나 6급 체

18) 최재철, <언어 교육을 위한 유럽공통 기본지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1997), 246쪽.

19) 중국어 국제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윤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과정과 의미에 관하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참조.

계로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설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 요목의 제정이 선행된 후 이를 기반으로 평가가 개발되기 마련이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新HSK’라는 먼저 6급 체계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교육 요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평가와 교육 요목 간의 불균형성이 생겨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요목과 평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평가가 역으로 교육 요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교육 과정의 경우 전통적 분류법인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의 세 가지 교육 과정에 《유럽공통참조기준》의 A1-C2의 6단계 과정이 결합될 수 있다. 즉 초급은 ‘A1 과정’과 ‘A2과정’, 중급은 ‘B1과정’과 ‘B2과정’, 고급은 ‘C1과정’과 ‘C2과정’으로 이전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과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교재 역시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해당 교육 과정의 교육 요목에 맞추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교육 과정을 명시적으로 표기한 형태로 출판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급(A1 구어)’, ‘중급(B1) 독해’ 등과 같이 교재에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가능할 것이다.

6. 나가기

본고는 ‘新HSK’의 이론적 토대 분석과 향후 對外漢語教學에의 영향 관계 탐색이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新HSK’의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国际汉语能力标准》과 《유럽공통참조기준》은 포괄적 교육 지침의 추구라는 목적과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의 향상을 주된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구성 체계나 등급 구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国际汉语能力标准》이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목적과 원칙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汉语水平等级标准》으로 대표되는 이전의 등급 기준을 유지하는 절충적 모습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충적 모습은 ‘新HSK’에 오면서 등급 기준까지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등급 기준

을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면 《国际汉语能力标准》과 ‘新HSK’는 왜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수용하고 있을까? 이는 중국어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어 국제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 간의 수준 등급의 호환성과 교육 과정의 표준화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의 해결 방법으로 유럽 각국에서 통일된 언어 교육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이론적 토대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新HSK’는 단순히 ‘평가 방식’의 변화라는 각도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교육 방식’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新HSK’가 이후 對外漢語教學에 미칠 영향 관계를 가능성의 각도에서 제시하였는데, 교육 요목과 교육 과정, 교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수용한 후속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실제 교육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만일 이러한 변화들이 현실화 된다면 국내의 중국어 교육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중국의 對外漢語教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더불어 국내 중국어 교육의 정책, 교육 과정, 교육 요목, 교재 등 제반 교육 관련 영역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유럽평의회 편/김한란 외 옮김,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서울: 한국문화사, 2010)
- 정윤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중국연구》 제47권(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9)
- 최정순·안미란,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동 기본지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등급기술 시안 (1)>,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6집(서울: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5)
- 최재철, <언어 교육을 위한 유럽공통 기본지침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

문학》제43호(서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1997)

- 白乐桑·张丽,〈《欧洲语言共同参考框架》新理论对汉语教学的启示与推动〉,
《世界汉语教学》第3期(北京:世界汉语教学学会, 2008)
- 高强,〈对交际语言教学理论的几种误解〉,《山东师范大学外国语学院学报》
(山东:山东师范大学外国语学院, 2007)
-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国际汉语能力标准》(北京:外语教学
与研究出版社, 2007)
-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 方绪军,〈CEFR对汉语测试研发的启示〉,《世界汉语教学》第2期(北京:世
界汉语教学学会, 2008)
- 刘英林,〈关于汉语水平等级标准的几个问题〉,《语言文字应用》第4期(北
京:语言文字应用杂志社, 1995)
- 中国对外汉语教学学会汉语水平等级标准小组,《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
大纲》(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88)
- 中国对外汉语教学学会 汉语水平等级标准研究小组,《汉语水平等级标准和
等级大纲[试行]》(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88)
- 国家汉办 <http://www.hanban.edu.cn/>
- “汉语国际班”:法国汉语教学的革命性变化
<http://www.france-en-chine.fr> 感觉法兰西系列网

<中文提要>

本文为了探讨新HSK的教学理念,对《国际汉语能力标准》与《欧洲共同参照标准》进行了比较分析。通过分析,我们得到了以下的结果:

第一、这两种标准在制定原则与制定目的上具有同一性质,就是一种制定教学大纲、编写教材和测试学习者语言能力的综合性参照标准,同时是以交际语言能力理论为指导,注重语言的实际运用的语言标准。

第二、这两种标准在框架与等级划分方面却有不同,这表明《国际汉语能力标准》一方面吸收了《欧洲共同参照标准》的基本理念,另一方面还继

承了《汉语水平等级标准》的等级标准。

新HSK在教学理念上直接受到《国际汉语能力标准》与《欧洲共同参照标准》的影响，而且与《欧洲共同参照标准》一样分为六个等级，而形成了与《欧洲共同参照标准》相似的面貌。那么，新HSK为什么在很大程度上借鉴了《欧洲共同参照标准》？这可能是与国际汉语推广有关系。为了实现国际汉语推广，首先要解决教学课程与能力标准的不一致问题。《欧洲共同参照标准》是已在欧洲各国普遍采取的国际语言能力标准，所以与它接轨的话，就能确保国际通用性。我们认为新HSK是在这样的背景下开发出来的。

关键词：新HSK, 国际语言能力标准, 国际汉语, 欧洲共同参照标准, 汉语教学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74·中國學 第36輯(2010.8)

<빈 페이지>

孔子的 好色과 守禮*

- 《詩經·關雎》를 중심으로 -

김세환**

— <목 차> —

1. 序 言
2. <關雎> 大義
3. <關雎>의 好色과 守禮
4. 結 語

1. 序 言

宋玉(B.C.301~B.C.240)의 <登徒子好色賦>에 好色과 守禮에 대한 논쟁이 보인다. 楚나라의 大夫 登徒子が 楚王한테 宋玉이 好色家라는 誹謗을 했다. 그러자 宋玉은 호색가는 자신이 아니고 오히려 登徒子라고 論駁을 했다.¹⁾

천하의 어떤 미인도 초나라의 여자만 못합니다. 초나라의 미인은 臣의 고향 여자만 못합니다. 신의 고향 미인은 신의 이웃여자만 못합니다. 신의 이웃여자는 한 푼을 보태면 너무 크고 한 푼을 줄이면 너무 작으며, 분을 바르면 너무 희고 胭脂를 바르면 너무 붉습니다. 눈썹은 翠鳥의 깃털 같고 피부는 눈 같습니다. 허리는 비단 두루마리와 같고 치아는 소라(海螺)처럼 흰니다. 살포시 웃으면 陽城과 下蔡의 公子들이 넘어갑니다. 이 여자가 담장너머로 저를 훑쳐본지가 3년이 되었지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만 臣은 지금까지 화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登徒子是 다릅니다. 그 아내는 쭉대강이 머리에 귀는 우그러 붙었고, 입술은 듬성듬성한 이빨을 훤히 드러내고, 옆으로 기는 걸음에 허리는 굽었으며, 그리고 또 음과 치질도 있습니다. 그래도 登徒子是 그 여자를 좋아해서 아이를 다섯이나 갖게 했습니다. 왕께서는 과연 누가 好色을 하는지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²⁾

천하의 추녀한테도 아이를 다섯이나 갖게 했으니 세상의 어떤 여자라도 좋아할 것이며 따라서 이보다 더한 好色이 있겠는가 하는 논리이다. 여기에 함께 있던 秦나라의 章華大夫가 끼어들었다.

……때는 늦은 봄 初夏의 계절에 피꼬리는 피꼴거리는데 못 여자들이 뽕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들판의 미인들은 꽃 같은 빛깔에 광채를 발하며 몸매는 아름답고 얼굴은 요염하였으니 화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臣이 그 중의 예쁜 여인에게 詩를 읊었습니다. “큰 길을 함께 가며 그대의 옷소매를 잡네” 이어 미려한 말로 꽃을 건네주려 하였습다. 아가씨는 恍然하여 바라보다가 오지 않고 올 듯 하다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가까웠지만 몸은 멀었으니 아가씨의 一舉一動은 남달랐고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걸음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答詩를 읊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니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말해준 시는 저를 어쩔 수 없게 하네요.” 그리고 아가씨는 떠났습니다. 단지 몇 마디의 詩語만으로 서로 감동을 하며 정신적으로 서로 통하였습니다. 눈으로 그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마음은 正道를 생각하였으니, 詩로 和答하였을 뿐으로 예를 지켜(守禮) 끝까지 어긋남이 없었습니다.³⁾

章華大夫가 말하는 ‘守禮’의 辯이다. 들판의 꽃보다도 아름다운 봄날의 여인들을 보고 뛰는 가슴을 누르며 옛날의 식구를 읊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 禮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食色’의 본성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업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 둘의 경영

2) 《六臣注文選·卷一九》(北京: 中華書局, 1987). 351~352쪽. (필자 번역. 이하 동일)

3) 上同, 352쪽.

방식은 다르다. ‘먹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필요 없는 단순한 사업이다. 배부른 것이 목표이고 탐욕이 보태지면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지만 이 또한 그저 많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관계’는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간단하지 않으며, 탐욕이 보태지면 전연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人間事가 모두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詩三百》의 첫 首인 <關雎>는 ‘詩三百’편 중에서 가장 널리 膾炙되고, 아울러 학계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孔子가 ‘詩三百’을 정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關雎>를 첫 수로 둔 이유와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옛날 詩 삼천여 편이 있었는데 공자에 이르러 중복된 것을 버리고 禮義에 맞는 것을 취하였다. 위로는 契(殷의 始祖)과 后稷(周의 始祖)으로부터 중간으로는 殷과 周 兩代의 盛世를 노래한 시를 모으고, 이어서 周의 幽王과 厲王之 失政에 관한 시를 뽑았는데, 男女의 色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關雎>의 노래를 《風》의 시작으로 하고, 《鹿鳴》을 《小雅》의 시작으로 하였으며, 《文王》을 《大雅》의 시작으로, 그리고 《清廟》를 《頌》의 시작으로 하였다.” 삼백오편 모두를 공자가 入樂하여 노래하였으니 韶武의 음악, 그리고 雅樂과 頌樂에 맞도록 하였다. 禮樂이 이로부터 기술되어 王道가 갖추어졌고 六藝가 이루어졌다. (古者《詩》三千餘篇, 及至孔子, 去其重, 取可施於禮義, 上采契、后稷, 中述殷、周之盛, 至幽、厲之缺, 始於衽席, 故曰“<關雎>之亂以爲《風》始, 《鹿鳴》爲《小雅》始, 《文王》爲《大雅》始, 《清廟》爲《頌》始.” 三百五篇孔子皆弦歌之, 以求合韶武雅頌之音. 禮樂自此可得而述, 以備王道, 成六藝.)⁴⁾

《史記》는 孔子가 삼천여 수의 詩를 정리 편집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모두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하여 王道에 쓰이도록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風>·<雅>·<頌>의 순서와 각 편 首의 첫수를 정하였다. 특히 <關雎>는 305편의 시 중에서 첫수가 되었는데, 이는 “始於衽席” 즉 남녀의 色에 관련된 시를 처음에 두고자 한 공자의 특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4) 《史記·孔子世家》(北京: 中華書局, 1997), 1936~1937쪽.

그러나 《詩經》에 남녀관계에 관련된 시는 많다. 따라서 <關雎>를 첫 수로 둔 것은 ‘衽席’외에 다른 의미가 더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子夏가 孔子께 여쭙다. “<關雎>가 왜 《國風》의 첫머리에 있습니까?” 孔子가 말씀하셨다. “<關雎>詩는 지극하여 더할 나위가 없다. <關雎>를 지은 사람은 위로는 하늘을 따르고 아래로는 땅을 본 받았다. 그윽하고 깊은 속에는 德이 가득하고, 어지러운 용솟음 속에는 正道가 실현되어 있으니, 神龍의 變化와도 같지만 文彩는 지극히 선명하다. 크도다, <關雎>의 道理여! 만물이 매어져 있고 못 생물의 命運이 달려 있다. 黃河에서 ‘龍圖’가 나오고, 洛水에서는 ‘龜書’가 나왔으며, 기린과 봉황이 들판에 출현했으니, 만일 <關雎>의 道가 아니었다면 어찌 <關雎>의 실현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었겠는가? 六經에서 汲汲하게 결론을 맺은 내용들도 모두가 <關雎>에서 취한 것이다. <關雎>의 事理는 클진저! 充實하고 盛大하니 東으로부터 西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南으로부터 北에 이르기까지 따르지 않는 자가 없도다. 너는 이를 잘 배우고 유념하도록 하라. 天地 사이의 모든 백성과 王道의 근원이 모두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子夏가 감탄하여 말했다. “큽니다, <關雎>는 천지의 바탕입니다. 詩에 ‘鐘鼓로 즐긴다’ 하였습시다.” (子夏問曰: “<關雎>何以爲《國風》始也?” 孔子曰: “<關雎>至矣乎! 夫<關雎>之人, 仰則天, 俯則地, 幽幽冥冥, 德之所藏, 紛紛沸沸, 道之所行, 雖神龍化, 斐斐文章. 大哉<關雎>之道也. 萬物之所繫, 群生之所懸命也, 河洛出《書》《圖》, 麟鳳翔乎郊, 不由<關雎>之至, 則<關雎>之事將奚由至矣哉! 夫六經之策, 皆歸論汲汲, 蓋取之乎<關雎>. <關雎>之事大矣哉! 馮馮翼翼, 自東自西, 自南自北, 無思不服. 子其勉強之, 思服之. 天地之間, 生民之屬, 王道之原, 不外此矣.” 子夏喟然嘆曰: “大哉<關雎>, 乃天地之基也.” 詩曰: “鐘鼓樂之.”)5)

《韓詩外傳》의 이 글은 孔子가 <關雎>에 부여한 의미는 거의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關雎>는 天地의 正道와 이의 실천이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물과 모든 생물의 존재 이치가 이 안에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세상의 모두가 이러한 事理를 따르니 王道도 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

5) 韓嬰著, 《詩經要籍集成1·韓詩外傳》(北京: 學苑出版社, 2002), 134쪽.

이라 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의도는 후대 儒學에서 대체적으로 그대로 존송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의 《十三經注疏》 중 《毛詩正義》는 공자의 이러한 시각 위에서 집대성된 詩經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공자의 <關雎>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공자가 <關雎>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내용을 밝혀보자는 의미이다.

2. <關雎> 大義

지금의 《毛詩正義》는 魯(지금의 河北 河間縣)人 大毛公(毛亨)의 《毛詩故訓傳》을 母本으로 하였기 때문에 《毛詩》로 불리게 되었다. 즉 漢末 鄭玄이 《毛詩故訓傳》을 注釋하여 《鄭氏箋》이 나오면서 ‘古文經’ 《毛詩》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고, 다시 唐의 孔穎達이 이에 疏를 더하여 현재의 《毛詩正義》가 된 것이다. 西漢時代에는 ‘古文經’인 《魯詩》, 《齊詩》 그리고 《韓詩》가 官學으로 定立되어 있었으나, 《鄭氏箋》이 유포되면서 이들 古文經은 점차 사라졌다. 다시 말해 《毛詩正義》는 공자의 특별한 의도가 투영된 노래의 모음집으로 시작되어, 여기에 공자를 존송하는 儒學者들의 해석이 더해져 이루어진 正統儒學의 ‘詩經學’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毛詩正義》를 原典으로 하여, 毛亨의 傳과 鄭玄의 箋, 그리고 孔穎達의 疏를 중심으로 우선 <關雎>詩의 大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關雎序(小序)>에서 <關雎>는 后妃의 德을 노래하였다(關雎, 后妃之德也)고 했다. 后妃는 天子의 妃를 말한다. 孔穎達은 <關雎>篇이 “후비의 성품과 행실이 和습을 이루고, 一片丹心으로 아랫사람을 교화하며, 자나 깨나 賢女를 찾아 함께 職分을 다하고자 하는 后妃의 덕을 말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⁶⁾ 이는 <關雎> 全篇의 대의에 대한 毛亨으로부터 孔穎達까지의 일관된 시각이었다고 보인다.

陸德明에 의하면 鄭玄은 <關雎>詩를 四句씩 5章으로 나누었고, 毛亨

6) “此篇言后妃性行和諧，貞專化下，寤寐求賢，供奉職事，是后妃之德也。”《毛詩正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 12)，5쪽.

은 3章으로 나누어, 1章은 4句 그리고 2장과 3장은 각 8句로 하였다고 했다.⁷⁾ 여기에서는 鄭玄의 分章에 따라 내용을 살펴본다.

1) 제1장

關關雎鳩，在河之洲。
窈窕淑女，君子好逑。
구옥구옥 정경이 강의 沙洲에 있네.
얹전한 숙녀는 군자가 좋아하는 짝이네

<毛傳>은 첫 두 句를 興이라 했다. 한 쌍의 雎鳩새를 통해 이 시의 주제를 興起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雎鳩는 여기에서 주제와 밀접한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이 한 쌍의 새는 情意가 매우 두텁다. ‘關關’은 서로가 정겹게 주고받는 ‘和聲’이라 했다.⁸⁾ 이것은 금슬 좋은 부부를 연상시킨다.

둘째로, 이들 새는 情意가 지극히 두텁기는 하지만 서로가 구별을 한다(有別). 즉, 암컷은 강 가운데의 沙洲로 물러나 짝을 이루지 않고 멀리 따르며 분별을 둔다는 의미이다.⁹⁾

이 시의 서두는 이러한 雎鳩의 특성으로 后妃의 德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¹⁰⁾ 때문에 후비의 덕도 자연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후비의 ‘和諧’의 덕을 나타냈다. 后妃는 ‘和諧’의 덕으로 군자 주변의 모든 여인들을 감싸고 아울러 군자를 위하여 새로운 숙녀를 찾는다.¹¹⁾ 여기에서의 ‘淑女’는 후비와 다른 인물이지만 후비의 덕성을 닮은 인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后妃의 ‘有別’의 덕을 나타내었다. 후비는 군자의 덕을 좋아

7) 關雎五章，章四句。故言三章，一章章四句，二章章八句。五章是鄭所分，“故言”以下是毛公本意。《毛詩正義》(이하 脚註 27까지 같은 책), 32~33쪽.

8) “興也。關關，和聲也。”，25~26쪽.

9) “正義曰：…此雎鳩之鳥，雖雌雄情至，猶能自別，退在河中之洲，不乘匹而相隨也。”，27쪽.

10) “言后妃有關雎之德”，26쪽.

11) “正義曰：…性行和諧者，是後妃也。后妃雖說樂君子，猶能不淫其色，退在深宮之中，不褻瀆而相慢也。后妃既有是德，又不妬忌，思得淑女以配君子。”，27쪽.

하니 주위와 和諧하지 않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¹²⁾ 유별함을 지킨다. 이는 夫婦의 有別이 곧 천하를 교화하는 첫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夫婦가 有別해야 父子의 親함을 기대할 수 있고, 父子의 친함이 이루어진 후에 君臣이 공경할 수 있으며, 君臣의 공경이 이루어진 후에 朝廷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조정이 바르게 된 후에 왕의 교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¹³⁾ 夫婦有別은 곧 자녀의 심성을 순수하게 하여 孝誠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효심이 곧 왕의 교화에 바탕이 된다는 논리이다.¹⁴⁾

둘째 聯에서의 ‘窈窕淑女’는 후비가 찾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이는 곧 후비의 덕을 기준으로 한 여성상이기도 하다. ‘窈窕’는 ‘幽閒貞專’으로 해석했다. 이는 雌鳩로 암시한 덕성이며, 이러한 덕을 지닌 후비의 여성상은 君자(君王)의 배필이 되기에 적당함을 말한 것이다.¹⁵⁾

‘幽閒’은 깊은 곳에서 閒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후비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深宮에 물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君왕의 총애를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不淫其色)는 의미를 암시한 것이다.

‘貞專’은 오직 君왕만을 위하는 곧고 굳은 마음 즉 一片丹心을 뜻한다. 后妃는 君왕을 위해 다른 여인(嬪御)들에게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불만을 다독이며 언제나 ‘和諧’의 덕을 실천한다는 의미이다.¹⁶⁾ ‘淑女’는 ‘善女’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窈窕’는 ‘淑女’가 거주하는 처소(深宮)나 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揚雄은 ‘窈’는 ‘善心’이라 했고, ‘窕’는 ‘善容’이라 했는데, 이럴 경우 ‘善女’를 뜻하는 ‘淑女’와 의미가 중복된다. 孔穎達은 ‘窈窕’를

12) “‘后之言後也’, 執理內事, 在夫之後也. …天子之妻唯稱后耳.”, 5쪽.

13) “雌鳩, 王雌也, 鳥摯而有別. 水中可居者曰洲. 后妃說樂君子之德, 無不和諧, 又不淫其色, 慎固幽深, 若關雎之有別焉, 然後可以風化天下. 夫婦有別則父子親, 父子親則君臣敬, 君臣敬則朝廷正, 朝廷正則王化成.”, 25~26쪽.

14) “夫婦有別, 則性純子孝, 故能父子親也, 孝子爲臣必忠, 故父子親則君臣敬. 君臣既敬, 則朝廷自然嚴正. 朝廷既正, 則天下無犯非禮, 故王化得成也.”, 28쪽.

15) “言后妃有關雎之德, 是幽閒貞專之善女, 宜爲君子之好匹.”, 26쪽.

16) “箋云; …言后妃之德和諧, 則幽閒處深宮貞專之善女, 能爲君子和好眾妾之怨者. 言皆化后妃之德, 不嫉妒, 謂三夫人以下.”, 27쪽.

깊은 처소에서 암전하게 거주하는 것이라 했다.¹⁷⁾

2) 第二章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들쭉날쭉 행채, 좌우에서 함께 구하네.
암전한 숙녀 자나깨나 구하네.

이 장은 자나깨나 요조숙녀를 구하는 후비의 心鏡을 나타냈다.¹⁸⁾ 후비에게 있어서 요조숙녀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직분을 나누는 사이이다. 첫째로 같은 군주를 섬기는 일이며, 둘째로는 內事를 꾸려야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祭祀를 준비하면서 후비가 자신의 同伴으로서의 요조숙녀를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다.

二章의 첫 聯은 祭物에 쓰일 행채를 찾는 과정이다. 즉, 행채는 물위에 들쭉날쭉(參差然不齊) 솟아있다. 이러한 행채를 채취하는 것은 后妃

17) “正義曰; 窈窕者, 謂淑女所居之宮形狀窈窕然, 故箋言幽閑深宮是也. 傳知然者, 以其淑女已爲善稱, 則窈窕宜爲居處, 故云幽閑, 言其幽深而閑靜也. 揚雄云‘善心爲窈, 善容爲窕’者, 非也.”, 28~29쪽.

18) 后妃가 窈窕淑녀를 찾는다는 부분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淸의 姚際恒(1647~約1715)은 자신의 坤位를 다른 여자에게 내주면서 질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情理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후비 관련부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 했다.(姚際恒撰, 《詩經要籍集成26·詩經通論》, 學苑出版社, 2002. 359쪽.) 그 후 현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요조숙녀를 찾는 주체를 君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后妃가 제왕을 위해 여자를 추천하는 것은 情理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楚莊王의 부인인 樊姬는 왕을 모신 11년 동안 梁과 鄭의 땅에 사람을 보내 미인을 찾아 왕에게 천거하였다. 그 중에 이미 자신과 같은 班列에 오른 사람이 10인이며, 자신보다 더 위에 오른 사람이 2인 이었다.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히 私慾으로 미인을 감출 수 없었으며, 또한 왕에게 많은 미인을 보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했다.(韓嬰著《詩經要籍集成1·韓詩外傳》, 107쪽.) 아울러 《毛詩正義》에서는 후비를 돕는 사람이 “三夫人, 九嬪以下”(29쪽)라 했다. 당시의 왕에게 여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관계가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左右에 嬪妾들이 함께 도와서 하는 것이다.¹⁹⁾
‘苻’은 ‘接余’라고도 하며, ‘流’는 ‘求’한다는 뜻으로 보았다.²⁰⁾

‘寤寐’는 후비가 寤寐不忘으로 자신의 직분을 함께 할 賢女를 찾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²¹⁾ 즉 후비는 三夫人 九嬪의 도움을 받으며 宗廟의 제사에 쓰일 苻菜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동반으로서의 숙녀를 찾는 것이다.

3) 第三章

求之不得，寤寐思服。
悠哉悠哉，輾轉反側。
찾아도 찾지 못하니 자나깨나 생각이네
아득하고 아득하여 뒤척이며 잠 못이루네

后妃가 賢女를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하여 자나깨나 一念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였다. 아울러 “悠哉悠哉，輾轉反側.”은 후비의 이러한 간절한 思念이 지극히 깊음을 형용한 것이다.²²⁾ 다만 <鄭箋>은 賢女를 구하지 못해 자나 깨나 자신의 직분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하였다.²³⁾

4) 第四章

參差苻菜，左右采之。
窈窕淑女，琴瑟友之。
들쭉날쭉 행채 좌우에서 함께 따며
요조숙녀는 금슬로 벗하리

19) “箋云：左右，助也。言后妃將共苻菜之蒞，必有助而求之者。言三夫人、九嬪以下，皆樂后妃之樂。”，29쪽.

20) “苻，接余也。流，求也。”，29쪽.

21) “箋云：言后妃覺寐則常求此賢女，欲與之共已職也。”，29쪽.

22) “毛以爲后妃求此賢女之不得，則覺寐之中服膺念慮而思之。又言后妃誠思此淑女哉！誠思此淑女哉！其思之時，則輾轉而復反側，思念之極深也。”，31쪽.

23) “箋云：服，事也。求賢女而不得，覺寐則思已職事當誰與共之乎！…思之哉！思之哉！言已誠思之。”，31쪽.

행채가 있는 곳을 찾았고 좌우 嬪御들의 도움을 받으며 행채를 채취한다.

<鄭箋>에서는 요조숙녀를 琴瑟의 음악으로 맞이하는 것이라 했는데²⁴⁾, <毛傳>의 주석과 다소 다르다. <毛傳>은 “금슬로 벗하며 반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아직 요조숙녀는 찾지 못하였으며, 만약에 온다면 자신이 응당 금슬로 벗하며 반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²⁵⁾ 다시 말해 <毛傳>의 “宜以琴瑟友樂之”는 다음 章의 “德盛者宜有鍾鼓之樂”이라는 구절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이며 이는 숙녀가 온다면 琴瑟과 鐘鼓를 갖추어 반기고 즐겁게 하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琴瑟은 가녀린 음악이어서 和親을 나타냈고, 鐘鼓는 큰 음악이어서 卒章에서 말하여 聖德을 드러냈다고 했다.²⁶⁾

5) 第五章

參差荇菜, 左右芼之
窈窕淑女, 鐘鼓樂之
聿聿發兮 行채 좌우에서 함께 고르며
요조숙녀는 鐘鼓로 즐겁게 하리

‘芼’는 ‘擇’의 뜻으로 행채를 골라내는 것이다.²⁷⁾

<毛傳>은 第四章에서와 같이 聖德을 갖춘 숙녀를 鐘鼓의 음악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았다.²⁸⁾ 즉, 假說이라는 뜻이다.

24) “箋云：同志爲友。言賢女之助后妃共荇菜，其情意乃與琴瑟之志同，共荇菜之時，樂必作。”，31쪽.

25) “毛以爲后妃本已求淑女之意，言既求得參差之荇菜，須左右佐助而采之，故所以求淑女也，故思念此處窈窕然幽閑之善女，若來，則琴瑟友而樂之。思設樂以待之，親之至也。”，31쪽.

26) “正義曰：此稱后妃之意。后妃言已思此淑女，若來，已宜以琴瑟友而樂之，言友者，親之如友。下傳曰‘德盛者宜有鍾鼓之樂’，與此章互言也。明淑女若來，琴瑟鍾鼓並有，故此傳並云‘友樂之’，亦逆取下章之意也。以樂有二等，相分以著義。琴瑟，樂之細者，先言之，見其和親。鍾鼓，樂之大者，故卒章言之，顯其德盛。毛氏於序不破‘哀’字，則此詩所言，思求淑女而未得也，若得，則設琴瑟鍾鼓以樂此淑女。……以此知毛意思淑女未得，假設之辭也。” 31~32쪽.

27) “傳‘芼，擇也。’”，32쪽.

그러나 <鄭箋>은 琴瑟은 堂에 있고 鐘鼓는 뜰에 있는데, 행채를 올릴 때 상하의 음악을 모두 연주하니 의식의 상대함을 뜻했다 했다.

<正義>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즉, 后妃가 숙녀를 감화시켜 함께 행채를 준비하여 宗廟에 제사할 때, 상하의 음악이 동시에 울려 숙녀가 올리는 禮를 상대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음악이 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음악이지만 행채를 올리는 것이어서 숙녀를 칭송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3. <關雎>의 好色과 守禮

<毛詩序>는 “關雎, 后妃之德也.”로 序頭를 열었다. 이는 곧 <關雎>의 주제를 한마디로 집약한 것으로 보인다. 즉, <關雎>편은 ‘后妃의 德’을 칭송한 詩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시각은 <毛傳>과 <鄭箋> 그리고 <正義> 모두 공통적이다.

‘后妃의 德’은 구체적으로는 혼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이미 첫 聯에서 한 쌍의 雎鳩새를 통해 ‘關雎의 德’으로 드러났다. 첫째로 ‘關關’하며 서로 정겹게 ‘和聲’을 주고받는 이들 새는 情意가 매우 두텁다. 금슬 좋은 부부를 연상시키는 이 의미는 ‘窈窕淑女’와 ‘君子好逑’로 이어진다. 이는 사람도 다른 생물과 공통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로, 이들 새는 情意가 지극히 두텁기는 하지만 서로가 구별을 한다(有別). 즉, 암컷은 강 가운데의 沙洲로 물러나 짝을 이루지 않고 멀리 따르며 분별을 둔다는 의미이다. 즉, 분별의 예를 의미한다.

즉, <關雎>詩는 사람의 본성과 규범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남녀 사이에는 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情이 있는데, 사회의 규범은 이를 禮義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關雎>에서 보이는 后妃의 덕은 바로 사람의 본성을 구현하면서 아울러 이를 예의로 절제시키는 것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8) “德盛者宜有鍾鼓之樂.”, 32쪽.

1) 好色

司馬遷은 《詩三百》의 첫 首로 <關雎>가 놓인 것에 대해 “始於衽席” 즉 남녀의 色慾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 했다. 15개 나라의 노래로 엮은 ‘國風’詩에 대해 朱熹(1130~1200)는 ‘民俗歌謠의 詩’²⁹⁾라 했다. 이러한 민속가요는 男女 兩性和 관련된 男女의 情思 또는 男女相悅之詞로 해석되었다.³⁰⁾ 적어도 <國風>은 색욕과 관련이 깊고, 아울러 <關雎>도 君子와 淑女라는 異性關係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었으며, 후비의 덕은 이러한 본성의 발현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도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食色이란 자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남녀 사이에는 지극히 원초적인 色의 본성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飲食男女³¹⁾ 중에서 ‘飲食’ 못지않게 인간사회를 지배해온 話頭이다.

孔子도 이러한 色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중시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 가지의 조심할 것이 있는데,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 色을 조심해야 한다.”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³²⁾

젊은 나이에는 왕성하기만 한 혈기가 자칫 남녀 사이에 이끌리는 色욕에 지배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라 보인다. 호색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어서 언제나 규범의식보다 앞서는 것이다.

나는 色을 좋아하는 만큼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³³⁾

29) 朱熹撰, 《詩經要籍集成6·詩集傳》, 135쪽.

30) 陳子展撰述, 《詩經直解》(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3), 7쪽.

31)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禮記·禮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12), 802쪽.

32) 《論語·季氏》(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12), 258쪽.

<衛靈公>에서도 똑 같이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라고 반복되었다.

好色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인간의 본색이지만, 德은 作爲의인 노력에 의해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을 수 없다. 이러한 보편적인 본성이 곧 모든 人事와 事理의 근원이 된다.

고로 성인이 준칙을 만들 때는 반드시 천지를 바탕으로 하고 음양을 本源으로 한다. ……음양을 本원으로 하니 모든 疇(서로 상반되는)이 보인다. (故聖人作則, 必以天地爲本, 以陰陽爲端, ……以陰陽爲端, 故情可睹也.)³⁴⁾

사람에게 있어서 남녀는 음양의 근원이며 아울러 이 둘이 함하여 인륜의 시작을 이룬다. 인륜의 시작이란 人事의 기본이 된다는 의미이다.

천지가 있고서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고서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있고서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으니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서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고서 상하가 있으며, 상하가 있고서 예의가 갖추어졌다.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³⁵⁾

천지가 호응하여 만물이 생겨나는데 천지가 서로 다르듯 남녀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남녀는 천지가 함께 하듯 서로가 부부로 맺어진다. 이로 부터 가족이 있고 사회가 구성되며 나라의 틀이 갖추어진다. 人倫이 이렇게 시작되며 人事가 이렇게 펼쳐진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은 형적으로는 人間事의 기본이 되고 아울러 종적으로는 萬世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천지가 서로 호응하니 만물이 생겨난다. 혼례란 만세를 이어가는 시

33) 《論語·子罕》, 133쪽.

34) 《禮記·禮運》, 814~817쪽.

35) 《周易·序卦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12), 396쪽.

작이다. (天地合而后萬物興焉. 夫昏禮, 萬世之始也.)³⁶⁾

천지는 언제나 일정한 운행의 법칙 속에서 만물을 化育한다. 그러나 인간의 남녀관계는 때로는 사회와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부조화를 빚어 낸다.

예로부터 天命을 받은 제왕이거나 先帝의 法統을 계승한 군왕은 자신의 品德만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고, 外戚의 도움이 있었다. 夏의 건국에는 塗山氏의 딸(禹의 부인 嬀)을 있었고, 桀王이 쫓겨난 것은 末喜 때문이었다. 殷의 건국에는 有娥國의 딸(契의 母親 簡狄)이 있었고, 紂王의 죽음은 寵姬 妲己 때문이었다. 周의 건국에는 姜原(后稷의 모친)과 大任(文王의 모친)이 있었고, 幽王이 간힌 것은 褒姒와의 淫亂 때문이었다. 때문에 《易經》은 乾卦와 坤卦로 시작하였으며, 《詩經》은 關雎로 시작하였고, 《書經》은 堯帝가 舜에게 딸 시집보낸 일을 찬미하였으며, 《春秋》는 직접 親迎하지 않은 일을 풍자하였다. 부부사이에는 人道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있는 것이다. (自古受命帝王及繼體守文之君, 非獨內德茂也, 蓋亦有外戚之助焉. 夏之興也以塗山, 而桀之放也以末喜. 殷之興也以有娥, 紂之殺也嬖妲己. 周之興也以姜原及大任, 而幽王之禽也淫於褒姒. 故易基乾坤, 詩始關雎, 書美釐降, 春秋譏不親迎. 夫婦之際, 人道之大倫也. 禮之用, 唯婚姻爲兢兢.)³⁷⁾

제왕의 절제 잃은 호색은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 《周易》은 乾坤으로 음양의 이치를 보였으며, 《詩三百》은 <關雎>로 시작을 하였고, 《書經》은 두 딸을 舜에게 시집보내어 舜을 후계로 삼은 일을 찬미하였으며, 《春秋》는 ‘親迎’을 하지 않은 것을 풍자하였다. 그래서 부부사이에는 사람의 도리 중에서 가장 큰 인륜이 있게 되는 것이며 예의 쓰임에 있어 혼인은 유독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호색의 본성은 예를 성립시킨 원인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혼례는 예의 기본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인다.

36) 《禮記·郊特牲》, 949쪽.

37) 《史記·外戚世家》, 1967쪽.

2) 守禮

〈關雎〉詩에 보이는 두 번째의 주제 의식은 ‘有別’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毛傳〉은 關雎가 “摯而有別”(情이 지극하지만 서로 유별이 있다) 하듯 后妃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깊은 궁전으로 물러나 夫婦有別의 덕을 쌓아 王化를 이루게 한다 하였다. 부부유별은 곧 충효의 근원이 되고 이로부터 朝廷이 嚴正해지며 아울러 천하에 非禮를 범하는 일이 없으니 王의 敎化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³⁸⁾ 즉, 夫婦有別을 예의 근원으로 본 것이다.

《孔子詩論》³⁹⁾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孔子의 詩論이 보인다. 그중에서 비교적 많이 거론되는 것은 第10號簡의 “〈關雎〉之改”이다. 晁福林은 ‘改’를 ‘大’로 해석하면서 “〈關雎〉之改”는 “〈關雎〉의 위대함”이라는 의미로 보았다. 이는 《韓詩外傳》에서의 “〈關雎〉之事大”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晁福林은 孔子가 〈關雎〉를 위대하게 본 이유로 第10號簡의 “〈關雎〉以色喻於禮(〈關雎〉는 색으로 禮를 깨닫게 했다.)”를 제시했다. 즉, 孔子는 ‘禮’의 시각에서 〈關雎〉를 중시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孔子家語·好生》에서 보이는 “小辯害義, 小言破道. 關雎興於鳥, 而君子美之, 取其雄雌之有別(작은 말재주는 本義를 왜곡하고 자잘한 언론은 道의 전달을 방해한다. 〈關雎〉는 뜻을 새에 기탁하였으니 군자가 이를 아름답다 여긴 것은 그 자웅의 구별을 보았기 때문이다.)”을 근거로 보충하였다. 즉, 공자는 남녀의 유별을 바탕으로 하는 禮의 시각에서 〈關雎〉를 禮의 典範으로 보았다는 것이다.⁴⁰⁾

38) “夫婦有別, 則性純子孝, 故能父子親也, 孝子爲臣必忠, 故父子親則君臣敬. 君臣既敬, 則朝廷自然嚴正. 朝廷既正, 則天下無犯非禮, 故王化得成也.” 《毛詩正義》, 28쪽.

39) 中國上海博物館은 1994년 홍콩에서 戰國時代의 竹簡 일부를 구입하였고, 2001년 11월에 馬承源의 主編으로 《上海博物館藏戰國草竹書(一)》을 출판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孔子詩論》은 그 중의 하나인데, 모두 29편의 竹簡에 1006자로 되어 있다. 이의 발견은 중국의 시학과 경학의 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론이 〈관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于淑華著, 〈《孔子詩論》中〈關雎〉論釋義〉, (赤峰學院學報 第28卷 第4期 2007), 36쪽.

남녀의 구별은 음양의 이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양의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연의 이치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은 때에 맞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고, 남녀는 구별이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니 이것이 곧 天地의 情理이다. (化不時則不生, 男女無辨則亂升, 天地之情也.)⁴¹⁾

남녀의 구별이 없으면 인간사회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멀어지며 아울러 혼란 속의 생물이 될 것이다.

공자는 “關雎以色喻於禮”라는 의미, 즉, 호색의 본성이 禮로 履行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여 <關雎>의 위대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이치를 인위적인 예로 매우 조화롭게 구현하는 과정을 드러냈다고 보인다. 즉, 남녀의 구별 속에서 호색과 혼인의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부터 冠笄의 예와 혼인의 예가 정립되었다.

백성이 호색의 본성이 있으니 군왕의 혼례가 제정되고,……호색의 본성으로 인해 혼인의 예가 제정되니 남녀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民有好色之性, 故有大婚之禮.……因其好色而制婚姻之禮, 故男女有別.)⁴²⁾

婚禮와 冠禮 그리고 笄禮를 제정하여 남녀를 구별하였다. (昏姻冠笄, 所以別男女也.)⁴³⁾

婚禮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즉, 종적으로는 생명의 연속이며 횡적으로는 사회 규범의 근본 즉 예의 근본이 된다.

혼례란 두 성씨를 좋게 맺어주어 위로는 중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니 군자가 중히 하였다. ……남녀가 유별한 후에 부부가 道義가 있고 부부가 도의가 있는 후에 부자가 친애가 있

40) 晁福林著, <從上博簡《詩論》看<關雎>的主旨> (2008年春之卷). 88~89쪽.

41) 《禮記·樂記》, 1278쪽.

42) 《淮南鴻烈集解·泰族訓》(北京: 中華書局, 1989). 670쪽.

43) 《禮記·樂記》, 1264쪽.

고 부자의 친애가 있는 후에 군신이 바르게 된다. 때문에 혼례는 예의 근본이라 하였다. (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男女有別而後夫婦有義, 夫婦有義而後父子有親, 父子有親而後君臣有正. 故曰: 昏禮者, 禮之本也.)⁴⁴⁾

이렇듯 혼례를 통해 인간은 생명의 영속이 이루어지며 아울러 사회와 국가로 흥성하는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혼인은 반드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배필을 맞이하는 것은 生民의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입니다.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되어야 만물이 갖추어지고 천명을 보전하게 됩니다. 공자께서 《詩》를 논술하실 때 <關雎>를 앞에 두신 것은 尊位에 계신 분은 백성의 부모와 같으니, 황후의 품행이 천지와 같지 않으면 신령의 引導를 받들지 못할 것이며 만물의 적절함을 가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고로 《詩》에 “요조숙녀는 군자가 찾는 배필”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貞淑하고 절개가 곧으며 정욕을 품거나 나타내지 않고 사사로운 정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至尊의 배필이 될 수 있고 종묘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紀綱의 머리이며 성왕 교화의 시작입니다. 前代로부터 三代의 흥망이 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妃匹之際, 生民之始, 萬福之原, 婚姻之禮正, 然後品物遂而天命全. 孔子論《詩》以<關雎>爲始, 言太上者民之父母, 后夫人之行不侔乎天地, 則無以奉神靈之統而理萬物之宜. 故《詩》曰: “窈窕淑女, 君子好仇.”言能致其貞淑, 不貳其操, 情欲之感無介乎容儀, 宴私之意不形乎動靜, 夫然後可以配至尊而爲宗廟主. 此綱紀之首, 王教之端也, 自上世已(以)來, 三代興廢, 未有不由此者也.)⁴⁵⁾

왕에게는 혼인의 예가 바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왕의 교화를 이루는 시작이었다. 왕은 나라의 지존이기 때문에 천지와 함께 호흡하며 만물의 이치와 함께 한다. <關雎>가 后妃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라면 '君子'는 왕을 뜻한다. 공자는 <關雎>를 통해 大婚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4) 《禮記,昏義》, 1888쪽.

45) 班固 撰, 《漢書·匡張孔馬傳》(北京: 中華書局 影印), 3342쪽.

옛날의 政事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크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禮를 크게 여겼습니다. 예를 갖추게 하는 것은 敬意를 크게 여겼습니다. 敬意의 至高함은 군왕의 혼인을 중시함에 있습니다. 군왕의 혼인은 가장 至高한 敬意의 표현인 것입니다. 천지가 교섭하지 않으면 만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군왕의 혼인은 만세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古之爲政, 愛人爲大. 所以治愛人, 禮爲大. 所以治禮, 敬爲大. 敬之至矣, 大昏爲大. 大昏至矣. ……天地不合, 萬物不生. 大昏, 萬世之嗣也.)⁴⁶⁾

군왕의 혼인은 政事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로부터 敬意와 禮儀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특히 천지가 서로 호응하여 만물이 생겨나듯 군왕의 혼인 또한 만세를 이어가는 음양의 화합인 것이다.

왕은 자신이 모범을 보이고 아울러 백성에게는 혼인이 선택이 아니고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사항으로 구속하였다.

매씨는 만민의 혼인을 관장한다. ……2월의 봄이 되면 남녀가 혼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 때에는 私奔도 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숨에 따르지 않는 자는 벌을 주었다. 또한 지아비가 없는 과부와 가정이 없는 홀아비들도 살피 혼인을 하도록 하였다. (媒氏掌萬民之判. ……中春之月, 令會男女, 於是時也奔者不禁; 若無故而不用令者, 罰之, 司男女之無夫家者而會之.)⁴⁷⁾

媒氏는 백성의 혼인을 관장하던 관직이었다. 仲春을 결혼의 시기로 정하여 婚齡에 이른 남녀들을 결혼하게 하였다. 이 때에는 禮를 갖추지 않고 부부가 되는 것도 허락했으며, 오히려 婚齡을 넘기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다. 아울러 홀아비나 과부도 포함되었으니 혼인에 대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할 수 있다.

‘守禮’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예로 제어하는 의미를 갖는다. <關雎>는 이러한 본성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예를 통한 본성의 수용을 나타

46) 《禮記·哀公問》, 1606~1607쪽.

47) 《周禮·地官·媒氏》, 427~430쪽.

냈다고 할 수 있다.

4. 結 語

<關雎>가 孔子를 비롯한 儒學者들의 중시를 받아온 이유는 일차적으로 好色과 守禮의 관계 속에서 찾아 볼 있다. 모든 생물의 본성은 그 種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충족된다. 사람은 일반 동물 사회에서 처럼 힘의 역학 속에서 본성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儒家는 예의 역학관계를 확립하였다. 예의 정신과 형식으로 호색의 본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關雎>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의도를 함축한 것이라 보인다.

1) <關雎>는 짐승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물의 보편적인 진리를 사람의 규범 근거로 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즉 생물은 원초적으로 음양의 이치에 따라 雌雄은 서로 짝을 찾고, 아울러 단지 그 이치를 구현할 뿐 과도한 耽溺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곧 사람에게는 禮의 근거가 된 것이다.

2) <關雎>는 호색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詩의 첫 章 ‘雎鳩’로부터 終章의 ‘淑女’에 이르기까지 全篇에 陰陽 和合의 기류가 흐른다. ‘好逑’는 남녀의 결합을 강렬하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3) 詩 全篇은 남녀의 결합을 예의 내용과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關雎>에서 보이는 ‘摯而有別’의 습성으로 ‘男女有別’ 또는 ‘夫婦有別’이란 예의 내용을 상징하였다. ‘夫婦有別’은 곧 예의 바탕이다. 아울러 ‘琴瑟友之’와 ‘鐘鼓樂之’ 등은 예의 한 절차를 의미한다.⁴⁸⁾

48) ‘琴瑟友之’와 ‘鐘鼓樂之’는 전통적으로 祭禮의 음악으로 해석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해석은 분분하였다. 주로는 ‘琴瑟友之’는 淑女와 君子의 親近을 의미하고 ‘鐘鼓樂之’는 이 둘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즉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해 끝내는 즐거운 결혼으로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혼례는 음악을 연주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어서 축하하지도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昏

4) 공자는 음악을 중시하였고, <關雎>는 당시 공자가 중시한 음악이었다. 《論語·泰伯》에 “子曰：師摯之始，<關雎>之亂，洋洋乎盈耳哉。(공자께서 이르되：太師 摯의 음악이 시작되면 關雎로 끝이 나는데 귀에 가득 울리는구나!)”라 했는데, 이것은 음악으로서의 <關雎>를 말한 것이다. 음악은 예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시로서 일으키고 예로 서며 음악으로 이룬다. (興於詩，立於禮，成於樂.)⁴⁹⁾

시는 性情을 나타낸 것이어서 吟詠을 통해 쉽게 性정의 陶冶를 도모할 수 있다. 禮는 公경을 바탕으로 하여 절제를 배우니 다른 사물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자신을 세울 수가 있다. 음악은 시와 예를 통해 얻은 배움을 도덕적 和順을 통해 완성하도록 해준다.

<關雎>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서 공자의 理想을 교육하는데 가장 적절한 소재였다고 보인다.

[參考文獻]

- 《毛詩正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12)
《周易》(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12)
《周禮》(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12)
《論語》(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12)
《禮記》(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0.12)
《六臣注文選》(北京：中華書局，1987)
司馬遷 撰，《史記》(北京，中華書局，1997)
班 固 撰，《漢書·匡張孔馬傳》(北京：中華書局 影印)

禮不用樂，有陰之義也。樂，陽氣也。昏禮不賀，人之序也。”《禮記·郊特牲》950쪽, 여기서는 ‘琴瑟友之’와 ‘鐘鼓樂之’가 혼례의 음악은 아니지만 淑女가 참여하는 제례라는 의미에서 거론한 것이다.

49) 《論語·泰伯》，115쪽.

- 韓 嬰 著,《詩經要籍集成1·韓詩外傳》(北京:學苑出版社,2002)
姚際恒 撰,《詩經要籍集成26·詩經通論》
劉文典 撰,《淮南鴻烈集解》(北京:中華書局,1989)
陳子展 撰述,《詩經直解》(上海:復旦大學出版社,1983)
于淑華 撰,〈《孔子詩論》中〈關雎〉論釋義〉(赤峰學院學報第28卷第4期
2007)
晁福林 撰,〈從上博簡《詩論》看〈關雎〉的主旨〉(2008年春之卷)

<中文提要>

《诗经》古时有三千餘篇，孔子‘去其重’，定《三百》，‘始於衽席’，‘关雎之乱以为风始’。〈关雎〉是《诗经》三百篇中卷首之作。因此司马迁说的‘衽席’和‘乱’就是〈关雎〉居《诗经》之首的两大意义，也是司马氏所能体会到的孔子意图。‘衽席’含蕴男女的本性，‘乱’则指礼乐。〈关雎〉本是男女相悦之词，但经过孔子的手，就变成了辅佐礼的乐章。《孔子诗论》所云“〈关雎〉以色喻於礼”可说是孔子注重〈关雎〉的缘故。孔子叹息“未见好德如好色者”，又强调‘戒色’。不过孔子的‘戒色’并不是抑制本性，以教化的方法来调和，使人的动物本能上升到人性，以诗（乐）明礼，以礼节制本性，这就是孔子注重乐礼的原因。再来从《韩诗外传》载有子夏问孔子‘〈关雎〉何以为国风之始’与孔子的答复“天地之间，生民之属，王道之原，不外此矣。”将此与司马迁所论对照，可以探窥孔子的微言大义。

关键词：〈关雎〉, 后妃之德, 好色, 守礼, 衽席, 昏姻, 礼乐.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96·中國學 第36輯(2010.8)

<빈 페이지>

唐傳奇 〈杜子春傳〉과 芥川龍之介 〈杜子春〉 비교*

김영옥** · 김태관***

〈목 차〉

1. 서 론
2. 겨울과 봄을 통해 본 고통과 사색
3. 杜子春과 노인의 만남을 통해 본 사회와 개인
4. 求道の 과정에서 본 愛와 孝
5. 나오며

1. 서 론

중국 고전 소설은 일본 근대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¹⁾ 일본 근대 작가 가운데 특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kyingyu@hanmail.net)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tkkim@deu.ac.kr)

1) 《聊齋志異》의 예를 들어보면, 《료재지이》가 1768년에 일본으로 들어온 이후, 《료재지이》의 이야기는 소설 혹은 희극 형식으로 속속 개편되었다. 《요재지이》의 〈花神〉과 〈香玉〉에서 체재를 가져와 엮은 石川鴻齋의 《再生奇緣花神譚》(1889)부터 시작해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일련의 작품들, 太宰治(1909~1948)의 〈清貧譚〉(1941)과 〈竹青〉 등이 바로 그 예이다. 王丽娜 著, 〈世界文庫之瑰寶:《聊齋志異》在國外〉 참조.

(<http://www.zbsq.gov.cn/html/2005/07/28/20050728151500.html>)

1892~1927)는 일본 다이쇼(大正)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중국 고전 소설 작품을 재창작한 작가로도 유명하다.

아쿠타가와와 처녀작 <老年>(1914년) 이후 1927년까지 수많은 소설 작품을 발표하였다²⁾. 魯迅은 아쿠타가와와 작품 중 <羅生門>(1915년)과 <鼻>(1916년)를 번역하여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³⁾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쿠타가와와 문학적 성취 및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쿠타가와와 當代의 풍속과 경험을 제재로 삼은 작품보다 대부분 일본 및 여러 나라의 설화와 역사에서 제재를 취하여 작품을 썼다.⁴⁾ 그 중에서 중국 고전에서 제재를 취한 아쿠타가와와 작품으로는 <仙人>(1915년)에서 또 다른 <仙人>(1922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편⁵⁾이다.⁶⁾

2)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羅生門>(1915년)과 <鼻>(1916년)라는 대표작 외에도 약 200편의 중편과 단편 형식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의 소설을 소재별로 '왕조물', '중국물', '기독교물', '개화기물', '현대물' 등으로 편의적으로 분류한다. 김난희 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209쪽 참조.

3) 이 두 작품은 《晨報副刊》(1921년)에 실렸다.

4) 그는 특히 설화와 역사와 같은 당대의 시공간이 아닌 과거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는 것에 능숙한 반면 당대의 풍속과 경험 속에서 소재로 삼은 작품 쓰는 것에 대해 주저했다. 1920년에 발표한 <秋>를 씌으로써 현대소설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김난희 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209쪽 참조.

5) <仙人>(1915)은 《聊齋志異·鼠戲》에서, <酒蟲>(1916)은 《聊齋志異·酒蟲》, <掉頭의故事>(1917)는 《聊齋志異·諸城某甲》, <黃粱夢>(1917)은 唐代傳奇 <枕中記>, <英雄之器>(1917)는 《西漢通俗演義》, <尾生之信>(1919)은 《莊子·盜跖篇》, <杜子春>(1920)은 唐代傳奇小說 <杜子春傳>, <秋山圖>(1920)는 《甌香館集補遺畫跋·記秋山圖始末》, <奇遇>(1921)는 《剪燈新話·渭唐奇遇記》, 또 다른 <仙人>(1922)은 《聊齋志異·嶗山道士》에서 제재를 가져왔다. 王濤, 《芥川龍之介中國古典題材小說創作》(東北師範大學, 2008) 참조.

6)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 문학 연구자에게 흥미로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중국 고전소설과 아쿠타가와와 작품에 대한 비교 고찰은 특히 일본 문학을 전공한 중국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와 관련된 논문은 주로 중국고전의 원전과 아쿠타가와와 작품 비교 고찰과 중국적 감정과 상상과 아쿠타가와와 영향관계 고찰, 그리고 아쿠타가와와 중국에 대한 인식, 노신과 아쿠타가와와 비교 고찰 등이다. 예를 들면 李春林, 臧恩钰, <魯迅<幸福的家庭>與芥川龍之介<蔥>之比較分析>(魯迅研究月刊, 1997), 於天禕, 《芥川龍之介文本中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중국 고전 소설을 재창작한 그의 작품 가운데 <杜子春>⁷⁾에 대해 唐代 傳奇 <杜子春傳>⁸⁾의 인물과 이야기 구조를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구성된 내용의 대부분은 새롭게 창작한 것이라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⁹⁾ 두자춘과 노인이라는 인물의 등장, 두자춘과 노인의 세 차례 만남과 그 이후 ‘無言’의 수행, 그리고 수행의 실패라는 이야기 구조는 동일하다.

한편 <두자춘>에서 계절적 배경을 겨울이 아닌 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두자춘의 내면심리와 서정적 묘사를 하고 있는 점, 노인이 애꾸눈 철관자로 바뀌어 있는 점, 노인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두자춘이 다른 선택을 하는 점, 지옥에서 축생으로 떨어진 부모가 두자춘 앞에 나타난 점, 구도 실패 이후 노인과 두자춘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은 표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차이점이다.

그런데 아쿠타가와와 새로운 창작 과정 속에서 두자춘은 새로운 인물

的中國情結研究》(山東大學, 2007), 郭琳琳, <芥川龍之介與蒲松齡創作悲劇意識之比較研究>(安徽文學, 2009)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반해 국내의 중국문학계와 일본문학계의 경우 아쿠타가와와 작품과 중국 고전 소설 작품 비교 연구는 중국내 일본학계만큼 활발하지 않다. 국내의 논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비교 연구로는 임숙자의 <「杜子春」と「杜子春」傳との比較：杜子春が聲をあげる場面の相違を中心にして>(人文論叢, 1997) 논문 정도가 확인되었다.

7) 1920년(大正 9 年) 9월 《赤鳥》에 발표하였다.

8) <두자춘>의 뒤에 작가가 쓴 附記가 있다. 작가는 부기에서 소설 <두자춘>과 당대 소설 <두자춘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원전<두자춘전>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소장하고 있는 두 개의 판본과 또 다른 세 개의 판본, 모두 다섯 개의 판본이 있다.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宋 李日方 撰, 《太平廣記》권16권신선16 제1화 <두자춘>, 2. 清 陳蓮塘 編, 《唐代叢書》(嘉慶 11년)권4절22권 <두자춘전>, 3. 《繪圖歷代神仙傳》(宣統元年, 掃葉書房石印)권7 제8화 <두자춘>, 4. 吳增祺 編, 《舊小說》(上海商務印書館民國4年版)乙集一·唐<두자춘전>, 5. 上海古今圖書局編·胡寄塵 序 《古今小說精華》(民國4年廣益書局發行)권26神怪類(一)·仙佛門(一)(二)제26화 <두자춘>이 있다. 林崗 著, <芥川小説<杜子春>의時間設定>(日本學論壇, 2003), 9쪽 참조.

9)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독자에게 쓴 편지에서 “줄고 <두자춘>은 비록 당대 소설 두자춘전의 주인공을 채용했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2/3이상 내가 창작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昭和2년19252월 3일 아쿠타가와류노스케가 河西信三에게 보낸 서신) 林崗, <芥川龍之介<杜子春>의時間設定>(日本學論壇, 2003), 9쪽 참조.

로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재탄생된 두자춘은 아쿠타가와와 자화상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자춘>의 이야기 속에는 아쿠타가와를 따라 다니는 수식들, 이를 떼면 불안, 우수, 권태, 예고이즘, 불신, 절망, 죽음¹⁰⁾ 등이 편린처럼 흩어져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자춘>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실패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하는 두자춘이다.¹¹⁾

본고에서는 당 전기 <두자춘전>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두자춘>¹²⁾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두자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근대 지식인의 고민과 방향과 그 출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겨울과 봄을 통해 본 고통과 사색

<두자춘전>과 <두자춘>의 계절적 배경은 각각 겨울과 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절적 배경의 차이는 동일한 인물과 이야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전체의 상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인물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두자춘전>의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方冬’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이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묘사를 달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글자는 추위와 허기로 지쳐있는 두자춘의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가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두자춘전>은 추

10) 아쿠타가와와 어머니(후쿠 福)는 그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정신이상을 앓게 되고, 아쿠타가와가 11살이 되던 해(1902)에 정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아쿠타가와가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추구하고 고독한 세계 특권화하고 번거로운 일상과 점점 멀어진 세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은 바로 이러한 가족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난희 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16~17쪽 참조.

11) 그렇기 때문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은 ‘지성의 패배’, ‘어렵퐁한 불안’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불안과 무력감의 상징이 될 정도로 하나의 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미요시 유키오 저, 정선택 역, 《일본 문학의 근대와 반근대》(서울:소명출판, 2002), 229~233쪽 참조.

12) 이후 당 전기 <두자춘전>은 <두자춘전>으로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두자춘>으로 표기하였다.

운 겨울, 허기로 배를 움켜진 채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두자춘 묘사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바야흐로 겨울, 옷은 떨어지고 배는 비어 있는 채로 장안을 이리 저리 다녀보지만, 날은 저물어가도 빈속을 채우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方冬, 衣破腹空, 徒行長安中, 日晚未食, 彷徨不知所往.)¹³⁾

중원의 겨울은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할퀴고 지나가는 메마르고 척박한 계절이다. ‘破’, ‘空’, ‘晚’ 등의 단어는 움츠림, 비어있음, 척박함, 어둠,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땅거미가 드리워지는 겨울의 거리를 헤매는 두자춘의 처지¹⁴⁾는 더욱 절망스럽고, 그의 한숨과 분노¹⁵⁾는 더욱 거칠다.

그렇다면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의 봄은 어떻게 묘사되어있는지 보자.

어느 봄날 해질 무렵입니다. …… 그러나 두자춘은 변함없이 서문 벽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或春の日暮です。(しかし杜子春は相変らず、門の壁に身を凭せて、ぼんやり空ばかり眺めていました。)¹⁶⁾

봄날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벽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두자춘의 모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기숙할 곳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두자춘과 분명 다르다. 그는 당 전기의 두자춘과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봄날의 나른한 석양

13) 王夢鷗 撰, 《唐人小說研究4集》(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78년), 55쪽.

14) 옷은 다 떨어지고, 허기진 배를 움켜진 채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衣破腹空)을 말한다.

15) 친척들과 친구들에 대한 분노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심리적 상태는 ‘春言其心, 且憤其親戚之疎薄也, 感激之氣, 發於顏色’에 잘 드러난다. 위의 책, 55~56쪽.

1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지음/박진배 옮김,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인덕, 1999), 17쪽. 芥川龍之介 著, 《芥川龍之介全集4》(東京:築摩書房, 2006), 7~8쪽.

속¹⁷⁾에 자신의 처지를 관조할 뿐이다. 계속 이어지는 서정적인 묘사를 살펴보자.

하늘에는 이미 가느다란 달이 화려하게 빛나는 안개 속에 마치 손톱 자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미하게 희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空には、もう細い月が、うらうらと靡いた霞の中に、まるで爪の痕かと思う程、かすかに白く浮んでいるのです。)¹⁸⁾

이와 같은 봄의 밤하늘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는 두자춘의 처지를 극한으로 몰고 가지 못한다. 그것은 당 전기의 두자춘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이 현실적인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서정적인 묘사가 풍요로움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설정처럼 빈곤과 고독을 돋보이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두자춘>의 봄은 당 전기의 두자춘이 품고 있었던 분노를 녹여버리는 작용을 한다. 마치 봄볕에 별수 없이 얼음이 녹아 흘러가는 개울물처럼. 그래서인지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은 세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타인에게 의지하려하지 않는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거기다 어딜 가도 재워 줄 곳은 없을 것 같으니-이런 생각을 하며 살 정도라면, 그냥 강에 몸이라도 던져 죽어 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군.” (「日は暮れるし、腹は減るし、その上もうどこへ行っても、泊めてくれる所はなさそうだし—こんな思いをして生きている位なら、一そ川へでも身を投げて、死んでしまった方がましかも知れない」)¹⁹⁾

두자춘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반사한다. 그

17) 그리고 그 즈음의 낙양이라고 하면, 천하에 비교할 곳이 없이 번창할 대로 번창한 도시였으므로 거리는 아직 빈틈없이 왕래하는 사람들과 마차로 가득했습니다.(何しろその頃洛陽といえは、天下に並ぶものない、繁昌を極めた都ですから、往來にはまだしっきりなく、人や車が通っていました。)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17쪽. 《芥川龍之介全集4》, 8쪽.

18)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17쪽. 《芥川龍之介全集4》, 8쪽.

19)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17~18쪽. 《芥川龍之介全集4》, 8쪽.

러나 그것은 소설 속의 표현처럼 ‘덧없는 생각(取りとめもないことを思いめぐらして)’이고, 일종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들에 대한 불만조차 없다. 다만 배는 고픈 대로 그것을 느끼고, 잘 곳이 없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그가 떠올리는 죽음은 절박한 처지를 탈출하고자하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번쯤 너까려보는 상투적인 푸념과 비슷하다. 그러나 당 전기의 두자춘은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보다 삶의 무게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의 거친 한숨을 통해 드러난다.

동시(東市)의 서문에 이르자, 허기와 추위에 지친 모습이 역력한 채,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於東市西門, 飢寒之色可掬, 仰天長吁.)²⁰⁾

두자춘은 허기진 배를 달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그가 기탁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어느 곳도 그를 쉬도록 해주지 않는다. 서문에 이르자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허기와 추위에 입김조차 말라버렸을 것 같은 그 한숨은 어떠한 설명보다 삶의 고통을 응축해 내고 있다.

<두자춘전>의 겨울은 추위와 허기로 지친 두자춘의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게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계절적 장치이다. 그래서 두자춘은 자신에 대한 반성보다 친척과 친구에 대한 분노만을 쌓아가고 있다. 그에 반해 <두자춘>의 봄은 우선 추위로부터 해방된 계절이기에 두자춘은 덜 냉혹한 환경과 조우한다. 그래서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은 당 전기의 두자춘과 달리 외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자조하는 내면적 인물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계절적 설정은 외부 혹은 사회에 관심을 두는 인물과 내면 혹은 개인에 집중하는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唐人小說研究4集》, 55쪽.

3. 두자춘과 노인의 만남을 통해 본 사회와 개인

<두자춘전>과 <두자춘>의 플롯에서 두자춘과 노인의 세 번의 만남 가운데 세 번째 만남은 두 명의 두자춘의 각기 다른 출발점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노인과 두자춘이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두자춘전> 이야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烈士池>²¹⁾에서 隱者가 미래의 烈士가 될 남자를 주시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남자의 울음 때문이었다.²²⁾ 남자의 ‘억울한 울음’²³⁾은 <두자춘전>에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으로, <두자춘>에서는 하늘만 물끄러미 쳐다보는 ‘자조적 푸념’으로 바뀌었다.

당 전기의 노인은 두자춘의 한숨을 듣고 찾아왔고, 아쿠타가와와의 애꾸눈 철관자는 두자춘의 생기 없는 눈빛을 보고 다가왔다. 그들은 두자춘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당 전기 두자춘은 외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은 내면의 푸념만을 얼떨결에 노인에게 털어놓고 말았다.²⁴⁾

21) 《大唐西域記》 권7에 中印度에 있는 婆羅痾斯國의 이야기가 있다. 그 나라에는 80여 보 너비의 ‘救命’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烈士池>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연못에 얽힌 전설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그 연못가에 초막을 짓고 사는 隱者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烈士를 찾아다니던 중, 슬피 울고 가는 젊은이를 눈여겨보게 된다. 隱者는 그 젊은이를 그의 초막으로 데리고 와서 성의를 다해 대접한다. 그 젊은이는 은자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자, 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룻밤동안 ‘無言’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때부터 젊은이는 烈士라는 이름으로 구도의 길에 들어선다. 그러나 그 열사는 악몽을 꾸다 그만 소리를 냄으로써 허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이하 《大唐西域記》의 烈士池에 관련된 텍스트는

<http://www.tianyabook.com/lishi2005/datangxiyuji/07.htm>에서 참조함.

22) 悲號逐路. 隱士睹其相. 心甚慶悅. 《大唐西域記·烈士池》

23) 卽而慰問何至怨傷. 曰我以貧窶備力自濟. 其主見知特深信用. 期滿五歲當酬重賞. 於是忍勤苦忘艱辛. 五年將周一旦違失. 既蒙笞辱又無所得. 以此爲心悲悼誰恤. 《大唐西域記·烈士池》

24) 노인의 갑작스런 질문에 두자춘은 눈을 감은 채 얼떨결에 솔직히 대답을 하였습니다.(老人の尋ね方が急でしたから、杜子春はさすがに眼を伏せて、思わず正直な答をしました。)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芥川龍之介全集4》, 8쪽.

당 전기와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 모두 노인이 건네준 돈으로 혹은 일러준 대로 하자 부자가 된다.²⁵⁾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연회를 베풀며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다만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당 전기의 두자춘은 ‘분노(憤)’ 대신 ‘부끄러운 마음(慚)’으로 노인을 대면하고²⁶⁾,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 역시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²⁷⁾ 두 번째 만남에서 그들은 노인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또 다시 어김없이 노인들은 그들을 찾아온다. 그러나 그 세 번째 만남에서 당 전기의 두자춘과 아쿠타가와와의 두자춘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먼저 당 전기의 두자춘을 보자.

나는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놀기만 하여 재산을 탕진했지요. 친척은 세도가이지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
다. 오직 당신만은 나에게 세 번이나 도움을 주시려는데, 어떻게 그
것을 갚겠습니까?” 그리하여 노인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얻음으로
써, 인간세상 일에 공을 세울 수 있고, 고아와 과부에게 옷과 먹을 것
을 줄 수 있다면, 명교를 원만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노인의 깊은 은
혜 감사드리며, 공을 세우고 난 후, 노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
다.”(子春曰『吾落拓邪遊, 生涯罄盡, 親戚豪族, 無相顧者. 獨此叟三給
我, 我何以當之?』因謂老人曰『吾得此, 人間之事可以立, 孤孀可以衣
食, 於名教復圓矣. 感叟深惠, 立事之後, 唯叟所使.』)²⁸⁾

25) <두자춘전>에서는 노인이 두자춘에게 처음에는 삼백만냥, 두 번째에는 천만냥, 세 번째에는 삼천만냥을 직접 건네주었다고 하면, 류노스케의 <두자춘>은 “지금 이 석양 속에 서서 자네의 그림자가 땅에 비추면 그 머리에 해당하는 곳을 한밤중에 파 보거라, 틀림없이 마차 가득히 황금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철관자가 두자춘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었다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석양에 서서 자네의 그림자가 비치면 그 가슴에 해당하는 곳을 오늘밤 파 보게. 틀림없이 마차 가득 황금이 나올 거야.”라고 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설정은 동화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26) 子春慚不應. ……子春慚謝而已. 《唐人小說研究4集》, 55쪽.

27) 두자춘은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부끄러운 듯이 아래를 내려다본 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杜子春は老人の顔を見ると、恥しそうに下を向いたまま、暫くは返事もしませんでした。)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20쪽. 《芥川龍之介全集4》, 11쪽.

28) 《唐人小說研究4集》, 57쪽.

두자춘은 ‘너무나 부끄러워(不勝其慚)’ 얼굴을 가리고 노인을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도망가는 그를 붙잡고 또 다시 돈을 건네준다. 그러자 두자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와 같은 반성은 일종의 종교적 회개처럼 그동안 두자춘이 극복하지 못한 욕망에 대한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두자춘은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돕겠다는 원대한 다짐을 한다.²⁹⁾ 이것은 노인을 위해 구도의 길을 나겠다는 그의 다짐과 함께 남을 위하는 利他적 행위의 구현이자, 사회로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세 번째 노인과의 만남에서 반복되어 왔던 노인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린다.

노인이 여기까지 말하자 두자춘은 갑자기 손을 올리며 그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니요. 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호사에 질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에 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매정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가령 다시 부자가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자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굳힌 듯이 고개를 들어 호소하듯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러니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 仙術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老人がここまで言いかけると、杜子春は急に手を挙げて、その言葉を遮りました。「いや、お金はもういらぬのです」 ……「何、贅沢に飽きたのじゃありません。人間というものに愛想がつきたのです」 ……「人間は皆薄情です。……そんなことを考えると、たといもう一度大金持になったところが、何にもならないような気がするのです」 ……杜子春はちよいとためらいました。が、すぐに思い切った眼を上げると、訴えるように老人の顔を見ながら、「……ですから私はあなたの弟子になって、仙術の修業をしたいと思うのです。」³⁰⁾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자춘은 철관자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동안 ‘인간의 매정함(人間は皆薄

29) 子春以孤孀多寓淮南，遂轉資揚洲，買良田百頃，郭中起甲第，要路置邸百餘間，悉召孤孀分居第中。婚嫁甥姪，遷附族親，……既畢事，及期而往。《唐人小說研究4集》，55쪽.

30)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21~22쪽. 《芥川龍之介全集4》，13~14쪽.

情)’을 경험하고, 인간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 두자춘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행복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신선이 되기 위해 철관자를 따라 나선다. 이와 같은 두자춘의 선택은 개인을 위하는 利己的 행위이고, 개인 내면으로의 지향으로 볼 수 있다.³¹⁾

요컨대 당 전기의 두자춘과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이 동일한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심리적 반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 전기의 두자춘은 외부에 대한 분노→내면적 반성의 과정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상세계와 노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다면,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내면적 방황→외부에 대한 실망을 통해 개인의 구도를 위해 아미산으로 떠난다. 그것은 각각 남을 위하는 利他적 행위와 자기를 위하는 利己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5. 求道の 과정을 통해 본 愛와 孝

당 전기의 두자춘은 자신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노인을 찾아 가고,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이미 철관자의 제자가 되어 아미산으로 갔다.

당 전기의 두자춘은 오직 노인을 위해 ‘無言하라’라는 말을 유념하며 좌정에 들어가고,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신선이 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경험한 수련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들은 대장군이 이끄는 군대, 맹호, 독사, 사자, 전갈과 같은 맹수, 홍수, 천둥, 번개 같은 天災, 죽음과 지옥 등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두자춘전>에서 염라대왕은 죽음과 지옥의 관문을 통과한 두자춘에게 여자의 몸으로 환생하게 하였다. 여자아이로 태어난 두자춘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내생을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자춘은 내생에서도 노인과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두자춘에게도 예기치 않은 사건이 펼쳐진다.

31)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에게 있어서 당 전기의 두자춘이 보여주었던 세상을 위한 유교적 이상 사회 건설은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노씨는 아이를 안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대답이 없자……(아이의) 두 발을 쥐고 (아이의)머리를 바위에 마구 내려쫓자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낭자했다. 두자춘은 사랑이 마음에 생겨나 그 약속을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옥’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다. (盧抱兒與之言, 不應……乃持兩足, 以頭撲於石上, 應手而碎, 血濺數. 子春愛生於心, 忽忘其約, 不覺失聲‘噫’.)³²⁾

남편인 盧珪가 대답하지 않는 아내에 분노하여 두 살짜리 아들을 잔인하게 내던지는 순간, 두자춘은 자식에 대한 母性愛로 그만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다.³³⁾

한편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에게 염라대왕은 축생으로 떨어진 두자춘의 부모를 그의 앞에 끌고 왔다.

그것은 틀림없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두자춘은 순간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말이 힘없이 땅에 쓰러진 채, 슬픈 눈으로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생각하며 도깨비들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전혀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두자춘은 노인과의 약속을 잊은 채, 구르듯이 그 옆으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죽어가는 말의 머리를 안고 슬프게 울면서 “어머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それは確に懐しい、母親の聲に違いありません。杜子春は思わず、眼をあきました。そうして馬の一匹が、力なく地上に倒れたまま、悲しそうに彼の顔へ、じっと眼をやっているのを見ました。母親はこんな苦しみの中にも、息子の心を思いやって、鬼どもの鞭に打たれたことを、怨む気色さえも見せないのです。……杜子春は老人の戒めも忘れて、転ぶようにその側へ走りよると、両手に半死の馬の頸を抱いて、はらはらと涙を落しながら、「お母さん」と一声を叫びました。)34)

두자춘은 도깨비들로부터 채찍을 맞아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져 쓰러져 가는 말을 보면서도 노인의 말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견

32) 《唐人小説研究4集》, 57쪽.

33) <열사지>에서 열사는 나이가 들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죽이겠다는 아내의 협박에 그만 소리를 내게 된다. 이를 통해 <두자춘전>은 父性에서 母性의 관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34)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31쪽. 《芥川龍之介全集4》, 24~25쪽.

다고 있었다. 그러나 두자춘은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감고 있던 눈을 뜨고 힘없이 땅에 쓰러져 있는 그 말의 슬픈 눈을 보고 말았다. 가식적이고 변덕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했던 두자춘은 어머니의 변함없고 가없는 사랑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³⁵⁾ 이 순간 두자춘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영원히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두자춘은 어머니를 껴안고 흘린 눈물로 생명의 소생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의 눈빛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내면 깊숙이 묻혀만 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왔고, 이로써 두자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 전기의 두자춘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慈愛) 때문이라면,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고통을 껴안은 아들의 사랑(孝心)때문에 하룻밤 사이의 수련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求道의 과정에 있어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패 이후의 두자춘의 마음과 노인의 반응이다.

우선 당 전기 <두자춘전>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

“그대와 나의 마음에는 喜·怒·哀·懼·惡·欲 모두 없었습니다.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은 愛 뿐입니다. ……아, 仙才를 얻기 어렵구나! ……” 멀리 길을 가리키며 돌아가라고 했다. (『子吾之心, 喜怒哀懼惡欲, 皆忘矣. 所未臻者, 愛而已. ……嗟乎, 仙才之難得也!』遙指路使歸.)³⁶⁾

인간의 七情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시공간의 구속에서 탈피한 영속할 수 있는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다.³⁷⁾ 노인은 불로장생의 仙藥

35) 두자춘이 보게 된 슬픈 어미의 눈과 그가 느끼게 된 어미의 깊은 사랑에 대한 묘사 속에는 아쿠타가와와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11살 되는 해 그의 어머니의 죽음은 어린 류노스케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겨놓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6) 《唐人小說研究4集》, 57쪽.

37) 葛兆光是 자식에 대한 사랑을 ‘小愛’라 하고 개인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가문의 생명의 연속 관련된 것을 ‘大愛’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랑은 모두 개인의 이익과 자아, 애정 그리고 혈연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순간적인 생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신선세계는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영원히 존재가 가능하며, 신선의 세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七情을 극복해야 하는데, 특히 ‘愛’는 극복하기 힘든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았다. 葛兆光, <歷經試練-小

을 얻기 위해 두자춘에게 공을 들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두자춘의 실패를 더욱 안타까워한다. 그것은 아쿠타가와와 노인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갑자기 첩관자는 엄숙한 얼굴로 뚫어지게 두자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네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바로 너의 목숨을 끊어 버렸을 것이다.” (鐵冠子は急に厳な顔になって、じっと杜子春を見つめました。「もしお前が黙っていたら、おれは即座にお前の命を絶てしまおうと思っていたのだ。」³⁸⁾

첩관자의 대답은 독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겨나간다. <열사지>에서의 은자도 열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했고, <두자춘전>의 노인도 안타까워하며 냉정하게 두자춘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와 첩관자는 오히려 두자춘의 실패를 반기고 있다. 그것은 두 명의 두자춘이 실패 이후 반응과도 상응한다. 당 전기의 두자춘은 노인의 은혜를 갚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원망하지만,³⁹⁾ 아쿠타가와와 두자춘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다행스러워한다.⁴⁰⁾ 그것은 개인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하나의 제시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는 메시지이다.

이와 같이 <두자춘전>와 <두자춘>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전통사회와 개인을 발견하고 개인적 행복을 중시하는 근대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다.

說、歴史和現實中的道教信仰考驗>(清華大學學報,1999), 8~9쪽 참조.

38)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32쪽. 《芥川龍之介全集4》, 26쪽.

39) 子春既歸, 慚其忘誓, 復欲自效以謝其過. 行至雲臺峰, 絕無人跡, 歎恨而歸. 《唐人小說研究4集》, 57쪽.

40) “제아무리 신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옥의 삼라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되든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두자춘의 목소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밝았습니다.(「いくら仙人になれたところが、私はあの地獄の森羅殿の前に、鞭を受けている父母を見ては、黙っている訳には行きません」 ……「何になっても、人間らしい、正直な暮しをするつもりです」 杜子春の声には今までにない晴れ晴れした調子が罩っていました)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 32쪽. 《芥川龍之介全集4》, 26쪽.

6. 나오며

중국 고전 작품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게 소설 창작의 중요한 제재가 되어주었다. <두자춘>의 두자춘을 통해 그는 단순히 고전 작품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본고에서는 <두자춘전>과 <두자춘>의 비교를 분석을 통해 인물 형상과 그 지향점,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사회에 대해 분노하는 인물과 내면을 자조하는 인물로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두자춘을 통해 근대 지식인의 방향과 무력함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과의 세 차례 만남 중 세 번째 만남은 외부와 사회로 향해 있는 두자춘과 내면과 개인적 관심에 머물러 있는 두자춘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 전기의 두자춘이 보여준 이상 사회 건설과 구도의 길을 떠나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두자춘의 선택이 바로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구도의 실패하는 장면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두 노인의 각기 다른 반응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두 작품 속의 노인과 두자춘의 모습은 바로 사회 중심, 혈통 중심의 전통적 유교 사회와 개인을 발견하는 근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王夢鷗 撰, 《唐人小說研究4集》(臺北: 藝文印書館印行, 1978)
芥川龍之介 著, 《芥川龍之介全集4》(東京: 築摩書房, 200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지음/박진배 옮김, 《아쿠타가와 대표단편선》(인
덕, 1999)
김난희 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경기 파주: 한국학술정
보[주], 2008)

- 미요시 유키오 저, 정선태 역, 《일본 문학의 근대와 반근대》(서울:소명, 2002)
- 임숙자, <「杜子春」と「杜子春」傳との比較 : 杜子春が聲をあげる場面の相違を中心にして>(人文論叢, 1997)
- 於天禕, 《芥川龍之介文本中的中國情結研究》(山東大學, 2007)
- 王 濤, 《芥川龍之介中國古典題材小說創作》(東北師範大學, 2008)
- 林 崗, <芥川小說《杜子春》的時間設定>(日本學論壇, 2003)
- 郭可愨, <《大唐西域記》與唐代中原、西域的文化互動>(中州學刊, 2009)
- 郭琳琳, <芥川龍之介與蒲松齡創作悲劇意識之比較研究>(安徽文學, 2009)
- 葛兆光, <歷經試練-小說、歷史和現實中的道教信仰考驗>(清華大學學報, 1999)
- 李春林/臧恩鈺, <魯迅《幸福的家庭》與芥川龍之介《蔥》之比較分析>(魯迅研究月刊, 1997)

< Abstract >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had a strong influence on Akutagawa Ryunosuke's works. Akutagawa Ryunosuke showed a portrait of intellectual to look for hope among in a desperate situation through his work 「TuTze-chun」. I tried to compare with Tang Dynasty Novel 「DuZi-chun zhuan」 and Akutagawa's 「TuTze-chun」 to find the meaning of the differences.

First, the seasonal background, 'Winter' and 'Spring' is very important to define Du Zichun's character that is angry about the outside world or Society and only focuses his attention on the inner or individual, then we can find a wandering and weak modern intellectual.

Second, the third meeting with the old man is also significant. Because each DuZi-chun has a different choice at the third meeting, so we can reconfirm a social-oriented and self-centered character through the third meeting. After the third meeting with

the old man, Tang Dynasty Novel's DuZi-chun succeeded in constructing an ideal society, then went to the old man to return his favor. But Akutagawa's decided to enter a Mountain to seek the truth.

The last, Tang Dynasty Novel's DuZi-chun was failed to practice, because of mother 's love for her child, Akutagawa's gave up his purpose due to son's love for his mother. And then Tang's old man got disappointed with DuZi-chun's failure, but Akutagawa's old man was delighted to DuZi-chun's abandonment. Each DuZi-chun's reaction is entirely different with their failure; Tang's DuZi-chun was sorry and penitent for his failure, if anything Akutagawa's was just relieved to cry out when he hugged his mother.

KEYWORD : Akutagawa Ryunosuke, TuTze-chun, seasonal background, individual, society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114·中國學 第36輯(2010.8)

<빈 페이지>

蕭子顯의 《南齊書·文學傳論》 역주1)

이장휘*

<목 차>

1. 들어가며
2. 번역 및 역주
3. 맺는말-소자현의 시학(詩學)사상

1. 들어가며

소자현(487~537)은 자가 경양(景陽)인 남난릉(南蘭陵) 지금의 강소성 상주(常州)시 서북쪽 사람인데, 제(齊)나라 고제(高帝) 소도성(蕭道成)의 손자이다. 일곱 살 때 영도현후(寧都縣侯)에 봉해졌고, 열세 살 때는 급사중(給事中)이 되었다. 양(梁)나라 천감(天監)초에 작위(爵位)가 강등되어 자(子)가 되었다. 소강(蕭綱)태자의 중서사인(中書舍人)과 시중(侍中)·국자좨주(國子祭酒)·이부상서(吏部尙書)·오흥태수(吳興太守) 등을 역임하였다. 박학한데다 글까지 잘 지었고, 빼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어서 소연(蕭衍)과 소강(蕭綱)의 눈에 띄었다. 일찍이 《후한서(後漢書)》 100권과 《보통북벌기(普通北伐記)》 5권, 《귀험전(貴險傳)》 30권, 문집20권을 지었다고 하나 모두 망실되었다. 지금은 《남제서(南齊書)》 59권과 녹흡립(逯欽立)의 《선진한위진남북조시·양시(梁詩)권15》에 수록된 <오서곡(烏棲曲)>등 시 십여 수가 전한다. 문장은 《양서》본전의 <자서(自序)>와 《광홍명집(廣弘明集)》 권19에 <어강금자마가반야과라밀경서(御

* 大邱韓醫大學校 朱子語類翻譯研究團 專任研究員 changhuiy@hanmail.net

1) 본 역주자가 《남제서·문학전론》을 역주할 때는 소자현 저, 《남제서》(북경: 중화서국, 1982)을 판본으로 사용하였다.

講金字摩訶般若波羅蜜經序》가 존재할 뿐이다. 그의 생평에 관한 자료는 《양서(梁書)》 권35 <소자각전(蕭子恪傳)>과 《남사(南史)》 권42 <예장문헌왕전(豫章文獻王傳)>에 덧붙여 전한다.

본편은 소자현이 《남제서(南齊書)》를 저술한 후, 역사가의 입장에서 고급의 문학발전을 서술하면서 문학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문장이다. 본편은 소자현의 독특한 문학사상을 대표하는데, 기본적인 주장은 이전 사람들이나 동시대 사람들의 통용되던 관념과도 다르다. 즉 그는 사학자의 역사적인 안목과 예리한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시경(詩經)》에서 비롯된 사언시(四言詩)와 위(魏)나라의 대표적인 사언시 작가들을 언급하였고, 이릉(李陵)의 오언시(五言詩), 한대(漢代) 장형(張衡)과 위나라 조비(曹丕)의 칠언시(七言詩)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계속해서 사부(辭賦)와 송체(頌體)·표(表)·비문(碑文)·퇴(誄)·골계와 해학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신묘한 구상에 의한 다양한 형식의 체식들을 언급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라 하더라도 각 작가의 장단점은 모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서진(西晉)의 태강(太康)시기에 활동했던 육기(陸機)와 반악(潘岳)의 문풍(文風)은 확연히 다르고, 동진(東晉)의 곽박(郭璞)과 허순(許詢) 및 은중문(殷仲文), 유송(劉宋)조의 안연년(顏延年)과 사령운(謝靈運) 및 탕혜휴(湯惠休)와 포조(鮑照) 같은 작가들은 모두 누구로부터 전수를 받은 것이 아닌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제(齊)나라에 만연되었던 문학현상에 대한 연원을 세 가지 유파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즉 문사를 지나치게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탁하여 사리에 부합되지 않게 한 경향은 사령운으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했고, 지나치게 전고(典故)를 나열하여 생기(生氣)를 잃고 청신함마저 잃어버리게 한 것은 부함(傅咸)과 응거(應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성률(聲律)의 강구와 문사의 지나친 조탁은 포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역사가의 눈에 비친 새로운 왕조의 등장과 교체만큼이나 문학에도 “신변(新變)”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새로운 변화에 따른 결과로 대두되는 작품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대우(對偶)와 대구(對句)를 중시하고, 형식적인

조탁에 운율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던 문단의 경향은 결국 문학의 생명력인 작가의 성령(性靈)을 표출하는데 제약을 가져왔다. 작가의 심미의식은 작가마다 다르고, 견식이나 깨달음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성을 무시하므로 인해 당시 상황은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작품과 작품의 신선감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문학작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긍했던 소자현은 동시대 사람들인 종영(鍾嶸)이나 소통(蕭統)뿐만 아니라 후세의 많은 중국문학사가들조차 지적하고 폄훼하는 동진(東晉)의 현언시(玄言詩)에 대해 그 어떠한 지적이나 비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풍유(諷諭)와 교화(教化)에 대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은 것 또한 위진남북조시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발전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통한 그의 지적과 문제해결방안은 결국 작품의 구상과 시문의 미적판단기준에 관한 견해까지 드러내었다. 물론 소자현이 명확하게 사유의 각도에서 논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주의는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의 심미표준에 대한 소자현의 견해는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작품의 문장 수식에 관한 것인데, 지나친 수식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를 가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특별히 문장의 수식이 지나치게 난해한 것은 반대하였고, 도리어 문장은 밝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을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민간 가요의 언어를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간가요가 갖는 풍격 특징을 채용하면 “(읊조릴 때) 입술을 가볍고 유창하게 하며, 아정하거나 속되지도 않아서 완전히 표현하려는 사상과 감정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간가요를 완전히 모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가요에서 자양분을 취하여 가공하면 문장이 우아하고 정교(精巧)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는 당시 제량시기 문단 경향을 반영한 것이므로 주의할만하다. 본고는 소자현의 《남제서·문학전론(文學傳論)》을 번역하고 자세히 주석을 단 것인데, 후세 학자들의 의론(議論)이 분분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2. 번역 및 역주

[1]

史臣¹⁾曰: 文章²⁾者, 蓋情性之風標³⁾, 神明之律呂⁴⁾也. 蘊思含毫, 遊心內運⁵⁾; 放言落紙⁶⁾, 氣韻天成⁷⁾. 莫不稟以生靈⁸⁾, 遷乎愛嗜⁹⁾, 機見殊門¹⁰⁾,

-
- 1) 사신(史臣): 소자현 자신을 가리킨다. 소자현은 명을 받들어 《남제서(南齊書)》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사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太史公曰”과 같은 예를 모방한 것이기도 하다.
 - 2) 문장(文章): 위진남북조시기에 사용했던 “문학”이란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文化)와 수식(修飾)’을 가리키는 개념인데, 대체로 ‘학문(學問)’과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사용된 “문장(文章)”이란 의미는 수식에 중점을 둔 ‘문채(文采)’와 문장 구조인 문체에 속하는 ‘사장(辭章)’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일반적인 의미인 ‘문장’으로 보기도 한다. 번역주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두 견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광의냐 아니면 일반적이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 번역했다.
 - 3) 풍표(風標): 풍모(風貌)와 표지(標識)라는 의미이다.
 - 4)神明지률려(神明之律呂): “신명”은 정신과 지혜라는 의미이고, “율려”는 원래 황종(黃鐘)이나 대려(大呂)같은 12률로 음악이나 음성을 가리킨다. 즉 문장을 읽으면 그 사람을 보는 것 같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5) 운사함호, 유심내운(蘊思含毫, 遊心內運): 직역하면 “운사”는 생각을 쌓다라는 뜻인데, 문장을 구상한다는 뜻이다. “함호”는 “함필(含筆)”이나 “연필(吮筆)”과 같은 의미로 글을 구상할 때 붓을 물고 심사 숙고한다는 뜻이다. 육기(陸機)는 《문부》에서 “때론 붓끝을 물어도 아득히 멀어서 얻는 것이 없다.”(或含毫而邈然)고 했다. “유심내운”은 직역하면 마음속을 노닐며 움직인다는 것이지만, (붓을 물고 문장을 구상하면서) 예술적인 상상을 속마음에서 펼친다는 뜻이다.
 - 6) 방언락지(放言落紙): 직역하면 말을 운용하거나 종이에 쓰다는 것인데, 표현하면 말이 되지만 종이에 떨어지면 글이 된다는 의미이다.
 - 7) 기운천성(氣韻天成): 즉 저절로 그 기질과 풍모를 갖고 있어서 마치 그 사람과 같음을 말한다. “기운”은 원래 인물 품평에 사용했던 용어였다. 예를 들어 유의경(劉義慶)은 《세설신어(世說新語)》<임탄(任誕)>편에서 “풍모와 기질을 ‘風氣韻度’라고 하였고, <상예(賞譽)>편에서 “풍모와 운치를 ‘風韻’이라고 하였다. 위수(魏收)는 《위서(魏書)》<문원전서(文苑傳序)>에서 “(위나라 효문제 즉 고제(高帝)의) 기운은 고아하고 농염하였다”(氣韻高絕)고 하였다. 또 그림을 논할 때도 사용하였는데, 남조 제나라의 사혁(謝赫)은 《고화품록(古畫品錄)》에서 “氣韻生動”이라고 하였다. “천성”은 마치 하늘이 이룬 것 같으므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 8) 막불품이생령(莫不稟以生靈): “품”은 부여(賦與)받다는 의미이다. “생령”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본성과 정감을 가리킨다.
 - 9) 천호애기(遷乎愛嗜): “천”자는 옮기다 또는 변하다는 뜻이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 본성과 정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각자 애호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賞悟紛雜¹¹⁾. 若子桓之品藻人才¹²⁾, 仲洽之區判文體¹³⁾, 陸機辨於文賦¹⁴⁾,

- 10) 기견수문(機見殊門): 이 구절은 “기견”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다. 진홍(陳洪)의 2인이 지은 《중국고대문학이론독본(中國古代文學理論讀本)》에서는 “기”는 사람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와 인연을 가리키고, “견”은 견해나 식견을 가리킨다고 했다. 양명(楊明)과 양렬영(羊列榮)이 지은 《중국역대문론선(中國歷代文論選)》(先秦至唐五代卷)에서는 두 글자를 “견식(見識)”으로 주를 달았다. 그 용례로 《홍명집(弘明集)》 권10 하양(夏瑒)의 <답석법운서(答釋法云書)>에서 “황제께서는 …… 식견이 빼어나고 원대하셔서 홀로 초탈한 깊은 것을 깨달으셨습니다.”(皇上……機見英遠, 獨悟超深)라는 것과 도홍경(陶弘景)의 <허장사구관단비(許長史舊館壇碑)>에서 “(허상(許尙)은) 문장의 식견이 있다.”(有文章機見)는 것을 들었다. 본역주자는 둘 다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되어 이 구절은 사람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연(機緣)과 견해의 실마리가 다르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 11) 상오분잡(賞悟紛雜): “상”은 감상하다는 의미이고, “오”는 깨닫다는 뜻이며, “분잡”은 각기 다르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감상하고 깨닫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뜻이다. 남송(南宋)의 엄우(嚴羽)는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묘오(妙悟)”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오”자는 이미 이곳에서부터 보인다.
- 12) 자환지품조인재(子桓之品藻人才): “자환”은 조비(曹丕)의 자인데, 그가 인물들을 품평한 것을 가리킨다. “품조”는 사람의 우열과 문학적 재능을 품평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조비가 《전론(典論)》 <논문(論文)>에서 건안칠자(建安七子)를 품평한 것과 <여오질서(與吳質書)>에서 작가들의 재성(才性)에 따라 평론한 것을 가리킨다. 건안칠자에 대해 “노나라 사람으로 자가 문거인 공융(孔融)과 광릉(廣陵) 사람으로 자가 공장인 진림(陳琳)·산양(山陽) 사람으로 자가 증선인 왕찬(王粲)·북해(北海) 사람으로 자가 위장인 서간(徐幹)·진류(陳留) 사람으로 자가 원유인 완우(阮瑀)·여남(汝南) 사람으로 자가 덕련인 응양(應瑒)·동평(東平) 사람으로 자가 공간인 유정(劉貞) 등이다. 이 일곱 사람은 빠뜨린 바가 없을 정도로 넓게 배웠고, 문사(文辭)에 있어서는 천대 사람들의 문사를 빌려 쓰는 바가 없을 정도로 모두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리(千里)를 내달리는 준마(駿馬)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발굽을 가지런히 하여 당시 문단에서 함께 내달렸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승복(承服)하기란 또한 정말 어려울 것이다. 대개 군자(君子)란 자신(自身)을 살핀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평가(評價)하는 법인데, 나는 이(문인들끼리 서로 경시하는)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론하는 문장을 짓는다.”(魯國孔融文學, 廣陵陳琳孔璋, 山陽王粲仲宣, 北海徐幹偉長, 陳留阮瑀元瑜, 汝南應瑒德璉, 東平劉楨公幹. 斯七子者, 於學無所遺, 於辭無所假, 咸以自騁驥於千里, 仰齊足而並馳, 以此相服, 亦良難矣. 蓋君子審己以度人, 故能免於斯累而作論文)고 했다.
- 13) 중흡지구판문체(仲洽之區判文體): “중흡”이 원문에는 “중치(仲治)”로 잘못 되어 있어서 《진서(晉書)》 권51 <지우전(摯虞傳)>21에 따라 수정했다. “중흡”은 서진시대 학자인 지우의 자이다. 지우는 일찍이 문장을 뽑아서 《문장유별집(文章流別集)》을 만들었는데, 뽑은 문체에 대해 각기 논한 것이 <문장

李充論於翰林¹⁵⁾, 張眎擿句褒貶¹⁶⁾, 顏延圖寫情興¹⁷⁾, 各任懷抱, 共爲權

유별론(文章流別論)이었다. 전서(全書)는 지금 전하지 않지만 장부(張溥)와 엄가균(嚴可均)·장봉일(張鵬一) 등에 의해 집록된 것이 전한다. 그러나 <문장유별론>만큼은 《예문류취(藝文類聚)》나 《태평어람(太平御覽)》·《북당서초(北堂書鈔)》 등에 산견되는 글을 청대 엄가균과 장부 등이 《전진문(全晉文)》에 초록해 둔 것이 전한다. 그는 <문장유별론>에서 송·부·시·칠·잡·명·퇴·애·사·애·책·설·론·비·평·도·참 등의 각 문체에 대한 비평과 견해를 밝힌 것을 가리킨다.

- 14) 육기변어문부(陸機辨於文賦): “육기”는 서진(西晉)의 문학가이다. 그의 “《문부》”는 조비의 《전론》<논문>이후 또 하나의 문학이론 전문저작이다. 《전론》<논문>의 내용이 문학 비평론 방면에 편중되어 있다면, 《문부》는 창작론 방면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15) 이충론어한림(李充論於翰林): “이충”은 자가 홍도(弘度)인 강하(江夏) 지금의 호북성 안륙(安陸)사람으로 동진의 문학가였다. 일찍이 대저작랑(大著作郎)과 중서시랑(中書侍郎) 등을 역임하였다. 가장 먼저 “사부(四部)분류법을 창안하여 후대에는 그대로 따른다. “한림”은 그의 저작 《한림론(翰林論)》 50권을 가리키는데, 전서(全書)는 이미 망실(亡失)되어 《문경비부론(文鏡秘府論)》에서 말하고 있는 “고금을 포괄하고 이로움과 폐단을 헤아렸다.”(褒貶古今, 斟酌利弊)는 진모를 볼 수는 없다. 청대 사람 엄가균(嚴可均)이 일문(佚文) 여덟 항목을 모아서 《전진문》 권53에 편입시켜 놓았다. 그리고 근래의 낙홍개(駱鴻凱)는 네 개 항목을 더 증보해 놓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다. 《한림론》에서는 문체를 구분하고 그 특징과 요구를 논하였으며,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열거하여 그 득실을 평하였다. 예를 들어 “(고인의) 모습을 헤아려서 찬을 짓는다.”(容象圖而讚立), “명칭과 이치를 연구하고 탐색하면 논란이 발생하기 어렵다.”(研求名理而論難生焉), “조정에서 정사를 변론하다보면 의와 주가 나오고”(在朝辯政而議奏出) 등에서 문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 “맹문과 격문은 전쟁에 출정할 때 발하는 것이다”(盟檄發於師旅)라고 하여 작문의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16) 장시적구포평(張眎擿句褒貶): “장시”는 동진(東晉) 때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 저술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상(未詳)이다. “적”자는 “적(摘)자”와 통용되었다. 문장의 의미로 추론해 보면 그가 문장을 논한 저작은 아마도 빼어난 구절들을 뽑아서 품평한 서적이겠다.
- 17) 안연도사정흥(顏延圖寫情興): “안연”은 안연지(顏延之)를 가리키는데, 그는 자가 연년(延年)이고 시호는 헌자(憲子)였다. 산둥성 임이(臨沂) 출생인데, 진(晉)나라의 광록훈(光祿勳) 함(含)의 증손(曾孫)이다. 송나라 무제(武帝)와 소제(少帝)·문제(文帝)를 섬겨 국자제주(國子祭酒)와 시안태수(始安太守)·중서시랑(中書侍郎)·영가태수(永嘉太守) 등을 역임하였다. 지방과 중앙에서 비서관(秘書監)과 광록훈을 지내고 물러난 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가 되었다. 성격이 과격하고 술을 즐겼으며, 흔히 귀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언행에 조심성이 적어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 생활은 매우 검소하였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도연명(陶淵明)에게 술과 돈을 준 이야기는 유명하다. 유교

衡¹⁸⁾.

[1]

사신은 아닙니다: 문장은 대체로 (작가의) 감정과 성격의 표지이자, 정신과 지혜의 품모입니다. 붓을 물고 무엇을 쓸까 심사숙고하면 그 생각이 문장에서 노닐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예술적인 상상을 내심(內心)에서 펼쳐 말로 표현하고 종이에 쓰면 문장의 기세와 우아한 정취는 마치 하늘이 이룬 듯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 감정을 부여받기 때문에 각자 애호가 다르고, (사람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연(機緣)과 식견의 실마리가 달라서 감상하고 깨닫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비가 인물을 품평하고, 지우가 문체를 구별하며, 육기가 《문부》를 변별하고, 이충이 《한림론》을 논하며, 장시(張昺)가 구절들을 뽑아 포폄하고, 안연지가 작품의 흥취를 묘사한 것은 각자 자신의 정서나 견해에 맡겨 자신의 표준에 따라 평가를 해낸 것입니다.

[2]

와 불교에 통달하여 “삼세인과(三世因果)”설을 주장하였고, 자제(子弟)에게 처세의 길을 가르치는 데 세심하고 성실하였다. 그가 자제를 훈계하기 위하여 쓴 글인 《정고(庭誥)》는 가정교육사(家庭教育史)의 좋은 자료이다. 문학에서는 사령운(謝靈運)과 함께 “안사(顏謝)”로 병칭된다. 작품은 연어(練語)와 대구(對句)를 중시한 형식미가 돋보인다. 《문선(文選)》에 실린 <자백마부(赭白馬賦)>와 <오군영(五君詠)>·<추호시(秋湖詩)> 등이 대표작이다. 문집에 《안광록집(顏光祿集)》 30권이 있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권의 집본(輯本)인 《한위육조백삼명가집(漢魏六朝百三名家集)》에 실려 있다. “도사정흥”은 아마도 작품의 흥취를 분석하고 평론한 문장일 것인데, 자세하지는 않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안연지가 문장을 논한 말들은 단지 《정고》에 몇 마디가 보일 뿐이다.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총술(總術)>편에 그가 일찍이 언(言)과 필(筆)을 구분한 것이 실려 있고, 종영(鍾嶸)의 《시품중서(詩品中序)》에 “안연지가 문장을 논술한 것은 정확하고 치밀하기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顏延論文, 精而難曉)고 하였다.

18) 각임회포, 공위권형(各任懷抱, 共爲權衡): “회포”는 자신의 마음속 견해나 생각을 가리킨다. “권형”은 저울질하다는 의미에서 높고 낮음을 품평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각자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屬文之道¹⁹), 事出神思²⁰), 感召無象²¹), 變化不窮. 俱五聲²²)之音響, 而出言異句; 等萬物之情狀, 而下筆殊形. 吟詠規範²³), 本之雅什²⁴); 流分條散, 各以言區²⁵). 若陳思<代馬>群章²⁶), 王粲<飛鸞>諸製²⁷), 四言之美, 前超後絕. 少卿離辭²⁸), 五言才骨, 難與爭鶩²⁹). 桂林湘水, 平子之華篇³⁰);

- 19) 축문지도(屬文之道): 글을 짓는 근본 도리 또는 문장을 짓는 방법이나 기교를 가리킨다.
- 20) 사출신사(事出神思): 창작은 작가의 신묘(神妙)한 구상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 21) 감소무상(感召無象): “감소”는 감흥이나 감화(感化)를 가리킨다. “상”은 자취나 형상을 가리키는데서 의미가 확대되어 규율이나 법칙을 가킨다. 그러므로 “무상”은 감흥이 일어나는 데는 따를만한 법칙이 있지 않다는 뜻이다.
- 22) 오성(五聲): 원래 궁과 상·각·치·우를 가리키는데 이곳에서는 글자의 소리[字音]를 가리킨다. 일부 학자들은 평과 상·거·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 23) 음영규범(吟詠規範): 읊조리는 규범 또는 시를 짓는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 24) 아십(雅什): 《시경(詩經)》의<아(雅)>는 시(詩) 10장을 “일십(一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다. 이곳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시경》을 가리킨다.
- 25) 유분조산, 각이언구(流分條散, 各以言區): 후세에는 다양한 지류(支流)와 분파(分派)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각기 문구(文句)의 자수(字數)로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 26) 진사<대마>군장(陳思<代馬>群章): “진사”는 위나라 명제 태화(太和) 6년에 진왕에 봉해졌기 때문에 ‘진왕’이라 부르고 죽은 다음 그의 시호를 ‘사(思)’라 했기 때문에 진사왕이라고 부르는데, 조식(曹植)을 가리킨다. “<대마>”는 조식이 지은 <삭풍(朔風)>시를 가리키는데 5장 가운데 첫째 장에 “대군(代郡)의 말 달리기 바람은 신속히 북쪽 옛 수도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네.”(願騁代馬, 倏忽北徂)라는 구절이 보인다.
- 27) 왕찬<비란>제계(王粲<飛鸞>諸製): “왕찬(177-217)”은 한대 산양 고평(高平-지금의 산둥성 추현(鄒縣) 서남쪽) 사람이다. “(왕찬의) 용모는 볼품없고 체구는 약하며”(貌寢體弱), “체구는 왜소하였다”(容狀短小). 박식하면서도 시부(詩賦)를 잘 지어 유희도 《문심조룡》<재략(才略)>편에서 “건안칠자 가운데 성취가 제일 높았다”(建安七子之冠冕乎!)고 했다. 일찍이 형주(荊州)로 피난 가기도 했지만, 유표(劉表)를 의지했다가 조조에게 귀순하였고, 벼슬은 위나라에서 시중(侍中)에까지 올랐다. 《왕시중집(王侍中集)》1권이 전하고, 《삼국지》<위서>권21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비란>”은 왕찬이 지은 <채자독에게 주는 시(贈蔡子篤詩)>같은 사언시를 가리킨다. <채자독에게 주는 시>에는 “빙빙 돌며 나는 난새, 나르고 날아 동쪽을 향하네.”(翼翼飛鸞, 載飛載東)라는 구절이 보인다.
- 28) 소경리사(少卿離辭): “소경”은 이릉(李陵)의 자인데, 동한 말년에 이릉이 지었다고 가탁한 <소무를 이별하며(別蘇武)>시를 가리키는데, 대부분은 이별을

飛館玉池, 魏文之麗篆³¹): 七言之作, 非此誰先? 卿、雲巨麗, 升堂冠冕³²;

음조된 시이기 때문이다.

- 29) 오언재골, 난여쟁목(五言才骨, 難與爭鶯): “재골”은 채주와 풍골을 가리키지만, 이곳에서는 우수한 작품[精品]이라는 뜻이고, “목”자는 내달리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오언시 가운데 채주와 풍골부분에서 그와 고하(高下)를 다투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 30) 계림상수, 평자치화편(桂林湘水, 平子之華篇): “평자”는 한대 장형(張衡 78-139)을 가리킨다. 동한의 위대한 과학자요 문학가이다. ‘평자’는 그의 자이다. 남양 서악(西鄂-지금의 하남성 남양현(南陽縣) 남쪽)사람이다. 17세에 집을 떠나 낙양과 장안에 가서 관료 귀족들의 초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태학에서 오로지 밤낮 공부만 하여 마침내 군서(群書)에 널리 통하게 되었다. 28세에 남양 태수 포덕(鮑德)의 주부(主簿)가 되었다. 29세에는 반고의 <양도부(兩都賦)>에 자극을 받아 10년에 걸쳐 완성했다는 <동도부>와 <서도부> 즉 <이경부(二京賦)>를 지었는데, 낙양과 장안의 변화함을 묘사하였고, 귀족 관료들의 황음무도하고 사치스러움을 풍자하였으며, 민심과 풍습을 묘사하였고, 작자 자신의 관점에서 봉건 통치 속에 감춰진 네 가지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현해 내었다. 36세에 낭중이 되었고, 태사령으로 승진해서는 천상 관측을 관장하여 유명한 천문학 전문 저작인 《영헌(靈憲)》을 지었다. 당시 유행하던 도참(圖讖) 미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중(侍中)으로 옮겼으나 환관들의 모함을 당하자 <사현부(思玄賦)>를 지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탁하였다. 59세에 하간상(河間相)으로 나갔다가 3년간 재직하고는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갈 것을 상소를 올려 청하였다. 다시 상서(尚書)로 불렸지만 그해 죽었다. 시(詩)와 부(賦)·명(銘)·칠언(七言)·《영헌(靈憲)》·《응간(應間)》·《칠변(七辯)》·《순고(巡誥)》·《현도(懸圖)》 등 32편을 지었고 아울러 《주관훈고(周官訓詁)》를 지었으며, 《동관한기(東觀漢記)》를 보충해서 메워 넣기도 하였다. 《수서》<경적지>에는 저서 12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산실 되었고, 명대 사람들이 편찬한 《장하간집(張河間集)》이 전한다. 사부가로서의 장형의 특색은 그의 서정소부에 있다. 변구(駢句)로 이룩된 <귀전부(歸田賦)>에는 한말의 문란해진 관원 밑에서의 은일 사상과 전원의 즐거움을 그린 것으로 풍부한 정감과 청신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밖에 <동성가(同聲歌)>와 <사수시(四愁詩)>는 오언과 칠언시 창작시기의 중요한 작품이다. 그가 지은 <사수시(四愁詩)>에는 “내 그리워하는 사람은 계림에 있는데, 그를 쫓아가려 하나 상수가 깊어 건너기 어렵네.”(我所思兮在桂林, 欲往從之湘水深)라는 구절들이 보인다. 이 구절은 계림과 상수를 묘사한 것은 장형의 화려한 문장들이라는 의미이다.
- 31) 비관옥지, 위문지려전(飛館玉池, 魏文之麗篆): 현존하는 위나라 문제 조비(曹丕)의 칠언시에는 “비관”이나 “옥지”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전”은 “전(璿)”자와 통용되어 아로새기다 또는 수식하다는 의미이다.
- 32) 경, 운거려, 승당관면(卿、雲巨麗, 升堂冠冕): “경”은 한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인 장경(長卿)을 줄인 것이고, “운”은 한대 양웅(揚雄)의 자인 자운(子雲)의 줄인 것이다. “거려”는 화려한 거작이라는 의미이고, “승당”은 직역

張、左恢廓, 登高不繼³³): 賦貴披陳, 未或加矣³⁴. 顯宗之述傳毅³⁵, 簡文之摛彥伯³⁶, 分言制句, 多得頌體³⁷. 裴頠內侍³⁸, 元規鳳池³⁹, 子章以來,

하면 당(堂)에 오르다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학문이 이미 비교적 높은 자리에 올랐음을 나타낸다. 《논어》〈선진(先進)〉편에서 “공자께서 ‘유(由)의 학문은 당(堂)에는 올랐으나,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子曰: “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 “관면”은 최고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사마상여와 양웅의 화려한 거작은 부(賦)의 우수한 작품 가운데 최고라는 뜻이다.

33) 장, 좌회곽,登高不繼(張、左恢廓, 登高不繼): “장, 좌”는 한대 장형과 서진의 좌사(左思)를 가리킨다. “회곽”은 넓고도 크다는 의미이다. “登高”는 직역하면 높은 곳에 오르다는 것이지만, 이 말은 《시경》〈용풍(邶風)·정지방중(定之方中)〉의 모전(毛傳)에서 “높은 곳에 올라 부를 지을 수 있어야, …… 대부로 삼을 만하다”(升高能賦, …… 可以爲大夫)고 했다.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 부를 지을 수 있어야 대부로 삼을 만하다”(登高能賦, 可以爲大夫)라고 했다. 이 구절은 장형과 좌사의 부(賦)가 심히 크고 위대해서 일반적인 부의 작가들은 그 자취를 계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34) 부귀피진, 미혹가의(賦貴披陳, 未或加矣): “가”는 초과하다 또는 뛰어 넘다는 의미이다. 직역하면 부(賦)는 나누어 펼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혹자라도 뛰어넘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이 구절은 부의 특징은 펼쳐서 서술하는 것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들보다 훨씬 잘 짓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35) 현종시술부의(顯宗之述傳毅): 이 구절은 사실 도치된 문장이어서 “傳毅述顯宗”과 같은 의미이다. 《후한서(後漢書)》권110상 〈부의열전〉에 의하면 “〈현종송(顯宗頌)〉10편을 지었다”(作顯宗頌十篇)고 했다. “현종”은 동한 명제(明帝)의 묘호(廟號)이다. 동한의 부의가 〈현종송〉을 지은 것은 《문심조류》〈송찬(頌讚)〉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36) 간문지리언백(簡文之摛彥伯): 이 구절도 사실 도치된 문장이어서 “彥伯摛簡文”과 같은 의미이다. “언백”은 진대(晉代) 원굉(袁宏)의 자이다. 《진서(晉書)》권92 〈원굉열전〉에 의하면 “송(頌) 9장을 지어 동진 간문제의 덕을 칭송하였다”(作頌九章頌簡文之德)고 했다. “리”는 펼치다 또는 글을 짓다는 의미이다. “간문”은 사마욱(司馬昱)으로 재위기간은 2년이었다.

37) 분언제구, 다득송체(分言制句, 多得頌體): “언”자는 “자(字)”자와 의미가 같고, “득(得)”자는 얻다 또는 부합하다는 뜻이다. 이 두 구절은 낱말을 고르고 문장을 지은 것이 대부분 송체에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38) 배위내시(裴頠內侍): 배위가 표(表)를 올려 내시(內侍)를 사양한 것을 말한다. 배위는 자가 일민(逸民)이고, 진(晉)나라 혜제(惠帝) 가황후(賈皇后)의 외척이다. 《진서(晉書)》권35 〈배위열전〉에 의하면 “배위가 상서로 승진되었지만, 시중의 직위는 예전과 같았고, 광록대부를 더하였다. 그에게 하나의 관직을 수여할 때마다 일찍이 성심껏 단호하게 사양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상소를 십여 차례나 올렸는데, 널리 고금의 성패를 인용해서 논거로 삼았다. …… 상서좌복야에 승진되었지만, 시중의 직무는 예전과 같았다. …… 오래지

章表之選⁴⁰⁾. 孫綽之碑⁴¹⁾, 嗣伯喈之後⁴²⁾; 謝莊之誄, 起安仁之塵⁴³⁾. 顏延

않아서 배위에게 문하의 일을 전임하도록 하였는데, 완고하게 사양하였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遷尚書, 侍中如故, 加光祿大夫. 每受一職, 未嘗不殷勤固讓, 表疏十餘上, 博引古今成敗以爲言, …… 遷尚書左僕射, 侍中如故. …… 俄復使顧專任門下事, 固讓, 不聽.)고 했다. “내시”는 궁궐에서 황제를 모시며 응대하는 직책인데 시중과 문하 같은 것들이다. 배위가 지은 <시중을 사양하며 올리는 상소(讓侍中表)>는 이밀 망실되었지만, <문하의 일을 전임하는 것을 사양하며 올리는 상소(辭讓專任門下事表)>는 《진서》 권35 <배위열전>에 실려 있다.

39) 원규봉지(元規鳳池): 유량(庾亮)이 중서감에 임명되었을 때 쓴 <중서감을 사양하며 올리는 상소(讓中書監表)>를 말한다. “원규”는 유량의 자인데, 동진(東晉) 명제(明帝) 황후의 형이다. 명제가 즉위하여 중서감으로 삼았으나 유량은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는데, 《진서》 권73 <유량열전>43에 실려 있다. “봉지”는 중서성을 가리킨다. 궁궐 안의 연못을 봉황지(鳳凰池)라고 한다. 위진남북조시기에는 중서성을 궁궐 안에 설치해서 중요한 기밀을 관장하고 황제를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중서성을 봉황지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진서》 권39 <순욱(荀勗)열전>9에서 순욱이 오랫동안 중서성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후에 관직을 잃자, 어떤 사람이 그가 힘들고 무거운 업무를 벗어나게 된 것을 축하하자, 순욱이 “내 봉황지를 빼앗기니 제군들이 나를 축하하는가?”(奪我鳳凰池, 諸君賀我邪?)라고 하였다.

40) 자장이래, 장표지선(子章以來, 章表之選): “자장”은 미상이다. 아마도 “자장(子璋)”이 아닐까 추정한다. “자장(子璋)”은 진림(陳琳)의 자인데, 장표(章表)로 이름을 날렸다. “진림(169-217)”은 광릉(廣陵-지금의 강소성 도현(都縣) 동북쪽) 사람이다. 처음에는 당시 대장군이었던 하진(何進-자가 수고(滄高)이고 동한 영제(靈帝)의 황후인 하태후의 이복 오빠)의 주부(主簿-정부 각 부서의 문서나 장부 정리 따위를 담당했던 관직)가 되었다 후에는 원소(袁紹)에게 귀순했다. 후에 다시 원소가 조조에게 패하자 조조에게 투항하였다. 사공군모(司空軍謀祭酒-삼공(三公)의 하나인 사공에 속한 군모)라는 뜻으로 승상부에 속한 관리)가 되어 기실(記室-기록을 담당하는 벼슬)을 관장하였다. 군대와 국가에서 전쟁 포고문인 격문(檄文)을 지을 때는 진림이 대부분 초안을 지었을 정도로 뛰어났다. 지금도 그의 문집인 《진기실집(陳記室集)》 1권이 전한다. 조비는 《전론》 <논문>에서 “진림(陳琳)이나 완우(阮瑀)의 장표(章表)나 서기(書記)는 요즘 세상의 걸출한 작품이다.”(琳、瑀之章表書記, 今之雋也)고 하였다. 유험은 《문심조룡》 <장표(章表)>편에서 “진림과 완우의 장표는 당시 명성을 누렸다. 진림의 장표는 강건(剛健)하다고 일컬어졌고, 그것은 비교적 두드러졌다.”(琳、瑀章表, 有譽當時; 孔璋稱健, 則其標也.)고 했다.

41) 손작지비(孫綽之碑): 손작(孫綽314-371)은 동진의 문학가로 자는 흥공(興公)인 태원중도(太原中都-지금의 산서성 평요현(平遙縣) 서북쪽)사람이다. 집은 회계(會稽)에 있었고, 손초(孫楚)의 손자이다. 젊어서부터 은거를 좋아하여 산수를 유람하며 지냈는데, 허순(許詢)과 사이가 좋았다. 저작좌랑(著作佐郎)

을 거쳐 정위경(廷尉卿)을 벼슬로 지냈다. 박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도 잘 지어 동진 현언시의 대표적인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시에는 선리(禪理)와 도심(道心)이 충만해 있어서 문장이 딱딱하고 생동감이 없다. 그는 부에도 능하여 <수초부(遂初賦)>와 <천태산부(天台山賦)> 등이 유명하다. 아울러 그는 비뢰(碑誄)에도 능하여 명문 귀족이 돌아가면 반드시 그를 청하여 비문을 짓도록 해서 석공들에게 새기도록 하였다. 유희협은 《문심조룡》 <뇌비(隸碑)>편에서 “손작은 비문 짓는데 뜻을 두었다”(孫綽爲文, 志在於碑)고 했다. 현존하는 그의 비문은 청대 엄가균(嚴可均)이 집록한 《전진문(全晉文)》 권62에 <승상왕도비(丞相王導碑)>와 <태위유량비(太尉庾亮碑)> 등이 전한다. 《수서》 <경적지>에 보면 저서 25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망실되었고, 지금은 명대 사람들이 편찬한 《손정위집(孫廷尉集)》이 전한다.

- 42) 사백개지후(嗣伯喈之後): “사”는 계승하다는 의미이고, “백개”는 동한의 채옹(蔡邕) 자이다. 채옹은 동한의 저명한 문학가요 서예가로 진류어(陳留圉-지금의 하남성 기현(杞縣) 남쪽)사람이다. 동한 말의 유명한 여류 시인인 채염(蔡琰)의 아버지다. 어려서부터 박학하여 태부 호광(胡廣)에게 사사(師事)하였다. 시문(詩文)과 수학·천문을 좋아하였고 음률에도 정통하였다. 동한 연희(延熹) 2년(159), 중상시(中常侍) 서황(徐璜) 등의 다섯 제후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채옹이 북과 금(琴)을 잘 탄다는 소문을 듣고는 진류 태수를 보내어서 채옹을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러자 그는 언사(僞師-지금의 낙양)로 가는 길에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술행부(述行賦)》를 지었다. 처음에는 사도(司徒) 교현(橋玄)의 속관으로 있다가 하평장(河平長)이 되었고 건녕(建寧)간에는 낭중(郎中)으로 부름을 받아 동관(東觀)에서 서적을 교감하다 의랑(議郎)으로 승진하였다. 채옹은 경적의 문자에 많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희평(熹平) 4년(175)에는 양사(楊賜)와 함께 《육경(六經)》의 문자를 바로 잡아 상주하였다. 채옹이 비석에 경서(經書)를 쓰면, 석공들은 그것을 새겨서 태학문(太學門)밖에 세우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희평석경(熹平石經)”이라 불렀다. 비석이 처음 세워지자 그것을 보거나 모사(摹寫)하려는 사람들의 천여대 수레가 매일 몰려와 거리와 골목을 꽉 메웠다. 후에 조정의 실정(失政)을 논한 상소문을 올렸다가, 모함을 당해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사면을 받았지만 집권자들의 모함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12년간 강호(江湖)를 떠돌아 다녔다. 동탁(董卓)이 전횡(專橫)할 때 강요에 못 이기어 시어사(侍御史)를 맡았고, 관직은 좌중랑장(左中郎將)까지 올랐으며 고양향후(高陽鄉侯)에 봉해졌다. 동탁이 주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하였으므로 체포되어 하옥되었다. 그는 사죄의 상소문을 올려 이마에 자자(刺字)하고 발에 족쇄를 채우는 형벌 받기를 원하였다. 만년(晩年)에 《후한기(後漢記)》를 편찬할 것을 청하였지만 끝내 허락지 않자 옥사하였다. 시와 부(賦)·비(碑)·뢰(誄)·명(銘)·찬(贊)·연주(連珠)·잠(箴)·조(弔)·의론(議論)·《독단(獨斷)》·《권학(勸學)》·《석회(釋誨)》·《서악(叙樂)》·《여훈(女訓)》·《전세(篆勢)》·축문(祝文)·장표(章表)·서기(書記) 등 104편을 지었다. 《술행부(述行賦)》는 동한 말 부패한 정치권과 통치자들의 행음무도한 자태, 일반 백성들의 질고에 대한 동정과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분강개한 필치로 고발하고 있어 동한의 서정소부(抒情小賦) 작품중의 수작이다. 시(詩)로서는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이 가장 유명

<楊瓚>, 自比<馬督>⁴⁴⁾, 以多稱貴, 歸莊爲允⁴⁵⁾. 王褒<儻約>⁴⁶⁾, 束皙<發

하다. 서법(書法)이 정묘하고 예서(隸書)를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 “비백체(飛白體)”를 창안하였는데 후세의 영향은 심원하다. 채옹은 일찍이 많은 비문을 지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은 청대 엄가균이 집록한 《전후한문(全後漢文)》 권75-79에 <태부호광비(太傅胡廣碑)>와 <곽태비(郭泰碑)> 등이 전한다. 《수서》<경적지>에는 저서 20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산실되었고, 후대 사람들이 편찬한 《채중량집(蔡中郎集)》이 있고, 청대 《해원각총서(海源閣叢書)》본이 비교적 정교하다.

43) 사장지퇴, 기안인지진(謝莊之誄, 起安仁之塵): “사장”은 남조 송나라의 작가로 자는 희일(希逸)이고 진군(陳郡) 양하(陽夏-지금의 하남성 태강(太康)현) 사람이다. 어려서 총명하고 지혜로워 일곱 살에 문장을 지을 수 있었다. 원가 29년(452년)에는 태자중서자를 역임하였고, 효무제가 즉위한 후에는 시중(侍中)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부상서로 옮겨가서 국자박사를 거느렸다. 명제 때에는 심양 왕사가 되었는데 중서령과 산기상시를 겸하였다. 그는 시와 부를 잘 지었으며 격조가 표일(飄逸)하였다. 문필(文筆)은 청려(淸麗)하였지만, 내용은 비교적 좁았고 전고나 미사여구 같은 군더더기 문장을 잘 지었다. 그의 문장은 《문선(文選)》에 실린 <월부(月賦)>가 대표작이고, 문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송효무선귀기퇴(宋孝武宣貴記誄)>도 실려 전한다. 그가 지은 <송효무선귀기퇴>와 <황문시랑유곤지퇴(黃門侍郎劉琨之誄)>는 청대 엄가균이 집록한 《전송문(全宋文)》 권35에 전한다. 본전(本傳)에는 그가 일찍이 시를 사백 여수 지었다고 했다. 《수서》<경적지>를 보면 문집 19권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망실되었고, 지금은 명대 사람들이 편찬한 《사광록집(謝光祿集)》이 전한다. “안인”은 서진시기 반약(潘岳)의 자인데, 애퇴(哀誄)문을 잘 짓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지은 <마견독퇴(馬汧督誄)>와 <하후상시퇴(夏侯常侍誄)> 등 심히 많은 작품이 청대 엄가균이 집록한 《전진문(全晉文)》 권92-93에 보인다. 이 구절은 사장이 퇴(誄)를 지을 때는 반약 퇴(誄)의 우수한 점을 발양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44) 안연<양찬>, 자비<마독>(顏延<楊瓚>, 自比<馬督>): “안연”은 안연년을 가리키고, “<양찬>”은 안연지가 지은 <양급사퇴(陽給事誄)>의 주인공 양찬(陽瓚)을 가리킨다. 남조의 유송(劉宋) 초에 북위(北魏)가 남쪽을 침범할 때 활태성(滑臺城)을 함락시키려 하자 사마(司馬) 양찬이 굳건히 지키다가 피살되었다. 후에 급사증을 추서하자 안연지가 <양급사퇴>를 지었다. <양급사퇴>는 오늘날 《문선(文選)》 권 57에 보이는데, “마견독의 충정과 보국(報國)은 진나라 황제마저 명령을 내려 그를 표창하여 기록하였다.”(汧督效貞, 晉策攸記)는 말이 있다. “마독”과 “견독”은 모두 서진(西晉)의 마둔(馬敦)을 가리킨다. 마둔이 견독이 되어 저강(氐羌)에 의해 공격을 당하였을 때 힘들게 싸워 견성(汧城)을 보존시켰지만, 도리어 용주종사(雍州從事)가 마둔의 공적 본받는 것을 꺼리고 모함하므로 인해 하옥(下獄)되어 죽었다. 후에 누명을 벗었으므로 반약이 이에 그를 위해 <마견독퇴(馬汧督誄)>를 지었다. <마견독퇴>도 《문선(文選)》 권 57에 보인다. “자(自)”자는 스스로 ~할 만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안연지는 <양급사퇴>를 지어 스스로 반약이 지은 <마견독퇴>에 필적할 만하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蒙>47), 滑稽之流, 亦可奇瑋48). 五言之製, 獨秀衆品49).

[2]

문장을 짓는 방법은 작가의 신묘한 구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없어 변화가 무궁합니다. (글자의 어

-
- 45) 이다칭귀, 귀장위운(以多稱貴, 歸莊爲允): “귀장”의 “장”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장(謝莊)”일 것이다. 허가로(許嘉璐) 주편 《이십사사전역(二十四史全譯)》<남제서(南齊書)>를 보면 “장중함에 돌아가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여긴다.”(歸於莊重爲允當)고 했는데, 이것은 앞뒤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므로 본역주자는 취하지 않았다. “운”자는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안연년(顏延年)의 <양찬>은 스스로 (반악이 지은) <마독>에 비교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설령 양이 많은 것을 귀중한 것으로 삼을 지라도 (죄를 잘 짓는 명성은 응당) 사장(謝莊)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라는 의미이다.
- 46) 왕포<동약>(王褒<僮約>): “왕포”는 서한의 사부가로 자가 자연(子淵)인 촉 자중(蜀資中-오늘날의 사천성 자양(資陽) 북쪽) 사람이다. 시와 부를 잘 지었다. 한나라 선제(宣帝) 때 익주자사 왕양(王襄)의 추천으로 조정에 들어와 <성주득현신송(聖主得賢臣頌)>을 올려 마침내 유항 장자교(張子僑) 등과 함께 금마문(金馬門)에서 조서를 기다렸다. 몇 번 선제의 사냥을 따라 노닐면서 가는 곳마다 명을 받들어 시와 부를 지어 받쳤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서 간대부(諫大夫)로 발탁하였다. 신작(神爵) 원년(61년)에 방사가 익주에는 금마벽계의 보물이 있다고 하자, 선제께서 왕포에게 명하여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병사(病死)하였다. 《한서》<예문지>에는 부 16편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단지 <통소부(洞簫賦)>와 <구회(九懷)> 등이 《문선》과 《초사장구》에 실려 있다. 산문으로는 <사자강덕론(四子講德論)>이 비교적 유명하고 <동약>1편은 해학의 필치로 노예에 대한 조약과 박해를 묘사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서한 사회생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수서》<경적지>에서는 문집 5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망실되었고, 명대 사람들이 집록한 《왕간의집(王諫議集)》이 있고, 열전은 《한서》권64에 실려 있다.
- 47) 속석<발몽>(束皙<發蒙>): “속석”은 자가 광미(廣微)인 서진(西晉)의 양평(陽平) 원성(元城-오늘날의 허북성 관도(館陶)현 남쪽) 사람이다. 작가이자 학자로 관직은 저작랑과 상서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재담이나 우스운 이야기 같은 통속적인 문장을 좋아했다고 한다. 속석은 일찍이 《발몽기(發蒙記)》1권을 지었으나 이미 망실되어 그 책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청대 엄가균이 집록한 《전진문(全晉文)》권87에 <권농부(勸農賦)>와 <병부(餅賦)> 등이 보인다.
- 48) 위(瑋): 아름답다 또는 진귀하다는 의미이다.
- 49) 오언지제, 독수중품(五言之製, 獨秀衆品): 오언시의 시체는 모든 문체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음(語音)은) 오성의 음향을 갖추었지만 써낸 말은 구절을 달리합니다. 세상 만물의 정황은 같지만 붓 아래서 묘사되어 나오는 것은 도리어 형상이 제각각입니다. 읊조리는 규범은 본래 《시경(詩經)》에서 나왔지만, 유평(劉勰)이 분산되어 각자의 체식(體式)을 형성하였습니다. 조식의 <대마>같은 시가나 왕찬의 <비란>같은 편장은 모두 사언시의 아름다운 것들이어서 이전 사람들을 뛰어넘고 후대 사람들도 비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릉의 이별시는 오언시 가운데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와 내달리기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계림과 상수는 장형의 화미(華美)한 편장이고, 비관과 옥지는 조비의 아름다운 수사인데, 칠언시의 작품가운데 이들이 아니면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장경과 양자운의 화려한 작품은 높은 자리에 오르니 사부(辭賦)의 으뜸[冠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형과 좌사의 부(賦)가 심히 크고 위대해서 일반적인 부의 작가들은 그 자취를 계승하기 어렵고, 부의 특징은 펼쳐서 서술하는 것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들보다 훨씬 잘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종송>을 지은 부의(傅毅)와 간문제(簡文帝)를 칭송한 원언백은 대부분 송체에 부합되었습니다. 배위가 표(表)를 올려 내시(內侍)를 사양한 것과 유량(庾亮)이 중서감에 임명되었을 때 쓴 <중서감에 사양하며 올리는 상소(讓中書監表)>는 자장이래 모두 장표(章表)의 우수한 작품들입니다. 손작의 비문(碑文)은 채백개를 계승한 것이고, 사장(謝莊)의 퇴(誄)는 반약 퇴(誄)의 우수한 점을 계승한 것이며, 안연년(顏延年)의 <양찬>은 스스로 (반약이 지은) <마독>에 비교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설령 양이 많은 것을 귀중한 것으로 삼을지라도 (퇴를 잘 짓는 명성은 응당) 사장(謝莊)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왕포의 <동약>과 속석의 <발몽>은 골계와 해학적인 작품이지만, 기이하고 아름답게 쓴 것들입니다. 오언시의 체제는 다른 형식의 시체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입니다.

[3]

習玩爲理，事久則瀆⁵⁰。在乎文章，彌患凡舊⁵¹；若無新變，不能代雄。建安一體，《典論》短長互出⁵²；潘、陸齊名，機、岳之文永異⁵³。江左風

味, 盛道家之言⁵⁴). 郭璞學其靈變⁵⁵, 許詢極其名理⁵⁶. 仲文玄氣⁵⁷, 猶不

- 50) 습완위리, 사구즉독(習玩爲理, 事久則瀆): “독”자가 이곳에서는 범람하다 또는 지나침으로 인해 귀찮고 성가시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이치적으로 장시간) 익히고 가지고 놀면 하나의 고정된 이치가 형성되고 종사함이 오래되면 귀찮아진다는 의미이다.
- 51) 미환범구(彌患凡舊): “미”자는 더욱더 또는 가장[最]이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더욱더 평범하고 오래된 것을 근심하다는 뜻이다.
- 52) 건안일체, 《전론》 단장호출(建安一體, 《典論》短長互出): “호출”은 나란히 나오다 또는 함께 드러내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건안시기의 작품은 하나의 문풍(文風)에 속하지만 《전론》〈논문〉에서는 각 작가의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드러냈다는 의미이다.
- 53) 반, 육제명, 기, 약지문영이(潘、陸齊名, 機、岳之文永異): “반, 육”은 서진 시기 태강 팔시인중의 반악과 육기를 가리킨다. “영이”는 그들 두 사람의 문체 구별은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 54) 강좌풍미, 성도가지언(江左風味, 盛道家之言): “강좌”는 동진(東晉)이 건업(建業-지금의 남경)에 도읍을 세웠으므로 “강좌(江左)”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동진을 가리킨다. “풍미”는 풍격과 의미를 가리킨다. “도가지언”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밝히는 것을 가리킨다.
- 55) 광박거기령변(郭璞學其靈變): “광박”은 자가 경순(景純: 276-324)이었고, 술과 여색(女色) 및 경술(經術)·점복(占卜)을 좋아했으며 동진시기에 활동했던 박학다식한 학자 겸 시인이었다. 동진초기 저작좌랑과 상서랑 등을 역임했다. 왕敦(王敦)이 모반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피살당했다. 그는 《이아(爾雅)》와 《목천자전(穆天子傳)》·《산해경(山海經)》·《초사(楚辭)》 등에 주석을 달았다. 그가 지은 <유선시(遊仙詩)> 14수는 유명하다. “거”는 빼어나게 들다 또는 돌출시키다는 의미이다. “영변”은 신령스런 변화 또는 유선(遊仙)을 가리킨다.
- 56) 허순극기명리(許詢極其名理): “허순”은 동진의 시인으로 자가 현도(玄度)인 고양북신성(高陽北新城-지금의 하북성 서수현(徐水縣) 서남쪽)사람이다. 어린 시절에는 특별하게 총명해서 ‘신동(神童)’이라 불렸다. 후에 사도부(司徒府)에서 속관으로 불렸을 때 가지 않았다. 일찍이 도사(道士)가 되어 영흥(永興-지금의 절강성 소산현(蕭山縣))에 은거하기도 하였지만 일찍 죽었는데 자세한 생평은 알 수가 없다. 명리(名理) 즉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관점(觀點)과 도리(道理)에 정통하였고, 논란(論難)을 잘하여 한 번은 지둔(支遁)스님과 회계왕부에서 현리를 변론하여 한때 세상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였었다. 산수 유람을 좋아하였고, 신체는 왜소했지만 건강했으며, 왕희지(王羲之)와 여러 명산들을 편력하면서 약초를 뜯어 복용하기도 하였다. 문장을 수식하는데 뛰어났고 시문에도 능하여 손작과 함께 동진 현언시를 대표하는 시인이어서 당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수서》〈경적지〉에는 저서 8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망실되었고, 지금은 <죽선시(竹扇詩)>한 수만 《예문류취(藝文類聚)》에 실려 전한다. 그 외에도 <묵진미명(墨塵尾銘)>과 <백진미명(白塵尾銘)>이 《북당서초(北堂書鈔)》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전한다.

盡除; 謝混清新⁵⁸), 得名未盛. 顏、謝竝起, 乃各擅奇⁵⁹); 休、鮑後出, 咸亦標世⁶⁰). 朱藍共妍, 不相祖述⁶¹).

57) 중문현기(仲文玄氣): “중문”은 은중문(殷仲文?-407)을 가리킨다. 은중문은 동진의 시인으로 진군장평(陳郡長平-지금의 하남성 서화현(西華縣) 동북쪽)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문장의 화려한 수식에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표기참군(驃騎參軍)을 맡았고 정로장사(征虜長史)로 옮겨갔다가 신안태수(新安太守)로 좌천되었다. 동진의 원흥(元興) 원년(402)에 환현(桓玄)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에 쳐들어와서 조정의 정권을 전횡하였다. 이에 은중문은 태수직을 버리고 도망하여 평정된 후에 두터운 총애와 신임을 얻었다. 현음(玄陰)이 찬탈을 꾀할 때, 은중문에게 조서를 총괄토록 하여 시중(侍中)에 부임하였다. 현음이 실패하자 유유(劉裕)에 투항하여 진군장사(鎮軍長史)와 상서(尚書)·동양태수(東陽太守) 등을 역임하였지만 만족스럽게 뜻을 얻지는 못했다. 후에 모반죄로 유유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의 시는 처음으로 동진 현언시(玄言詩)의 풍조를 바꾸었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중문의 현언시 풍격은 온전히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仲文玄氣, 猶不盡除)라고 평하고 있다. 《수서》<경적지>에 보면 저서 7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망실되었고, 지금은 시(詩)로 <남주환공구정작(南州桓公九井作)>과 <송동양태수(送東陽太守)> 두수 외에 <자해표(自解表)>등이 《문선》과 《예문류취(藝文類聚)》에 실려 전한다.

58) 사혼청신(謝混清新): “사혼”은 자가 숙원(叔源)인 동진의 시인이다. 어릴 때의 자는 익수(益壽)였으며 진군양하(陳郡陽夏-지금의 하남성 태강현(太康縣))사람이다. 사안의 손자로 효무제의 딸 진릉공주(晉陵公主)와 결혼하였다. 어려서부터 성대한 영예를 누리서 교유는 많지 않았고, 다만 조카들인 사령운(謝靈運)과 사첨(謝瞻)·사회(謝晦)등과 문장의 뜻을 논의하는 것으로 만남을 이루었는데 오의항(烏衣巷)에 살았으므로 “오의에서의 교제(烏衣之游)”라 부른다. 벼슬은 중서령(中書令)을 거쳐 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까지 지냈다. 유의(劉毅)로 인해 유유(劉裕)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시는 청신(清新)하며 경물을 묘사하는데 뛰어났고 동진 현언 시풍을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시 3수만 남아 있는데 《문선》에 실려 있는 <유서지(游西池)>가 비교적 유명하다. 《수서》<경적지>에는 《문장유별본(文章流別本)》 12권과 문집 5권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미 망실되었다. “청(淸)”자가 원래는 “정(淸)”자로 되어 있는데, 백납본(百衲本)과 영송본(影宋本) 《남제서》에 따라 “청”자로 수정해서 번역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에도 더 적합하다.

59) 안, 사병기, 내각천기(顏、謝竝起, 乃各擅奇): “안, 사”는 안연년과 사령운을 가리키고, “천기”는 독단적으로 기이함을 형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안연년과 사령운은 함께 일어나 독자적으로 한 과를 형성하였다는 뜻이다.

60) 휴, 포후출, 함역표세(休、鮑後出, 咸亦標世): “휴, 포”는 남조 송(宋)나라 때 활약했던 탕혜휴(湯惠休)와 포조(鮑照)를 가리킨다. 탕혜휴는 처음에 스님이 되었다가 송나라 효무제가 그에게 환속할 것을 명하자 환속해서 양주종사(揚州從事史)에 까지 올랐다. “포조”는 자가 명원(明遠)인데, 출신이 미천하

[3]

익히고 감상하면 이치가 형성되나 그것을 오래하면 습관에 젖어듭니다. 문장의 병폐는 평범하고 진부한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한 시대의 영웅이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건안시기의 문풍(文風)이 총체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전론》〈논문〉에서는 각 작가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드러내었습니다. 반악과 육기는 이름을 나란히 하였지만, 육기와 반악의 문풍은 확연히 다릅니다. 강좌시기인 동진(東晉)의 풍격과 의미는 도가사상이 성행하여 광박은 신령스런 변화를 돌출시켰고, 허순은 그 현허(玄虛)한 철리를 다하였으며, 은중문(殷仲文)의 현학적인 기운은 여전히 다 제거되지 않았고, 사혼은 청신함으로 그 이름을 떨쳤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안연년과 사령운이 함께 일어나서 각자 하나의 기치를 내세웠고, 탕혜휴와 포조가 뒤에 출현하였지만, 모두 당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건안(建安)이래 작가들의 시는) 붉은색과 남색처럼 모두 선명하고 아름다울 뿐, 어느 누구도 누구로부터 전수받아서 지은 것이 없습니다.

[4]

今之文章，作者雖衆，總而爲論，略有三體。一則啓心閑繹，托辭華曠⁶²⁾，

다. 겨우 참군(參軍) 벼슬을 하여 후세에 포참군(鮑參軍)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는 귀족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기풍이 없다. 자신의 불우와 울분 및 사회에 대한 불만과 풍자를 작품 속에 담고 있다. 현전하는 작품 200여 수 가운데 80여 수가 악부시(樂府詩)이고, 특히 현실주의적 경향이 짙게 드러난다. 대표작으로는 〈의행로난(擬行路難)〉 18수와 〈의고(擬古)〉 8수이다. “표세”는 당시 세상보다 뛰어나다 또는 당시 세상을 뛰어넘다는 의미이다.

61) 주람공연, 불상조술(朱藍共妍, 不相祖述): “주람”은 모두 정색(正色)이다. “조술”은 그대로 베껴 쓰다 또는 전승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건안(建安)이래 작가들의 시는) 각기 그 나름의 아름다운 것이 있고 창작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누구로부터 전수받아서 지은 원류(源流) 관계는 없다는 말이다.

62) 일즉계심한역, 탁사화광(一則啓心閑繹, 托辭華曠): “계”는 “도(導)”자의 의미와 같고, “역”자는 “역(擇)”자의 의미인 기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심한역”은 한가롭고 기쁜 것을 구상하다 또는 마음을 한가롭고 즐거움으로 인

雖存巧綺, 終致迂回⁶³. 宜登公宴, 本非准的⁶⁴. 而疏慢闡緩⁶⁵, 膏肓之病⁶⁶, 典正可採, 酷不入情⁶⁷. 此體之源, 出靈運而成也. 次則緝事比類⁶⁸, 非對不發⁶⁹, 博物可嘉⁷⁰, 職成拘制⁷¹. 或全借古語, 用申今情, 崎嶇牽引, 直爲偶說⁷². 唯觀事例, 頓失清采⁷³. 此則傳咸《五經》⁷⁴, 應璩指事⁷⁵,

도하다는 의미이다. “탁사”는 문사에 의미를 기탁하다는 의미이므로 문사를 운용한다는 뜻이다. “화광”은 아름답고 유원(悠遠)하다 또는 화려하고 아득하다는 의미이다.

63) 수존교기, 종치우회(雖存巧綺, 終致迂回): “교기”는 정교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이고, “우회”는 (시가(詩歌)로 하여금) 에돌고 맛을 적게 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비록 교묘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결국은 시가를 에돌고 맛이 적게 하였다라는 의미이다.

64) 의등공연, 본비준적(宜登公宴, 本非准的): “의”는 마땅히 또는 응당(應當)이라는 의미이고, “공연”은 공식적인 연회라는 의미이다. “준적”은 표준이나 목표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응당 공식적인 연회의 자리에 적합할 것이므로 본래 (문장의) 표준 양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65) 소만천완(疏慢闡緩): “소만”은 소홀히 하고 태만하다는 뜻이다. “천완”은 부드럽고 느슨하다는 “탄완(暎緩)”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소홀히 하고 태만하며 세심하지 않고 느슨하다는 의미이다.

66) 고향지병(膏肓之病): “고향”은 심장과 횡격막 사이인데, 예부터 병이 이곳에 들면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고향지병”은 불치의 병과 같은 의미이다.

67) 전정가채, 혹불입정(典正可採, 酷不入情): “전정”은 전아(典雅)하고 바르다는 의미이다. “혹”은 심히 또는 매우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전아(典雅)하고 바른 것은 취할만하지만, 심히 사리(事理)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68) 집사비류(緝事比類): “집사”는 옛 일을 수집하다는 의미이고, “비류”는 사례(事例)를 배열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일들을 모아서 사례들을 늘어놓다’는 의미이다.

69) 비대불발(非對不發): 이 구절은 (일의 사례가) 공교롭게 대(對)를 이루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70) 박물가가(博物可嘉): “박물”은 사물을 널리 묘사하다 또는 박학하여 널리 통(通)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사물을 넓게 묘사한 것은 칭찬할만하다 또는 박식(博識)하여 널리 통하는 것은 칭찬할만하다는 뜻이다.

71) 직성구제(職成拘制): “직”자는 다만[只] 또는 늘[常]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본역주자는 다만[只]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왜냐하면 늘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박식한 것 자체마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 되므로 앞뒤문맥을 생각해보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만 시를 짓는 데는 구속과 견제를 하였다라는 의미이다.

72) 기구견인, 직위우설(崎嶇牽引, 直爲偶說): “기구”는 “전전(輾轉)”과 같은 의미이므로 엮치락뒤치락하며 반복하다는 것이고, “견인”은 (역지로) 끌어와서

雖不全似，可以類從⁷⁶⁾。次則發唱驚挺，操調險急⁷⁷⁾，雕藻淫艷，傾炫心

인용하다는 뜻이다. “직”은 ‘그야말로’라는 의미이고, “우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진홍(陳洪)의 2인은 《중국고대문학이론독본》(제2판)에서 “그들이 완전히 옛 성어(成語)를 빌려와서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생기(生氣)없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因其全借古代成語，即無生氣之語，故云)고 하였다. 양명과 양철영은 《중국역대문론선신편》(선진지당오대권)에서 “즉 우어인데, 서로 대가 되도록 말하는 것을 우어라고 한다. 입말은 대부분 자질구레하고 번거로우므로 여순이 ‘오늘날도 우어를 일러 패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질구레하다는 말이다. …… 소자현은 이곳에서 곧 그의 시가 마치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입말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即偶語，相對談說稱偶語。口語多細碎絮煩，故如淳曰：“今世亦謂偶語爲稗。”言其細碎也。 …… 蕭子顯此處即謂其詩竟如繁碎之口語一般。)고 하였다. 비록 입말이 문장을 서술할 때의 논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뒤쳐지지만, 입말이라고 전부가 번거롭거나 자질구레하지는 않으므로 본역주자는 전자의 설을 따라 번역했다.

73) 유도사례, 돈실청채(唯觀事例，頓失清采): “사례”는 사물의 예를 가리킨다. “청채”가 일부 판본에는 “정채(精采)”로 된 것도 있는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처럼 “청채”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 같다. 이 구절은 오로지 사물의 예들만 보게 하므로 (문장의) 청신(清新)한 문체를 잃어버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74) 부함 《오경》(傳咸《五經》): “부함”은 자가 장우(長虞)인 북지니양(北地泥陽) 오늘날의 섬서성 요현(耀縣) 동남쪽 사람이다. 서진시기의 작가로 상서우승과 기주(冀州)자사 및 여사중승을 역임했다. “《오경》”은 넓은 의미에서 유가(儒家)의 경서(經書)를 가리킨다. 녹흠립(錄欽立)이 집록한 《선진한위진남북조시(先秦漢魏晉南北朝詩)·진시(晉詩)권3》에 보면 부함은 일찍이 《칠경시(七經詩)》를 지었는데, 지금은 다만 《효경》과 《논어》·《모시》·《주역》·《주관》·《좌전》 등 여섯 수만 존재하고, 모두 경서의 말들을 인용해서 지었다. 개념들을 열거하고 목석처럼 질박하게 꾸밈없이 지었는데 모두 4언시이다.

75) 응거지사(應據指事): “응거”는 삼국시기 위(魏)나라의 시인인데, 건안칠자의 한 사람인 응양(應瑒)의 동생으로 자는 휴련(休璉)이다. 관직은 산기상시와 산기시중을 역임했다. “지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指說事情)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응거의 <백일시(百一詩)>를 가리킨다는 설이다. 녹흠립이 집록한 《선진한위진남북조시·위시(魏詩)권8》을 보면 현존하는 응거의 시는 대부분 언어가 통속적이고 질박하며 화려한 문체가 결핍된 채 서사(敘事)적인 말들이 많다. 종영(鍾嶸)도 《시품권중(詩品卷中)》에서 “위나라 시중 응거의 시는 위 문제 조비에게서 연원(淵源)한다. 옛말을 잘 지었고 시에서 가리키는 일은 간절하고 정곡을 찔렀다.”(魏侍中應據詩，祖襲魏文。善爲古語，指事殷勤)고 했으므로 본역주자는 ‘사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指說事情)라는 설을 따라 번역했다.

76) 가이류종(可以類從): (체식에 따라 말하면) 이러한 종류를 따른다고 할 수

魂⁷⁸). 亦猶五色之有紅紫⁷⁹, 八音之有鄭、衛⁸⁰. 斯鮑照之遺烈⁸¹)也.

[4]

오늘날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논한다면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째는 마음을 열고 즐겁게 하여 문사를 통해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비록 정교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문사가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응당 공식적인 연회의 자리에 적합할 것이므로 본래 (문장의) 표준 양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소홀히 하고 태만하며 세심하지 않고 느슨한 것은 고황(膏肓)의 병이고, 전아(典雅)하고 바른 것은 취할만하지만, 심히 사리(事理)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이 체식의 근원은 사령운(謝靈運)으로부터 나와서

있다는 의미이다. 즉 “緝事比類”와 “全借古語”하는 시(詩)들을 가리키는데, 부함과 응거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는 말이다.

77) 발창경정, 조조험급(發唱驚挺, 操調險急): 직역하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을) 놀라게 할 정도로 도드라져있고, 어조는 높고 급박해서 (냇을) 뒤흔 든다는 의미이다. “정”은 “용(箜)”과 같은 의미인 ‘우뚝 솟아 있다’ 또는 ‘도드라져있다’는 것이다.

78) 경현심혼(傾炫心魂): 마음과 혼을 기울 정도로 현혹하다는 의미이다.

79) 홍자(紅紫): 둘 다 정색(正色)이 아니다. 후한(後漢)의 조기(趙岐)가 지은 《맹자제사(孟子題辭)》를 보면 “홍과 자는 주를 어지럽힌다.”(紅紫亂朱)고 했다. “홍”은 열은 붉은 색이다.

80) 팔음지유정, 위(八音之有鄭、衛): “팔음”은 고대 중국의 여덟 가지 악기를 일컫는 것으로 팔음에는 금(金)과 석(石)·토(土)·혁(革)·사(絲)·목(木)·포(匏)·죽(竹)이 있다. ‘금(金)’에는 ‘종(鐘)’같은 것이 속하고, ‘석(石)’에는 ‘경(磬)’이 있으며, ‘토(土)’에는 ‘훈(埴)’ 같은 것이 있고, ‘혁(革)’에는 ‘고(鼓)’가 속하며, ‘사(絲)’에는 ‘금(琴)’이나 ‘슬(瑟)’이 속한다. ‘목(木)’에는 ‘축(柷)’과 ‘어(敔)’가 속하고, ‘포(匏)’에는 ‘笙(笙)’과 ‘우(竽)’가 속하며, ‘죽(竹)’에는 ‘소(簫)’와 ‘관(管)’이 속한다. 이곳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음악을 가리킨다. “정, 위”는 ‘춘추전국시기 정나라와 위나라의 지방 음악’을 가리킨다. 유가(儒家)에서는 고악(古樂)은 아악(雅樂)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정나라와 위나라의 지방 음악은 “지나치고 음탕한 음악[淫聲]”인 “미미지음(靡靡之音-음탕하면서 퇴폐적인 음악)”이라고 해서 배척하였다. 이 구절의 의미는 본래 《논어》〈양화(陽貨)〉편에서 “공자께서 “자주색이 붉은 색의 광채와 자리를 빼앗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라의 악곡(樂曲)이 전아(典雅)한 악곡을 망치는 것을 미워한다.”(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는 데서 나왔다.

81) 유열(遺烈): ‘남긴 업적’ 또는 ‘강렬한 풍격’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실 소자현이 포조를 비평한 말이다.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들을 모아서 사례들을 늘어놓았는데, 대비가 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물을 넓게 묘사한 것은 칭찬할만하지만, 시를 짓는데 (지나치게) 구속과 견제를 하였습니다. 어떤 작품은 완전히 옛 말을 빌려와서 오늘날의 사정을 표현하였고, (문사를) 엮치락뒤치락하며 반복해서 (역지로) 끌어다 인용하여 그야말로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생기(生氣)없게) 말하였습니다. 오로지 사물의 예들만 보게 하므로 (문장의) 청신(清新)한 문채를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류는 부함의 《오경》과 응거가 사정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비록 완전히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체식에 따라 말하면) 이러한 종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을) 놀라게 할 정도로 도드라져있고, 어조는 높고 급박해서 (낮을) 뒤흔들며, 문사를 조탁한 것이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마음과 혼을 기울 정도로 현혹합니다. 또한 마치 오색에 (간색(間色)인) 홍(紅)색과 자(紫)색이 있고, 팔음에 (음란(淫亂)한) 정(鄭)과 위(衛)의 음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포조가 남긴 강렬한 풍격입니다.

[5]

三體之外，請試妄談。若夫委自天機⁸²⁾，參之史傳⁸³⁾，應思悱來，勿先構聚⁸⁴⁾。言尚易了，文憎過意⁸⁵⁾，吐石含金，滋潤婉切⁸⁶⁾。雜以風謠，輕曆利

82) 위자천기(委自天機): “천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으나 그렇게 된 까닭은 모르는 운행이나 조작을 가리킨다.’ 《장자》〈추수(秋水)〉편에서 “지금 나는 나의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기관을 움직이고 있을 뿐,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은 모릅니다. …… 뱀이 말하였다: 저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기관이 움직이는데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今予動吾天機，而不知其所以然。…… 蛇曰：夫天機之所動，何可易邪?)라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보면 “천기”는 시문(詩文)을 짓거나 구상하는 것 또는 감흥(感興)이나 영감(靈感)을 가리킨다. 즉 시문의 창작은 자연스런 감흥의 일어남에 일임한다는 의미이다.

83) 사전(史傳): 역사와 전기라는 의미에서 전적(典籍)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84) 응사비래, 물선구취(應思悱來，勿先構聚): “비”는 ‘마음에 가득차서 입으로 말하려고 하나 말할 수 없는 모양’이다. 《논어》〈술이(述而)〉편에서 “공자께서 ‘마음속으로 분명함을 구하려 하나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면 깨우쳐 주지 않고, 말하고자 하나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은 지경에 이르지

吻⁸⁷), 不雅不俗, 獨中胸懷⁸⁸). 輪扁斲輪, 言之未盡⁸⁹). 文人談士, 罕或兼工⁹⁰). 非唯識有不周, 道實相妨⁹¹). 談家所習, 理勝其辭, 就此求文, 終然翳奪⁹²), 故兼之者鮮矣.

[5]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체식 외에 청컨대 (저의) 망령된 이야기를 시험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詩歌)같은 문장은) 응당 자연스러운 기교로부터 나와야 하고, 사전(史傳)을 참고해서 얻으며, 응당 문사와 구절은 문장 구상에 따라 나와야지 미리 구상해서 모으면 안 됩니다. 언어

아니하면, 개발시켜 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이 구절은 솟구쳐 오르고 발산하려는 정서에 따라 나와야지 미리 구상해서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즉 문사나 구절은 글의 구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뜻이다.

- 85) 언상역료, 문중과의(言尚易了, 文憎過意): 언어는 쉽게 이해되는 것을 숭상하고, 문장 수식이 (화려하여) 의미를 뛰어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이다.
- 86) 토석함금, 자운완절(吐石含金, 滋潤婉切): 직역하면 돌을 토하고 황금을 품으며, 맛은 완곡하면서도 절실(切實)하다는 의미이다. 즉 문사와 성조(聲調)가 아름다우면서도 조화를 이루었으며 또 완곡하면서도 절실하다는 뜻이다.
- 87) 잡이풍요, 경순리문(雜以風謠, 輕唇利吻): “풍요”는 《시경》의 국풍이나 악부민가 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시가에) 민간의 노래가 잡다하게 섞여 있어 (읊조릴 때) 입술을 가볍고 유창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 88) 독중흥회(獨中胸懷): “독중”은 마침 딱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마침 표현하려는 사상과 감정에 부합된다는 의미이다.
- 89) 운편작륜, 언지미진(輪扁斲輪, 言之未盡): “운편작륜”은 《장자》〈외편·천도〉편에 나오는데, “운편(輪扁)”은 옛날에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으로 이름은 편’이었다. “작(斲)”은 ‘깎다’ 또는 ‘찌다’는 의미이다. 직역하면 운편이 수레바퀴를 깎다는 의미이다. “언지미진”은 (운편이 수레바퀴 깎는) 그것을 말해도 다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즉 시를 지을 때의 방법도 마치 운편이 수레바퀴 깎을 때 오묘한 이치를 다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의미이다.
- 90) 문인담사, 한혹겸공(文人談士, 罕或兼工): “담사”는 철리를 담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한혹겸공”은 드물게 혹(철리(哲理)를 담론하는) 청담가(淸談家)와 시를 짓는 사람이 겸해서 공교롭다는 뜻이다.
- 91) 도실상방(道實相妨): 방법에 진실로 서로 방해함이 있다는 의미이다.
- 92) 취차구문, 종연예탈(就此求文, 終然翳奪): “취차”는 이것 즉 철리가들이나 청담가들의 사고방식에 나아가다는 뜻이다. “예탈”은 가려서 빼앗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것 즉 철리가들의 사고방식에 나아가 문학을 구하게 되면 끝내 (철리에) 가려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숭상하고, 문사는 (화려하여) 의미를 뛰어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문사와 성조(聲調)가 아름답고 온화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또 완곡하면서도 절실(切實)해야 합니다. (시가에) 민간의 노래가 잡다하게 섞여 있으면, (음조될 때) 입술을 가볍고 유창하게 하며, 아정하거나 속되지도 않아서 완전히 표현하려는 사상과 감정에 부합됩니다. (시가의 창작도) 운편(輪扁)이 수레바퀴를 (정교하게) 깎는 것처럼 (그 오묘한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문인과 (철리(哲理)를) 담론하는 사람들은 드물게 혹 겹쳐서 빼어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만 생각에 주도면밀하지 않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방법에 서로 다른 방해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리를) 담론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사리(事理)에 치중해서 지나치게 문사를 중시하는 것인데, 이 철리가(哲理家)들의 사고방식에 나아가 문학을 구하게 되면 끝내 (철리에) 가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것 즉 문학과 철리를 겹쳐서 빼어난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6]

贊曰：學亞生知⁹³，多識前仁⁹⁴。文成筆下，芬藻麗春⁹⁵。

[6]

찬합니다: (이미) 배워서 얻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에 버금가

93) 학아생지(學亞生知): (이미) 배워서 아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生而知之]의 버금이다 또는 학문을 쌓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의 버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논어》〈계씨(季氏)〉편에서 “공자께서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으뜸이고, 배워서 아는 것이 그 다음이며, 실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 다음이고, 어려움을 만나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그러한데, 이것이 가장 낮은 것이다.’고 하셨다.”(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

94) 다식전인(多識前仁): “전인”은 “전현(前賢) 즉 이전 작가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웅당) 이전 작가들의 창작이나 우수한 점을 많이 인식하거나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95) 문성필하, 분조려춘(文成筆下, 芬藻麗春): 문장이 붓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향기로운 문사는 봄보다 아름답습니다.

므로 (응당 더) 많이 이전 작가들의 (창작이나 우수한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문장이 붓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향기로운 문사는 봄처럼 아름답습니다.

3. 맺는말-소자현의 시학(詩學)사상

소자현이 《남제서·문학전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는 인간의性情(性情)을 돌출시켜 드러냈고, 또 개성적인 창작 감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문학이란 정감과 성격의 표지이자, 신명의 율려(律呂)며, “태어날 때부터 각자 본성과 정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각자 애호가 다르다.”(莫不稟以生靈, 遷乎愛嗜)고 여겼다. 물론 그 자신이 사학자였기 때문에 사전(史傳)학문을 폐하지는 않았고, 창작을 언급하면서도 “사전(史傳)을 참고해야 한다”(參之史傳)고 하였다. 그러나 소자현은 사전학문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성적인 감흥을 더 명확하게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연(機緣)과 식견의 실마리가 달라서 감상하고 깨닫는 것도 각기 다르다. ……각자 자신의 정서나 견해에 맡겨 자신의 표준에 따라 평가를 해낸 것이다.”(機見殊門, 賞悟紛雜 ……各任懷抱, 共爲權衡)나 “문장을 짓는 방법은 작가의 신묘한 구상에서 나오고,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규율이 없으므로 변화가 무궁하다.”(屬文之道, 事出神思, 感召無象, 變化不窮)고 한 것들이다. 소자현보다 앞선 서진(西晉)시기 육기의 《문부》나 유희의 《문심조룡》〈신사(神思)〉편에서도 문학을 창작할 때의 감흥(感興)을 언급하였지만, 그들은 흔히 창작 구상의 현상을 묘사하면서 문학 창작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소자현은 감흥을 말하면서 감흥의 개성 특징에 중점을 두었고, 또 그가 강조한 것은 개인마다 감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소자현은 시를 지을 때는 “변(變)”과 “이(異)·“신(新)·“기(奇)”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성적인 특색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창작은 다른 성령(性靈)의 구상과 상상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감흥에 응하는 것이 다름으로 인해 변화는 자연히 무궁하고 다른 풍격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글자의 어음(語音)은) 오성의 음향

을 갖추었지만 써낸 말은 구절을 달리한다. 세상 만물의 정황은 같지만 붓 아래서 묘사되어 나오는 것은 도리어 형상이 제각각이다.”(俱五聲之音響, 而出言異句; 等萬物之情狀, 而下筆殊形)고 하였다. 이른바 “반악과 육기는 이름을 나란히 하였지만, 육기와 반악의 문풍은 확연히 다르다.”(潘、陸齊名, 機、岳之文永異)와 “안연년과 사령운이 함께 일어나서 각자 하나의 기치를 내세웠다”(顏、謝竝起, 乃各擅奇)는 것은 우수한 작가들은 모두 “붉은색과 남색처럼 모두 선명하고 아름다울 뿐, 어느 누구도 누구로부터 전수받아서 지은 것이 없다.”(朱藍共妍, 不相祖述)는 것이다. 이것과 상호 긴밀히 연관시켜 소자현은 시대는 변화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문학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한 시대의 영웅이라 일컬을 수 없다.”(若無新變, 不能代雄)고 했던 것이다. 그는 또 “일들을 모아서 사례들을 늘어놓거나”(緝事比類), “완전히 옛 말을 빌려와서”(全借古語) 짓는 시가(詩歌)들은 다만 사례를 나열한 것만 보일 뿐 결코 훌륭하지 않으며, 또 이런 종류의 시가는 언제나 이전 사람들의 말만을 인용하므로 신선감이나 개성이 없다고 비평하였다. 소자현은 특별히 “변(變)”과 “이(異)”, “신(新)”, “기(奇)”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 있어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평범하고 오래된 것을 상용(常用)하는 것이다.”(在乎文章, 彌患凡舊)고 하여 당시의 문학기론계에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유희이나 종영도 창신(創新)을 주장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통변(通變)”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소자현처럼 과격하거나 급진적이지는 않았다.

셋째, 소자현은 독창적으로性情(性情) 서술할 것을 중시하고, 문학 표현의 개성적인 특징을 추앙하는 문학사상에 근거하여 자신보다 앞선 작가와 작품을 분류하고 비평하였다. 그는 사령운 같이 “화려하고 아득하며”(華曠), “(시가(詩歌)로 하여금) 빙빙 돌려 말할 뿐 깊은 맛이 없어”(迂回), “심히 사리(事理)에 부합되지 않는 것”(酷不入情)에 불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합이나 응거 같이 “일들을 모아서 사례들을 늘어놓거나”(緝事比類), “완전히 옛 말을 빌려오고”(全借古語), “(억지로) 끌어와서 인용하는 것”(崎嶇牽引)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런 시가에는 진정(眞情)과 개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

조(鮑照) 같은 시인을 비평한 것은 소자현의 문학사상에 여전히 전통 관념을 계승한 일면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경정(驚挺)”과 “험급(險急)”, “음염(淫艷)” 같은 어휘들을 사용한 것은 포조 같은 사람들이 이단(異端)과 편견(偏見)을 고집하며, “즐겁되 지나치지 않고, 슬프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樂而不淫, 哀而不傷)⁹⁶와 “화려함과 소박함이 적당히 배합된 것에”(文質彬彬)⁹⁷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넷째, 소자현은 자신보다 앞선 시인들의 창작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었으므로 자신의 완벽하고 체계를 갖춘 시가이론을 제기하였다. 즉,

“(시가(詩歌)같은 문장은) 응당 자연스러운 기교로부터 나와야 하고, 사전(史傳)을 참고해서 얻으며, 응당 문사와 구절은 문장 구상에 따라 나와야지 미리 구상해서 모으면 안 된다. 언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숭상하고 문사가 (화려하면) 지나친 의미를 싫어하며, 문사와 성조(聲調)가 아름답고, 온화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또 완곡하면서도 절실(切實)하다. (시가에) 민간의 노래가 잡다하게 섞여 있어 (옳을 때) 입술을 가볍고 유창하게 하며, 아정하거나 속되지도 않아서 완전히 표현하려는 사상과 감정에 부합된다.” (委自天機, 參之史傳, 應思慚來, 勿先構聚. 言尚易了, 文憎過意, 吐石含金, 滋潤婉切. 雜以風謠, 輕脣利物, 不雅不俗, 獨中胸懷)

첫 네 구절은 예술 구상을 말한 것으로 독특한 감흥과 충만한 감정을 강조한 것이다. 중간의 네 구절은 시가의 정서와 표현 형식 및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인데, 감정을 표현하는데 통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문(文)”과 “의(意)”를 배합하고 융합하며, 음조(音調)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완곡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네 구절은 소자현의 독특한 견해인데, 민간가요를 참고하고 절충하면 시가의 음운(音

96) 《논어》〈팔일(八佾)〉편에서 “공자께서 ‘<관雎(關雎)>이 시는 즐겁되 지나치지 않고, 슬프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97) 《논어》〈옹야(雍也)〉편에서 “공자께서 ‘소박함이 화려함보다 많으면 거칠고 촌스러움을 면하기 어렵고, 화려함이 소박함보다 많으면 부허(浮虛)함을 면하기 어렵다. 화려함과 소박함이 적당히 배합되어야 비로소 군자인 것이다.’고 하였다.”(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韻)이 유창해지고, 아정하거나 속되지도 않은 격조를 형성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훨씬 이롭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가 이론은 그가 “성령(性靈)”을 중시하고 개성을 숭상하는 기본사상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희이나 증영이 전아(典雅)함을 중시하는 것과 다르다.

다섯째, 소자현은 예술사유의 다방면에 대해 자못 독창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붓을 물고 문장을 구상하며 예술적인 상상을 내심(內心)에서 펼쳐 말로 표현하고 종이에 쓰면 문장의 기세와 우아한 정취는 마치 하늘이 이론 듯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 본성과 정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각자 애호가 다르다.”(蘊思含毫, 遊心內運; 放言落紙, 氣韻天成. 莫不禀以生靈, 遷乎愛嗜)는 것을 지적하였고, 문학 활동의 주체적인 정신인 성령(性靈)이 예술사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는 또 예술사유의 일부 비이성적인 특징을 언급했고, 창작을 할 때는 격정(激情)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당 문사와 구절은 문장 구상에 따라 나와야지 미리 구상해서 모으면 안 된다.”(應思攄來, 勿先構聚)고 하였다. 또 문인과 철리를 담론하는 선비를 대비시켜 철리사유와 예술사유의 질적인 구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이론적인 심도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양서(梁書)》 <자서(自序)>에서도 “지을 때마다 특별히 고심(苦心)해서 구상하는 것을 적게 하고 반드시 그 영감(靈感)이 저절로 오게 해야지, 힘써 구상하지는 않는다.”(每有製作, 特寡思功, 須其自來, 不以力構⁹⁸)고 하였다. 후세 남송(南宋)의 엄우(嚴羽)가 “시에는 응당 (스스로 그 오묘함을 깨닫게 하는) 의취(意趣)가 별도로 있어야지 설리와는 조금도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詩有別趣, 非關理也)⁹⁹고 한 것과 청대 원매(袁枚)의 “성령설”은 모두 소자현의 관점을 전하고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98) 《양서(梁書)》 권35 <소자각전(蕭子恪傳)>에 보인다. 소자현은 일찍이 <자서(自序)>를 한 편 지은 적이 있는데, <자서>에서 인용한 말이다.

99) 《창랑시화(滄浪詩話)》 <시변(詩辨)>에서 언급한 말이다.

- 蕭子顯, 《南齊書》(北京: 中華書局, 1982)
- 許嘉璐 主編, 《南齊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袁英光 主編, 《南朝五史辭典》(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5)
- 魏 收, 《魏書》(北京: 中華書局, 1982)
- 姚思廉, 《梁書》(北京: 中華書局, 1982)
- 李延壽, 《南史》(北京: 中華書局, 1982)
- 魏 徵, 《隋書》(北京: 中華書局, 1982)
- 楊伯峻, 《論語譯注》(北京: 中華書局, 1984)
- 趙 岐, 《孟子題辭》(北京: 中華書局, 1982)
- 陳鼓應, 《莊子譯注》(北京: 中華書局, 1984)
- 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北京: 中華書局, 1984)
- 嚴可均,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北京: 中華書局, 1984)
- 張少康, 《文賦集釋》(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劉義慶, 《世說新語譯注》(北京: 中華書局, 2000)
- 劉 勰 著, 范文瀾, 《文心雕龍註》(北京: 中華書局, 1993)
- 鍾 嶸 著, 徐達 譯注, 《詩品全譯》(修訂版)(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08)
- 張碧波 主編, 《中國詩學辭典》(哈爾濱: 哈爾濱出版社, 1992)
- 陳良運 主編, 《中國歷代詩學論著選》(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1995)
- 霍松林 主編, 《中國詩論史》上(合肥: 黃山書社, 2007)
- 陳伯海外1人 主編, 《中國詩學史》(廈門: 鷺江出版社, 2002)
- 蔡鍾翔外2人 共著, 《中國文學理論史》第1卷, (北京: 北京出版社, 1991)
- 穆克宏 郭丹 編著, 《魏晉南北朝文論全編》(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6)
- 郁 沅 張明高 編選, 《魏晉南北朝文論選》(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 王達津 陳洪 選注, 《中國古典文論選》(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89)
- 陳 洪 盧盛江 著, 《中國古代文學理論讀本》(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4)
- 陳 洪 張峰屹 盧盛江 著, 《中國古代文學理論讀本》第二版(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9)
- 楊 明 羊列榮 編著, 《中國歷代文論選新編》(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7)

<中文提要>

本稿是翻译萧子显的《南齐书·文学传论》并附上详细注释的文稿。在这篇《文学传论》里，萧子显对文学问题发表了自己的看法。首先，他认为文章是作家情感和性灵的表现。好的文章是“气韵天成”的。其次，他重视艺术构思，认为写出文章，出于精妙的艺术构思。客观事物对作家的感召是无迹可寻的，变化无穷。再次，他认为“在乎文章，弥患凡旧，若无新变，不能代雄”。强调文学要不断发展变化。这些观点都是很有价值的。他将当时文章归为三类，追溯其源流。第一类文章“迂回舒缓”“酷不入情”，源自谢灵运。第二类文章“缉事比类，非对不发”，与傅咸咏《五经》的诗歌和应璩的指事是一类。第三类文章“发唱惊挺，操调险急，雕藻淫艳，倾炫心魂”，源自鲍照。萧子显对以上三类文章持批评的态度，自然对鲍照的批评是不正确的。最后，萧子显提出“天机”与“参自史传”的学力相结合的文学创作主张，要求“言尚易了，文憎过意，吐石含金，滋润婉切。杂以风谣，轻唇利吻，不雅不俗，独中胸怀”，甚为可取。这些观点，都有相当的理论深度。后世严羽的“诗有别趣，非关理也”，袁枚的“性灵说”，都与之有思想上的传承关系。

关键词：萧子显，《南齐书》，《文学传论》，作家情感和性灵的表现，重视艺术构思，强调文学要不断发展变化，译解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蘇頌 後使遼詩 注釋(I)*

류영표**

<목 차>

1. 前 言
2. 後使遼詩 28수 注釋
- (3. 주요 고찰내용 요약)
- (4. 蘇頌의 시에 대한 평가)
- (5. 蘇頌의 使遼詩의 가치)

1. 前 言

蘇頌(1020~1101)은 宋 神宗 熙寧10년(1077) 10월에 遼 道宗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國信使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인 元豐 원년(1078) 정월에 開封으로 귀환했다. 소송의 <後使遼詩>란 소송이 이 기간에 개봉을 출발하여 사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개봉에 귀환하기까지 쓴 28수의 시를 일컫는다.

소송이 희녕10년에 生辰使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長編》이나 <後使遼詩>의 소송의 自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장편》(권284) 神宗 熙寧十年 八月 己丑: “비서감·집현원 학사 소송이 요 황제의 생신 국신사로 임명되었고, 서상합문사·영주자사 姚麟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後使遼詩 제1수에서 제16수까지는 <蘇頌 後使遼詩 注釋>(I)에 발표하고, 제17수에서 제28수까지는 <蘇頌 後使遼詩 注釋>(II)에 발표함.
** 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 부사로 임명되었다.”(秘書監·集賢院學士蘇頌為遼主生辰國信使，西上閣門使·英州刺史¹⁾姚麟副之。)

◦ <후사료시>의 自注: “희녕10년 8월에, 國史院의 임직에서 명령을 받고 용도각직학사·급사중의 임시 관함으로 요나라 생신국신사를 맡았다.²⁾ 10월 3일에 출발하여 이듬해 정월 28일에 귀환했다. 도중에 문득 시를 지어, 겪고 보았던 일들을 적어두었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록했다.”(熙寧十年八月, 自國史院被命假龍圖閣直學士·給事中, 充大遼生辰國信使。³⁾ 十月三日進發, 明年正月二十八日還闕。道中率爾成詩, 以紀經見之事, 及歸錄之。)

소송의 요나라 출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희녕 원년(1068)에 이미 그는 요 도종의 황태후인 宗天太后的 생신을 축하하는 國信使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제1차 使遼 때에는 모두 30수의 使遼詩를 지었는데, 이 시들은 《蘇魏公文集》 권13에 이른바 <前使遼詩>라는 제명 하에 <後使遼詩>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前使遼詩>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蘇頌前使遼詩注釋>의 논제로 주석과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를 통하여 소송의 사료시 58수 전체에 대한 주석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1) 西上閣門使: 《宋史》(권349) <姚麟傳>에는 “再轉東上閣門使·英州刺史”로 기재되어 있지만, 《長編》(권282) 熙寧十年 五月庚申에도 “前軍將·皇城使姚麟為西上閣門使·英州刺史”로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宋史》의 誤刻인 듯하다.

2) 소송은 秘書監·集賢院學士의 직함으로 그보다 상위직급인 龍圖閣直學士·給事中的 임시 직함, 즉 假官을 부여받고 사신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요나라에서 송나라로 파견하는 사신들의 관함이 송나라보다 높았기 때문에 쌍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송나라는 직위가 낮은 관원에게 임시로 고위직함을 수여하여 사신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蔣祖怡·張滌云 整理, 《全遼詩話》(長沙: 岳麓書社, 1992)의 <蘇頌後使遼詩>에 인용된 聶崇岐의 《宋史叢考·宋遼交聘考·使副之官位》(北京: 中華書局, 1980, 289~290쪽): “至使副官位高低, 兩朝亦不一致; 大體言之, 遼所遣者, 皆較宋使官高. … 宋以自居中朝, 不欲遣大臣使‘虜’, 惟使副官階過低, 難免鄰封不滿, 故‘凡…使人入蕃, 必隨所居官小大加借以遣之…以…綏遠人.’(岳珂《愧鄉錄》卷六)” 참조. 이런 假官은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 다시 원직으로 복귀되었다. 陶玉坤, <宋遼對峙中的使節往還>(《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2, 1999.3, 12쪽): “這種假官, 在使命完成回國後就被取消, 仍恢復原職” 참조.

3) 充大遼生辰國信使: 淸鈔本은 “稱充大遼生辰國信使”라고 표기했는데, 여기서 “稱”은 衍字이고, “生”은 脫漏되어 있다.

〈蘇頌前使遼詩注釋〉에서 이미 해설한 바와 같이, 소송의 문집인 《소위공문집》의 통행본으로는 中華書局에서 點校하여 펴낸 것(이하 “中華書局本”으로 약칭함)과 文淵閣 四庫全書에 수록된 것(이하 “文淵閣本”으로 약칭함) 그리고 四川大學古籍整理研究所에서 2004년에 펴낸 《宋集珍本叢刊》에 수록된 淸鈔本(이하 “淸鈔本”이라 약칭함)등의 세 종류가 있다. 이번의 논문은 필자의 앞선 논문의 서술 방향을 계승하여, 중화서국본을 저본으로 하고, 이것을 문연각본 및 청초본과 대조하며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또 蔣祖怡·張滌云의 《全遼詩話·新補遼詩話》(이하 “《詩話》”로 약칭함)에 수록된 〈蘇頌後使遼詩〉와 陳予彬·齊敬之의 〈蘇頌使遼詩注釋〉⁴⁾(이하 “〈注釋〉”으로 약칭함) 등을 참고하고, 그들의 견해를 수용·보충·정정할 예정이다.

중화서국본에 수록된 〈후사료시〉 28수의 제명을 표시하고, 아울러 문연각본에 수록되지 않은 사료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01<某奉使過北都, 奉陪司徒侍中潞國公雅集堂宴會, 開懷縱談, 形于善諫. 因道魏收有“逋峭難為”之語, 人多不知“逋峭”何謂. 宋元憲公云: “事見《木經》, 蓋梁上小柱名, 取有折勢之義耳.” 文人多用近語, 而未及此, 輒借斯語抒為短章, 以紀一席之事. 繕寫獻呈>
- 02<向忝使遼于今十稔, 再過古北, 感事言懷奉呈同事閣使>
- 03<次行奚山>
- 04<同事閣使見問奚國山水何如江鄉, 以詩答之>
- 05<早行新館道中> 06<奚山道中>
- 07<過新館罕見居人> 08<牛山道中>
- 09<發牛山> 10<契丹帳>(文淵閣本 未收錄)
- 11<奚山路> 12<中京紀事>
- 13<過土河> 14<贈同事閣使>
- 15<沙陁路> 16<觀北人圍獵>
- 17<遼人牧>

4) 〈蘇頌使遼詩注釋〉은 《承德民族師專學報》1993년 제2기에 수록되어 있다.

- 18<某兩使遼塞俱值郊禮之歲, 今以至日到北帳感事言懷寄呈同館諸公>
19<初至廣平紀事言懷呈同事閣使>
20<冬日北庭懷餘杭舊僚屬> 21<契丹馬>
22<北帳書事> 23<廣平宴會>(文淵閣本 未收錄)
24<離廣平> 25<山路連日衝冒西風頗覺行役之難>
26<發柳河> 27<摘星嶺>
28<契丹紀事>(文淵閣本 未收錄)

(문연각본에는 중화서국본보다 3수가 적은 25수의 시만 수록되어 있다. 청초본에는 28수 모두가 수록되어 있다)

2. 後使遼詩 28수 注釋

01)<某奉使過北都, 奉陪司徒侍中潞國公雅集堂宴會. 開懷縱談, 形于善謔. 因道魏收有“逋峭難為”之語, 人多不知“逋峭”何謂. 宋元憲公云: “事見《木經》, 蓋梁上小柱名, 取有折勢之義耳.” 文人多用近語, 而未及此, 輒借斯語抒為短章, 以紀一席之事. 繕寫獻呈>(나는 출사하며 북경 대명부를 지나다가, 사도 겸 시중 노국공 문언박이 아집당에서 베푼 연회에 배석했다. 가슴을 열고 마음껏 이야기하며, 우스개도 많이 나누었다. 그러면서 魏收가 “逋峭難爲”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逋峭”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 화제에 올랐다. 元憲公 宋庠은 “逋峭는 《木經》에 나오는데, 대체로 들보 위의 작은 기둥의 명칭이니, 지붕의 형세를 꺾는다는 의미에서 따왔을 따름이다”라고 풀이했었다. 문인들은 근래의 언어를 많이 이용해왔지만, 아직 이 말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문득 이 말을 이용하여 짧은 시를 지어 연회석상의 일을 기술하고, 글로 적어 노국공께 헌정한다)

高燕初陪聽拊髀, 高상한 연회에 처음 배석해 넓적다리 치며 듣다가,
清譚仍許奉揮犀. 청담을 나누던 중 총채를 떨며 모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自知伯起難逋峭, 저는 위수의 풍치 있기는 어렵다는 말의 의미 알고

는 있지만,
 不比淳于善滑稽. 해학 잘하던 순우곤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舞奏未終花十八, 화십팔의 춤곡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酒行先困玉東西. 옥동서 잔에 마실 차례 되자 벌써 취해버렸습니다.
 荷公德度容狂簡, 어설픈 저의 말을 받아주신 공의 큰 은혜 입으니,
 故敢忘懷去町畦. 그래서 감히 겁도 없이 분수를 벗어나버렸습니다.

① 시제

- 北都: 北宋의 北京 大名府(현 하북邯鄲市 大名縣)를 가리킨다.
- 司徒侍中潞國公: 司徒와 侍中은 모두 丞相이나 宰相을 대신 가리키는 말이다. 노국공은 文彥博(1006~1097)의 封號이다. 문언박은 仁宗 때 樞密副使와 參知政事 그리고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역임한 조정의 중신이었고, 인종 嘉祐3년에 노국공으로 봉해졌으며, 神宗 때 王安石의 新法에 반대하여 지방관으로 물러났다. 그는 熙寧8년(1075)부터 元豐2년(1079)까지 判大名府를 역임했다.⁵⁾
- 雅集堂: 大名府의 관아에 있었던 건물의 명칭.⁶⁾ 雅集堂과 관련된 시로는 熙寧3년부터 熙寧6년까지 判大名府를 역임했던 韓琦가 지은 <雅集堂>·<庚戌二月十六日寒食會雅集堂>(《安陽集》 권14)의 두 수가 있다.
- 魏收: 北魏와 北齊 시대를 살아간 학자 겸 문학가로서 《魏書》, 곧 北魏의 역사를 편찬했다. 《北齊書》(권37)에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 魏收有“逋峭難為”之語: “逋峭難為”는 아래의 글에서 서술할 바와 같이 《魏書·溫子昇傳》에는 溫子昇이 한 말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魏書》를 魏收가 편찬했기 때문에 소송은 위수가 “逋峭難為”의 말을 했다고 한 것이다.
- 宋元憲公: 宋庠(996~1066)을 가리킨다. 元憲은 宋庠의 諡號이다. 소송이 이 시를 쓴 熙寧10년(1077)에 宋庠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다.

5) 李之亮, 《宋河北河東大郡守臣易替考》(成都: 巴蜀書社, 2001), 16~17쪽, <大名府> 참조.
 6) 《畿輔通志》(권54) <古蹟·大名府>: “[安正堂] 在府城東舊府治內, 宋韓琦為留守時建, 仍有善養堂·雅集堂, 皆在府治” 참조.

◦ 木經: 건축의 방법을 기술한 책. 北宋 때 開封의 도목수 喻皓가 편찬했다고 진한다.⁷⁾

◦ 通峭와 梁上小柱: 소송은 시제에서 북송의 건축학 서적인 《목경》을 간접인용하며 通峭를 “梁上小柱”라고 풀이했다. “梁上小柱”는 북송의 건축학 전문서적인 《營造法式》에 기재된 “梁上短柱”와 같은 말이며, 들보 위에 세우는 작은 기둥을 뜻한다. 전문용어로는 侏儒柱 또는 蜀柱라고 일컫는다.⁸⁾ 侏儒柱는 우리말의 동자기둥 또는 쪼구미에 해당하며, 도리나 마룻대를 받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通峭라는 용어는 北魏의 溫子昇이 처음 사용한 말이며, 그 의미는 이 글의 시제에서와는 전혀 다르다. 通峭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시의 제3구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겠다.

◦ 取有折勢之義: 지붕의 형세를 꺾는다는 의미에서 따오다. “折勢”는 중국 목조건축의 지붕면을 형성하는 독특한 건축방식을 압축표현한 말이다. 중국 목조건축의 지붕면은 아래로 오목하게 휘어져 있으며, 용마루 부분이 가파르고 처마 부분이 평탄하다. “折勢”는 바로 이러한 지붕을 만들기 위하여 지붕을 받치는 종도리나 외목도리 등 각 도리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을 각 도리 사이의 비율대로 아래로 꺾는 것을 의미한다.⁹⁾ “折勢”의 방식은 《영조법식》에서는 庸峭 또는 舉折이라는 전문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¹⁰⁾ 아마도 “折勢”의 방법을 운용할 때 각 도리

7)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① 宋 沈括, 《夢溪筆談》(권18) <技藝>: “營舍之法, 謂之《木經》, 或云喻皓所撰.” ② 宋 江少虞, 《事實類苑》(권54) <書畫技藝·喻皓>: “開寶寺塔在京師, 諸塔中最高, 而制度甚精, 都料匠喻皓所造也. … 至今木工皆以喻都料為法, 有《木經》三卷行於世.” ③ 清 王士禛, 《居易錄》(권27): “宋時汴京有都料匠喻皓撰《木經》三卷.”

8) 《營造法式》 권1 [侏儒柱]의 “《爾雅》: ‘梁上楹謂之稅.’(侏儒柱也) … 《釋名·楹》: ‘楹, 梁上短柱也. 侏儒猶侏儒短, 故因以名之也.’” 및 권5 [侏儒柱]의 “其名有六: 一曰稅, 二曰侏儒柱, 三曰浮柱, 四曰掇, 五曰上楹, 六曰蜀柱” 참조. 《營造法式》은 각종 건축의 설계와 시공기술을 설명한 건축학 전문서적으로서 북송 李誠(?~1110)가 哲宗의 칙명을 받아 편찬하여 元符3년(1100)에 완성시킨 책이다. 《영조법식》의 편찬 동기 및 간행과정에 대해서는 귀칭화(國慶華) 저, 윤재신 옮김, 《중국목조건축의 구조》(경기 파주: 동녘, 2006) 제1장 제7절 <영조법식>(68~72쪽)에 설명이 상세하다.

9) “折勢”의 방법에 대해서는 귀칭화(國慶華), 앞의 책, 241쪽 참조.

10) 《營造法式》(권2) [舉折]에서는 宋祁의 《宋景文筆記》에서 언급한 “庸峻”

위에 세우는 동자기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목경》에서는 逋峭를 동자기둥이라고 풀이한 듯하다.

◦ 중화서국본은 題下注에서 “《宋詩紀事》는 《卻掃編》을 인용하여 <즉석에서 문로공에게 바치다>라고 표기했다”(《宋詩紀事》引《卻掃編》作<卽席獻文潞公>)이라 해설했다. 《송시기사》(권15)를 조사하면, 이 시의 시제는 <卽席獻文潞公>이라고 간략히 표기되어 있고, 시의 後注로 《각소편》의 기록이 인용되어 있다.¹¹⁾

◦ 이 시는 《시화》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② 제1~2구

◦ 拊髀: “拊”는 “치다, 두드리다”, “髀”는 “넓적다리”, “拊髀”는 “손으로 넓적다리를 치다”는 뜻인데, “격동이나 찬상 등의 심정을 표시한다.”(《한어대사전》: 以手拍股. 表示激動贊賞等心情.) “拊髀”는 문연각본의 표기이다. 중화서국본과 청초본의 표기는 “拊髀”이다. “髀”는 예전 군대에서 사용하던 작은 북을 뜻하며, “拊髀”는 “작은 북을 두드리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拊髀”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닐 뿐더러 전체적인 詩意와 어울리지 않는다. 문연각본의 표기가 옳다.

◦ 淸譚: “淸談”과 같은 뜻.

◦ 揮犀: “揮”는 “휘두르다, 떨다”는 뜻이고, “犀”는 “무소”이다. “揮犀”는 “무소의 뿔로 자루를 만든 총채를 떨다”는 의미이다. 《한어대사전》은 “揮塵과 비슷한 말로서 청담을 나누는 것을 일컫는다”(猶揮塵. 謂淸談)라고 풀이했다. 여기서 “塵”는 “塵尾”를 가리킨다. “塵尾”는 가느다란 나무막대 끝에 짐승의 털을 꼴은 것으로, 옛사람들이 한담을 할 때 벌레를 쫓거나 먼지를 떠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곧 “揮犀”나 “揮塵”는 “총채를 떨다”라는 뜻이고, 담론이나 청담을 나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晉代 사람들이 청담을 나눌 때 흔히 총채를 떨며 흥을 돋우었기

또는 “庸峭”를 “송대에는 舉折이라 부른다”(今謂之舉折)고 해설했다. 宋祁의 해설은 이 시의 제3구에서 상론할 예정이다.

11) 《却掃編》(卷中)의 관련기록은 다음과 같다. “熙寧間蘇丞相奉使契丹, 道過北京, 時文潞公爲留守, 燕會歎洽. 公因問魏收有‘逋峭難爲’之語, 人多不知逋峭何謂. 蘇公曰: ‘聞之宋元憲公云, ‘事是《木經》, 蓋梁上小柱名, 取有折勢之義耳.’ 蘇公以文人多用近語, 而未及此, 乃用是語爲一詩紀席上之事獻文公, 曰…”

때문이다.

③ 제3~4구

◦ 伯起: 魏收의 字이다. 魏收(506~572)는 문학가로서는 溫子昇(496~547)·邢邵(496~?)와 함께 北魏와 北齊에서 “三才”¹²⁾로 일컬어졌다.

◦ 逋峭: 제3구에서의 “逋峭”는 건축과 관련된 용어가 아님이 분명하다. 逋峭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문헌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魏收가 편찬한 《魏書·溫子昇傳》이 최초의 것이며, 송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또 문학의 용어로서 逋峭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은 소송이다.

北魏와 東魏 시대의 인물인 溫子昇¹³⁾은 中書侍郎을 담당했을 때 南朝 梁 武帝(蕭衍)에게 출사하여 객관에서 國書를 받게 되었는데, “ 스스로 용모와 행동거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곁의 사람에게 ‘시나 문장은 쓰기 쉽지만, 逋峭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自以不修容止, 謂人曰: ‘詩章易作, 逋峭難爲’).¹⁴⁾ 따라서 소송의 이 시의 제3구의 표현은

12) 《北齊書·魏收傳》(권37): “(魏收)尋兼中書舍人, 與濟陰溫子昇·河間邢子才齊譽, 世號三才” 참조.

13) 溫子昇: 字는 鵬舉. 北魏의 저명한 문학가. 竟陵八友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던 梁 武帝 蕭衍은 온자승을 “曹植·陸機가 北土에 다시 태어났다”(《魏書·溫子昇傳》: “曹植·陸機復生於北土”)라고 칭찬했다.

14) 《魏書·溫子昇傳》(권85): “子昇前爲中書郎, 嘗詣蕭衍客館受國書, 自以不修容止, 謂人曰: ‘詩章易作, 逋峭難爲.’” 여기서 “中書郎”은 中書侍郎의 줄임말로서, 北魏 때는 四品上, 北齊 때는 從四品에 해당하는 중서성의 고위관직이었다(《魏書·官氏志》 및 《中國古代職官大辭典》(河南人民出版社, 1990, 新鄉)의 <中書侍郎> 참조). 또 “客館”은 온자승이 출사했을 때 묵었던 館舍를 가리킨다. 단 溫子昇이 언제 梁나라로 출사했는지는 史書에 기록이 없다. 그러나 위의 기록의 앞 단락인 “齊文襄王(필자 주: 高澄)引子昇爲大將軍府諮議參軍. 子昇前爲中書郎, 常詣蕭衍客館受國書 …”를 참조하면, 온자승이 양나라로 출사한 시기는, 東魏 孝靜帝 때 大丞相으로 임명되어 황제를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훗날 北齊의 文襄皇帝로 追尊된 高澄(생존년: 521~549)의 집권시대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된다. 北魏와 梁의 사신 교환은 孝靜帝 天平4년(537) 6월부터 본격화되었다. 《魏書·孝靜紀》(권12): “先是, 蕭衍因益州刺史傅和請通好” 참조. 온자승이 중서시랑을 맡은 시기 및 양나라로 출사한 사실은 羅國威의 <溫子昇年譜(續)>(《遼寧大學學報》 1998년 제4기)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온자승전>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逋峭의 의미는 송대에 처음으로 해설되었다. 다음의 두 기록을 살펴보자.

宋祁(998~1062),¹⁵⁾ 《宋景文筆記》(卷上) <釋俗·庸峭>: 오늘날 지방의 형세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것을 庸峻이라고 한다. 齊魏 지방에서는 사람에게 훌륭한 예의와 법도가 있는 것을 ‘庸峭하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庸峻과 같은 의미이다.(今造屋勢有曲折者謂之庸峻. 齊魏間以人有儀矩可喜者, 謂之庸峭, 蓋庸峻也.)

周密(1232~1298), 《齊東野語》(권8) <庸峭>: 위수는 “逋峭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魏齊 지방에는 사람에게 훌륭한 예의와 법도가 있는 것을 ‘庸峭하다’고 말한다.¹⁶⁾ 《集韻》은 “庸廩는 지방이 평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庸의 음은 奔模反이고, (필자 주: 廩의 음은) 同都反이다. 오늘날 지방의 형세를 굽혀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것을 庸峭라고 하는데, 이 庸峭는 庸廩의 뜻과 또 가깝다. 현재 京師(필자 주: 杭州)에서는 풍도가 있는 사람에게 ‘波峭하다’라고 말하는데, 비록 庸자가 波자로 변했지만, 아마도 또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魏收有逋峭難為之語, 人多不知其義, … 而齊魏間以人有儀矩可喜者, 則謂之庸峭. 《集韻》曰: “庸廩, 屋不平也.” 庸, 奔模反, 同都反. 今造屈勢有曲折者謂之庸峭, 云二字與前義亦近似. 今京師指人之有風指者, 亦謂之波峭. 雖轉庸為波, 豈亦此義耶.)

위의 두 예문으로부터 逋峭는 송대에 지방의 굴곡진 모습을 가리키는 庸峭라는 말과 동일시되었고,¹⁷⁾ 이 庸峭는 사람에게 훌륭한 예의와 법

15) 宋祁는 宋庠의 동생이다.

16) 齊魏 지방은 황하 중하류 유역에 해당한다. 溫子昇은 齊 지방 사람이다. 그의 집안은 본래 江左에 살았지만 조부가 남조 宋 文帝(劉裕의 제3자) 때 彭성왕 義康(劉裕의 제4자)의 난을 피하여 北魏로 옮겨가 濟陰 冤句(현 山東省 荷澤)에 거주했다. (《魏書·溫子昇傳》: “溫子昇, 字鵬舉, 自云太原人, 晉大將軍 嶠之後也. 世居江左. 祖恭之, 劉義隆彭城王 義康戶曹, 避難歸國, 家於濟陰冤句, 因爲其郡縣人焉. 家世寒素. 父暉, 兗州左將軍府長史, 行濟陰郡事.”) 따라서 逋峭는 온자승 시대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齊魏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17) 《廣韻》 권1의 “[逋] 博孤切, 逋懸也(조세를 체납하다)” 및 “[庸] 博孤切,

도가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며, 波峭도 庸峭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동야어》의 문장의 맥락을 짚어보면, 주필은 <온자승전>과 이 시의 제3구에서의 “逋峭”를 사람의 풍도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제3구에서의 “逋峭”는 “사람에게 훌륭한 예의와 법도가 있는 것” 또는 “사람에게 풍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辭海》에서 “[逋峭] 同‘庸峭’。形容人物有風致。參見‘庸峭’。// [庸峭] 亦作‘逋峭’·‘波俏’·‘波峭’。本爲山巖屋勢傾斜曲折貌。借以形容人物或文筆有風致”라고 풀이한 것은 대체로 <溫子昇傳>과 이 시의 제3구 및 위의 두 예문에 근거한 것이다.¹⁸⁾

◦ 淳于: 골계와 언변에 뛰어났던 戰國시대 齊나라의 인물인 淳于髡을 가리킨다.

④ 제5~6구

◦ 花十八과 玉東西: “花十八”은 춤곡의 명칭이고, “玉東西”는 술잔의 명칭이다. 宋 張邦基의 《墨莊漫錄》(권4): “왕우옥 승상(즉 王珪)이 程公闢에게 보낸 시에 ‘비단허리의 춤 급박하여 十八을 맞게 되고, 옥잔의 술 달콤하여 東西에 비친다’라고 했다. 악부의 六么曲에 花十八이 있고, 고대의 술잔에 玉東西가 있었으니, 그 對仗이 아주 새롭다”(王禹玉丞相

屋上平(지붕이 평탄하다)”에 따르면 “庸”과 “逋”는 음이 같다.

18) 온자승의 “逋峭難爲”라는 말에는 당시 양나라 사대부들이 실질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외양만 꾸미는 풍조를 비판하는 어투가 담겨 있으며, 따라서 <온자승전>의 逋峭는 사전의 풀이와는 조금 달리 “화려하게 꾸며진 겉모습”이라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또 逋峭의 “逋”는 “도망치다”와 “조세를 채납하다”가 원의이고, “峭”는 산세가 높고 가파르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상이한 의미의 두 글자가 결합하여 어떻게 사람에게 풍치가 있는 모습 또는 지붕의 아래로 오목하게 경사진 모습을 가리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逋峭는 서예의 풍격 용어로서 三國시대 魏나라 皇象의 글씨를 평가할 때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逋”는 평탄하고 침착한 필세를, “峭”는 험준하고 통쾌한 필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송대 이후로 逋峭는 《사해》에서의 풀이와 같이 지붕이나 사람 그리고 詩文·글씨 등에 풍치 있다는 의미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逋峭의 原義는 평탄함과 가파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필자는 <逋峭語義考>라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구명할 예정이다.

寄程公關詩云：“舞急錦腰迎十八，酒酣玉盞照東西”樂府<六么>曲有花十八，古有玉東西杯，其對甚新也)에 따르면, 花十八과 玉東西를 對仗으로 구성한 최초의 인물은 王珪이었다. 王灼은 《碧溪漫志》에서 花十八은 唐 教坊曲의 빠른 춤곡인 六么의 한 소절이며, 총 18拍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¹⁹⁾

⑤ 제7~8구

◦ 荷公德度: “荷”는 “지다. 받다. 입다”의 뜻인데, “은덕을 입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公”은 문언박을 높여 일컬은 말이다. “德度”는 도덕과 風度を 뜻한다. “荷公德度”는 자신을 연회에 동석케 하고 자신의 말을 받아준 문언박의 덕과 풍도, 곧 은혜를 입었다는 점을 가리킨다.

◦ 狂簡: “狂簡”은 “뜻만 높고 일처리가 어설피다”(《한어대사전》: 志向高遠而處事疏闊)는 의미이다. 문연각본은 “狂簡”으로 표기했는데, “狂”(독음: 왕)은 “급히 가는 모양”(《한어대사전》: 急行貌)을 뜻하는 말이어서 詩意가 통하지 않는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주석>은 “뜻이 크고 일에 소홀한 것이다. 나아가기에 급급하고 소홀함에 빠지어, 일을 함에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작자의 겸양하는 말이다”(志大而略于事. 謂急于進取而流于疏闊, 致行事不切實際. 此是作者自謙之詞)라고 해설했다.

◦ 忘懷: “개의치 않다; 마음에 두지 않다. / 구속받지 않다”(《한어대사전》: 不介意; 不放在心上 / 無拘無束)는 의미이다. 필자는 “겁도 없다”라고 옮겼다.

◦ 町畦: 밭의 경계를 이루는 두둑. 규칙이나 구속됨을 비유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주석>의 풀이도 이와 같다. 필자는 “분수”라고 옮겼다.

19) 王灼, 《碧溪漫志》: “六么, 一名綠腰, 一名樂世, 一名錄要. … 白樂天<聽歌六絕句>內<樂世>篇云: ‘管急絃繁拍漸稠, 綠腰宛轉曲終頭.’ … 歐陽永叔云: ‘貪看六么花十八.’ 此曲內一疊名花十八, 前後十八拍, 又四花拍, 共二十二拍, 樂家者流所謂花拍, 蓋非其正也. 曲節抑揚可喜, 舞亦隨之, 而舞樂毬六么, 至花十八益奇” 참조.

02)〈向忝使遼于今十稔，再過古北，感事言懷奉呈同事閣使〉(예전에 욱되게도 요나라로 출사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다시 고북구를 지나며 감회를 적어 동료 함문사에게 드리다)

曾到臨潢已十齡, 일찍이 임황에 간 지 벌써 10년인데,
今朝復忝建旌行. 오늘 아침 또 욱되게도 깃발 세우고 길을 간다.
正當朔地百年運, 바야흐로 북쪽 땅에는 백년의 기운 서려 있는데,
又過秦王萬里城. 다시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지난다.
盡日據鞍消髀肉, 종일 안장에 걸터앉으니 넓적다리 살이 시달리고,
通宵聞柝厭風聲. 밤새 딱따기 들으니 바람소리에 싫증난다.
自非充國圖方略, 스스로 趙充國 아니어서 책략 피하지 못하고,
但致金縢慰遠毗. 단지 금과 비단 실어가 먼 곳의 백성 위무하는구나.

① 시제

◦ 문연각본의 시제는 〈某向忝使遼于今十稔，再過古北，感事言懷奉呈姚同事閣使〉이다. 중화서국본의 〈校記〉는 “四庫本作‘姚同事’”라고 밝혔지만, 문연각본에 “某” 한 글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 向: “예전에”라는 의미의 부사어.

◦ 忝: “욕되다. ~에 부끄럽다.” 소송의 겸양어이다.

◦ 十稔: 십년. “稔”은 “곡식이 익다”라는 뜻이다. 곡식은 일 년에 한번 익으므로, “稔”은 “年”을 뜻하기도 한다. 소송은 희녕 원년에도 出使했기 때문에 이번의 출사를 “于今十稔”이라 일컬은 것이다.

◦ 古北: 古北口를 가리킨다. 줄고 〈蘇頌前使遼詩注釋〉의 제7수 〈和仲巽過古北口楊無敵廟〉의 해설 참조.

◦ 同事閣使: 소송의 原注는 “西上閣門使·英州刺史姚麟”이라고 하여 “同事閣使”는 함께 파견되었던 副使 신분인 姚麟을 가리킨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閣使”는 閣門使의 줄임말이다. 閣門使는 황제의 乘輿와 조회·나들이, 연회에서의 신료 안내, 신료나 외국사절의 朝見 등을 관장했으며, 五代 이래로 武臣으로 담임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대에는 東·西上閣門使 각 3인과 副使 각 2인을 두었다.

② 제1구

◦ 臨潢: 遼의 上京 臨潢府를 가리킨다. 현 內蒙古 巴林左旗 남쪽의 波羅城이 그 옛터이다. “曾到臨潢”은 소송이 실제로 임황에 간 적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소송은 희녕 원년의 使遼 때 道宗의 冬捺鉢이 있는 廣平淀까지 사행했을 뿐, 臨潢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즐고 <蘇頌前使遼詩注釋>의 제22수인 <和香壇板>의 해설 참조. 《시화》는 “臨潢”을 “遼 上京府의 명칭이다. 여기서는 요나라를 대신하여 가리킨다”(臨潢: 遼上京府名, 此代指遼國)라고 해설했는데, 이로부터 《시화》는 “臨潢”을 실제의 臨潢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臨潢”을 요나라의 代稱으로 사용한 예는 仁宗 嘉祐4년 契丹正旦使로 出使했던 沈邁가 지은 <道中見新月寄內>(《西溪集》 권3)의 “만 리 길을 건너 임황으로 사신 간다”(萬里使臨惶)에서도 찾을 수 있다.²⁰⁾

③ 제3~4구

◦ 제3구: 문연각본은 “同持漢使雙符節”(다함께 한나라 사신되어 한 쌍의 부절을 쥐고서)로 표기했다. 중화서국본의 <교기>에도 이 사실이 밝혀져 있다. 정초본은 “正當胡虜百年運”이라 표기했다.

◦ 百年運: “百年”은 흔히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概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요나라의 국운이 오래 되었음을 가리킨다. 요나라는 916년에 건국하여 희녕10년인 1077년이면 건국한 지 이미 161년이 된다. <주석>은 “指遼建國已逾百年”이라고 설명했다.

◦ 秦王萬里城: 요나라 당시의 古北口의 장성은 秦代 장성이 아니라 北齊 때 새로 수축한 것이었다.²¹⁾ 秦長城은 古北口 북쪽에 수축되어 있

20) 沈邁의 “萬里使臨惶”에 관해서는 즐고 <王安石의 使行詩考 - 宋나라 境內에서 제작된 시>, 《中國文學》 43집, 58쪽 참조. “臨惶”은 “臨潢”의 誤記인 것으로 생각된다.

21) 路振의 <乘輅錄>: “三十里過孤溝河. 三十五里過長城”, 王曾의 <上契丹事>: “出北門, 過古長城, 延芳淀, 四十里至孫侯館, 後改爲望京館, 稍移故處”, 沈括의 <熙寧使契丹圖抄>: “望京館, 西南距幽州三十里. 自館東行少北十里餘, 出古長城. … 又二十里至順州. 古長城, 望之出東北山間, 至順州乃折而南, 至順州, 負城西走, 出望京之北, 西南至廣信之北二十里, 屬于西山” 등에 기재된 “長城” 또는 “古長城”은 古北口의 장성과 잇닿은 것들이다. 이러한 장성에 대하여 賈敬顏은 “此北齊之長城”이라 해설했다(《五代宋金元人邊疆行記十三種疏證

었다. 소송이 “秦王萬里城”이라 표현한 까닭은 秦長城이 長城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④ 제7~8구

◦ 充國: 漢 武帝와 昭帝·宣帝 때 흉노를 비롯한 夷狄 정벌에 큰 공을 세운 趙充國(B.C.137~B.C.52)을 가리킨다. 《漢書》(권69)의 열전에 따르면 그는 젊어서부터 큰 지략이 있었고 四夷의 사정에 통달했으며, 평소 夷狄에 관한 정책을 자주 건의했다. 또 그의 노년에 아들이 죄를 지어 자살하자 그는 벼슬을 그만 두고 물러나 사저에 거처했지만, 四夷에 관한 큰 논의가 있을 때면 조정은 언제나 그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²²⁾

◦ 金縢: 금과 비단. 여기서는 遼 道宗의 생신을 축하하는 예물을 가리킨다.

◦ 遠眈: “眈”은 농사꾼 또는 백성을 뜻한다. “遠眈”은 요나라의 백성을 가리킨다.

03)〈行次奚山〉(길을 가며 해산에 닿다)

奚山縹繞百重深, 해산은 굽이굽이 백 겹이나 깊지만,
握節何妨馬上吟. 부절 움켜쥐고 말 위에서 읊조린들 어떠랴.
當路牛羊眠薦草, 길을 막으며 소와 양이 풀밭에서 잠을 자고,
避人鳥鵲噪寒林. 사람 피하며 까치는 차가운 숲에서 시끄럽다.
羸肌已怯廬裘重, 야윈 몸은 벌써 갖옷 무거워 걱정인데,
衰鬢寧禁霰雪侵. 쇠잔한 살쩍이 침범하는 싸락눈을 어찌 견디랴.
獨愛潺湲溪澗水, 홀로 졸졸 흐르는 개울물을 사랑하는데,
無人知此有清音. 이곳에 맑은 소리 있는 줄 아는 이 없다.

稿), 54쪽, 88~89쪽, 137~138쪽). 北齊長城은 天保6년(555)에 西河(현 陝西 榆林河)로부터 山海關까지 1,500여 km의 길이로 쌓은 것이었다.

22) 《漢書·趙充國傳》: “為人沈勇有大略, 少好將帥之節, 而學兵法, 通知四夷事. … 卬(필자 주: 趙卬, 즉 趙充國의 아들)…自殺. 充國乞骸骨, 賜安車駟馬·黃金六十斤, 罷就第. 朝庭每有四夷大議, 常與參兵謀, 問籌策焉” 참조.

① 시제

◦ 行次: “길을 가다가 …에 닿다”(《한어대사전》: 謂行旅到達)는 의미이다. 중화서국본과 문연각본은 모두 “次行”이라 표기했다. 청초본의 이 시의 시제 표기에는 혼란이 있다. 곧 청초본 《소위공문집》 권13 卷頭에는 前使遼詩 30수와 後使遼詩 28수의 詩題들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의 이 시의 시제 표기는 <行次奚山>이지만, 정작 이 시의 내용을 수록한 곳에서의 표기는 <次行奚山>이다. 《시화》의 표기는 “行次”이다. 필자는 청초본의 卷頭에서의 표기, 그리고 《시화》에서의 표기인 “行次”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次行”은 “順序”를 뜻하거나 “어떤 일의 순서상 두 번째로 행하다”라는 의미이다(《한어대사전》).²³⁾ 따라서 <次行奚山>이라는 시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송은 奚山에 닿기에 앞서 처음에는 어느 곳에 갔었고, 두 번째로는 이 시에서의 奚山에 갔으며, 세 번째로는 다시 다른 어느 곳으로 가게 되어야 한다. 後使遼詩의 편차에 따르면 소송은 이 시를 짓기 이전에 古北口를 지나면서 시를 지었고, 奚山에서 이 시를 지은 다음 해산의 산길에서 동료의 물음에 답하는 시를 지었으며, 그 다음에는 新館에서 시를 지었다. 비록 봉사노선은 거쳐 가야 할 여정이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古北口는 소송의 노정에서 경유지의 한 곳일 뿐, 결코 출발점이 아니다. 따라서 노정에 있어서 “소송이 첫 번째로는 古北口에 갔다”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해산을 가다”라는 표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주석>은 “次行”을 “두 번째로 이곳을 지나다”(第二次過此)라고 풀이했는데, 이는 소송이 희녕 원년에 奚山을 처음 지나갔고, 올해 다시 奚

23) 《漢語大辭典》은 “次行”의 두 번째 의미의 예로 다음의 두 가지 기록을 예시했다. i) 唐 義淨의 《南海寄歸內法傳》: “서방의 시주들은 스님을 모시는 첫날에, 먼저 고승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다음번에는 일반불승에게 음식을 마련해준다”(西方施主, 請僧齋日, 初置聖僧供, 次行衆僧食) ii) 清 何啓·胡禮垣의 《新政議論》: “다음으로는 선거를 시행해야 하니, 정치인들이 부화함을 물리치고 실질을 숭상케 하기 위해서이다”(次行選舉, 所以使政治之人黜華而崇實也) 한편 蘇軾의 <呂惠卿責授建寧軍節度副使本州安置不得簽書公事>(《東坡全集》 권107)의 “首建青苗, 次行助役·均輸之政”에서의 “次行” 또한 동일한 예이다. 《中文大辭典》은 “次行”을 “i) 謂順序也. ii) 謂第二行也”라고 풀이했다. 즉 “次行”에서의 “次”는 “順序”를 가리키는 말이다.

山을 지나게 되었으니 그래서 “次”는 “第二次”를 가리킨다고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주석>의 설명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회녕 원년에 이어 회녕 10년에 다시 해산을 지나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해산을 “거듭” 지나가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次行奚山”이 아니라 “重過奚山”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次”에는 “거듭”이라는 뜻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行次”는 소송의 다른 시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소송은 英宗의 治平3~4년에 接伴使와 送伴使를 담당했을 때²⁴⁾ <行次塘堤>(《蘇魏公文集》 권8) 시를 지었는데, 이 시제는 “(요나라 사신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雄州 경내의 對遼 방어수로인) 塘堤에 닿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시의 시제는 <‘行次’奚山>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²⁵⁾

② 제5구

○ 旛裘: “旛”은 “旃”과 같은 글자이고, “旃”은 “氈”과 뜻이 통한다(《한어대사전》). 따라서 “旛裘”는 가죽으로 만든 옷, 곧 갖옷을 뜻한다.

③ 제6구

○ 禁: 原注에는 “禁”자 아래에 “平聲”이라 표기되어 있다. “禁”은 平聲으로 읽히면 “견디다; 참다”의 뜻이 된다. 청초본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다.

○ 霰雪: 문연각본은 “霜雪”이라 표기했고, 청초본은 “微雪”이라 표기했다.

④ 제7구

○ 潺湲: 청초본은 “潺緩”이라 표기하여 뜻이 통하지 않는다.

24) 소송이 요나라 사신을 위한 접반사와 송반사를 담당했던 사실은 趙永春의 <略論蘇頌使遼>(《松遼學刊》 社會科學版, 1991년 3기, 42쪽) 참조.

25) 소송의 문집 원전의 誤記는 그의 前使遼詩 첫 번째 작품인 <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에서도 보인다. 시제의 “潭州”는 “澶州”의 오기이다. 줄고 <蘇頌使遼詩‘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校釋>(《中國學》 31집, 대한중국학회, 2008) 참조.

04)〈同事閣使見問奚國山水何如江鄉, 以詩答之〉(동료인 함문사로부터奚國의 산수는 강남의 水鄉과는 어떠한 질문을 받고, 시를 지어 그에게 답하다)

奚疆山水比東吳, 해 땅의 산수를 東吳와 견주면,
物色雖同土俗殊. 풍경은 같으나 습속이 다르오.
萬壑千巖南地有, 슬한 골짜기와 바위는 남쪽에도 있지만,
扁舟短棹此間無. 쪽배와 짚막한 노는 이곳에는 없소이다.
因嗟好景當邊國, 그래서 좋은 경물이 변방에 있다는 걸 한탄하며,
却動歸心憶具區. 도리어 귀향의 마음 일어 太湖를 그리게 되오.
終待使還酬雅志, 끝내 임무 마치고 돌아가 평소의 소망 보답 받으면,
左符重乞守江湖. 왼쪽 符契 거듭 청하여 강남의 태수를 지내리다.

① 시제

◦ 何如: 청초본은 “有如”라고 표기했다. “有如”는 “如, 好像. // 如果, 假如”(《한어대사전》)의 의미이므로 전체적인 뜻이 통하지 않는다. 청초본의 誤記이다.

◦ 江鄉: 강이 많은 곳. 일반적으로 江南의 水鄉을 가리킨다.

◦ 蘇頌은 泉州 同安(현 福建 廈門市) 출신²⁶⁾으로서 長江 유역 또는 그 남쪽지방에서 거주하거나 벼슬한 적이 적지 않았다. 그는 仁宗 慶曆 2년(1042)에 과거에 급제하여 宿州(현 安徽 宿縣) 觀察推官이 되었고, 景禧4년에는 江寧(현 江蘇 南京) 知縣을 지냈으며,²⁷⁾ 神宗의 熙寧4년부터 7년 사이에는 婺州(현 浙江 金華)와 亳州(현 安徽 亳縣) 知州를 역임했고,²⁸⁾ 희녕9년 정월부터 희녕10년 4월까지의 杭州(현 浙江) 知州를

26) 중화서국본 《蘇魏公文集》의 〈前言〉은 소송의 출생지에 관하여 “蘇頌字子容, 北宋泉州同安縣(今屬廈門市)人. 同安在南唐始建爲縣, 舊屬南安縣, 所以或稱蘇頌爲南安人”이라 설명하고 있다.

27) 《宋史》(권340) 〈蘇頌傳〉: “父紳, 葬潤州丹陽, 因徙居之. 第進士, 歷宿州觀察推官, 知江寧縣”에는 소송은 부친이 사망한 뒤에 급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그의 부친은 소송이 강녕의 지현을 역임하던 景禧7년에 사망했다. 顏中其의 〈蘇頌年表〉(중화서국본 《蘇魏公文集》) 1251~1253쪽 참조.

28) 《長編》 권226 熙寧四年 八月 戊戌: “工部郎中李大臨知汝州, 蘇頌知婺州.

역임했다.²⁹⁾ 한편 姚麟은 五原(西夏와의 접경지역임. 현 陝西省 定邊縣) 사람으로서 秦鳳路副總管을 거쳐 英州刺史를 역임했고, 元豐 연간에 西夏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宋史》(권349) <姚麟傳>에 따르면 그의 활동지역은 주로 宋代의 서북방 국경지역이었으며, 강남지역과 관련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요린은 강남의 산수를 잘 아는 소송에게 질문한 것이다.

② 제1~2구

- 東吳: 춘추시대의 옛 오나라 땅. 대략 현 江蘇省·浙江省의 동부지구 에 해당한다.
- 物色: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풍경·경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제3구

- 南地有: 청초본은 “南北有”라고 표기했다. “南北有”는 이런 풍경이 “남과 북에 모두 있다”는 의미이어서 부분적인 뜻은 통한다. 그러나 “南地”이어야만 제4구의 “此間”과 매끄럽게 대응한다.

④ 제5~6구

- 邊國: 문연각본은 “邊塞”라 표기했다. 청초본은 “吳國”이라 표기했지만, 詩意가 통하지 않는다.
- 具區: 江蘇省 남부의 太湖를 가리킨다. 《周禮·夏官·職方氏》의 “동남쪽을 揚州라 하는데, 유명한 산으로는 會稽가 있고, 큰 호수로는 具區가 있다”(東南曰揚州, 其山鎮曰會稽, 其澤藪曰具區)에서 유래한 말이다.

大臨·頌歸班, 踰年處之怡然, 不敢請外, 及是乃出守”와 권253 神宗 熙寧七年五月 乙卯: “工部郎中蘇頌勾當三班院. 頌補外三歲, 今乃歸朝” 및 顏中其, <蘇頌年表>(1263~1266쪽) 참조.

29) 《宋史·蘇頌傳》에는 소송이 仁宗·英宗의 兩朝 正史를 편수하기 이전에 “吳越饑, 選知杭州”라고 기록하고 있다. 蘇頌이 杭州의 知州를 역임한 시기는 李之亮의 《宋兩浙路郡守年表》(巴蜀書社, 2001, 成都, 14쪽)의 “《乾道志》: ‘熙寧九年正月丙寅, 以秘書監·集賢院學士蘇頌知杭州’ 및 “《乾道志》: ‘熙寧十年五月庚申, 以知浩州·右正言·知制誥章惇知杭州. 未行, 爲翰林學士’” 참조.

<주석>은 “雲夢澤”, 곧 洞庭湖를 가리킨다고 잘못 풀이했다.

⑤ 제7~8구

- 雅志: 평소의 소망(《한어대사전》: 平素的意願).
- 左符: 증빙자료로 삼는 符契의 왼쪽 반. 漢나라 때 태수로 임명받으면, 조정으로부터 부계의 왼쪽 반을 지니고 郡에 도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부계의 오른쪽 반과 맞추어 증거로 삼았다.
- 重乞: 거듭 요청하다. 태수의 부계를 “거듭” 요청한다고 표현한 까닭은, 소송은 출사하던 해인 희녕10년의 4월까지 杭州의 知州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 江湖: 여기서는 “江南”을 의미한다. 押韻 때문에 “江南”이란 단어는 쓸 수 없다.

05)<早行新館道中>(아침 일찍 신관의 길을 가다)

經旬霜雪倦晨征, 열흘째 눈서리에 새벽 출발 게을러지고,
重過邊疆百感生. 거듭 변방을 지나니 만감이 교차한다.
日上東扶千嶂影, 태양이 동에서 떠올라 산봉우리마다 그림자지고,
風來空谷萬號聲. 바람은 빈 골짜기로 불어오며 만 가지로 소리 낸다.
人心自覺悲殊土, 사람 마음은 절로 느끼어 낯선 풍토를 슬퍼하는데,
物色偏能動旅情. 풍경은 뜻밖에도 여행의 정취 움직인다.
況是天恩懷憬俗, 하물며 조정의 은택은 변방의 백성조차 품었으니,
不妨遊覽趁嚴程. 유람하며 빠듯한 일정 쫓는 것도 괜찮으리.

① 시제

- 新館: 古北口와 臥如來館 사이의 관역이다. 賈敬顔은 新館을 현 河北省(承德市) 灤平縣 서남의 平房(또는 平坊) 일대라고 설명했다.³⁰⁾

② 제2구

- 過: 문연각본은 “到”(닿다)라고 표기했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

30) 王曾, <上契丹事>: “八十里至新館”의 <疏證>(賈敬顔, 앞의 책 95쪽) 참조.

국본과 같다.

- 邊疆: 청초본은 “胡疆”이라고 표기했다.

③ 제3구

◦ 東扶: 동쪽 바다 속의 扶桑. 扶桑은 해가 뜬다는 나무이다. 여기서 동쪽을 가리킨다.

④ 제7구

◦ 憬俗: 먼 변방 지구의 백성(《한어대사전》: 邊遠地區的百姓). “憬”은 “멀다”는 의미이다. <주석>은 “먼 곳의 습속”(遠方的習俗)이라 풀이했는데, 이것도 詩意와 통한다. 이 “憬”을 문연각본은 “景”이라 표기했지만, “景俗”으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06)<奚山道中>(해산의 길에서)

擁傳經過白靄東, 사신의 수레 타고 백습의 동쪽을 지나니,
依稀村落見南風. 드문드문한 촌락에서 남쪽의 풍속 보았다.
食飴宛類吹簫市, 엿을 먹으니 저자에서 통소 불던 伍子胥와 닮았고,
逆旅時逢煬寵翁. 객사에서 때마침 불 때는 노인을 만났다.
漸使邊氓歸吠畝, 점차 변방의 백성들 밭농사 짓게 했으니,
方知厚澤遍華戎. 두터운 은택 중화와 호족에 두루 퍼졌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朝廷涵養恩多少, 조정에서 길러주니 그 은혜 얼마이던가?
歲歲輶車萬里通. 해마다 사신의 수레 만 리 길을 통행한다.

① 시제

◦ 原注: “시골 가게에서 기장을 끓여 만든 엿을 팔고 있었는데, 마치 남쪽 중원과 같았다”(村店炊黍賣錫, 有如南土) 참조. 청초본은 “錫”을 “錫”으로 誤記했다.

② 제1~2구

◦ 擁傳: “擁”는 “지나다. 차지하다”의 뜻. “傳”은 역참의 수레. “擁傳”은 역참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뜻한다. 《한어대사전》은 “擁傳”을 “출사를 의미한다. 역참의 거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謂出使. 因使用驛站的車馬, 故云)라고 풀이했다.

◦ 白靺: 고대 북방의 소수민족. 靺과 白靺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朱衛는 靺과 白靺의 민족 기원은 동일하지만 알타이산맥 일대의 鐵勒이 薛延陀汗國을 세운(629년) 이후로 중원왕조에 臣屬한 靺人과 鐵勒의 지배하에 있던 靺人을 구분하여, 후자를 白靺이라 일컬었다고 주장하고, 白靺은 靺의 서북쪽에 거주했다고 설명했다.³¹⁾ 이 시에서 “白靺의 동쪽”이란 곧 靺族의 거주지, 넓은 의미의 奚族의 거주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 見南風: 문연각본은 “有鄉風”(시골 풍속이 있다)이라 표기했고, 청초본은 “見華風”(중화의 풍속이 보인다)이라 표기했다. “南風”은 남쪽 중원의 풍속을 뜻한다. 즉 뜻밖에 기장을 고아 엿을 파는 노인을 만나 엿을 먹게 되니, 남쪽의 풍속과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주석>은 “南風”을 舜임금이 오현금을 만들어 불렀다고 하는 <南風歌>로 풀이하면서 《孔子家語辨樂解》에 실린 가사의 내용: “남풍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의 노여움을 풀어주는구나. 남풍의 때맞추어 불어옴이며, 우리 백성의 재물을 풍성케 하는구나”(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를 인용했다. 곧 <주석>은 요나라 민간의 풍속이 <남풍가>의 백성들처럼 아주 여유롭다고 풀이한 것인데, 이러한 풀이는 부분적으로는 통하지만, 題下의 原注와는 그리 잘 합치하지 아니한다.

31) 朱衛, <靺與白靺源流考>: “靺與白靺雖在唐及以後分屬於不同部族, 但究其族源, 實爲一源, 只是由于遊牧民族的遷徙流動及與外族關係的變化而逐漸演變爲兩個不同的民族. … 白靺居地和靺居地均夾在突闕·鐵勒·奚·契丹·靺鞨·室偉之間, 白靺在靺之西北. … 629年, 漠北鐵勒便在薛延陀部首領夷男的率領下, 擊敗東突闕, 建立了薛延陀汗國, 開闢了鐵勒民族的新時代. 一度臣屬於突闕的靺族人, 除‘奚靺五部內從’(필자 주: 《隋書·突闕傳》의 문장임. ‘內從’은 중원왕조에 신속한다는 의미임)外, 仍有部分靺人留了下來, 轉附于鐵勒, 並列入鐵勒十五部之中. 中原王朝爲將臣屬於己之靺人與處於鐵勒之下的靺人區分開來, 故在後者前加‘白’字” 참조. (《西北第二民族學院學報》, 2005년 2기, 32-33-34쪽)

③ 제3구

◦ 吹簫市: 저자에서 통소를 불다(불며 구걸하다). 《시화》는 《史記·范雎傳》을 인용하여 伍子胥가 배를 두드리고 통소를 불며 오나라의 저자에서 걸식하던 것³²⁾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吹簫”는 “걸식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④ 제5~6구

◦ 邊氓歸吠畝: 문연각본은 “黔黎安吠畝”(백성들이 밭농사에 편안해하다)라고 표기했다. 중화서국본의 <校記>에도 이 사실이 밝혀져 있다.

◦ 邊氓: 청초본은 거란을 극도로 멸시하는 용어로 쓰이는 “犬羊”이라고 표기했다.

◦ 厚澤遍華戎: 문연각본은 “雨露徧華戎”(비와 이슬, 곧 은혜가 중화와 오랑캐에 두루 미치다)이라 표기했고, 청초본은 “雨露徧夷戎”이라 표기했다.

07)<過新館罕見居人>(新館을 지나자 주민이 거의 보이지 않다)

引弓風俗可傷嗟, 활 당기는 거란 풍속 슬프기만 한데,
滿目清溪與白沙. 눈 가득 맑은 개울 흰 모래로다.
封域雖長編戶少, 강토는 넓으나 주민이 적어,
隔山才見兩三家. 산 너머서야 겨우 두세 집이 보인다.

① 제4구

◦ 三: 문연각본은 “山”이라 표기했지만, 이는 誤刻이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08)<牛山道中>(牛山の 길에서)

農夫耕鑿遍奚疆, 밭 가는 농부가 해족의 땅 어디든 있는데,
部落連山復枕岡. 부락은 산에 연이었다가 다시 언덕을 베고 있다.

32) 《史記·范雎傳》: “伍子胥橐載而出昭關, 夜行晝伏, 至於陵水, 無以糊其口, 膝行蒲伏, 稽首肉袒, 鼓腹吹篳, 乞食於吳市, 卒興吳國, 闔閭爲伯” 참조.

種粟一收饒地力, 조를 심어 한번 수확하니 지력에 여유 있고,
 開門東向雜夷方. 동향으로 대문을 내어 오랑캐 땅에 섞여 산다.
 田疇高下如棋布, 밭두둑은 높고 낮게 바둑판처럼 분포되어 있고,
 牛馬縱橫似谷量. 소와 말은 널리어 골짜기로 헤아려야겠다.
 賦役百端閒日少, 세금과 부역은 가지가지 쉬는 날 적으니,
 可憐生事甚茫茫. 가엾게도 생계가 몹시도 아득하다.

① 시제

◦ 原注: “농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짓고 있고, 소와 양이 골짜기에 널려 있어, 물어보았더니, 모두 漢人들이 奚人의 토지를 소작하는 것인데, 과중한 소작료 납부와 부역에 아주 고생이 많다고 했다”(耕種甚廣, 牛羊遍谷, 問之, 皆漢人佃奚土, 甚苦輸役之重) 참조.

◦ 牛山: 賈敬顔과 孫冬虎는 현 承德縣 북쪽의 老牛山이라 설명했다.³³⁾

② 제1구

◦ 農夫: 문연각본과 청초본은 “農人”이라 표기했다.

③ 제3~4구

◦ 種粟一收: 청초본은 “種收一收”라 誤記했다.

◦ 제3구: 이모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농사짓기 때문에 지력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唐 중기 이후로 華北 지역은 조-보리-콩의 이년삼모작을, 강남 지역은 벼-보리의 이모작을 했지만,³⁴⁾ 요나라 지역은 기후조건 때문에 일모작을 한 듯하다. 요나라 지역이 일모작을 했다는 증거는 後使遼詩 제26수 <發柳河> 제6구의 소송의 原注에서도 찾을

33) 沈括, <熙寧使契丹圖抄>: “有大山曰牛山”의 <疏證>(賈敬顔, 앞의 책, 148~149쪽) 및 孫冬虎, <北宋詩人眼中的遼境地理與社會生活>(《北方論叢》, 2005년 제3기, 26쪽) 참조.

34) 중국 농업의 이년삼모작이나 이모작이 시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辛聖坤, <唐宋變革時期>(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편, 《講座中國史Ⅲ》, 서울: 지식산업사, 1994, 초판 제4쇄, 47쪽) 및 李範學, <宋代的社會와 經濟>(앞의 책, 134쪽) 참조.

수 있다.

◦ 夷方: 오랑캐가 사는 곳. 문연각본은 “邊方”이라 표기했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 開門東向: 동쪽으로 문을 내다. 거란족은 태양을 숭배하여 민간인의 거처 뿐 아니라 황궁이나 捺鉢 그리고 木葉山에 건립한 天神·地祇廟도 동향으로 문을 내었다.³⁵⁾ 《시화》는 《新五代史》(권72) <四夷附錄第一>의 “거란은 귀신을 좋아하고 태양을 귀하게 여기어, 매일 초하루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절한다. 거란인이 크게 모여 국사를 처리할 때에도, 늘 동쪽을 향하여 앉는 것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방 누대의 출입문도 모두 동향이다”(契丹好鬼而貴日, 每月朔旦東向而拜日; 其大會聚, 視國事, 皆以東向為尊; 四樓³⁶⁾門屋, 皆東向)의 기록을 인용했다. <주석>은 “동방을 개방하여 한인들이 하여금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소작농을 하게 했으니, 한인과 胡族이 잡거하는 곳이 되었다”(向東方開放, 讓漢人來此種田當佃戶, 成了漢夷雜居之處)라고 풀이했으나, 이는 東向을 숭상하는 거란족의 풍습을 알지 못하고 잘못 설명한 것이다.

④ 제6구

◦ 谷量: 산골짜기로 牛馬의 수효를 계산하다. 가축이 매우 많은 것을 가리킨다.

⑤ 제7~8구

◦ 百端: “다양하다. 여러 가지이다”

◦ 生事: “生計”와 같은 말로 사용되었다.

◦ 茫茫: 청초본은 “茫” 한 글자만으로 잘못 표기했다.

35) 契丹의 東向 숭배에 대해서는 李錫厚, 《中國歷史·遼史》(北京: 人民出版社, 2006) 159쪽 “夏捺鉢”, 166쪽 “官分南北”, 178쪽 “敵烈麻都司”, 344~345쪽 “上京皇城” 등의 항목 참조.

36) 四樓: <四夷附錄第一>의 “至阿保機, … 乃僭稱皇帝, 自號天皇帝. 以其所居橫帳地名爲姓, 曰世里. 世里, 譯者謂之耶律. 名年曰天贊. 以其所居爲上京, 起樓其間, 號西樓, 又於其東千里起東樓, 北三百里起北樓, 南木葉山起南樓, 往來射獵四樓之間”에 따르면, “四樓”는 동서남북의 네 곳에 阿保機가 건립한 누대를 가리킨다. 四樓에 관한 기록은 《遼史拾遺》(권13) <營衛志>에 인용된 趙志忠의 《雜記》에도 보인다.

09) <發牛山>(우산을 출발하며)

山坂縈紆道阻長, 산언덕은 구불구불 길은 험하고 멀어,
 數程行處尚相望. 노정을 헤아리니 갈 곳은 아직도 멀다.
 晨裝方指南高外, 새벽에 짐 꾸려 마야흐로 남고산 너머로 향하다가,
 宿館還趨北斗旁. 저녁 묵을 곳엔 또 북두성 곁으로 달려야했다.
 既乏遠謀慙肉食, 이미 큰 지략 부족한데 후한 봉록 부끄럽고,
 空將衰鬢冒寒霜. 부질없이 노쇠한 몸 이끌고 차가운 서리 무릅쓴다.
 却尋十載曾行地, 다시 10년 전 같던 길을 찾으니,
 風物依然土境荒. 풍경은 예와 같되 토지는 황량하다.

① 시제

◦ 原注: “아침에 牛山을 출발하니, 길이 구불구불하고 멀어 종일토록 남행했다. 저물녘에 또 북쪽 숙소로 길을 도왔다”(朝發牛山, 道路回遠, 終日南行. 至暮又北趨宿館) 참조. 여기서의 “宿館”은 牛山館의 다음 館驛인 鹿兒館을 가리킨다. 청초본은 “終日南行”을 “終日難行南”(종일토록 남쪽으로 가기가 힘들었다)라고 표기했다.

② 제2구

◦ 相望: 여기서 “相距”(멀리 떨어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제3~4구

◦ 제3구: 原注의 “우산관 남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곳 사람들은 남고산이라 불렀다”(館南一峯最高, 彼人謂之南高山) 참조. “彼人”에 관하여 중화서국본의 <校記>는 “原作‘從人’, 從四庫本改”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연각본에는 “彼人”이라 표기되어 있다. 중화서국본의 편찬자들이 “原作”이라고 표기할 때는 蘇廷玉의 刊本을, 그리고 “四庫本”이라고 표기할 때는 문연각본을 가리켜왔다. 따라서 이곳의 <校記>에서 언급한 “四庫本”은 문연각본이 아님이 분명하다. 중화서국본의 저본이 蘇廷玉의 간본이고, 소정옥 간본의 저본은 文瀾閣本임을 고려할 때, 이 <校記>에서 “從四庫本改”라고 설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편 청초

본은 “彼人”이라 표기했고, 《시화》는 “從人”이라 표기했다. 소송의 이시는 《遼史拾遺·地理志三·中京道》(권13)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그곳에서의 표기는 “彼人”이다.

◦ 北斗旁: 문연각본은 “北斗方”(북두성 쪽)이라 표기했고, 《遼史拾遺》는 “北斗傍”(북두성 곁)이라 표기했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④ 제5~6구

◦ 肉食: 고기를 먹다. 높은 관직의 후한 봉록을 뜻한다. 《시화》는 “제5구는 자신이 높은 벼슬을 하고 후한 봉록을 받고 있으나 원대한 계획을 낼 수 없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좌전》의 ‘고기 먹는 사람은 비루하니, 원대한 계획을 낼 수 없다’에서 나온 말이다”(此句謂己作高官·享受厚祿不能遠謀而感慚愧. 出自《左傳》: “肉食者鄙, 未能遠謀”)라고 풀이했다. 이 《左傳》의 기록은 <莊公十年>에 보인다.

◦ 衰鬢: 청초본은 “霜鬢”이라 표기했다.

⑤ 제8구

◦ 風物: 風光景物(《한어대사전》), 즉 풍경.
◦ 土境: 경계 내의 토지(《한어대사전》: 境界內的土地), 곧 요나라의 토지를 가리킨다.

10) <契丹帳>(거란의 車帳)

行營到處卽爲家, 거처 옮겨가다 닿는 곳이 집이 되니,
一卓穹廬數乘車. 높다란 파오 하나와 몇 대의 수레로다.
千里山川無土着, 천 리라 넓은 산천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四時畋獵是生涯. 철따라 하는 사냥이 생업이구나.
酪漿羶肉誇希品, 양젖에 누린내 고기를 진귀한 음식이라 자랑하고,
貂錦羊裘擅物華. 담비갓옷 양털옷은 좋은 물품이라 독차지했다.
種類益繁人自足, 부족이 더욱 번성하고 사람들은 자족하니,
天教安逸在幽遐. 이 외진 곳에서도 하늘이 편히 살게 하셨구나.

① 시제

◦ 原注: “녹아관에서 거란인의 車帳을 보았는데, 온 가족이 산비탈에서 숙박했다”(鹿兒館中見契丹車帳, 全家宿泊坡坂) 참조. “宿泊坡坂”을 중화서국본은 “宿泊坡坂”이라 표기했는데, 이는 “泊坡坂”을 고유명사로 간주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러나 고유명사로서의 “泊坡坂”은 모든 서적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다. 여기서 “宿泊”은 “숙박하다”는 의미이고, “坡”와 “坂”은 모두 산의 경사면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이다.

◦ 車帳: 포장을 친 큰 수레. 자세한 해설은 前使遼詩 <和仲巽奚山部落> 참조.

◦ 이 시는 문연각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② 제1~2구

◦ 行營: “막사를 옮기는 것”(《한어대사전》: 移營, 指行軍), 곧 거처인 車帳을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청초본은 “行營”을 “馬牛”라고 표기했다.

◦ 卓: 높다. 빼어나다. <주석> 또한 “一卓, 一座高大的”라고 풀이했다.

③ 제5~6구

◦ 羶肉: 청초본은 “氈肉”이라 표기했다. “氈”은 양털 등의 毛氈을 뜻한다. 그러나 “氈”은, 거란의 음식을 묘사한 제5구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거란의 의복을 묘사한 제6구와는 중복된다. 청초본의 誤記이다.

◦ 貂錦: 원래는 “담비갓옷과 비단옷”(《한어대사전》: 貂裘·錦衣)을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貂”에 의미가 주어진 偏義複詞이다. “비단옷”은 일반 거란족의 의복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 擅物華: “擅”은 오로지하다, 독차지하다는 뜻. “物華”는 사물의 精華이니 여기서는 좋은 물건을 뜻한다. 소송은 거란족이 모두 가죽옷을 입고 있고 또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마치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듯하다고 느낀 것이다. <주석>은 “擅物華”를 “홀로 가지고 있는 좋은 물품”(獨有的美好物品)이라고 풀이했지만, “擅”은 술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주석>의 풀이는 조금 어색하다.

④ 제7~8구

- 種類: “部族”의 뜻(《한어대사전》).
- 幽遐: 외지고 멀다(《한어대사전》: 僻遠).

11) <奚山路>(해산의 길)

行盡奚山路更賒, 해산을 다 지나와도 길은 또 먼데,
路旁時見百餘家. 길가로 마침 인가 백여 채가 보인다.
風煙不改盧龍俗, 그 모습 盧龍(幽州)의 풍속과 다르지 않은데,
塵土猶兼瀚海沙. 흙먼지엔 오히려 사막의 모래 섞여있다.
朱板刻旗村肆食, 붉은 널빤지에 깃발 새긴 촌가게에서 식사 하는데,
青氍通幟貴人車. 귀인은 푸른 모건의 휘장 두른 수레를 탔다.
皇恩百歲如荒憬, 황제의 은혜 백년토록 먼 변방에 미치어,
物俗依稀欲慕華. 중화를 흠모하듯 습속이 닮았구나.

① 시제

- 原注: “해산의 길을 벗어나 中京의 경내로 들어서니, 길가에 가게가 꽤 많았고, 사람과 물건 또한 많았다”(出奚山路, 入中京界, 道旁店舍頗多, 人物亦衆) 참조.

② 제1구

- 盡: 청초본은 “更”이라 표기했다. “行更奚山”은 의미가 통하지 않을 뿐더러 “更”은 “路更賒”의 “更”과 중복된다. 청초본의 誤記이다.
- 賒: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쓰였다.

③ 제3~4구

- 風煙: 여기서는 “景象”, 즉 “현상”이나 “상황”의 의미로 쓰였다(《한어대사전》). “風煙”을 청초본은 “烟風”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烟風”은 하나의 단어로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용례 또한 거의 찾을 수 없다. 청초본의 誤記이다.
- 제3구의 原注: “唐의 노룡절도사는 거란제어사를 검직했다”(唐盧龍

節度兼押契丹使) 참조. “押”은 “제어하다”라는 뜻이다.

◦ 盧龍俗: 盧龍 지방의 풍속. 여기서는 幽州의 풍속을 가리킨다. 노룡은 唐代의 平州(현 秦皇島市 盧龍縣)이다. 노룡은 唐 平盧節度使의 관할이었지만, 肅宗 寶應 원년(762)에 平盧(唐代의 營州, 현 河北 秦皇島市 昌黎縣)가 함락된 이후로는 幽州節度使가 盧龍節度使를 겸하게 되었다.³⁷⁾ 본디 유주절도사는 奚와 契丹을 제어하고, 평로절도사는 室偉와 靺鞨을 통할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지만,³⁸⁾ 평로가 함락된 寶應 연간 이후에 契丹 제어는 자연히 유주절도사 겸 노룡절도사의 소관이 되었다.³⁹⁾ 따라서 소송의 원주에서의 “盧龍節度”는 사실은 유주절도사가 겸직한 노룡절도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곧 이 시에서의 노룡은 唐代의 平州가 아니라 幽州(遼의 南京, 현 北京)라고 보아야 한다. <주석>은 노룡을 현 (秦皇島市) 盧龍縣이라고 풀이했지만, 소송의 出使 노정에는 현 노룡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⁴⁰⁾ 따라서 소송은 현 노룡현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석>의 풀이는 詩意와 통하지 않는다. 《시화》는 “대략 현 하북의 북부, 북경시 일대이다. 요나라 건국 이전에 거란족은 이곳에서 활동하고 번식했다”(約有今河北北部·北京市一帶之地. 遼立國前, 契丹族曾活動蕃息于此)라고 풀이했는데, 이는 詩意와 통한다.

◦ 瀚海: 사막을 뜻한다.

37) 《新唐書》(권66) <方鎮表三>: “開元二十八年, 平盧軍節度使兼押兩蕃·渤海·黑水四府經略處置使. 天寶元年(742년, 玄宗), 更幽州節度使為范陽節度使. 寶應元年(762년, 肅宗), 范陽節度使復為幽州節度使, 及平盧陷, 又兼盧龍節度使” 참조. 필자는 《畿輔通志》(권13)를 통해 <方鎮表>를 이해할 수 있었다.

38) 《舊唐書》(권38) <地理志一>: “范陽節度使, 臨制奚·契丹(원주: 范陽節度使, 理幽州…), 平盧軍節度使, 鎮撫室韋·靺鞨, 統平盧·盧龍二軍, 榆關守捉, 安東都護府(원주: 平盧軍節度使治在營州. … 平盧軍, 在營州城內. 盧龍軍, 在平州城內)” 참조.

39) 《舊唐書》(권143) <劉怱傳>: “貞元元年, (朱)滔(746~785)卒, 三軍推(劉)怱權撫軍府事. 怱為衆所服, 卒有其地. 朝廷因授怱幽州大都督府長史·兼御史大夫·幽州盧龍節度副大使·知節度事·管內營田觀察·押奚契丹·經略盧龍軍使”에 따르면 劉怱은 幽州·盧龍의 節度副使의 신분으로 “押奚契丹使”의 직책을 겸했다.

40) 소송 뿐 아니라 북송의 사신들이 거쳐 가야 할 요나라 경내의 봉사노선에 唐代의 平州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제5~6구

- 朱板: 문연각본은 “朱版”이라 표기했다. “朱版”과 “朱板”은 같은 뜻이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 村肆: 문연각본은 “村賜”라고 표기했지만, 이는 뜻이 통하지 않는 誤記이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 제5구의 原注: “문 앞에 붉은 깃발을 새긴 나무를 걸어놓은 주막집에서 식사를 하다”(食邸門掛木刻朱旗) 참조.
- 제6구의 原注: “귀족의 집안은 수레의 휘장을 온통 푸른 모전으로 덮었다”(貴族之家, 車屋通以青氈覆之) 참조.

⑤ 제7~8구

- 如: “가다. 이르다. 미치다”의 뜻으로 쓰였다.
- 荒憬: “荒”은 “거칠다”, “憬”은 “멀리 가는 모양 또는 멀다”는 의미이며, “荒憬”은 “황량하고 먼 나라를 가리킨다”(《한어대사전》: 指荒遠之國). <주석>은 “疏遠”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疏遠”을 “遙遠”의 의미로 새긴다면, <주석>의 해설도 詩意와 통한다.
- 如荒憬: 문연각본은 “加荒景”이라 표기했으나, 이는 詩意가 통하지 않는 誤記이다. 청초본은 “加荒憬”(먼 변방에까지 펼쳐지다)이라 표기했다.
- 物俗: “현지의 풍속”을 뜻한다(《한어대사전》: 當地的風俗).
- 依稀: “유사하다”는 뜻으로 쓰였다(《한어대사전》).
- 欲慕華: 문연각본은 “想夢華”라고 표기했으며, 중화서국본의 <校記>에도 이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의미는 서로 동일하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주석>은 제8구를 “從風俗習慣上看仍然有羨慕中原之意”라고 풀이했다.

12) <中京紀事>(중경에서 겪은 일)

東遼本是苦寒鄉, 동쪽 요나라는 본래 몹시 추운 고장,
況復嚴冬入朔疆. 하물며 엄동에 북쪽 변방으로 들어섰음에랴.
一帶土河猶未凍, 이 일대의 토하는 아직 얼지 않았는데,
數朝晴日但凝霜. 몇 날 아침을 날이 개어 서리만 내렸다.

上心固已推恩信, 황제의 마음 벌써 은혜와 믿음을 퍼뜨리셨으니,
 天意從茲變燠暘. 하늘의 뜻은 이에 화창한 날씨로 바꾸었구나.
 最是使人知幸處, 우리 사신들은 가장 다행스럽게도,
 輕裘不覺在殊方. 가벼운 갖옷에 이역인 줄 깨닫지 못한다.

① 시제

◦ 原注: “11월 16일에 중경에 도달했는데, 아직 모진 추위는 겪지 않았고, 날씨가 따스하여 거의 황하 북쪽지방과 같았다. 사절단은 모두 큰 다행임을 깨달았기에, 이 일을 기록하여 동료인 閤使에게 바친다”(十一月十六日到中京, 未經苦寒, 天氣溫煦, 幾類河朔. 行人皆知厚幸, 紀事書呈同事閤使) 참조.

② 제1~2구

◦ 東遼: 북송의 수도 開封에서 볼 때 中京을 비롯한 요나라의 중심지역은 동북쪽에 있으므로 “東遼”라고 표현했다. 문연각본은 “邊關”(변경의 관문)이라 표기했고, 청초본은 “東胡”라고 표기했다.

◦ 本是: 청초본은 “本事”라고 표기하여 詩意가 통하지 않는다.

◦ 鄉: 문연각본은 “地”라고 표기했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 朔疆: 문연각본은 “異鄉”이라 표기했고, 청초본은 “虜疆”이라 표기했다.

③ 제3구

◦ 土河: 현 老哈河를 가리킨다. 자세한 해설은 前使遼詩의 <和過神水沙磧> 참조. 《시화》는 “서남쪽으로부터 중경을 거쳐 북으로 흐른다”(由西南流經中京而北)라고 해설했다.

④ 제5구

◦ 上心固已推恩信: 청초본은 “上心固已天推恩信”이라 표기했는데, 여기서의 “天”은 衍字이다.

⑤ 제6구

◦ 燠陽: “燠”(독음: 옥)은 “따스하다. 덥다”, “陽”은 “날이 개다”는 뜻이다.

13) <過土河>(토하를 건너다)

長叫山旁一水源, 장규산 곁의 수원 하나,
北流迢遞勢傾奔. 북으로 멀리 흐르며 물살이 세차진다.
秋來注雨瀾郊野, 가을철엔 피붓는 빗물 들판을 채우고,
冬後層冰度輻輳. 겨울이면 두꺼운 얼음 위로 수레가 건너간다.
白草悠悠千嶂路, 목초가 끝도 없는 첩첩한 산길,
靑煙裊裊數家村. 푸른 연기 하늘하늘 몇몇 시골 집.
終朝跋涉無休歇, 하루종일 길 가느라 쉬지를 못했는데,
遙指郵亭日已昏. 멀리 역관으로 향하니 날은 벌써 저문다.

① 시제

◦ 原注: “중경 북쪽의 가장 높은 산을 현지인들은 長叫山이라 불렀다. 土河는 이 산의 동쪽을 지나면서 비로소 수레를 적실 정도가 된다. 또 북쪽으로 백여 리를 흐르면, 세차게 쏟아지며 가득히 흘러간다. 겨울이 되면 몇 자 두께의 얼음이 얼어 수레와 말이 건널 수 있지만, 얼음 아래로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졸졸 끊임이 없다”(中京北一山最高, 土人謂之長叫山. 此河過山之東才可漸車. 又北流百餘里, 則奔注瀾漫. 至冬, 冰厚數尺, 可過車馬, 而冰底細流涓涓不絕) 참조. 賈敬顏은 이 “長叫山”은 곧 宋綬의 <契丹風俗>에 기재된 昌叫山이며, 현 大明城(즉 中京 유적지)의 북쪽, 老哈河의 서쪽에 있다고 설명했다.⁴¹⁾ 청초본은 “百餘里”를 “餘里”로만 표기하여 “百”자가 脫漏되어 있다. “長叫山”을 《시화》는 “長叫山”이라 표기했다. “叫”는 “叫”와 같은 글자이다.

② 제2구

41) 宋綬, <契丹風俗>: “自中京過小河·昌叫山”의 <疏證>(賈敬顏, 앞의 책, 111쪽) 참조.

◦ 迢遞: 아득하고 먼 모양(《한어대사전》).

14) <贈同事閔使> (동료 함문사에게 드리다)
 山路盡陂陁, 산길은 온통 비탈지고,
 行人陟險多. 사절단은 험한 길을 자주 오른다.
 風頭沙磧暗,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모래벌판 어둡더니,
 日上雪霜和. 해가 떠오르자 눈서리가 녹는다.
 草淺鷹飛地, 풀은 얇아 새매는 땅위를 날고,
 水流馬飲河. 얼음 아래로 물이 흘러 말은 강가에서 물을 마신다.
 平生畫圖見, 평생 그림으로만 보아온 광경,
 不料再經過. 거듭 지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다.

① 제1~2구

- 陂陁: 비탈지고 고르지 않은 모양(《한어대사전》).
- 陟: 《시화》는 “涉”이라 표기했다. “涉”은 “물을 건너다”의 뜻으로 서, 詩意와 어울리지 않는다. 《시화》의 誤記이다.

② 제3구

- 風頭: “바람의 형세” 또는 “풍향”을 뜻하는 말. 여기서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가리킨다.

② 제5~6구

- 鷹飛: 문연각본은 “飛鷹”이라 표기했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제5구는 풀이 얇아 새매가 먹이사냥을 한다는 의미이다.
- 馬飲: 문연각본과 청초본은 “飲馬”라 표기했다. 제5~6구에 대한 문연각본의 표기는 그런대로 의미가 통하지만, 청초본의 표기인 “鷹飛”와 “飲馬”는 對仗에 어긋나므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15) <沙陁路>(모래언덕길)

上得陂陁路轉艱, 언덕길을 다 오르니 길은 험해지고,
 陷輪推馬苦難前. 바퀴 빠져 말을 미니 나아가기 어렵다.

風寒白日少飛鳥, 바람 차가워 흰 태양 아래 나는 새가 드물며,
地迴黃沙似漲川. 땅은 멀고 누른 모래는 불어난 개울물 같다.
結草枝梢知里堠, 풀잎 맺은 나뭇가지에 이정을 알겠고,
放牛墟落見人煙. 소를 풀어놓은 촌락에는 인가의 연기 보인다.
從來天地絕中外, 예전에는 하늘과 땅이 중원과 변방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今作通達近百年. 이제는 큰 길을 이룬 지 백년이 다 되었다.

① 시제

◦ 原注: “23일에 모래언덕 길로 들어서니, 말 몰기가 아주 힘들었다”
(二十三日入沙陘路, 行馬頗艱) 참조. 청초본은 “沙陘路”를 “沙陘遠路”로
표기했다. 또 청초본은 “頗艱”을 “頗”로 표기하여 “艱”자가 脫漏되어
있다.

② 제2구

◦ 陷輪推馬苦難前: 청초본은 “陷輪車馬苦難前”(바퀴 빠져 수레와 말은
나아가기 어렵다)으로 표기했다.

③ 제5구

◦ 里堠: 길가에 쌓아 이정을 표시하는 흙더미(《한어대사전》: 古時道
旁分程記里所設的土堆). 제5구는 풀잎을 나뭇가지에 맺어 里堠로 대응
한다는 의미이다.

③ 제7~8구

◦ 絕中外: 문연각본은 “分南朔”(남과 북으로 나뉜다)이라 표기했다.
청초본의 표기는 중화서국본과 같다.

◦ 제8구를 《시화》는 “1004년 澶淵의 맹약⁴²⁾ 이후 이 해까지 73년
이므로 ‘近百年’이라 했다”라고 해설했다.

42) 전연의 맹약은 眞宗 景德 원년 12월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서기 1005년 1
월이다.

16) <觀北人圍獵>(거란인의 포위망 사냥을 구경하다)

莽莽寒郊晝起塵, 끝없는 겨울 들판에서 대낮에 먼지 일으키며,
 翩翩戎騎小圍分. 훨훨 오랑캐 기병들은 나뉘어 작은 포위망을 친다.
 引弓上下人鳴鏑, 활을 당기어 아래위로 우는살을 날리고,
 羅草縱橫獸軼羣. 새매 풀어 거침없으니 짐승은 무리에서 흩어진다.
 畫馬今無胡待詔, 말을 그리자니 이제는 胡虜 같은 인물 없고,
 射雕猶懼李將軍. 독수리를 활로 쏘지만 아직도 李장군을 두려워한다.
 山川自是從禽地, 산천은 저절로 새매 쫓는 사냥터가 되었는데,
 一眼平蕪接暮雲. 눈길 가득히 평원은 저녁구름과 닿아있다.

① 시제

◦ 原注: “거란인 일백 기가 새매를 풀어 사냥했는데, 이를 ‘羅草’라고 불렀다. 종일토록 겨우 토끼 몇 마리만 잡았을 뿐이어서, 아주 겸연쩍어 했다. 나를 쳐다보며 ‘길가에서 하는 조그만 포위사냥은 볼만한 것이 없소. 평시에 천 명 이상이 큰 포위망을 치면 포획물이 아주 많으니, 그 즐거움은 끝이 없소’라고 말했다”(北人以百騎飛放, 謂之‘羅草’. 終日才獲兔數枚, 頗有愧色. 顧謂予曰: ‘道次小圍不足觀, 常時千人已上為大圍, 則所獲甚多, 其樂無涯也.’) 참조. 청초본은 “枚”를 “牧”이라 誤記했다.

- 原注의 “飛放”: 새매를 풀어 사냥하는 것.
- 圍獵: 포위하여 사냥하다.

② 제4구

◦ 軼: 흩어지다(《한어대사전》: 散失). <주석>은 “軼: 失散”이라 풀이했다.

③ 제5~6구

◦ 原注: “세상에 전해지는 <陰山七騎圖>는 後唐의 호괴가 그린 그림이다. 후인들이 많이 베끼고 변형시켜 그리기도 하지만, 모두 원화를 따라가지 못한다”(世傳<陰山七騎圖>乃唐胡瓌創造. 後人多模搨及別為變態, 然皆不及舊製) 참조.

- 原注의 “搨”: 얇은 종이를 서화 위에 덮고 그대로 모사하다. 문연각

본과 청초본은 “榻”이라 표기했다. 의미는 동일하다.

◦ 胡待詔: 五代 때 화가인 胡瓌를 가리킨다. 호괴의 조상은 室韦의 烏素固部落 사람이었지만, 後唐 때 范陽(현 北京 서남) 良鄉으로 옮겨가 살았다. 호괴는 유목민족의 생활상을 전문적으로 그려내었으며, 특히 말과 낙타를 잘 그렸다. 《宣和畫譜》에만 65건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아들인 胡虔과 함께 화가로 명성을 떨쳤다. 지금 전하는 작품으로는 거란족의 추장이 사냥 도중 천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그린 <卓歇圖>가 있는데, 현재 北京 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待詔”는 원래 정식 관직을 받지 못한 대기발령자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手藝 方面의 거장을 뜻하는 宋元代의 존칭어이다.

◦ 제5구의 大意: 이토록 호쾌한 圍獵의 모습을 제대로 그릴 화가가 없어서 아쉽다는 의미이다.

◦ 李將軍: 漢代의 李廣. 《시화》는 “射雕事見《史記》本傳”이라 밝혔다. <李廣傳>에 따르면 “射雕”는 흉노의 전문적인 독수리 사냥꾼 세 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은 李廣과 함께 출전했던 환관을 쏘아 상처를 입혔지만, 두 명은 이광에게 사살되고 한 명은 사로잡혔다.⁴³⁾

◦ 제6구의 大意: 비록 거란족은 활 솜씨가 뛰어나지만 아직도 漢族인 李廣 장군을 겁낸다고 표현하여 은근히 스스로를 위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광과 같은 뛰어난 장수가 없는 송대의 약한 군사력 앞에서 시인의 자기위안은 지속되기 힘들며, 이는 제7~8구에서의 시인의 근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이 시의 전체적인 詩想의 흐름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頸聯은 出句와 對句가 한 덩어리가 되어 尾聯에서의 마무리를 위해 詩想을 전환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시의 頸聯의 出句와 對句의 묘사 내용에서 아무런 의미상의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며, 따라서 시 전편의 詩想의 흐름은 그다지 매끄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제7~8구

43) 《史記李將軍傳》(권109): “匈奴大入上郡. 天子使中貴人從廣. 勒習兵擊匈奴. 中貴人將騎數十縱. 見匈奴三人. 與戰. 三人還射. 傷中貴人. 殺其騎且盡. 中貴人走廣. 廣曰: ‘是必射雕者也.’ 廣乃遂從百騎往馳三人. 三人亡馬步行. 行數十里. 廣令其騎張左右翼. 而廣身自射彼三人者. 殺其二人. 生得一人. 果匈奴射雕者也” 참조.

◦ 從: 좇다. 따르다. “從禽”은 새매가 토끼와 같은 작은 짐승을 덮치면 사람이 그 새매를 좇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주석>은 “通縱, 放縱”이라고 풀이했다. 이 풀이에 따르면 “從禽”은 “새매를 마음껏 풀어 놓다” 또는 “새매가 거침없이 날다”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부분적으로는 통하지만, 제4구의 “羅草”에 이미 “새매를 풀어놓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 서로 중복이 된다. 또 “放縱”을 뜻할 때의 “從”은 독음이 [zòng]이고 去聲이기 때문에 제7구의 平仄이 ‘平平仄仄仄平仄’이 되어 제6자에서 孤平이 발생할 뿐 아니라(이시는 율시이다⁴⁴) 제4구의 “縱橫”의 “縱”과도 중복된다. 즉 <주석>의 풀이는 의미 중복, 詩의 格律上의 불합치, 詩語 중복 등의 여러 측면에서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 제7구와 제8구의 大意: 이 두 구는 사실적인 묘사이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시인의 근심이 담겨 있다. 시인은 거란족의 사냥 모습을 구경하며, 그들의 사냥은 곧 기마전술의 훈련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망무제한 사냥터를 제공하는 대평원은 바로 시인의 근심거리에 다름 아니며, 그 근심은 평원에 맞닿은 차가운 구름과 함께 끝없이 시인의 가슴속으로 내려앉는 것이다.

[參考文獻]

- 蘇頌, 《蘇魏公文集》(文淵閣四庫全書本)
 蘇頌, 《蘇魏公文集》(北京: 中華書局, 1988, 제1판; 2004, 제2차 인쇄)
 蘇頌, 《蘇魏公文集》(清鈔本)(四川大學古籍研究所, 《宋集珍本叢刊》12冊, 成都: 線裝書局, 2004)
 蔣祖怡·張滌云, 《全遼詩話》(長沙: 岳麓書社, 1992)
 賈敬顏, 《五代宋金元人邊疆行記十三種疏證稿》(北京: 中華書局, 2004)
 傅樂煥, 《遼史叢考》(北京: 中華書局, 1984)

44) 이 시의 平仄은 율시의 격률과 합치한다. 韻脚은 塵(眞韻)과 分·羣·軍·雲(文韻)인데, 首句에 압운하면 “以眞糰文”할 수 있다. 王力의 《漢語詩律學》(上海教育出版社, 1958) 61쪽 참조.

- 聶崇岐, 《宋史叢考》(北京: 中華書局, 1980)
- 李錫厚, 《中國歷史·遼史》(北京: 人民出版社, 2006)
- 李 燾, 《續資治通鑒長編》(北京: 中華書局, 1986)
- 鄧廣銘 등 主編, 《中國歷史大辭典·宋史》(上海辭書出版社, 1984)
- 張修桂·賴青壽, 《遼史地理志匯釋》(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1)
- 李之亮, 《宋河北河東大郡守臣易替考》(成都: 巴蜀書社, 2001)
- 李之亮, 《宋兩浙路郡守年表》(成都: 巴蜀書社, 2001)
- 서올대 동양사학연구실 편, 《講座中國史Ⅲ》(서울: 지식산업사, 1994)
- 王 力, 《漢語詩律學》(上海教育出版社, 1958)
- 張 相, 《詩詞曲語辭滙釋》(北京: 中華書局, 1953년 제1판; 1991년 제17차 인쇄)
- 귀칭화(國慶華) 저, 윤재신 옮김, 《중국목조건축의 구조》(경기 과주: 동녘, 2006)
- 陳慶元, 《福建文學發展史》(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996)
- 石光英, 《從‘奉使遼金行程錄’透析遼代社會生活》(吉林大學碩論, 2006)
- 蔣 英, 《論兩宋使北詩》(新疆師範大學碩論, 2006)
- 陳予彬·齊敬之, <蘇頌使遼詩註釋>, 《承德民族師專學報》, 1993년 2기.
- 陶玉坤, <宋遼對峙中的使節往還>,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9.
- 曹樹森, <蘇頌與宋遼關係>(《吉林師範學院學報》 1995년 제7기).
- 孫冬虎, <北宋詩人眼中的遼境地理與社會生活>, 《北方論叢》, 2005년 제3기.
- 趙永春, <略論蘇頌使遼>, 《松遼學刊》社會科學版, 1991년 3기.
- 李慧娟, <蘇頌與北宋的對外關係>(《長春師範學院學報》 20:1, 2001).
- 張國慶, <從遼詩及北宋使遼詩看遼代社會>(《煙臺大學學報》, 1994년 제3기).
- 胡廷榮, <遼中京廣平甸捺鉢間館驛考略>(《中國邊疆史地研究》 14:1, 2004.3)
- 朱 衛, <靺與白靺源流考>, 《西北第二民族學院學報》, 2005년 2기.

- 羅國威〈溫子昇年譜(續)〉,《遼寧大學學報》,1998년 제4기.
- 王同策,〈蘇頌的文學成就〉,《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8년 제4기.
- 顏立水,〈和平友好的頌歌 — 讀蘇頌使遼詩〉(《蘇頌與本草圖經研究》,長春出版社,1991)
- 管成學,〈蘇頌詩歌的史料價值〉(《蘇頌與‘新儀象法要’研究》,吉林文史出版社,1991)
- 諸葛憶兵,〈論蘇軾的奉使詩〉(《江海學刊》,2005년 3기,江蘇省社會科學院)
- 拙稿,〈王安石使行詩考 — 宋나라 境內에서 제작된 시〉,《中國文學》43집,2005.5
- 拙稿,〈蘇頌使遼詩‘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校釋〉,《中國學》31집,2008.
- 拙稿,〈蘇頌‘前使遼詩’注釋(Ⅰ)〉,《中國學》33집,2009.8
- 拙稿,〈蘇頌‘前使遼詩’注釋(Ⅱ)〉,《中國學》34집,2009.12
- 拙稿,〈사료시에 나타난 송대 지식인의 민족의식〉(《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의식》,12-73쪽,서울:동북아역사재단,2009)

<中文提要>

本文之重要注釋內容如下:

〈某奉使過北都,奉陪司徒侍中潞國公雅集堂宴會.開懷縱談,形于善謔.因道魏收有“逋峭難為”之語,人多不知“逋峭”何謂.宋元憲公云:“事見《木經》,蓋梁上小柱名,取有折勢之義耳.”文人多用近語,而未及此,輒借斯語杼為短章,以紀一席之事.繕寫獻呈〉:詩題之“折勢”意味着折屋勢使屋頂下凹.第三句“自知伯起難逋峭”之“逋峭”意味着人之有風致.“逋峭”這個詞原本是指書法上平緩和險峻之勢,融合而成的一個獨特風格.

〈行次奚山〉:該詩的詩題,《蘇魏公文集》的所有板本都寫着<次行

奚山>，而“次行”這個詞的意思是“次序”或者“第二行”，但該詩題並不意味着蘇頌先行過某個地方，再行過奚山。清鈔本《蘇魏公文集》卷十三的卷首和《全遼詩話》，則把該詩的詩題寫成<行次奚山>，而“行次”意味着行路中達到某個地方。考慮到蘇頌創作該詩時情況，該詩的詩題應為<行次奚山>才對。

<觀北人圍獵>：蘇頌觀看契丹族圍獵的壯觀，似乎覺得這種圍獵活動就等於軍事訓練，因而產生了一種愁緒，而這個愁緒表現在該詩七·八句的風景描寫裏。

<契丹馬>：對於詩題原注的“鼻”這個詞，《易·說卦》之孔疏解釋為“馬後足白爲鼻”，但這種解釋在該詩裏並不通。這個“鼻”應從《玉篇》和《埤雅》，解釋為“羈絆”才對。

<廣平宴會>：該詩的第六句表現着遼國臣僚對皇帝或者皇太后進獻生辰禮物的情況，該生辰典禮應為《遼史·嘉儀》之“皇太后生辰朝賀儀”或者“皇帝生辰朝賀儀”。

關鍵語：蘇頌，使遼，使遼詩，後使遼詩，逋峭，鼻，圍獵。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에 관한 試論*

이은상**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儒商들의 우아함 추구
- III. 명말 강남 문인들의 ‘長物’ 담론
 - 1. 명말 강남 문인들의 ‘장물’ 담론
 - 2. ‘장물’ 담론을 통한 구별 짓기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高濂의 《遵生八箋》, 項元汴(1525~1590)의 《蕉窗九錄》, 文震亨(1585~1645)의 《長物志》, 屠隆(1541~1605)의 《考槃餘事》, 張應文(1530~1594 활동)의 《清秘藏》 등 1590년에서 1630년까지의 시기에 강남 문인들이 물질세계를 분류하고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담론을 다루고자 한다. 명말의 물질문화 담론은 당시 물질에 대한 소유욕구, 수집에 대한 열광과 감상, 호사스런 원림의 조성, 수석 및 골동품의 수집, 藏書樓의 축조와 장서의 수집, 개인 家班의 운영¹⁾ 등의 시대적 문화조류를 반영한다. 이러한 문화현상들은 명말청초 문예부흥을 일으키는 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정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02).

** 祥明大學校 韓中文化情報研究所 연구교수 xuewen@hanmail.net

1) Chun-shu Chang and Shelley Hsueh-lun Chang, *Crisis and Transformation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ociety, Culture, and Modernity in Li Yü's Worl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152쪽.

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두드러진 양상이었다.²⁾ 이 가운데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의 우위는 대량출판과 함께 근대의 징후를 담고 있는 문예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현상이었다.

이 글은 이미지와 물질이 다른 집단들과 차별화되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지와 물질이 특정 시대와 지역의 사회·문화 집단의 정체성 자본³⁾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 사회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차별화되는 심미 가치와 의미를 이미지와 물질에 부여한다. 이미지와 물질에는 그것을 소유하고 감상, 유통시키는 개인과 집단의 감성이 표현되어 있다. 이미지와 물질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명말 문화의 트렌드는 물질문화와 시각문화라고 할 수 있다.⁴⁾ 李日華

2) 명말청초를 문예부흥의 발생 시기로 보는 것은 이 시기에 인본주의, 상업경제, 대량생산, 문화의 상품화와 대중화, 출판을 통한 이미지의 재생산,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우위를 차지하는 등 근대의 징후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Peter Burke, *The Italian Renaissance: Culture and Society i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52~256쪽 참조.

3) Ian Woodward, *Understanding Materi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7), 136~137쪽.

4) 물질문화는 물질적 생산물을 통해 문화를 표현한다. 물질문화 연구는 문화를 이해하고 어떤 한 시기 특정 지역사회의 가치관, 사상, 관습 등을 발견하기 위해 물질을 연구한다. 이 연구방법의 토대가 되는 전제는 인간이 만든 사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을 주문, 제조,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들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문화는 사물에 바탕을 둔 문화인류학 또는 문화역사의 한 분야로 시작되었다. 문화연구의 또 하나의 연구방법인 시각문화는 대체로 물질문화와 함께 다뤄진다. 물질세계의 시각성과 시각이미지의 물질적 속성은 함께 고려된다. 시각문화와 물질문화 연구는 학제 간의 통섭적인 연구방법이다. 기존의 이미지와 물질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하나의 잣대에 의존하여 연구대상을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시각문화와 물질문화 연구는 이미지와 물질이 다른 집단들과 차별화되는 ‘다름의 정체성’을 건설하고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지와 물질이 특정 시대와 지역의 사회·문화집단의 정체성 자본이란 것이다. 한 사회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심미 가치와 의미를 이미지와 물질에 부여한다. 이미지와 물질에는 그것을 소유하고 감상, 유통시키는 개인과 집단의 감성이 표현되어 있다. 이미지와 물질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질문화와 시각문화 그리고 그 연구 현황에 관해서는 Woodward, *Understanding Material Culture*와 Gillian Rose,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1565~1635)의 《味水軒日記》와 何良俊(1506~1573)의 《四友齋叢說》과 같은 당시 강남 문인들이 쓴 일기와 筆記 그리고 심지어 《金瓶梅》와 같은 통속소설에는 ‘淸玩,’ ‘觀玩,’ ‘玩古,’ ‘來玩,’ ‘玩花,’ ‘玩書法’과 같은 물질과 이미지의 觀賞에 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사물을 바라보며 감상하는 쾌락 그리고 사물, 특히 골동품에 대한 광적인 집착 ‘癖’은 이 시기의 지배적인 문화현상이었다.⁵⁾ 사물에 대한 집착과 관상은 예술품과 골동품의 수집과 감상으로 이어졌다.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고 감상해야 하는가? 즉 예술적 안목을 키우기 위한 안내서가 출판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물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 玩古는 당시 문인 지식층에게는 진지한 지적 유희였다. 골동품을 만지작거리며 감상하는 즐거움은 자신들을 다른 집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상한 예술행위로 여겨졌다. 서예, 그림, 청동기 그리고 古玉은 전통적으로 골동품의 주요 범주였다. 명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가까운 과거에 제작된 자기와 칠기 등이 첨가되었다. 먹 또한 실용품에서 사치품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먹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상의 대상으로 변모했다.⁶⁾ 玩賞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好古와 玩古 그리고 考古는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예술적 소양의 척도가 되었다. 이전까지 극소수의 남성 지식층 문인 사회에서 독점했던 그림과 글씨가 출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어 폭넓게 유통되었다.

이 글에서는 16세기로 들면서 사회의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한 상인들의 기존 문인사회에 진입하려는 문화적 노력들 그리고 이러한 시대조

to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aterials (Sage Publications Ltd, 2007) 을 참조.

5) Craig Clunas, *Empire of Great Brightness: Visual And Material Cultures of Ming China, 1368~1644*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154쪽.

6) 당시 문화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일상생활품의 예술화이다. 16세기 후반에는 예술이 공예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술의 상품화와 공예의 예술화 현상을 이 시기에 목격하게 된다. 문인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했던 휘주의 墨匠인 程大約(1541~1616)이 쓴 《程氏墨苑》과 같은 먹의 표면을 장식하는 도안집인 墨譜의 제작은 생필품이었던 먹을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 당시 문인들에게 먹은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 Clunas, *Empire of Great Brightness*, 149쪽.

류로 인해 그들이 독점해 왔던 문화전통이 타락할 것을 염려한 기존 문인사회의 다른 집단들과 자신들을 경계 지으려는 일련의 차별화 노력들이 1590년대부터 시작된 물질문화 담론의 붐을 일으킨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儒商들의 우아함 추구

余英時는 명청 시대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발생한 사회·문화적 변혁을 중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의 하나로 보았다. 이러한 변혁은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기존의 문인들뿐만 아니라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상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인 지식층의 문인사회 진입이 1500년 경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⁷⁾ 관료들의 약탈적 횡포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상인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상인들은 관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관료들이 접하고 있는 고상한 문화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상인들은 또한 그들이 축적한 부를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하는데 투자했다. 경제적 지위를 사회적 지위로 확대할 수 있는 관문은 과거시험이었다. 상인들은 그들의 자제들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됨으로써 신분 상승과 함께 특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유교경전을 공부한 상인 출신의 지식인들은 기존의 문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문인 지식층을 형성했으며 당시 문학과 예술 그리고 출판계의 작가와 출판자 그리고 독자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⁸⁾

7) Robert E. Hegel, *Reading Illustrated Fiction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15~16쪽.

8) 그 대표적인 예로 汪道昆(1525~1593)을 들 수 있다.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성공한 관리였던 왕도곤은 徽州의 歙縣 사람으로 23살의 젊은 나이에 진사에 급제했다. 부친과 조부가 모두 염상이었던 왕도곤은 고관이 된 뒤에 상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Chu-tsing Li, ed., *Artists and Patrons: Som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hinese Painting* (Kansas City: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89), 166쪽.

문인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상인들은 문인과 같은 교양인이 되어야 했다. 한 가지 전략은 교양 있는 문인 지식층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 문화적 자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감상하는 일은 상류층 엘리트들이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문화적 소양이었다. 골동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문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골동품을 소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감식안을 갖는 것은 소유자의 인격과 심미취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⁹⁾ 16세기 후반에 발생한 책의 출판과 유통의 급증은 문인과 같은 교양인이 되고자 했던 상인들이 새로운 독자층으로 대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준다. 르네상스를 주도한 지식층인 인문주의자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의 저자인 부르크하르트 Jacob Burckhardt(1818~1897)는 ‘全人 (l'uomo universale)’이라고 명명했다.¹⁰⁾ 상인들이 문인들과 엘리트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교양인이 되는 정보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책이었다. 교양인이 되기 위한 안내서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출판의 성행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 Baldassare Castiglione(1478~1529)가 쓴 Il Cortigiano(궁정인)이란 책은 르네상스 시대 이상적인 인간형인 ‘코르테자노 Cortigiano(궁정인)’이 되기 위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침서였다.¹¹⁾ 중국의 경우 세련된 문화상품 소비자를 위한 안내서라 할 수 있는 《格古要論》이나 《考槃餘事》와 같은 책들이 주는 지식은 그 자체로 경제력을 문화적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었다.¹²⁾ 문인 엘리트 사회로의 진입을 갈망했던 상인들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추으로써 문인을 특징짓는 학문과 감식안의 세계

9) 명대 후반에는 復古가 당시 학문과 문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잣대였다. 고대의 권위와 이에 대한 존중은 물질과 시각문화로 확대되어 골동품의 수집과 감상 그리고 이에 관한 이론서의 출판으로 이어졌다. 고대 청동기와 같은 골동품의 수집과 감상을 통한 고대에 대한 향수는 현실을 비판하는 고상한 수단이다.

10) Burke, *The Italian Renaissance*, 30~32쪽.

11) Burke, *The Italian Renaissance*, 201~202쪽.

12) 티모시 브룩, 《쾌락의 혼돈》(서울: 이산, 2005), 110쪽.

로의 입문이 가능하게 된다.¹³⁾ 16세기 후반에 와서 출판이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것은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소수 문인들이 전유했던 엘리트 문화에 관한 지침서의 대량 유통이 절실했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상인계층의 경계 허물기다.

Ⅲ. 명말 강남 문인들의 ‘長物’ 담론

1. 명말 강남 문인들의 ‘장물’ 담론

高濂의 《遵生八箋》(1591)이나 文震亨(1585~1645)의 《長物志》(1621)와 같은 강남 문인들의 ‘長物’에 관한 담론은 명말인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형성되었다.¹⁴⁾ 인간은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한다. 역으로 우리는 물질에서 기호화된 생각을 해독해낼 수 있다.¹⁵⁾ 물질문화에 대한 담론을 다룬 최초의 책은 13세기 전반 송나라 때 趙希鵠(1170~1242)이 쓴 《洞天清錄》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 책은 古琴, 古硯, 古鐘鼎彝器, 怪石, 硯屏, 筆格, 水滴, 古翰墨真蹟, 古今石刻, 古今紙花印色, 古畫 등 골동품의 감정에 관한 담론으로 이루어진, 골동품 감상의 안내서이다.¹⁷⁾ 松江 사람 曹昭가 쓴 《格古要論》 3권은 명나라 초인 1388년 南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古銀器, 古畫, 古墨蹟, 古碑法帖, 古琴, 古硯, 珍奇, 金鐵, 古窯器, 古漆器, 錦綺, 異木, 異石 등 13개 주제의 골동품의 진위와 우열에 관해 담론한다.¹⁸⁾ 조소는 〈格古要論序〉에서 이 책을 쓴 이유

13) 브룩, 《쾌락의 혼돈》, 186쪽.

14) 이러한 맥락에서 沈德符(1578~1642)는 《萬曆野獲編》 권26 〈玩具·好事家〉에서 “세상이 평안했던 嘉靖(1522~1566) 말에 부유한 사대부들은 원림과 정자를 짓고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틈틈이 골동품 玩賞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嘉靖末年, 海內宴安. 士大夫富厚者, 以治園亭, 教歌舞之隙, 間及古玩).”라고 했다. 沈德符, 《萬曆野獲編》(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8), 26: 700쪽.

15) Craig Clunas,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Cambridge: Polity Press, 1991), 1~2쪽.

16) Clunas, *Superfluous Things*, 9쪽.

17) 紀昀, 《四庫全書總目》(北京: 中華書局, 1995), 123: 1057쪽.

18) 紀昀, 《四庫全書總目》, 123: 1058쪽.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체로 하나의 사물을 살펴볼 때에는 반드시 圖譜를 두루 읽어 그 사물의 내력을 궁구하고, 우열을 가리며 진위를 판별했다. 늙어서도 이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면밀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을 따름이다. 근래 들어 부잣집 자제들을 보니 그중에 청아한 일을 배우고 익히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비록 이러한 일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안목이 없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옛 청동기와 서화 그리고 기이한 사물을 취하여 그 고하를 분별하고 진위를 판별하여 그 핵심을 들어 책으로 만들었다. 凡見一物, 必遍閱圖譜, 究其來歷, 格其優劣, 別其是否而後已. 迨老至猶弗怠, 特患其不精耳. 常見近世紈袴子弟, 習清事者必有之. 惜其心雖好而目未之識. 因取古銅器書畫異物, 分高下辨真贗, 舉其要略, 書而成編.¹⁹⁾

《동천청록》과 《격고요론》 같이 책으로 출판되어 시장에 유통되어 구매할 수 있는 물질문화 담론은 경제력을 문화적 힘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독자층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1388년에 《격고요론》이 세상에 나오고 1459년에 증보되어 再刊되었지만 물질문화 담론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590년에서 1630년까지의 시기였다.²⁰⁾ 이 시기 물질문화 담론의 서막을 연 것은 錢塘 사람인 高濂이 쓴 《遵生八箋》 19권이다. 李時英이 쓴 《준생팔전》 서문에 의하면 고렘은 이 책을 1590년에 완성했고 1591년에 간행했다.²¹⁾ 고렘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당대 최고 명사 가운데 한 사람인 왕도곤이 고렘 부친의 碑誌를 쓴 것으로 미루어볼 때 왕도곤과 같은 당시 일류 문인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렘의 부친은 정부에 곡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관련 관료들로부터 청렴함과 신뢰감으로 존경을 받았다. 고렘이 태어난 뒤 무렵부터 고렘의 부친은 문인들의 고아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藏書樓를 짓고 청동기

19) 曹昭, 《新增格古要論》, 續修四庫全書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1185: 138쪽.

20) Clunas, *Superfluous Things*, 13쪽. 趙希鵠의 《洞天清錄》은 1550년경, 1596년, 1600년경에 再刊되었다.

21) 高濂, 《遵生八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13~14쪽.

를 수집했다. 고렘이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고 저명한 문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친이 이루어 놓은 이러한 환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낙방함으로써 경제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²²⁾ 《준생팔전》은 8개 부문으로 나뉜다. 권1과 권2〈清修妙論牋〉은 모두 養身에 관한 격언이며, 권3~권6〈四時調攝牋〉은 계절에 따라 수양하는 방법을 서술했다. 권7과 권8은〈起居安樂牋〉으로 모두 양생에 도움이 되는 기물을 다루고 있다. 권9와 권10은〈延年卻病牋〉으로 호흡과 도인술을, 권10~권13은〈飲饌服食牋〉으로 음식을, 권14~권16은〈燕閒清賞牋〉으로 鑑賞과 清玩에 관해 논하고 있다. 권17과 권18은〈靈秘丹藥牋〉으로 처방에 관해, 권19〈塵外遐舉牋〉은 역대 隱士 100명의 사적을 다루고 있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한적한 생활에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다.²³⁾ 당시 저명한 문인이던 屠隆(1541-1605)과 도사였던 李時英이 서문을 썼다.

이 시기 또 하나의 물질문화 담론인 《蕉窗九錄》은 고렘과 마찬가지로 富商으로 문인들의 고아한 취향과 소양을 갖추고 당시 문인들과 교류한 項元沚(1525~1590)이 쓴 것이다. 항원변은 전당업으로 축적한 부를 예술에 투자한 儒商으로, 16세기 중반 이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서화 수장가였다. 절강성 嘉興 사람으로, 15세기 후반에 兵部尙書를 지낸 項忠(1421~1502)의 후손이다. 조부 項綱은 長葛縣의 현령을 지냈고, 부친 項銓은 장사에 뛰어들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항원변의 형인 項篤壽(1521~1586)는 1562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관리를 지냈다. 1576년에 항원변을 방문했던 당시 저명한 감식가였던 詹景鳳은 후에 항원변을 저속하다고 평했다. 전당업으로 부를 축적한 항원변이 문인들의 고상한 취향과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 文徵明(1470~1559)의 아들인 文彭(1498~1573)과 文嘉(1501~1583) 등과 같은 당시 蘇州의 저명한 문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두 형제는 항원변에게 골동품의 수집과 진위의 판별 그리고 가격을 책정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었다.²⁴⁾ 《초창구록》은 紙, 墨, 筆, 硯, 帖, 書, 琴, 香 등 9가지 물질에 관

22) Clunas, *Superfluous Things*, 14~15쪽.

23) 紀昀, 《四庫全書總目》, 123: 1058쪽.

24) Li, *Artists and Patrons*, 155~157쪽.

해 다루었다. 문팽이 서문을 썼다. 문팽에 의하면 이 책은 吳文定의 《鑒古彙編》을 많이 참조했다고 한다.²⁵⁾

당시 또 하나의 물질문화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장물지》 12권을 쓴 문진형은 위에서 언급한 고렘이나 향원변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문진형은 소주의 대단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翰林院待詔를 지냈고 스승인 沈周(1427~1509)의 뒤를 이어 소주 문인사회의 영수였으며 시서화로 이름을 떨쳤던 문징명이며, 조부는 國子監博士를 지낸 문팽, 숙조부 문가 그리고 부친 文元發(1529~1602) 또한 시서화로 이름을 날렸던 문인들이다. 형인 文震孟(1574~1636)은 1622년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예부상서와 東閣大學士에 이르렀다. 그의 가문은 소주를 기반으로 한 강남 문인사회 네트워크와 취향 형성의 중심축이었다.²⁶⁾

문진형이 쓴 《장물지》 12권(1615~1620에 완성, 1621년에 간행)은 원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室廬, 花木, 水石, 禽魚, 蔬果 그리고 원림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書畫, 几榻, 器具, 衣飾, 舟車, 位置, 香茗 등 12가지 주제의 물질에 대해 설명한다. 원림 조성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둔 計成(1582년 생)의 《園治》에 비해 원림의 玩賞을 주로 다루었다.²⁷⁾ 《장물지》는 명말 문인들의 淸雅한 생활의 총결이다. ‘長物’은 《世說新語·德行》에 나오는 말로 생필품이 아닌 감상을 위한 ‘여분의 물건’을 뜻한다.²⁸⁾ 沈春澤이 《장물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추위도 입을 수 없고 배고파도 먹을 수 없는(寒不可衣, 飢不可食),’²⁹⁾ 생필품이 아닌 문인들의 고아한 완상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다룬 《장물지》는 명말 사대부들의 청아한 생활에 관한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다.

25) 紀昀, 《四庫全書總目》, 130: 1114쪽.

26) 周蘇寧, 《園趣》(上海: 學林出版社, 2005), 75쪽.

27) 문진형이 원림 조성과 실내 인테리어에 조예가 깊었던 것은 그의 집안 내력에서 비롯된다. 선조들이 모두 원림을 조성하기를 좋아했다. 증조부 문징명은 停雲館을 증축했고, 부친 문원발은 衡山草堂, 蘭雪齋, 雲敬閣, 桐花院을 지었고, 형인 문진명은 生雲墅와 世綸堂을 지었다. 그가 조성한 원림인 藥圃(청대에 藝圃로 개명)는 당시 문인들의 雅會 장소로 유명했다. 문진형은 이 원림의 설계에 참여했다. 王永厚, 〈文震亨及其長物志評價〉, 《中國園林》8(1992), 47쪽.

28) 원문: 其曰長物, 蓋取世說中王恭語也. 紀昀, 《四庫全書總目》, 123: 1059쪽.

29) 海軍, 田君 注釋, 《長物志圖說》(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4), 〈序〉, 1쪽.

《사고전서총목》의 편집자들에 의하면 이 책은 대체로 조희곡의 《동천청록》을 연원으로 삼고, 屠隆(1541~1605)의 《考槃餘事》를 많이 참조했다.³⁰⁾

鄞縣(지금의 寧波) 사람으로 명말 고관을 지낸 희곡가이며 문학가였던 도룡이 1606년에 간행한 《고반여사》 4권³¹⁾은 명대 盆景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물질문화 담론이다. 도룡은 그림 감상에 뛰어나, 그가 지은 《畫箋》은 송대와 원대 화가에 관해 독특한 견해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고반여사》에서 송대 화가들의 화법으로 분경 작품의 예술 풍격을 설명했다. 도룡은 儒商의 자제로서 1577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관료가 됨으로써 문인사회로의 진출에 성공한 사람이다. 《고반여사》는 서예와 도서, 탁본, 그림, 문방사구, 琴, 향, 차, 분재, 물고기와 새, 山齋, 일용품, 서재용품 등의 물질을 주제를 다루었다. 도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90년대 항주에서 고령의 고객으로 《준생팔전》의 서문을 썼다.³²⁾

또 하나의 물질문화 담론은 張應文(1530~1594 활동)이 쓴 《清秘藏》(1595년에 自序를 씀) 2권이다. 이 책은 장응문의 사후 그의 아들인 張丑(1577~대략 1643)이 편집했다.³³⁾ 《사고전서총목》에 의하면 장응문은 崑山의 監生으로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뒤 골동품과 서화로 위안을 삼았다. 제목을 ‘清秘藏’으로 한 것은 이 책의 서문을 쓴 당대 저명한 소주 문인이던 王穉登(1535~1612)에 의하면 원나라 때 문인화가인 倪瓚(1301~1374)의 서재인 清秘閣에서 의미를 취했다고 한다. 이 책의 체재는 대체로 《동천청록》과 같다.³⁴⁾

장응문은 《장물지》를 쓴 문진형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장응문의 집안은 문진형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소주에 거주하며, 문진형의 조부 때 결혼관계를 통해 문진형의 집안과 친분을 맺었으며, 문

30) 紀昀, 《四庫全書總目》, 123: 1059쪽.

31) 《고반여사》의 판본은 《續修四庫全書》본을 참조했다. 《속수사고전서》는 曹昭《新增格古要論》, 項元汴《蕉窓九錄》, 屠隆《陳眉公考槃餘事》를 함께 수록했다. 이 모두 물질문화에 관해 담론한 책들이다.

32) Clunas, *Superfluous Things*, 28~29쪽.

33) Clunas, *Superfluous Things*, 18~28쪽.

34) 紀昀, 《四庫全書總目》, 123: 1058.

진형의 집안과 절친한 관계에 있던 왕치등과도 관계를 맺어, 왕치등의 딸이 장응문의 아들인 장축과 결혼했다. 그러므로 장응문과 문진형 그리고 왕치등은 혼인을 통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³⁵⁾

‘長物’-여분의 물질인 고급 물질문화에 대한 담론의 붐은 1590년대에 와서 일기 시작했다.³⁶⁾ 위에서 언급한 고령의 《준생팔전》(1591), 장응문의 《청비장》(1595), 도룡의 《고반여사》(1606), 문진형의 《장물지》(1621)는 1590년에서 1630년까지의 시기에 물질문화에 대한 취향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저작들이다.³⁷⁾ 《四庫全書總目》은 《준생팔전》, 《장물지》, 《청비장》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같은 부류의 책으로 분류했다.

2. ‘장물’ 담론을 통한 구별 짓기³⁸⁾

35) Clunas, *Superfluous Things*, 33쪽.

36) Craig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London: Reaktion Books, 1997), 33쪽.

37) Clunas, *Superfluous Things*, 34쪽.

38)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에서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계급분화와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다양한 계층 간의 ‘구별 짓기(distinction)’는 각 계층이 갖고 있는 자본의 차이에 토대를 둔다. 즉,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자본을 유통시킴으로써 하위문화집단은 지배문화에 저항하거나 융합되는 문화권력을 형성하려고 한다.

부르디외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이 세계를 분류하고 바라보는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기 위해 ‘아비투스(habitus)’란 개념을 개발했다. 이는 각 계급과 계급분과마다 특이하게 나타나는 성향의 체계를 의미한다. 부르디외는 특정한 계급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집단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나 그 세계를 분류하는 성향을 관습화하는 방법에 주목한다. 그는 ‘세계’를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심미안을 소유하는 것은 상류층의 자긍심을 선전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심미적 세계관은 지배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심미안을 갖는다는 것은 지위나 권력의 획득에 작용하는 중요한 문화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Woodward, *Understanding Material Culture*, 121-122쪽.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명말의 전통문인들 및 문인사회로의 진입을 열망하는 상인들이 물질문화 담론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르디외의 ‘구별 짓기’ 용어를 전용한다.

명말청초의 문인 張岱(1597~1679)는 《陶庵夢憶》에서 ‘사람이 癖이 없으면 더불어 사귄 수 없다. 그에게 깊은 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疵가 없으면 더불어 사귄 수가 없다. 그에게는 진정한 기가 없기 때문이다(人無癖不可與交, 以其無深情也. 人無疵不可與交, 以其無眞氣也).’³⁹⁾ 라고 했다. 명대 중기부터 강남 문인들 사이에 물질에 대한 ‘癖’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명나라 중기에는 천하가 태평하여 사대부들이 儒雅함을 가지고 서로 높이 받들어, 서화를 품평하고, 차를 달이고, 향을 피우고, 금을 타거나 좋은 돌을 가려내는 등의 일에 하나도 精緻하지 않은 게 없다. 당시 시인묵객들 또한 모두 감별에 뛰어나고 품제를 잘하여 玉敦과 珠盤이 문인들의 雅會를 빛낸다. 아름다운 이 책을 펼쳐보면 탁월하게 전할 만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대체로 귀인의 풍류와 고아한 사람의 아취를 모두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有明中葉, 天下承平, 士大夫以儒雅相尙, 若評書品畫論茗焚香彈琴選石等事, 無一不精. 而當時騷人墨客, 亦皆工鑒別善品題, 玉敦珠盤, 輝映壇坫, 若啓美此書, 亦庶幾卓卓可傳者, 蓋貴介風流, 雅人深致, 均於此見之.⁴⁰⁾

위의 글은 伍紹棠이 쓴 〈長物志跋〉에 나오는 내용이다. ‘서화를 품평하고, 차를 달이고, 향을 피우고, 금을 타거나 좋은 돌을 가려내는 등의 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여분의 일’들이다. 문인들의 高雅한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당시 문인들은 서화, 차, 향, 금, 돌 등의 물질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癖’이 되었다. 물질에 대한 ‘癖’은 ‘長物’을 완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의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이다.

甌中(지금의 장소성 甌縣 일대)에서 국화가 만발할 때가 되면 好事家들은 으레 수 백 송이의 국화를 구해서 다섯 가지 색깔을 두루 갖추고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배열하여 완상하는데, 이것으로 부귀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만약에 진정으로 꽃을 완상할 수 있는

39) 張岱, 《陶庵夢憶·西湖夢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72쪽.

40) 海軍, 《長物志圖說》, 497쪽.

자라면 반드시 색다른 종류를 찾아서 옛 동이에다 한 두 가지 심어놓는데, 이렇게 해야 줄기가 곧고 빼어나며, 잎이 조밀하고 두텁게 된다. 꽃이 필 때는 안석과 걸상 사이에 두고 坐臥하며 완상해야지 꽃의 성정을 이해한다고 할 것이다. 吳中菊盛時, 好事家必取數百本, 五色相間, 高下次列, 以供賞玩, 此以誇富貴容則可. 若眞能賞花者, 必覓異種, 用古盆盞植一枝兩枝, 莖挺而秀, 葉密而肥, 至花發時, 置几榻間, 坐臥把玩, 乃爲得花之性情.⁴¹⁾

위의 글에서 문진형은 ‘好事家’와 ‘眞能賞花者’를 구별했다. 진정으로 꽃을 品賞할 능력이 없는 호사가는 꽃을 감상하는 데 있어 꽃의 많음에만 신경을 쓴다. 고렘은 《준생팔진·畫家鑒賞眞僞雜說》에서 호사가와 감상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고렘이 말한다. “米芾이 말하기를 ‘호사가와 감상가는 등급이 다르다. 집안에 쌓아둔 재물이 많고, 이름을 탐하며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좋은 물건을 보면 거두어 갖다놓고 남들이 좋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 좋아한다. 이를 일러 호사라고 한다. 감상가는 타고난 자질이 고명하고 서적을 많이 펼쳐본다. 어떤 이는 그림을 잘 그리며, 또 어떤 이는 그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여, 그림 한 폭을 얻으면 종일토록 보물 다루듯이 어루만지며 옛 사람을 대하듯 한다. 가무와 여색의 반쯤도 이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다. 이를 일러 眞賞이라고 한다. 高子曰: 米雲章云, 好事家與鑑賞家自是兩等. 家多資蓄, 貪名好勝, 遇物收置, 不過聽聲, 此謂好事. 若賞鑑家, 天資高明, 多閱傳錄, 或自能畫, 或深知畫意, 每得一圖, 終日寶玩, 如對古人, 聲色之奉, 不能奪也. 名曰眞賞.⁴²⁾

맑은 창에 깨끗한 안석에다 향을 피워놓고는 반가운 손님들이 우아한 자세를 서로 돋보이는 가운데 옛 사람의 빼어난 서첩과 서화를 펼쳐 鳥篆과 蝸書 그리고 奇峰과 遠水를 감상하고, 鐘鼎을 어루만지며 商周시대를 親見한다. 端硯(지금의 광동성 端溪에서 생산되는 벼루)에서는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듯하고 焦桐(琴을 이름. 동한 때 蔡邕이 불에 그은 오동나무로 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에는 꽤욱과 같은 소리가 울린다. 내가 속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니 이

41) 海軍, 《長物志圖說》, 2: 73쪽

42) 高濂, 《遵生八箋》, 467쪽.

큰바 淸福을 받아씀이 이보다 나은 게 있겠는가? 明窗淨几, 焚香其中, 佳客玉立相映, 取古人妙迹圖畫, 以觀鳥篆蝸書, 奇峰遠水, 摩挲鐘鼎, 親見商周. 端硯湧岩泉, 焦桐鳴佩玉, 不知身居塵世, 所謂受用淸福, 孰有逾此者呼.⁴³⁾

고림의 《遵生八箋·燕閑淸賞箋上·叙古鑑賞》에 나오는 글이다. 향, 법서와 서화, 종정, 벼루, 금 등은 위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속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게’ 하는, 문인들이 고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長物’이다. ‘여분의 물건’들에 대한 진정한 완상은 다른 집단의 세속적인 삶과 차별화할 수 있는, 문인들의 고유한 문화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인들은 ‘여분의 물건’들과의 교감 속에서 범인들의 현실 생활과는 구별되는, ‘脫俗’의 文雅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명대에 문아함을 자부하는 문인들은 ‘여분의 물질’에 대한 그들의 감각능력을 특히 강조한다. ‘여분의 물질’을 음미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관건으로, 고급의 문화적 소양을 갖고 있는 문인과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여분의 물질’을 좋아하는 ‘호사가’를 구별하는 문화적 척도이다.⁴⁴⁾ 그래서 장대는 여분의 물질에 대한 예민한 감각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친분을 맺었다고 한다.⁴⁵⁾ 사물에 대한 ‘癖’과 그 사물을 음미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능력을 지니는 것은 명말 고상한 문화를 향유하는 강남 문인들이 일반 ‘호사가’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문화적 척도였으며, 문인들이 그들의 집단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한 아이콘이었다.⁴⁶⁾

1590년에서 1630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부 강남 문인들 사이에서 물질문화 담론의 붐이 인 것은 그들이 느낀 위기의식의 문화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심덕부는 《만력야회편》에서 골동품의 시장화에 주목한다.

43) 高濂, 《遵生八箋》, 423~424쪽.

44) 王鴻泰, 〈明清士人的生活經營與雅俗的辯證〉, Columbia University East Asian Studies,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蔣經國中心이 공동주최한 “Discourses and Practices of Everyday Life in Imperial China” 國際學術研討會(회의기간: 2002.10.25~10.27) 발표논문, 38쪽.

45) 王鴻泰, 〈明清士人的生活經營與雅俗的辯證〉, 40쪽.

46) 王鴻泰, 〈明清士人的生活經營與雅俗的辯證〉, 42쪽.

먼저 부유한 사대부들이 골동품 수집의 붐을 일으키고, 그 다음은 권력자들이 권세를 빌어 골동품의 수집에 열을 올렸다. 그들에게서 흘러나온 골동품을 회주 출신의 상인들이 다투어 고가에 매입하기 시작했다. 徽商들이 골동품에 대한 지식이 천박함을 이용하여 골동품 시장에서 가짜 골동품이 나돌아 골동품 진위 판별의 필요성과 고상한 문화지식이 없는 상인들에 의해 골동품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문인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⁴⁷⁾ 같은 맥락에서 당시 저명한 문인이던 王世貞(1526~1590)은 《觚不觚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分宜(지금의 강서성에 속하는 현의 이름) 사람 嚴嵩이 집정하고 그의 아들 嚴世蕃이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악행을 저질러, 천하의 금은보화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은 게 없었다. 마지막에는 법서와 명화에까지 손을 뻗었는데, 저속함을 면하고 사치스러움에 치닫고자 함이었다. 分宜當國而子世蕃挾以行黷, 天下之金玉寶貨無所不致, 其最後乃始及法書名畫, 蓋始以免俗且鬪侈耳.⁴⁸⁾

엄승(1480~1565)은 명대에 간신으로 악명 높았던 권신이다. 재상이 되어 20년 동안 국정을 전횡했다. 말년에는 아들 엄세번(1513~1565)을 앞세워 국사를 조종했다. 당시 강남 출신의 많은 문인관료들이 그와의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여 배척되고 살해되었다. 강남 문인들은 문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신들과 엄승과 같은 권신들의 ‘저속함’을 대비시킴으로써 갈등 관계에 있던 그들과 차별화할 수 있었다.⁴⁹⁾

그럼은 마땅히 송나라 때의 것을 중시해야 하는데 근래 30년 동안 갑

47) 沈德潛, 《萬曆野獲編》, 26: 700~701쪽.

48) 王世貞, 《觚不觚錄》, 中國野史集成續編本 (成都: 巴蜀書社, 2000), 25a-b쪽.

49) 엄승과 같은 권신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은 부르디외가 ‘예술은 사회를 부정하는 주요한 장소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510쪽.

자기 원나라 사람의 그림을 중시하여, 倪瓚(1301~1374)과 명나라 沈周의 그림 값이 갑자기 10배나 뛰었다. 자기는 [송나라 때] 哥窯와 汝窯에서 나온 것을 중시해야 하는데 근래 15년 사이에 갑자기 宣德(1426~1435)연간에 생산된 자기를 중시하여, 永樂(1403~1424)과 成化(1465~1487)연간에 생산된 자기의 가격 또한 갑자기 10배나 증가했다. 대체로 吳縣 사람들이 발원하고 徽州 사람들이 흐름을 이끌어 가니 참으로 괴이하다. 畫當重宋, 而三十年來忽重元人, 乃至倪元鎮, 以逮明沈周, 價驟增十倍. 窯器當重哥汝, 而十五年來, 忽重宣德, 以至永樂成化, 價亦驟增十倍. 大抵吳人濫觴, 而徽人導之, 俱可怪也.

위의 글에서 왕세정은 당시 거액을 투자하여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휘상들에 의해 조성된 취향이 전통문인들의 그것과 달리 흘러가고 있음을 염려한다. 전통 사대부 문인들은 단아한 것을 좋아한다. 명나라 성덕연간에 경덕진에서 생산된 화려한 색채의 청화백자보다 송대의 단아한 백자와 청자를 좋아한다. 휘상들과 취향이 다르다. 심덕잠 또한 왕세정과 생각을 같이 한다. 그는 《만력야회편》 권26 〈玩具·時玩〉에서 玩物에는 옛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당시의 풍조가 그렇지 못함을 개탄했다.

한 둘의 문아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賞識함이 조금씩 퍼져가더니 강남의 好事한 관리들에서 발원하여 그 영향이 新安의 귀 동냥하는 [상인들]에게 미쳤다. 모두들 크게 값을 부르기를 천냥이요 백냥이요라고 하더니 걸핏하면 전대를 풀어 값을 지불하는데, 진위를 판별하지 못하여 심주와 唐寅(1470~1523)의 그림을 荆浩와 關仝(907~960)의 위에 두고, 문징명과 祝允明(1460~1526)의 글씨를 蘇軾(1037~1101)과 米芾(1051~1107)의 작품 사이에 끼워놓으니 그 폐단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겠다. 始於一二雅人, 賞識摩挲, 濫觴於江南好事縉紳, 波靡於新安耳食. 諸大估曰千曰百, 動輒傾囊相酬, 眞贗不可復辨. 以至沈唐之畫, 上等荆關. 文祝之書, 進參蘇米, 其敝不知何極.⁵⁰⁾

50) 沈德符, 《萬曆野獲編》, 26: 699쪽.

沈春澤의 〈長物志序〉에서 문진형은 심춘택에게 《장물지》를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소주 사람들의 마음과 손이 날로 변해감이 두렵다네.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자잘한 쓸데없는 일과 여분의 물건들에 관해서 나중에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지어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네. 吾正懼吳人心手日變, 如子所云, 小小閑事長物, 將來有濫觴而不可知者, 聊以是編堤防之.

문진형이 《장물지》에서 雅俗을 차별화한 한 가지 방법은 이 책에 한 장의 삽화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⁵¹⁾ 1603년 항주에서 출판된 顧炳의 《顧氏畫譜》는 이 점에서 《장물지》와 구별된다. 《고씨화보》는 그림을 배우기 위한 회화교본이다. 이 화보는 晉나라의 顧愷之로부터 시작하여 당시의 저명한 문인이던 董其昌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106명의 역대 거장들이 그린 명화 106점의 원작을 축소 복제하여 관각한 명화집이다. 그림과 함께 화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고병은 미술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씨화보》는 독자들을 미래의 예술품 수집가 또는 고객으로 교육시켜 그가 갖고 있는 진품 예술품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되었다.⁵²⁾ 말하자면 그의 책은 독자로 하여금 예술품에 대한 감식안을 갖도록 교육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화보라는 매체를 통한 그림의 재생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두루마리, 족자, 병풍, 화첩 등 다채롭고 제각기 다른 크기의 매체에 담겨 있던 그림들이 동일한 크기로 판각, 대량으로 복제되어 유통되게 된다. 2m 높이의 郭熙의 기념비적 산수화가 다른 그림들과 함께 27×18cm 크기로 축소되어 화보에 표현되었다. 복제명화집인 《고씨화보》가 갖는 의의는 기존의 극소수 문인들만이 향유했던 문화지식이 상품화하여 유통되게 된 것이다. 책을 구매함으로써 독자는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⁵³⁾

51) 고령의 《준생팔진》 또한 《장물지》와 마찬가지로 삽화를 기피하고 있다.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55쪽.

52)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143쪽.

53)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138쪽.

명말에 이르면 이전에는 극소수의 문인 엘리트들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감상했던 명화들을 보다 폭넓은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출판으로 동일한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씨화보》와 같은 복제명화집의 형태를 띤 화보의 출판은 기존의 특권층인 문인 사대부들만이 향유했던 고급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서화를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양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신형 독자층을 위해 문인문화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유통시켰다. 목판화의 출판을 통해 감식안을 갖는데 필요한 그림의 대량 재생산과 유통은 서민 지식층의 저변 확대에 따른 그들의 문인사회 문화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고씨화보》가 송대의 31명의 화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를 다룬 《장물지》의 〈書畫〉와 15명만이 일치한다. 이것은 두 책 저자들의 취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화집인 《고씨화보》와는 달리 《장물지》는 텍스트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도해가 없다. 이것은 두 책의 작자들이 의도하는 독자가 서로 다름을 말해준다. 고병의 《고씨화보》는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떻게 담론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관해 말해준다.⁵⁴⁾ 이 책은 화가와 그 작품의 스타일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작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이에 반해 《장물지》의 저자인 문진형의 의도는 아속을 구별 짓는 것이었다.

문진형은 가풍의 영향으로 시서화에 모두 능했다. 특히 쉼과 서예에 뛰어나 그 이름이 북경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문진형은 諸生으로 南京國子監을 졸업했다. 천하를 교화할 뜻을 품을 만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못했다. 당시 熹宗(재위 1620~1627)은 昏君이었다. 환관 魏忠賢(1568~1627)이 東廠을 장악하고 閹黨을 결성하여 전횡하던 암울한 시대였다. 문진맹은 위충현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그의 모함을 받아 곤장 80대를 맞고 폄적되어,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고 1624년에 낙향했다.⁵⁵⁾ 그는 復社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문진형은 1626년에 위충현의 엄당이 吏部文選司員外郎 周順昌을 체포하는데 반대하는 소주

54)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147쪽.

55) 周蘇寧, 《園趣》, 75쪽.

민중들의 투쟁에 참가했다. 문진형의 집안은 수차례 阮大鍼과 馬士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그의 출사길이 순탄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옹지를 펼쳐볼 수가 없었다.

문진형이 《장물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이 책이 간행된 것은 1621년이다. 극렬한 당쟁, 張居正(1525~1582)의 개혁 실패, 만력제(재위 1563~1620)의 무력함, 희종 天啓 연간(1605~1627) 환관 위층현의 전횡 등 명나라 말의 암울한 정치 상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나라에 도가 서지 않으면 몸을 숨긴다(邦無道則隱).’ 자신의 이상을 펼쳐 천하를 교화할 수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문진형은 독서와 주유친하, 法書와 명화 그리고 골동품을 수장하고 감상하며 인격을 함양하는 ‘獨善其身’의 길을 택했다. 심춘택이 쓴 《장물지》 서문을 살펴보자.

최근 부잣집 자녀들과 몇몇 우둔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好事者를 자처한다. 예술품을 감상할 때마다 내뱉는 말이 저속하며 손에 넣는 것은 함부로 다룬다. 그들은 작품을 다루고 보관하는 것을 제멋대로 하여 그 더럽힘이 매우 심하다. 드디어 진정한 취향과 재능 그리고 감성을 지닌 선비들로 하여금 서로 경계하며 더 이상 風雅를 논하지 않게 만들었다. 近來富貴家兒與一二庸奴鈍漢, 沾沾以好事自命, 每經賞鑒, 出口便俗, 入手便粗, 縱極其摩娑護持之情狀, 其污辱彌甚, 遂使眞韻眞才眞情之士, 相戒不談風雅.⁵⁶⁾

다음은 《長物志·書畫·賞鑒》이다.

서화를 보는 것은 미인을 마주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조악하거나 천박한 생각을 해서 안 된다. 대체로 옛 그림의 종이나 비단은 모두 잘 부서지기 쉬워 두루마리를 펼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상되기 쉽다. 더욱이 바람이나 햇빛에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등불 아래에서 그림을 보지 말아야 한다. 연기에 그림이 그을리거나 촛농이 떨어져 얼룩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나 술을 마신 뒤에 그림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깨끗한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그림을 감상할 때에는 손톱에 그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헤아

56) 海軍, 《長物志圖說》, 〈序〉, 1쪽.

릴 수 없이 많지만 반드시 하나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억지로 우아한 척을 해서도 안 된다. 오직 진정한 감식안을 가졌거나 골동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더불어 담론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粗野한 북방 사람들에게는 보물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看書畫如對美人, 不可毫涉粗浮之氣, 蓋古畫紙絹皆脆, 舒卷不得法, 最易損壞, 尤不可近風日, 燈下不可看畫, 恐落煤燼, 及爲燭泪所汚, 飯後酒餘, 欲觀卷軸, 須以淨水滌手. 展玩之際, 不可以指甲剔損. 諸如此類, 不可枚舉. 然必欲事事勿犯, 又恐涉強作清態, 惟遇眞能賞鑒, 及闕古甚富者, 方可與談, 若對僞父輩惟有珍秘不出耳.⁵⁷⁾

문진형이 《장물지》를 쓴 의도는 위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아속을 구별 짓는 것이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 나의 강개하고 불평한 마음을 기탁하는 데 있었다(以寄我之慷慨不平).”⁵⁸⁾ 《사고전서총목》의 편집자들은 ‘명나라 때 山人과 목객들이 玩物을 통해 자신의 고상함을 뽐내지만 거짓으로 雅尙함을 말하는 것이 도리어 俗態를 더하는 자가 그 중엔 간혹 있다. 오직 문진형만이 세상에 서화로 이름을 날려 보고 들은 것이 무리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수장하고 감상하는 방법 또한 조리를 갖추었다.’라고 평한다.⁵⁹⁾

IV. 나오며

이 글에서 우리는 고렘의 《준생팔전》, 향원변의 《초창구록》, 문진형의 《장물지》, 도룡의 《고반여사》, 장응문의 《청비장》 등 1590년에서 1630년까지의 시기에 강남 문인들이 물질세계를 분류하고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고렘과 향원변은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을 쌓고 당시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인사회로 진입하고자 노력했던 유상들이며, 도룡은 유상의 자제로서 진사에 급제하여 관료가 됨으로써 문인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한 사

57) 海軍, 《長物志圖說》, 5: 181쪽.

58) 海軍, 《長物志圖說》, 〈序〉, 1쪽.

59) 원문: “明季山人墨客, 多以是相誇, 所謂清供者是也. 然矯言雅尙, 反增俗態者有焉. 惟震亨世以書畫擅名, 耳濡目染, 與眾本殊, 故所言收藏賞鑒諸法, 亦具有條理.” 紀昀, 《四庫全書總目》, 123: 1059쪽.

람이다. 이에 반해 문진형과 장응문은 기존의 문인사회 구성원에 속한다. 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은 다른 집단과 경계를 지으려는 당시 강남지역의 기존 문인사회와 그 경계를 허물고자 노력했던 상인 출신 지식인들의 세계를 분류하고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담론이 담겨 있다. 물질문화 담론은 문인들이 賞鑑해야 할 모든 문화지식들을 망라하며, 문인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왔던 문화관습과 지식을 분류한다. 물질문화 담론을 주도한 당시 문인 지식층은 이를 통해 그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환관들 및 새로이 문인사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유상들과 차별화할 수 있었다. 물질문화 담론에 표현된 문화지식은 자신들을 환관이나 권신들 그리고 유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高雅’한 문화자본이었다.

[참고문헌]

- 高 濂, 《遵生八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 沈德符, 《萬曆野獲編》(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8).
- 海 軍, 田 君 注釋, 《長物志圖說》(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4).
- 周蘇寧, 《園趣》(上海: 學林出版社, 2005).
- 王鴻泰, 〈明清士人的生活經營與雅俗的辯證〉, Columbia University East Asian Studies,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蔣經國中心이 공동 주최한 “Discourses and Practices of Everyday Life in Imperial China” 國際學術研討會 논문. (회의기간: 2002.10.25-10.27).
- Peter Burke, *The Italian Renaissance: Culture and Society i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Craig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London: Reaktion Books, 1997).
- ,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Cambridge: Polity Press, 1991).
- , *Empire of Great Brightness: Visual And Material Cultures of Ming China, 1368-1644*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 Robert E Hegel, *Reading Illustrated Fiction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Chu-tsing Li, ed., *Artists and Patrons: Som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hinese Painting* (Kansas City: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89).
- Chu-tsing Li and James Watt, eds., *The Chinese Scholar's Studio: Artistic Life in the Late Ming Period*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87).
- Gillian Rose,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aterials* (Sage Publications Ltd, 2007).
- Ian Woodward, *Understanding Materi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7).

<ABSTRACT>

This paper inquired into the discourses on material culture in the latter half of Ming dynasty, which including Gao Lian's *Eight Discourses on the Art of Living*, Xiang Yuanbian's *Nine Records from a Banana-shaded Window*, Wen Zhenheng's *Treatise on Superfluous Things*, Tu Lung's *Desultory Remarks on Furnishing the Abode of the Retired Scholar*, Zhang Yingwen's *Pure and Arcane Collecting*. The discourses by Jiangnan intellectuals were compiled during the years 1590 to 1630 and dealt with their classification of and the way of seeing material world. Gao Lian and Xiang Yuanbian were rich merchants who cultivated cultural attainments necessary to be a literatus and tried to enter into elite society, Tu Lung passed Jinshi examination as a son of merchant, became an official, and succeeded to enter into elite society. On the other hand, Wen Zhenheng and Zhang Yingwen were members of elite society. Their discourses on material culture can be viewed on the one hand as rich merchant's

cultural effort to try to enter into elite society, on the other hand as elite group's cultural capital on which they sought way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주제어 : 시각문화, 물질문화, 구별 짓기, 엘리트, 文震亨, 長物志

KEYWORD : visual culture, material culture, distinction, elite, Wen Zhenheng, *Treatise on Superfluous Things*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208·中國學 第36輯(2010.8)

<빈 페이지>

新时期小说叙述方式的新意：内涵论

方珍平*

— <目 次> —

1. 引 言
2. 叙述新方式的成因
 - 1) 文本方面
 - 2) 接受方面
3. 叙述新方式的实质
4. 叙述新方式的意义
 - 1) 丰富小说的创作技巧
 - 2) 导致叙述语调的产生
 - 3) 填充文体内涵, 导引接受方式
 - 4) 改造叙述媒介
 - 5) 还原叙述本体
5. 叙述新方式的前景目

1、引 言

本文是新时期小说叙述方式的内涵分析。叙述方式是叙事分析视角构拟的范畴, 是小说乃至表达形式分析的出发点。研究新时期小说叙述新方式, 归纳形式系统是一个方面, 其叙述新方式主要体现在1、全面的标点异动;

* 上海外国语大学副教授

2、独特的句式贯穿；3、直露的外观突破；4、隐现的语体移植；5、多重的角度超越。¹⁾

研究新时期小说叙述新方式，阐述其内涵价值是另外的重要一环。这种内涵价值主要体现在变化之中。本文即从叙述新方式的整体系列分析中出发，考察新时期小说之叙述变化。主要工作有三：1、叙述新方式的归纳及其成因；2、反映在叙述结构中的叙述方式的总体特征；3、叙述新方式的实质、意义及其前景。

从原因上看，叙述新方式适应表现新时期生活新境况的需要，满足和启发新时期人们的接受方式。从本质上看，叙述新方式是结构中的言思的产物，新方式中任何一个类型都是对结构功能的发掘利用。结构功能是表达可资提取的形式宝库，它还可直接对结构组成（媒介）发生作用，形成一种“内动”效应，使结构-功能的连接得以确立。从意义上看，叙述方式丰富了并且继续丰富着主体表现力，填充了文体内涵，使人们对表达概念产生新认识。它对语言的约定俗成的、活生生的、建构的、交际的性质等根本属性作了很好的解说。本文最后还尝试以语言结构与叙述结构的对应及小说本体的要求评估新方式的前景。

叙述方式发展着，表达观念也发展着。在新时期小说创作中，叙述本体已经回归，叙述方式表现为一定的形式特征，有其内在的语言学与叙事学理论基础。

2、叙述新方式的成因

叙述方式新变的总体因果关系可以从两方面来考察。一是文本创作方面，二是欣赏接受方面。

2.1) 文本方面

对语言结构的重视及对结构修辞功能的强化——这一新小说的显著特征正是叙述新方式形成的主要原因。在新时期阶段，社会生活的日新月异，国

1) 参阅拙文《新时期小说叙述方式的新意：形式论》，载于《中国语文学志》第31辑（2009年12月）

外叙述作品及叙述学作品的引进，使小说文体成为一大变量。这种变化既表现在文风、语汇、格调上，也表现在模式、故事、形象塑造上。体现如下特点：1、“三淡”（淡化时代、淡化思想、淡化性格）到“三无”（无情节、无人物、无主题）构成的文学“内转”²⁾；2、诗与哲理因素的增强；3、某些夸张及变形形象的出现；4、对写作的自觉和试验态度等等。这些都会在叙述方式上反映出来，使人们长期看惯的小说在短期内发生了巨变。实际上，新小说相当部分是以“五·四”以来没有获得青睐的域外小说为滥觞的。这些小说远非原来主导的“现实主义”所能概括，也不是传统“创作手法”可以解析的。但是，它们又确实是给现实主义创作增添了许多新的文体因素。

同时，与小说创作繁荣相伴随的理论热，使得结构主义、符号学、接受美学、话语理论、文化论及其他语言学理论和文学美学理论登堂入室，诱导催化了小说文体的变迁。所以曾有读者将当代小说家创作的作品与翻译的西方现代派小说对照读解。³⁾在这种形势下，新小说家不但有动力感，而且有紧迫感，希望最大限度地发挥小说的叙述功能，能使自己对外部世界的意识感受获得理想的语言表现。如此，传统小说创作中运用语言及叙述范畴的经验技巧就需要补充和发展。其最主要的一点，是不满足于传统小说的再现性功能，而是寄望于使小说更具备如诗如画的表现性修辞，不仅“努力把故事写得像真的”而且使“故事的编法很有意思”，在具体叙述操作中减少具象描摹而突出主观感受。体现为如下四点。

2.1.1) 构筑符号化的意象

为了使人们在象外之象中获得更多的领悟和想象，新时期小说作者们勉力构筑符号化的意象，完成作品的整体象征性。意象是“以语词为载体的修辞艺术的基本符号，它是语言叙述中的一种文化情感的郁结，是说写者经审美经验的筛选，融入特定的‘情感’和‘意味’，用语言媒介呈现出来并能勾起听读者画面和‘文化’回忆的某种物象”。⁴⁾传统小说总是使人在阅读中忘记文字符号而进入到符号的所指中，新小说却更多地使得意义自指，使文字符号或

2) 周崇坡. 两栖追踪[M]. p.97.

3) 傅腾霄. 小说技巧[M]. p.68.

4) 姚亚平. 当代中国修辞学[M]. 广州：广东教育出版社，1996.

写法与所构造的意象同步。阅读“新写实小说”，常感到其超验性，即海明威说的“比实际上发生的事还要真实”（《海明威研究》）。苏童《另一种妇女生活》中有个女主人公封闭怪异，她对破坏她生活夺去她所爱的另一个女人恨之入骨，则针针线线刺绣该女人的头像，头像绣成，则受了无数次的针扎。小说的“刺绣头像”几字与作者要表现的怪异复仇是有联系的，这种意象从语言符号中窥知，在文本中映照澄明，再回过来引申充盈语言符号的涵义。又如：

(1) 三个月的企望，一轮嫩嫩的太阳在头顶上出现。

风开始暖暖地吹，其实那不应该算作风，是气，肉眼儿眯着，是丝丝缕缕的捉不住拉不直的模样。石头似乎要发酥呢，菊花般的苔藓亮了许多。说不定在什么时候，满山竟有了一层绿气，但细察每一根草，每一枝柯，却又绝对没有。两只鹿，一只有角的和一只初生的，初生的在试验腿力，一跑，跑在一片新开垦的田地上，清新的气息使它撑了四蹄，呆呆的，然后一声锐叫。寻它的父亲的时候，满山村的枝柯，使它分不清哪一层是老鹿的角。

山民挑着担从沟底走来，棉袄已经脱了，垫在肩上，光光的背梁上滚着有油质的汗珠。路是顽皮的，时断时续，因为没有浮尘，也没有他的脚印；水只是从山上往下流，人只是牵着路往上走。

山顶的窝洼里，有了一簇屋舍。一个小妞儿刚刚从鸡窝里取出新生的热蛋，眯了一只眼儿对着太阳耀。（贾平凹《商州又杂》）

小说表面上写严冬之后春之气息，但这是什么“气息”呢？草木预示春的到来，又分明“丝丝缕缕的捉不住拉不直的模样”——对作家来说，那种感动、那种激发他主观感情的客观之物，包含着更丰富的社会生活内容。商州特有的景致和世态，正使人看到历史巨变前的生机与希望。从中也可见当代小说构符号意象时更多地体现了“中国独特的观物能力、独特的审美心理结构、独特的情感郁结方式”。

2.1.2)表现立体化

生活是丰富的、多维的，表现也需立体。新时期小说作者实践与此，于

是新小说在角度、外观手段上都有了体现。如：

- (2) 她的一身全是黑色，从长裙到皮鞋。只有耳垂上的一对耳环是乳白色的。
我弯下了腰，伸手去拾那顶呢帽：此时我从一个更低的角度仰视她，这是一个并不美丽却十分动人的女子（这时候我已经拣起那黑色的帽子，我的指尖在帽子的面料上经过时感到了一种轻柔的温暖）帽子重新落在她的发上（她的睫毛惊动了并在一段时间内持续了一阵轻微的跳之后才平静下来）她略略侧过身就靠在我的肩侧（也许，无论对她还是对我，这更像是亲密的偎依或热情的投入？）就这样火车好像一艘在没波纹的海上行驶的客轮一样平静地护送着我们这对神奇的恋人（在梦中相识并相爱？）我们相关相爱却不过分造作的姿态在不远处看来如同一幅甜美的油画（或是一帧构图精致的摄影佳作。）（西鸬《季节之旅》）

这里，作为叙述者“我”的心理活动及作为人物“我”的心理活动通过括号的作用完全分立出来，且又都告之了我们（读者）。在外观手段上，张承志《金牧场》用三种字体排列，吴若增《脸皮招领启示》画了一张招领广告，陈国凯《摩登阿Q》中假洋鬼子作的酱油诗排列成油瓶格式等都是强化表现的需要和呈现。

2.1.3)提高语言效能

根据萨丕尔-沃尔夫的假说，语言经千百年的使用必然带上文化色彩。这既是一种能指的意外收获，又是一种负担，词的基本意义往往被忽略，因而优美的表现往往需要华丽的词藻。新小说却力图摆脱语言的“磨损”，还其应达的效能。主要方法是“陈字见新，朴字见色”，即通过整体组合达到的宏观叙述，使常用、平常的词语焕发生机、承担叙述重任。汪曾祺《受戒》有例：

- (3) 划了一气，小英子说：“你不要当方丈！”
“好，不当。”
“你也不要当沙弥尾！”
又划了一气，看见那一片芦花荡子了。

小英子忽然把桨放下，走到船尾，趴在明子的耳朵旁边，小声地说：

“我给你当老婆，你要不要？”

明子眼睛鼓得大大的。

“你说话呀！”

明子说：“嗯。”

“什么叫‘嗯’呀！要不要，要不要？”

明子大声地说：“要！”

“你喊什么？”

明子小声说：“要——！”

“快点划！”

英子跳到中舱，两只桨飞快地划起来，划进了芦花荡。

虽然叙述的是一些琐碎的生活及普通的风俗场景，但却充盈着隽永的哲理意味，表现了纯洁健康人性与佛门超脱的非现实人性之间的对立与联系。另一种方法是古语翻新与语汇重构，即通过古语词（非常用词）与平常词的有机组合来增强表现力，这方面以何立伟的作品为代表：

- (4) 而那河水，似乎有了伤痛，就很匆遽地流，粼粼闪闪。这正是南方有名的一条河。日夜的流去流来无数美丽抑或忧伤的故事，古老而清新。间常一页白帆，日历一样翻过去了，在陡然剩下的寂寥里，细浪于是轻轻腾起，湿津津地舔着天空、舔着岸。（《白色鸟》）

提高语言效能的方法即人们常常讨论的“陌生化”，主要体现在叙述方式中的句式和语体手段方面。

2.1.4)对文本及文本写作的表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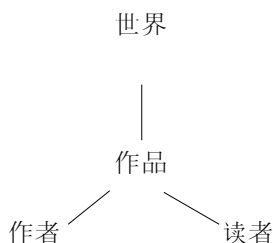
这集中在小说中谈自己、谈小说、谈小说写作过程以及构拟作者与读者的交流等方面。部分作家不再注重语符表现的意义或作品的涵义，而是“照象实记”。似乎把一切写下来正是意义所在。小说“虚构”的性质使它自身成了容器，这就令小说观念发生了变化，人们的视野得到一定的扩充。许辉

《十颗大树底下》是这种文本的一个代表。又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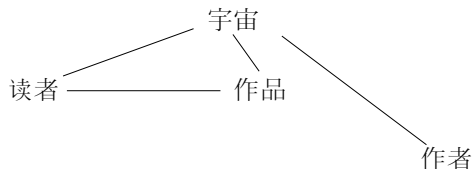
(5) 我讲到这里，你们可能有点厌烦了，这完全是一个普通的故事，一个普通的上司勾引下级的故事，中年男人勾引年轻姑娘的故事，而且手段也极平常，你们在座的各位可能就有比这更为美妙的经历，别反驳！别说你们没有！只是手段虽然平常，又永远会有人上当。这故事到此为止非常普通，你们还要往下听吗？那好，我接着讲。（王芙《后花园》）

2.2) 接受方面

当代叙述学发展的一个倾向，是从语言学模式向交流模式转移。叙述作品即是向人们传达意义的修辞形式，叙述的实现不仅体现在文本的拟就上，而且建立在接受者与文本的认同契合中。美国文学批评家亚勃拉姆斯曾设计了一个图式，表现作者、读者、作品、现实间的关系：⁵⁾



这是以作品为中心的观照。实际上，今天的情势已大易从前，读者的首要性得到强调。而且，四要素之间的作用是互相的、双向的，接受美学学者经改造的图示更为贴切：⁶⁾



5) [美]M.H.亚勃拉姆斯. 镜与灯[M]. 郅稚牛译. 北京：北京大学出版社，1989.

6) 陈旭光，冯冀. 读者阅读接受：阐释与探奥[A]. 名作欣赏[J]，1993 (5)

然而，作者当然不仅仅是“为读者”而写作，也是“为”读者而作。他总是在“利用”着指向读者的“（双向）箭头”，总在力图提高其文本的“交际力”，即“信息交往中人的活动对效果的关系、交往主体之间互相沟通的程度”。⁷⁾也有学者称作“语力”。⁸⁾作品创造者苦心孤旨地组合、编排叙述方式的同时，也精心设计、巧妙安排着读者的接受方式。一旦叙述体系使读者的位置确立下来，作为一种具有诱导机制的结构，叙述方式也就能左右接受者的注意力及理解方式。新小说文本的创造者们正是时刻在对被动的欣赏习惯提出挑战，改变着大众对文本的消极、惰性的阅读方式。所以，产生了一个形似“悖论”的结果：创造文本是为了交流，而交流沟通是通过读者觉得陌生的（新）方式达到的，也就是诉诸差异，形成“差异沟通”。

传统上欣赏小说的方式，是“捧读”、“品味”，用心专注，有一个“读 → 想 → 悟 → 读”的循环过程。读者总是主动尽力地去理解领会作品的真谛内涵，以“读得懂”为荣，传统美学的“倾听”说即是这种追求的极致。“一若志，无听之以耳而听之以心，无听之以心而听之以气！耳止于听，心止于符，气也者，虚而待物者也”⁹⁾，即提出了“心斋”境界。海德格尔也说：我们必须下决心去倾听，倾听使我们超逾所有传统习见的樊篱，进入更为广阔的领域。¹⁰⁾有这样积极投入的接受，创造者自然就把主要力量放在如何表现构拟叙述内容上(story)，而不是放在如何作可接受的表现上(text)。用一个词来描述，传统欣赏是“Look机制”。“Look”是看着、注视，阅读者在瞬间的兴趣点是固定的，据此形成固定位置的焦点审视与循环审视，是一种主动欣赏与精心理会的审美接受过程。

当代社会的发展突飞猛进，生活节奏紧快，精神产品丰繁，小说的接受方式嬗变为“See机制”。“See”是看见、看到，即如浏览网页的“浏览”。这种阅读体现为单向流程与非回覆流程——一个文本很少再翻第二次，在流程中兴趣点也不断改变，兴趣点随着散点扫视的目光不断调节，构成“看 → 知”的快速筛选与整体对比的信息化接收过程。面对这种消极的接受态度，作者只有两种选择。其一是适应“看 → 知”机制让读者更关题材，易读懂小

7) 姚亚平. 科技革命与语言科学的新视野[A]. 争鸣[J], 1993 (1)

8) 良止, 蒋勇. 梯级含义与语力的传递[A]. 修辞学习[J], 2003 (6)

9) 庄子. 人间世·第四[M]. 长沙, 北京: 湖南人民出版社, 外文出版社, 1999: 54.

10) 刘小枫. 诗化哲学[M]. p.186. 转引。

说，更快获得信息；其二是努力改造其“See”习惯，想方设法把读者拉回到“Look”的位置上来，“停住”他们目光的“点击”。这样，创作力量向接受方的转移、诉诸的交流，自然在文本（text）的叙述方式下显示出来。

3、叙述新方式的实质

面对一个叙述作品、一篇小说，我们首先看到的是语言，正如洛奇在《小说的语言》中所说，“小说家的媒介是语言，无论他做什么，作为小说家，他都是运用或者通过语言来完成的”。小说传送的一切都是靠熟练地操作语言来实现的。同时也是靠读者接受与再创造的欲望和根据作者安排的语言线索解构发展的能力实现的。从某种意义上说，小说正是语言构成的“部族、群落”而不是人物、故事等等。没有语言，就无法对当代文学表达做出判断，分析叙述新方式这一从文本中抽象出来的对象，必须从语言这一直接外观或曰“第一现实”¹¹⁾谈起。

小说叙述语言属艺术语言符号系统，是表现性的符号系统，每个符号或符号的集合、系统中，能所指关系交叉错综、灵活多变，呈现出极大的张力和自由。黑格尔曾指出：“诗则一般力求摆脱外在材料（媒介）的重压，因而感性表现方式的明确性并不至迫使诗局限于某一种特定的内容以及某些特定构思方式和表现方式的窄狭框子里。因此，诗也可以不局限于某一艺术类型；它变成了一种普遍的艺术”。¹²⁾这种语言的“摆脱”是我们探讨的。

但是，仅仅审视“语言”符号，问题仍然存在。因为我们讨论的宗旨并不只是小说语言，而是小说形式。我们不仅想用文学语言学、修辞学方法对文本进行客观的分析，还想通过沟通写作背景、作者意图以还原、离析作品内涵，这就涉及到叙述范畴。如此，我们做的才不是一般的文学语言修辞分析，而是表达方式的研究、小说形式的审视。那么，从什么层次分析，即我们所举的例子是什么单位呢？语法修辞学上一般分法是字词句段篇，但叙述方式很难说局限在某一层单位上，比如句中有，段中有，篇中也有；如果分别分析呢？也不妥，因为叙述方式是单位之间的系联特征，如单独一句话无

11) 陈旭光. 诗歌语言：意象符号与文本结构[A]. 名作欣赏[J], 1992 (1)

12) [德]黑格尔. 美学·第三卷下册[M]. p.13.

所谓叙述方式，数句放在一起，我们才能分析：都是独词句——句式叙述法，等等。正是分析出发点上的困惑与反思使我们认识了叙述新方式的本质是一种结构特征，需要应用表达观加以视察。叙述新方式的实质是——结构中的言思。

让我们从文学语言的特点谈起吧，这是每一代学者孜孜以求的。二十世纪文学批评的一个显著进步和特征是语言学转向的完成，传统的文艺美学让位于语言学批评。俄国形式主义，结构主义批评，新批评等，无不打上语言学的烙印，它们都把语言学、符号学的理论视为阐释文本的依据，然而却忽略了文学语言自身的逻辑。这就使文学语言就范于现代语言学的理论，因而操作过程中主观色彩渐浓，出现很多理论家“读解”而实践者（作者）“拒绝承认”的现象。语言批评的弱点正在于言过其实地夸大语言对文本的意义而漠视文学文本在本质上是言语活动的产物，文本意义来自表达、来自作者。萨丕尔说：“语言不只是思想交流的系统而已。它是一件看不见的外衣，披挂在我们的精神上，预先决定了精神的一切符号表达的形式。”¹³⁾其意思是说，语言活动并非始于思想感情生成之后的传达过程，而是早在思想感情生产之中乃至之前，就已经存在了，我们不可能摆脱语言的影响获得意义和经验。这种比较绝对化的观念否定了言语活动的能动性，是语言批评走向偏激的起因。在这种观念指导下，人是语言活动主体的信念开始动摇，言语是否存在也引起怀疑，传统文学批评的意识支配语言的“思想决定论”变为语言批评的语言决定意识的“形式决定论”。这样的语言批评较难把握并释解文学语言特点。

那么，从叙事学角度去分析，小说叙述语言的特点到底是什么呢？要回答这个问题，必须谈到言意矛盾。言意矛盾往往被理解成语言不够用——“常恨言语浅，不尽人意深”、“莫怪苦吟迟，诗成鬓亦丝”，由此还诞生了中国式适当“抛弃”语言的美学观——“书不尽言，言不尽意”、“不著一字，尽得风流”。于是，形式便无从谈起——“翔羊挂角，无迹可寻”、“只可意会，不可言传”。实际上，这只是一个方面、一种势态。另一方面，是语言长期通用、积累了沉重的文化负载，约定久已俗成，不可更动，导致对意义的遮蔽。就像常用的机器受到磨损一般：当作家叙述感受、遣词造句时，他面对的不是可以随心所欲使用的一个个原生态词语，而是经世代代经验习惯固定下来、本身已有确定附加含义的文化符号，即闻一多所言“字是传达意义的，也是限制意义的”。这种遮蔽主要表现在两方面：一、多义成一义，具象成抽象；二、用法固定（前言后语有限制）。例如“吻”字，是“用嘴唇碰

13) [美]萨丕尔·语言论[M]. 北京：商务印书馆，1985：198。

触”的意思，但它有许多文化上的“遮蔽”：比如一般用于人际之间、带有宾语不带补语等等。所以，当我们面对“远处一页白帆，正慢慢慢慢吻过来”（何立伟《白色鸟》）的用法就会感到惊奇和赞赏——写得好！怎么别人不知道这么写？语言媒介这种不透明、它对思想感情的限制与文学作者希望毫无挂碍、自由自在表达自身感受的反差，才是言意矛盾的根源。钱钟书尝言：“语言文学为人生日用之所必须，著书立说尤寓托焉而不得须臾或离也。故求全责善，啧有烦言。作者每病其传情、说理、状物、述事，未能无欠无余，恰如人意中之所欲出。务致密则苦其粗疏，钩深赜又嫌其浮泛；怪其粘着欠灵活者有之，恶其暧昧不分明者有之。……语文之于心志，为之役而亦为之累焉”。¹⁴“累、役”二字，道出了语言对感知的遮蔽及创作活动的百味。

当然，小说还是不断在写，人们不断地运用语言创造着精神世界。语言手段主要是组合（刘焕辉《一切修辞手段都归结为组合》），遮蔽在组合中形成并作用于语言单位与周围的组合联系中，只要成功地否定其固有组合，不就使它澄明起来，传递新鲜经验？这种否定和改造就是有效的言思方式。手法上的“赋比兴”，体裁上的“诗词曲”，就是否定原来的自由言语和习惯言语而产生的，对传统赋比兴手法及诗词格律的否定又导致白话和新诗的生成。追求澄明是突破旧有限制，但它同时又建立新的限制，没有限制也就飘逸散漫。故此，语言之遮蔽可以“破”而不可弃，也不可能弃。没有语言就只有纯粹思维内省，这是难以想象的。伽达默尔引过一句诗：“语词破碎处，万物不复存”，说明了这一道理，钱钟书的趣喻也入木三分：“缄默是语言之背，其轮廓乃依傍语言而得。”考察“比喻”这种言思方法也可知，比喻是在“似是而非，似非而是”的结构关系中使得意义增值，意义只产生于比喻这个结构中，而不是存在于本体、喻体或相似点的任何一方。可以得出如下结论：新意产生于新限制之中，对创造的追求在于脱离遮蔽又依靠遮蔽，限制就是结构，结构具备意义，表达方式是可变可比的。汪曾祺《受戒》有例：

- (6) 过了一个湖。好大一个湖！穿过一个县城。县城真热闹：官盐店，税务局，肉铺里挂着成边的猪，一个驴子在磨芝麻，满街都是小磨香油的香味，布店，卖茉莉粉、梳头油的什么斋，卖花的，卖丝线的，打把式卖膏药的，吹糖人的，……他什么都想看看。舅舅一个劲催他：“快走！快走！”

14) 钱钟书，《管锥编》第二册[M]. 北京：中华书局，p.406.

这一段节奏急促，句式参差，名词罗列。县城的热闹、行色的匆忙、主人公明子心中浮光掠影的印象一一呈现。写小磨香油的句子却是完整的，我们似乎有了行色虽匆匆、香味长追随的感觉。这种感觉不是语词叙述的，而是结构营造的，也可以解释为认知语言学的所谓“象似性”。¹⁵⁾至此，我们可以大致得到叙述语言的特征：结构中的叙述。叙述语言的研究对象就是叙述结构，叙述结构的形式就是叙述方式。小说（这种叙事）的特点在于提供文本（叙述框架），利用结构功能（叙述方式）。读者阅读后可能对内容、概念（如人物名字、具体场景、事物等）都忘了，但对整体（结构）有自己的感觉和认识。另外，文本生成之后即相对独立，可根据它做出解释，这也是当代创作与理论研究各自强调自我发展，互相不为对方完全左右的精神品质。当代小说家们正是依照这一规律，在努力创造着“结构中的表达”、“结构中的言思”（“结构中的言思”与“结构中的表达”还直接导致了微型小说艺术），这也就构成了其叙述方式，叙述新方式的实质正在于此。表达者每一份“结构中的言思”的成品（文本、话语）就成为叙述结构，它是我们研究表达的“逻辑起点”。

需要说明的是，文学文本是个多层次的结构体：它由语言构成，有语言结构，它有多种范畴，就有多种范畴上的结构，如“时空结构”、“情节结构”等等。我们的分析起点并不是光确立某种范围，还必须反映范围中的具体特征。对小说而言，其起点必须反映出叙述的本质特征，所以我们不再简单称之为语言结构或言语结构。另外，“叙述结构”这个概念有些文学批评学者已用过，但多半指“故事的结构形式”，等于“叙述的结构”，如指称层次段落、开头结尾、过渡照应、线索经脉（《写作通论》、《小说叙事学》），又如指称以情节为中心、以性格为中心、以背景为中心的结构（《中国小说叙事模式的转变》）。严格说来，它还不是一个术语，用在故事（story）上其词义也已抽象（一种遮蔽？），与具体的对象容易混淆（莫如称之为“故事结构”）。故此，我们把它用在文本上（text）并明确其定义。我们知道，结构一般指“两个或两个以上个体的关联或连接”。¹⁶⁾叙述结构，即为包含叙事性质的言语行为产物。它的最小单位一般为句子，大则可为句群、句段乃至全篇。小说叙述结构是我们论析叙述新方式的出发点。

4、叙述新方式的意义

15) 秦洪武. 语言结构的顺序象似性[A]. 外语研究[J], 2001 (01)

16) 姚亚平, 当代中国修辞学[M]. 广州: 广东教育出版社, 1996.

叙述新方式带来的意义是重大的，可以从五个方面加以考察。

4.1) 丰富了小说的创作技巧

好的小说必须有好的技巧，黑格尔说：“内容非他，即形式之转化为内容；形式非他，即内容之转化为形式”。¹⁷⁾这从侧面说明了形式的重要性。但是，中国的小说创作曾长期受体验派艺术的影响，漠视形式的追求与构建，似乎只要有真情实感，一篇好小说就可一蹴而就。这样无可避免地造成了小说表现形式的粗糙。不少才子小说家，由于执着地相信这种创作论，认同自身强烈的情感体验与独特想象，急迫投入创作，结果浪费了许多优质的创作素材。王蒙曾经表示，很羡慕冯骥才写了《高女人和她的矮丈夫》，因为小说一反当时盛行的辅排描绘，似乎尽量避免“多说话”。女主人公死后的雨天，“矮男人”出门上班仍“半举着伞”，整个构思及语言叙述熔铸着作者的绘画修养，这种形式感人至深。同时，相当长的一个时期，文学界处于半封闭状态，视西方现代主义、后现代主义文学为“腐朽意识形态”而予以严拒，使中国小说写作方法滞留在19世纪小说模式中而不再发展。叙述新方式的使用，使小说家的创作技能不再局限在遣词造句上，而扩展到谋篇布局，并且原有的创作手法在“质”上面也得到更新和发展。作家对小说内涵的认识也深化了，表现力得到提升。这种提升的另一个结果，是使得创作题材获得更大的丰富（如“土匪文学”、“传记小说”、“谍战文学”相当程度上是叙述新方式的产物）。正因当代小说创作的推进得益于叙述新方式，于是，形式上的流派和内容上的类别层出不穷，只能“各领风骚三两年”，“更新”迅捷。这是新时期小说之前的过去几十年难以看到的景象。

4.2) 导致了叙述语调的产生

以往的小说是无所谓叙述语调的，只有作者的感情色彩。“叙述者叙述一个事物时的语气语调和这个事情所激发出来的思想感情是一致的。或积极、或消极、或激动、或冷漠、或褒扬、或批评等等，都与其所叙述的事件内容成正相关的关系”。¹⁸⁾读者的感情变化与内容同步，则作者叙述的感情

17) [德]黑格尔. 小逻辑[M]. 北京：商务印书馆，p.78.

18) 姚亚平. 21世纪的学科结构与中国修辞学的发展问题[A]. 南昌大学学报[J], 1995 (1)

化为与读者共有，作者隐略不现。新小说则不同，它往往利用同一语义场的词语或组合关系在结构中营造语调，叙述者从作者中分离而出，其感情与内容相背。语调的意义在于它的归并性：在一定结构中形成的语调，对结构起着反作用，从而笼罩着结构整体。正如说笑话的人自己不笑则把“笑话”升格为“幽默”、最大的悲痛是不会通过表现悲痛的一般方式（如流泪）表现一样，语调以它的性质反差构成对叙述的极大发挥——最强的叙述仅仅是叙述，也就是说，叙述是“最有力”的表达方式。

语调有客观（Condescending）、冷漠（Cool）、讽刺（Ironic）、说教（Didactic）、严肃（Serious）、亲切（Affectionate）、温和（Warm）、幽默（Humorous）等。¹⁹⁾当代小说的语调发展是一个渐进过程，可表示为：

语调：正面情感 → 负面情感 → 理性（叙述表达“无”情感）

新时期初的“伤痕文学”、“反思文学”都有“自省”的性质，叙述者的态度是积极的、主动的。到八十年代中期，再次惊动人们心弦的刘索拉、徐星、残雪、莫言等作家的叙述语调是不恭、放肆、嘲讽，以王朔为极致。第三次“震荡”时（九十年代）叙述者变得客观而冷漠了。试看一例：

- (7) 父亲的手缓慢地举起来，在肩膀上停留三秒钟，然后用力一挥，响亮地打在我的左腮上。父亲的手满是棱角，沾满成熟小麦的焦香和麦秸的苦涩。六十年代赋予父亲的手以沉重的力量和崇高的尊严，它落在我脸上，发出重浊的声音，犹如气球爆炸。（莫言《爆炸》）

在一记重耳光扫击下，主人公肯定眼冒金星，叙述者却仍保持着无动于衷的理性描述，这正是客观语调与冷漠语调的融合。

值得注意的是，叙述者的语调并不使读者讨厌或喜欢作者。语调的产生对作者来说，只是叙述内容感情向叙述文本感情的转移，即作者的故事情绪转化为作者的文本语言情绪，作者并非“情感的零度”，这一转化使叙述者从作者身上分离出来。对一个小说文本，我们可以看到“三种人”：故事的人

19) SHELEY A. WOLF AND MARYL GEARHART, WRITING WHAT YOU READ: NARRATIVE ASSESSMENT AS A LEARNING EVENT, *Language Arts*, Vol.71, NO.6, 1994.

物，叙述者，当然还有作者。叙述者从作者身上的分离，反而留下作者的身影。这个作者是感知的、理会的，是同“我”这个读者一样的人（读者）。阅读传统小说（如下面一段）：

黛玉听见宝玉奚落宝钗，心中着实得意，才要答言，也趋势取个笑儿，不想靛儿因找扇子，宝钗又发了两句话，他便改口道：“宝姐姐，你听了两出什么戏？”宝钗因见黛玉面上有得意之态，一定是听了宝玉方才奚落之言，遂了他的心愿，忽又见他问这话，便笑道：“我看的是李逵骂了宋江，后来又赔不是。”宝玉便笑道：“姐姐通今博古，色色都知道，怎么连一出戏的名儿也不知道。就说了这么套。这叫做‘负荆请罪’，”宝钗笑道：“原来这叫‘负荆请罪’！你们通今博古，才知道‘负荆请罪’，我不知什么叫‘负荆请罪’。”（《红楼梦》第三十回）

面对这段“公案”，我们沉浸在故事的起承转合、人物的喜怒哀乐之中，是不会想起作者曹雪芹的。新小说家们却通过语调透露着自己的印迹，²⁰⁾并让读者认识到“叙述者是叙述者，作者是作者”，作者通过这种“委曲求全”、不强迫接受的方式获得更为主动的地位，得到更为深切的认同。罗兰·巴特（Roland Barthes, 1915~1980）认为“无风格或‘无色彩’的写作方式最终也被证明是不可能获得的，因为它很快就成为引人注目的风格”。²¹⁾这也许从侧面说明叙述主观性的抑制是必要的，它使得叙述本文更有可接受性。

4.3) 填充了文体内涵，导引了接受方式

小说在传统观念中是传达“真实故事”的文体，它是独立存在的时间艺术。在叙述新方式作用下，这种观念慢慢地发生嬗变。“世界既不是有意的，也不能是荒谬的。它存在着，如此而已”。²²⁾新小说家们的作品不在于苦寻意义，而在于“存在”本身。他们对理性因果精心设置的情节极为反感，认为人生存在一瞬间，过去、现在、将来同时存在，体现“互渗思维”的特征。新小说的故事，许多没头没尾、结尾回到开头、小说结束故事还在继续。作者单方面对“怎么写”的强调，使语言成为最重要的存在。叙述的外观

20) 叙述学中分作者、隐含作者、叙述人、隐含读者、读者，为免繁琐，本文不作此细分。

21) [英]霍克斯 (Hawkes, T.). 结构主义和符号学[M]. 瞿铁鹏译. 上海：上海译文出版社，1987：110。

22) 徐剑艺. 小说符号诗学[M]. 杭州：浙江大学出版社，1991：164。

手段使小说成为准空间艺术，叙述的语体手段和角度手段使小说与作者、读者共时不分，调整着二者关系也即人与人的关系，从一定程度看实现着社会关系连接的功能。

在欣赏接受上，“老派小说读意义，新派小说读句式”。读者不是阅读之后，忘记语言和作者，以获得一个故事和小说中发生的一切，而是注目于语言本身并在阅读当时与“作者”交流、共同建构。由此，审美定位即对接受对象的美学特征所具有的知识、经验、兴趣发生了变迁。读者可从新小说家别出心裁的叙述方式中，发现其特别的感知方式和语言风格的魅力。阅读余华的《世事如烟》，读者可以发现叙事的“自在流动状态”，叙述人的感觉和角色的感觉形成双向交流，现实的感觉、幻觉与梦中的想象浑然一体；看格非的《褐色鸟群》则感到，真实与幻觉已经接通，过去与明天紧紧握手。

4.4) 改造了叙述媒介

结构中的言思可以创造意义，也可以改造语言。试看下列：

- (8) 陆升和我从小一起长大、相互熟悉得如同手足。他不会说话，因为他已有几年不愿说话了，后来就索性不说了。(刘索拉《蓝天碧海》)

这篇小说由冷漠语调叙述，在其“归并性”作用下，我们自然以这种态度来读解。我们发现，其中的语言发生了某些变化。“如同手足”原是“像兄弟般亲密”的意思，有强烈的感情色彩，且一般仅此一个用法。但在这个叙述结构中，它却不再表示一种亲近密切的关系，而仅仅指（熟悉得）像人对自己的手和脚（两种器官），即它的言语意义（能指）发生变化，内涵产生减缩，外延扩大，属于语义泛化。²³⁾如果说人们注重创造意义而使言语所指有所扩充，那么能指的减缩就是与之相反的范畴。这种结果性的能指减缩与修辞中用到的目的性的能指减缩不同，后者被称为“返源格”。²⁴⁾前者却是结构产生的语言变化。这种变化为我们提供了一种极有价值的可能。

我们知道，新小说对叙述方式的利用，有的要表现在词语能所指关系的强制更改、横向组合关系的有意突破及纵向聚会关系的手法加载上。“现代派”、“先锋派”、“后现代”等作品有相当部分显出斧痕，让人觉得生硬。叙述新方式内部良莠并存。反思之余，我们想起了老一代作家的杰出之作：

23) 刘大为. 流行语的隐喻性语义泛化[A]. 汉语学习[J], 1997 (4): 33~37.

24) 王希杰. 返源格[A]. 修辞学习[J], 1989 (3)

她们轻轻划着船，船两边的水哗，哗，哗。顺手从水里捞上一棵菱角来，鞭角还很嫩很小，乳白色。顺手又丢到水里去。鞭角就又安安稳稳浮在水面上生长去了。

后面大船来得飞快。那明明白白是鬼子！这几个青年妇女咬紧牙制止住心跳，摇橹的手并没有慌，水在两旁大声的哗哗，哗哗，哗！（孙犁《荷花淀》）

这样突出的整体韵味，不作交代的直接叙述，叙述感情的淡化，从叙述人、语调、人物（泛化）等方面看，都透露着现代小说的气息。它依赖的却仅仅是典型平凡的语汇、自然常规的组合和单纯低频的辞格使用。还有汪曾祺，谁也不会说他落伍，但他的小说却与很多现代派迥异其体，恰如“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的气韵。我们既然可以在“身体写作”、“欲望小说”、“出名文学”的疯狂中，窥觅现代人特征从而找到某些现代派小说“杂乱无章”的理由；当然，我们更能够从反面确立平凡安静的日常生活追求的当代性，“审美的日常生活化”思潮不是无源之水、无渊之鱼。前人的实践揭示了这一点，结构中的语言变化又复述着。

考察创造意义的反范畴，一方面提醒作者们不致无益地一味改变能所指关系，不致为了创造意义而失去创造的意义，从而更积极地思考创造意义问题，面对语言文字的“一切可能性”而有所选择。另一方面，既然叙述方式造成语言的某种“复原”，反推上去，语言的变化（如“复原”）是否形成某种叙述方式？这成为寻找、发现表达渠道与叙述方法的一径走廊。

4.5) 还原了“叙述”本体

根据叙事学的观点，叙述是叙事文学的一种内部活动，它构成了叙事作品的文体特征；叙述是一种有节制的语言形态，它有极大的同化能力。当叙述语言在构建叙事文体时，被同化语言同时构建次文体。何立伟的“绝句小说”，即是叙事文体（小说）之后隐现诗化文体。

新时期初始的小说创作，从歌功颂德的政治抒情很快转入《伤痕》式的政治控诉与道德渲泄，创作表现为现实主义掩盖下的浪漫主义和理想主义，其艺术性是自我表现性的。在这种情况下，叙述语言构成的叙事文体隐退为次文体，成为了抒情活动（歌颂或控诉）的一种背景。请看：

- (9) 好久好久，她抬起头来，她的苦痛的面庞忽然变得那样激愤。她默默无言地紧攥着小苏的手，瞪大了燃烧着火样的眸子，然后在心中低低地、缓缓地、一字一句地说道：“妈妈，亲爱的妈妈，放心吧，女儿永远也不会忘记您和我心上的伤痕是谁戳下的。我一定不忘党的恩情，紧跟党中央，为党的事业贡献自己毕生的力量！”

夜，是静静的。黄浦江的水在向东滚滚奔流。忽然，远处传来巨轮上汽笛的大声怒吼。晓华便觉得浑身的热血一下子都往上沸涌。于是她猛地一把拉住了小苏的胳膊，下了台阶，朝着灯火通明的南京路大步走去……

(卢新华《伤痕》)

这种抒情性、自我表现性的话语在当时的“小说”中俯拾皆是（这样些小说似可加上引号）。随后的“反思”文学则是相类的另一种情形，这类创作刻意营造象征，表达哲思，意象是相对静止的，叙述常常被打断、停下来驻足观望，直到叙述者看到新的“智慧”闪光。这样，叙述文体也就隐退到象征之后。如：

- (10) 永恒是什么？那其实是感觉，是生命的波动。

但我思索些什么呢？我什么也没有思索。外面的世界已经完全逸出了马克思所探索出的规律，书本已经被抛弃到一边，据说这才是真正遵循了马克思所说的“批判的武器不如武器的批判”。（张贤亮《男人的一半是女人》）

小说家力图穿透故事，直达历史与现实。他们沉思、考辩。小说中充满了判断句、设问句、反问句，像哲学论稿。由此，简洁的叙述成了附带品，只是时间的推移和场景的变换才让它隐略显现。这种文本的增多，也是判定叙述（何为叙述？）渐失准绳而必须反推的原因。

叙述语言次功能主位化，也就是表达的观念意图大于交流意图，叙述功能于是衰退，小说的故事性、叙事性极大削弱，小说已经不是小说了——小说在某种程度上丧失了本体。回答“什么是叙述”这样的问题，要看“这是不是小说”来决定——如果是小说，那么就是叙述，如果不是小说，那么就难以判定。这是不合理的，判断“叙述”应该遵循其内在的标准。“理归于常”，

叙述的表现性和超越性两个次功能达到极致之后，物极必反，小说终于回到叙述本位上来了。新时期小说的第三次震荡，正说明了这一点，新时期小说创作的发展寻找着“回家的路”。请看：

- (11) 当我转身准备走的时候，有一个人朝我脸上打了一拳，这一拳让我感受到好像是打在一只沙袋上，发出的声音很沉闷。于是我重新转回身去，重新看着那幢房屋。那个十来岁的男孩从里面窜出来。他手里高举着一把亮闪闪的镰刀。他扑过来时镰刀也挥了下来，镰刀砍进了我的腹部。那过程十分简单，镰刀象是砍穿了一张纸一样砍穿了我的皮肤，然后就砍断了我的盲肠。接着镰刀拔了出去，镰刀拔出去不仅又划断了我的直肠，而且还在我腹部划了一道长长的口子，于是里面的肠子一涌而出……然后我才倒在地上，我仰脸躺在那里，我的鲜血往四周爬去，我的鲜血很像一棵百年老树隆出地面的根须。我死了。（余华《死亡叙述》）

这段叙述展示了一个过程，用的是视觉化经验方式。“暴力事件”惊心动魄，叙述却从容不迫，这是叙述。叙述是有节制的，是“中性”的，它是经验的摹写，而不是归纳和分析，也不是极端化的情感酝酿与渲泄。新时期小说，完成了“叙述”这一本体还原。

5、叙述新方式的前景

叙述方式的来源有两种途径。一是由叙述内容导致的，如零式标点结构就是由书写意识流的需要生成的。二是技巧创新带来的，如借鉴域外小说方法在小说中谈小说。前者就像一滴水掉在地上、溅散，我们称其形为“水花”，一滴油落下却形如“一摊”；后者是一瓶水，你可用杯装，也可用碗装，是先有形。前者有基础但不易获得，后者已在手但需检验，二者很难说有高低贵贱之分。但叙述方式及其承载的故事，是不可分的。新时期初始，人们思想获得极大的解放，“写什么”是第一位的（那时的流派也是价值观标准——如“反思”、“伤痕”等）。表现在叙述方式上，多为标点句型等语言手段和内容时空等范畴手段的突破。此后，作家们开始重视人的内心世界、人与人相互之间的心灵沟通及情感的经营传达，即所谓“文学内转”，这就使得叙述方式的发展延伸到文体角度等方面。及至到了先锋派、现代派，“怎么写”成为信条。叙述方式的创新，就扩展到包括外观在内的所有语言手段和

范畴手段，从其流派命名也可看出其形式化的标准。这样看来，叙述新方式并不能从时间流程上评价其趋势；单独衡量“写什么”和“怎么写”孰重孰轻也难以得出结论，我们必须另找突破口。让咱们还是回到叙述语言的特点上来吧。试想，如果我们能找出结构中的言思即叙述结构的某种特征，而这种特征又与语言结构有某种联系，那么这样的叙述方式当然是有意义的。这里，李劫的研究值得借鉴。²⁵⁾

刘索拉的代表作之一《蓝天碧海》有这样的语句：

(12) 蛮子你别忘了，你喜欢的那首歌，“我的心属于我”……你别忘了，小时候把芙蓉花瓣捋下来，算算好运气……你别忘了，不相信人，并不是你的特长……你别忘了，还有一些事情，你想都不会想到……

这种句型组合，如同三拍子乐曲——作者将普通的主谓宾句作了音乐化的加缀。尽管小说主题情绪是忧郁的，语句形式却是明快的，有着“强弱弱、强弱弱”的节奏。这种句型为情绪型。而整篇小说既不注重叙事方式的变幻，也不考虑故事的跌宕，只是演唱般的吟诵，其叙述结构是意绪性的。同理，李劫分析了《棋王》（阿城）、《访问梦境》（孙甘露）、《虚构》（马原）三篇小说，得出语言结构与叙述结构的联系和对应，可表示如下：

语言结构	→	叙述结构
情绪型	→	意绪性
写意型	→	意象性
抽象型	→	梦幻性
叙事型	→	隐喻性

这种探讨有主观性，但也具备一定的阐释力，从中可以体认叙述方式的前景。反观当代小说审美的倾向可知，“意绪性”、“意象性”、“梦幻性”已让位给“隐喻性”，即作者想告诉读者什么，他必须“不告诉”，必须让读者自动感知。这也就是亚里斯多德说的“领悟”，但是“奇字不好懂，普通字又太明白，只有隐喻字最能产生这种效果”。²⁶⁾由字扩展到组合结构，道理是一样

25) 李劫. 论当代新潮小说的语言结构[A]. 文学评论[J], 1988 (5)

26) [希]亚里斯多德. 修辞学[M]. 罗念生译. 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91：176。

的。这样，叙事的本体还原也更好理解了。叙述使作者、叙述者分离，他与读者、作品的关系由“作者 → 作品 → 读者”（单向不交流）变为“作者 ← → 叙述者 ↔ 作品 ↔ 读者”（双向互动）的模式。作者与作品的距离远了，对读者的强制性削弱了，与读者的联系却加强了。这是新小说中，客观叙述、理性叙述与作品中作者读者直接交流、共同参与文本创造的成因。这种情况还在发展，并将维持较长时间。故此，适应小说文体要求，符合审美趋向，能与文本较好结合的叙述方式是有生命力的。

叙述方式是个形式问题，语言技巧、表达方式的引入也会取得一定的成果。但是，一味“反传统”甚至“反文学”，全心于技巧的语言游戏、技法实验，造成意义贫乏与缺失，就属语言情绪与形式关注的过分情况了。下一步即似乎需要有某些“故事情绪”的回归。索绪尔曾说：“语言还可以比作一张纸：思想是正面，声音是反面。我们不能切开正面而不同时切开反面，同样，在语言里，我们不能使声音离开思想，也不能使思想离开声音”。²⁷⁾语言中有个“意义”存在着——小说显然是由“写什么”先行，然后才走到“怎么写”这一段的，正如塞米利安指出的：“优秀的小说语言并不是把读者的注意力不适当地吸引到语言本身，也不是集中到作家身上，不管作家的语言如何具有个人特点，它的任务是使读者的思想集中在故事上，集中在事件上和小说发生的一切上”。²⁸⁾小说创作，可以在开放的状态下不为传统所束缚，不唯创新而创新，立足本土文化和汉语精神积极参与世界文学的对话，努力走出“实验文学”的语义场，书写二十一世纪中国社会经济和文化变迁所导致的人的生存和情感之实。令人欣慰的是，中国作家们已迈出了很大的步伐。从“新写实”到“新状态”、“新历史主义”，小说家们正努力地发掘着叙述的内涵，又注意内容和价值上传统的回归、表达深度追求的回归，营造着现实主义与现代主义的融合。叙述新方式中的各种形式手段，也将于之获得进一步的检验、扬弃和发展。

【参考文献】

- [德]黑格尔. 美学·第三卷下册[M]. 朱光潜译. 北京：商务印书馆，1981年版
 [德]黑格尔. 小逻辑[M]. 贺麟译. 北京：商务印书馆，1979年版

27) [瑞士]索绪尔. 普通语言学教程[M]. 北京：商务印书馆，1980：158。

28) [美]利昂·塞米利安. 现代小说美学[M]. 宋协立译. 西安：陕西人民出版社，1987。

230·中國學 第36輯(2010.8)

- [美]M.H.亚勃拉姆斯. 镜与灯[M]. 郇稚牛译. 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89年版
- [美]利昂·塞米利安. 现代小说美学[M]. 宋协立译. 西安:陕西人民出版社, 1987年版
- [美]萨丕尔. 语言论[M]. 陆卓元译. 陆志韦校. 北京:商务印书馆, 1985年版
- [瑞士]索绪尔. 普通语言学教程[M]. 高名凯译. 北京:商务印书馆, 1980年版
- [希]亚理斯多德. 修辞学[M]. 罗念生译. 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1991年版
- [英]霍克斯 (Hawkes. T.). 结构主义和符号学[M]. 瞿铁鹏译. 上海:上海译文出版社, 1987年版
- Andrew Radford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nguage Arts No. 1, No. 3, No. 6, 1994
- Narrative Discours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SHELEY A. WOLF AND MARYL GEARHART, WRITING WHAT YOU READ: NARRATIVE ASSESSMENT AS A LEARNING EVENT, Language Arts, Vol.71,NO. 6, 1994
- 陈旭光, 冯冀. 读者阅读接受: 阐释与探奥[A]. 名作欣赏[J], 1993 (5)
- 陈旭光. 诗歌语言: 意象符号与文本结构[A]. 名作欣赏[J], 1992 (1)
- 傅腾霄. 小说技巧[M]. 北京:中国青年出版社, 1992年版
- 傅修延. 讲故事的奥秘——文学叙述论[M]. 南昌:百花洲文艺出版社, 1993年版
- 李 劫. 论当代新潮小说的语言结构[A]. 文学评论[J], 1988 (5)
- 良 止, 蒋 勇. 梯级含义与语力的传递[A]. 修辞学习[J], 2003 (6)
- 刘大为. 流行语的隐喻性语义泛化[A]. 汉语学习[J], 1997 (4)
- 刘小枫. 诗化哲学[M]. 上海:华东师大出版社, 1986年版
- 钱钟书. 管锥编·第二册[M]. 北京:中华书局, 2000年版
- 王希杰. 返源格[A]. 修辞学习[J], 1989 (3)
- 徐剑艺. 小说符号诗学[M]. 杭州:浙江大学出版社, 1991年版
- 姚亚平. 当代中国修辞学[M]. 广州:广东教育出版社, 1996年版

周崇坡. 两栖追踪[M]. 香港：中华文化出版社, 1992年版

庄子. 人间世第四 (中英双语版) [M]. 长沙, 北京：湖南人民出版社, 外文出版社, 1999年版

[内容摘要]

本文是小说叙述方式的内涵分析。叙述方式是叙事分析视角构拟的范畴，是小说乃至表达形式分析的出发点。对此的研究，除了归纳形式系统，阐述内涵价值也是重要一环。这种内涵价值主要体现在变化之中。考察叙述变化，本文即从叙述新方式的整体系列分析中开始。主要工作有三：1、叙述新方式的归纳及其成因；2、反映在叙述结构中的叙述方式的总体特征；3、叙述新方式的实质及其意义。

关键词：小说，叙述方式，符号意象，立体表达，语言效能，文本表现，结构言思，叙述语调，文体内涵，叙述还原

[ABSTRACT]

This article is the valuation analysis of the New Narration Styles of Chinese Novels of the new-era (1970's~1990's). Narrative Style i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perspective of novels as well as of expression. In addition to summarized formal system of Narrative Styles, to explain the value of them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analysis. The valuation of these narration styles is mainly reflected in changes. By studying and describing the changes, this article concludes the new approach from the overall series analysis. There are three main points: 1, describing the new style contents of induction and their causes; 2, reflec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structure of the narrative styles; 3, describing the substance and significance of the new narration styles.

232·中國學 第36輯(2010.8)

KEYWORD : Novel, Narration Style, Symbolic Imago,
Three-dimensional Expressing, Language
Performance, Text Performance, Narration
Creation In Structure, Narrative Tone,
Stylistic Connotation, Narrativization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唐宋时期商业信用问题研究*

谭阿勇**

— 〈目 次〉 —

1. 商业信用的内涵及研究状况
2. 商业信用问题的历史追述
3. 唐宋时期商业信用的发展及演变

1. 商业信用的内涵及研究状况

商业信用是信用的一种形式，指的是商品交换和流通过程中买方和卖方之间发生的预购、赊销等信用关系，它包括延期付款和预付货款两种基本形式。从历史发展规律来看，商品交易随着社会分工的出现与扩大而产生，商业信用又随商品交易的产生而壮大。商业信用是商品交易中产生的信用，是商品交易制度和借贷制度结合而成的产物，它的出现是商品交易频繁与商业高速发展的共同结果。

马克思在其论著中对商业信用的内涵、起源和功用进行了解释和分析，深刻揭示了商业信用的本质。关于信用的内涵，马克思认为：“这个运动——以偿还为条件的付出——一般地说就是贷和借的运动，即货币或商品的只是有条件的让渡的这种独特形式的运动”¹⁾。换言之，就是实物和货币的借贷，即高利贷信用和商业信用两种形式。商业信用是商品经济中最早产生的信用，是在商品交易中采取延期付款或预付货款方式而相互提供的信用。就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0.

** 郑州大学历史学院副教授

1) 《马克思恩格斯全集》第25卷，第390页，人民出版社1962年8月版。

中国古代商业而言，最初出现的借贷主要是为了维持生计，用以保证人们正常的生产和生活。随着分工和交换的进一步发展，借贷不断涌现出一些新的内容。在维持生计之外，这些新的内容还呈现出这样一种趋势，即借贷双方都是为了取利而为之。如生产者需要购买原料因缺乏资金而与卖方产生了赊买行为；当然，生产者也可以为了更快的卖出商品而与买方产生赊卖行为。也就是说，伴随着商业关系的产生、发展，交易双方不但形成了买卖关系，同时也由于交易中的延期付款或延期交货而形成了借贷关系，这种借贷关系的实质是授信方与受信方之间的信用关系，其基本特征是以偿还为条件的价值的单方面“让渡”。

商品经济的产生和发展是信用产生的基础。商品经济条件下，各个所有者的商品和货币的持有量是不同的。商品流通过程中，生产者出卖商品以换取货币；而购买者要买进商品，购买者在没有货币的情况下会有借贷的需求，在这种情形下理所当然地产生了简单的赊借行为。随着商品经济的不断发展，市场流通量大大增加，流通速度显著提高，大宗买卖的批量流通会使资金难以及时兑现，给交易带来不便。赊买卖在一定程度上解决了这一难题，它使大宗的批量交易成为可能，促进了商品经济的发展。因此，商品经济是商业信用产生的基础，商业信用是商品经济发展到一定阶段而出现的产物。另一方面，商业信用的发展促进和推动了商品经济的繁荣，二者互为因果，相辅相成。

马克思认为商业信用在商品交易中作为中介具有积极意义，指出“信用的中介作用在这里表现为：一，就产业资本来说，使产业资本由一个阶段转移到另一阶段，使彼此有关和彼此衔接的各个生产部门联系起来；二，就商人来说，使商品由一个人手里运到和转入另一个人手里，直到商品最终出售，变成货币，或者交换成其它商品”²⁾。但马克思又指出了商业信用的消极作用，他认为“商业信用最大限度的运用，会导致生产过程的紧张和扩大，进而导致商品过剩，价格下降，使资本回流延迟”³⁾。

当然，商业信用的消极作用也表现的十分明显。一，制造虚假繁荣，借助于商业信用的购买不能真实反映生产消费和生活消费的实际需要，反映的是虚假购买力；二，造成不合理地占用别人的资金，表现为拖欠他人货款，

2) 《马克思恩格斯全集》第25卷，第546页，人民出版社1962年8月版

3) 《马克思恩格斯全集》第25卷，第546页，人民出版社1962年8月版。

有碍生产资金的周转。一旦消费者不恰当地使用信用消费,就会陷入过度消费的险境,导致资金流通不畅,从而引发一连串的经济纠纷和社会问题。

现代意义上的商业信用指的是工商企业之间相互提供的,与商品交易直接联系的信用形式。包括企业之间以赊销、分期付款等形式提供的信用以及在商品交易的基础上以预付定金等形式提供的信用。其形式主要有:赊购商品、预收货款和商业汇票。

与古代商业信用相比较而言,现代意义商业信用的范围及内涵虽然更为广泛,但二者本质属性是相同的,同样包括预付货款、延期付款、赊卖赊买等基本形式。不过,随着时代的发展及经济观念的改变,现代意义商业信用和古代商业信用也有差别。如现代商业信用的主体是企业,其信用经济关系是企业与企业之间产生的。而古代商业信用的主体不仅是企业之间,在自然人之间也可产生。再如宋代的商业信用活动中经常以实物折充信贷款,结算时也经常以实物折钱,这种现象在是近现代比较少见的。预付货款与预付定金在现代有明显区别,法律概念和法律后果有很大不同,但在古代却区别不大。当然,现代社会最重要的银行信用,因为经济水平和条件的限制,在中国古代是不存在的。总而言之,古代商业信用,可以定义为商品交换中买卖双方采取赊销和预付方式实行延期付款或预付货款而相互提供的信用。

中国学术界对于我国商业信用制度的研究主要集中于当代商业信用的领域,对于古代商业信用的研究总体来看比较薄弱。唐代以前的研究非常少,仅连劭名先生在其《汉简中的债务文书及“贯卖名籍”》一文中,对汉简中涉及到的汉代的赊买卖行为进行了简单的分析和研究。关于唐代商业信用的研究,在论文方面,缪坤和、杨华星在《浅论唐宋时期的信用形式》一文中探讨了唐宋时期的商业信用的发展成因及形式(发表于2003年第5期《思想战线》)。缪坤和在其另外一文《唐宋时期商业信用的发展》中主要研究了唐宋时期的信用形式、信用机构和信用票据(发表于《经济史论丛》的第三辑,中国经济出版社2008年版)。因为宋代商业信用的空前发达,引起了一些学者的注意和兴趣。姜锡东教授对宋代的商业信用作了深入系统地研究(《宋代商业信用研究》,河北教育出版社1993年版)。除此之外,缪坤和的《宋代信用票据研究》、刘秋根的《明清高利贷资本》、李飞等学者主编的《中国金融通史》也对古代信用问题有所论述。近年来,刘秋根先生等学者又对明清时期的商业信用作了进一步的研究,撰写了《明清民间商业信

用票据化的初步发展——以汇票、汇兑为中心》、《明代民间商业信用——兼及消费信用》等论文。国外方面，日本学者加藤繁于1944年发表的论文《宋代的商业习惯“赊”》论证了宋代社会经济关系的发展及对交子、会子的影响。日本的曾我部静雄、中国台湾的赵雅书、对“和买”制度进行了专门的论述（分别见《宋代财政史》第三章，日本生活出版社；台湾的《宋史研究集》第八辑）。

总体来看，学术界对于古代商业信用的研究较少，对于唐代商业信用的研究仅局限于一个方面或一部分，学者们并未进行系统性的深入研究。宋代的相关学术成果虽然有些增加，给我们提供了不少资料可以借鉴，但是对于其研究并不全面。有些重要的经济制度如“预买制度”没有细致的系统研究，宋代商业信用高速发展的原因及唐代对宋代的影响及作用也属研究空白。分析考证唐宋两代商业信用的发展、特点及对商品经济的影响，是探寻中国古代商业信用发展规律的必要途径和方法。通过这种途径对古代商业信用进行研究和论证，最终揭示其发展规律，对当今商品经济社会下商业信用的健康发展大有裨益。

二、商业信用问题的历史追述

商业信用具有悠久的历史，它随着贫富分化和交换的发生逐渐衍生。在欧洲可以追溯到中世纪，在原始的简单交易场所——集贸市场上，商人允许顾客先行得到商品，然后在规定的期限内支付价款。《周礼》中对赊买卖行为早有记载：“泉府掌以市之征布，敛市之不售。……凡赊者，祭祀无过旬日，丧纪无过三月”⁴⁾。据史学家考证，《周礼》中所记载的是春秋、战国时期的历史，关于这段史料中的“赊”，汉代郑玄的“注”和唐代贾公彦的“疏”都解释为赊买官物，而非高利贷。因而可以肯定春秋、战国时期我国已经出现了商业信用性质的赊买赊卖，这是目前在历史文献中能够明确认定的最早的对商业信用行为的记录。

秦汉时期，春秋战国以来的战乱初定，商品经济的发展有了较大起色，商业信用行为明显增多。这一阶段商业信用的发展表现为信用对象物的种类

4) 《十三经疏》，《周礼·卷15》。

有所增加,已经初步形成商业信用交易规则。据连劭名先生考证,汉代贯买卖物品的范围空前扩大,汉简中至少记载了官裘、鹞缕、增布、嫌、系、夏袍、嫌长袍、剑、官物簿等16种商品,其它史料至少记载了酒、铁器、铁农具、粮食、刀等5种商品⁵⁾。汉代出现赊买赊卖的地域也比较广,不仅西北屯戍地区常见,内地的广大地区更是普遍。西北地区的商业信用还主要局限于消费领域,而内地已经从消费领域发展到了流通领域和生产领域。在汉代,赊买赊卖商业信用已经形成基本的制度。如从事贯买卖时双方需要订立契约,并且要有“保任者”(即担保人)或“知见人”(即证明人)作证⁶⁾。但是,汉代商业信用仅是我国商业信用制度发展的一个开端,就目前的史料记载情况来看,这一阶段的商业信用形式是最基本的赊买卖行为,更高级的预付货款行为尚未产生,汉朝廷也没有制定保护民间赊买赊卖的专门法律。因此,春秋战国到秦汉时期,是中国商业信用的产生与初步发展阶段。

魏晋南北朝时期,商品经济处于低谷,直接导致了商业信用行为十分少见。直到中国唐代,社会商品经济飞速发展,商业信用才再度兴盛。赊买卖作为商业信用的基本形式不仅得到了普及,还有了更新的发展。唐代后期,甚至在流通领域产生了“飞钱”这样的信用证券。

到了五代十国,硝烟四起,战乱频繁。商业信用在唐代的基础上虽有发展,但再次陷入低迷。直至两宋,商业信用开始飞速发展。如预收、预付货款这种高级商业信用形式就最早出现于宋朝,在流通和生产领域,茶、盐、酒、粮食、布帛等物的买卖大量采取了延期付款和预付货款的方式。不仅如此,宋代的商业信用行为已上升至法律范畴,由国家进行立法,用国家强制力对其进行认可和保护,开始初步形成一套相对完整的法律体系。

三、唐宋时期商业信用的发展及演变

(一) 唐代商业信用的发展

5) 参见连劭名先生:《汉简中的债务文书及“贯卖名籍”》,载《考古与文物》1987年第3期。

6) 参见连劭名先生:《汉简中的债务文书及“贯卖名籍”》,载《考古与文物》1987年第3期。

唐王朝建立后，结束了魏晋南北朝长期分崩离析的局面，商品经济的发展也走出衰落阶段而居于世界前列。由于商品经济的活跃，商业活动空前兴旺，在社会经济生活中发生了诸多信用业务，如高利贷信用、商业信用、消费信用和国家信用等等。其中，商业信用是社会经济生活中最为广泛的一种信用业务。

第一，从唐初的信用不甚发达到唐中期的赊买卖成为普遍行为，显示了商业信用的飞速发展。

从目前文献记载来看，唐初在商品流通过程中的预付货款、延期付款等信用行为的记载非常之少，反映出这一时期的商业信用不甚发达，信用行为还尚未成为商品买卖过程中所采用的普遍行为。唐中期，随着商业经济的发展，赊买卖行为开始普遍出现在流通和生产领域。如《太平广记》的《章仇兼琼》一文中记载：“有一鬻酒者，酒胜其党，又不急于利，赊贷甚众。每有纱帽藜杖四人来饮酒，皆至数斗，积债十余石，即并还之”⁷⁾。在其《杜鲁宾》一文中又记载：“建康人杜鲁宾，以卖药为事。尝有客自称豫章人，恒来市药，未尝还值，鲁宾善待之。一日夏至，市药甚多，曰：‘吾欠君药钱多矣，今更从君求此。吾将还西，大市版木，比及再来，足以并酬君矣。’杜许之。既去，久之乃还，赠杜山桃木十条，委之而去，莫知所之”⁸⁾。上述这两篇文章都描述了购买者预先拿到货物而后支付货款的赊买行为。除此之外，唐代酒店楼肆赊卖的习惯还充分反映在诗人的诗文当中。著名的诗人白居易就有“忆昔羁贫应举年，脱衣典酒曲江边”的诗句⁹⁾。诗人郑谷也写下“自说来年捻，前村酒可赊”的调侃之语¹⁰⁾。唐德宗时期，京畿地区也经常会出现“先敛而后给直¹¹⁾”的赊买商业信用行为。可以看出，在唐代，人们对赊买行为不仅认同而且已经将其习惯化和生活化，使之成为常态的经济行为。

第二，唐代民间的商业信用主要发生在消费领域，官府的商业信用主要体现在粮食流通领域方面。

唐朝民间商业信用在消费领域特别发达。如食盐是日常生活必需品，盐

7) 李昉等：《太平广记》卷1第40《神仙》40。

8) 李昉等：《太平广记》卷1第86《异人》6。

9) 白居易：《白氏长庆集》卷28，《府酒五绝·自劝》。

10) 郑谷：《云台编》卷上，《张谷田舍》。

11) 马端临：《文献通考》卷21《市采考2》。

商在贩卖食盐中常采取先赊销食盐、后换取米谷杂物的行为,这样可使买卖双方两得便利。唐穆宗时,韩愈曾在其奏折《论变盐法事宜状》中指出:“臣今通计所在百姓,贫多富少。除城郭外,有见钱余盐者,十无二三,多用杂物及米谷博易。盐商利归于己,无物不取。或从赊贷升斗,约以时熟填还,用此取济,两行利便”¹²⁾。可以看出,城市和乡村的私营工商业者大都采用赊卖的交易方式向消费者提供商业信用。唐代赊卖的商品范围极其广泛,除食盐外还有酒、粟、麦等等,几乎包括了人们的日常生活和消费物品。甚至不动产也可以赊买卖,仍然是《太平广记》,其卷389《源乾曜》记载了一则赊买卖土地的例子:“泓师自东洛回,言于张说,缺门道左有地甚善,……后泓复经缺门,见其地已为源氏墓矣。回谓说曰:‘天赞源氏者,……问其价,乃赊买耳……’”¹³⁾。

唐朝官府的商业信用包括官府向民间提供信用和民间向官府提供信用这两种类型。唐玄宗开元年间,针对租庸使宇文融主持下征得客户数百万钱的情况,下诏曰:“其客户所税钱,宜均充所在常平仓用。仍许预付价直,任粟麦兼贮”¹⁴⁾。在这里,官府要向粟麦出售者预付货款;另外,天宝六年(公元747年)太府少卿张瑄奏:“准四载五月并五载三月敕节文,至贵时贱价出棗,贱时加价收余。若百姓未办钱物者,任准开元二十年七月敕,量事赊棗,至粟麦熟时征纳”¹⁵⁾。这是一则关于官府延期付款的商业信用行为的文献记载。

民间向官府提供商业信用,主要体现在唐朝廷为边地赊买军粮的和余政策中,即朝廷采取了先向民间入中粮草,后向民间支付货款的赊购办法。如唐穆宗时吴武陵的奏折中提到的:“前在朔方,度支米价四十而无逾月积。皆先取商人而后求牒还都受钱”¹⁶⁾就反映了这一政府行为。

第三,唐代中后期,为适应商品经济发展的需要,商业信用行为的业务量不断增加。在长安、扬州等商业发达城市中,为便利豪商巨贾存取货币,出现了许多专营钱币存取与贷出的金融机构——“柜坊”,官吏豪商在“柜坊”

12) 马端临:《文献通考》卷21《市余考2》。

13) 李昉等:《太平广记》卷1第309《冢墓》1。

14) 欧阳修等:《旧唐书》卷105,《宇文融传》。

15) 王钦若,杨亿等:《册府元龟》卷502,上海古籍出版社。

16) 董诰,徐松等:《全唐文》卷718《谏窦易直》。

中存钱，少则数万贯，多则数百万贯。同时为解决钱币的远距离兑换问题，宪宗元和年间还出现了由藩镇设在长安的“诸道进奏院”和有势力富商经营的“飞钱”，实行货币汇兑业务。《新唐书·食货志》中记载：“时商贾至京师，委钱诸道进奏院及诸军、诸使富家，以轻装趋四方，合券乃取之，号‘飞钱’”¹⁷⁾。“柜坊”和“飞钱”等有偿证券的大量出现和普遍使用，显示出唐代后期的社会商业信用正在逐步形成更高级的信用形式，这为宋代交引、交子、会子的出现打下了良好的经济基础。

(二) 宋代商业信用法律体系的形成

唐朝之后的五代十国时期，中国再次陷入战乱，商品经济的发展随之停滞不前，商业信用发展缓慢。直到两宋时期，中国商品经济再度快速兴起，商业行为更为活跃。宋朝的商业信用不仅得到了较大的扩充和发展，并且较高层次的行为形式一直在经济活动中占据了重要地位，甚至无论在流通领域，还是在生产领域都出现了需要借助商业信用才能完成经济活动的现象。因此北宋苏辙发出了这样的感慨说：“夫商贾之事，曲折难行。其买也，先期而与钱；其卖也，后期而取直。多方相济，委曲相通，倍称之息，由此而得”¹⁸⁾。

在这一时期，商业信用法律体系初步形成，具体表现在以下几个方面：

首先，宋代商业中消费信用与生产信用及其普遍和盛行，这是商业信用法律体系能够建立的经济基础。

苏轼在哲宗元祐七年(公元1092年)知扬州时的奏议中说到：“商贾贩卖，例无见钱。若用见钱，则无利息。须今年索去年所卖，明年索今年所除，然后计算得行，彼此通济”¹⁹⁾。苏东坡的言论反映出，北宋时期的商业经济中，信用赊卖已经成为一种普遍采用的业务形式和经济现象，得到了官府的认可及保护，同时也得到交易市场的认同和趋从。

宋朝在商品零售业中经常出现赊买卖行为。在南宋末期京城临安的粮食

17) 宋祁，欧阳修等：《新唐书》卷54《食货志》。

18) 苏辙：《苏辙集·栾城集》卷35《制置三司条例司论事状》。

19) 苏轼：《苏东坡全集·奏议》卷11《论积欠六事并乞检会应诏所论四事一处行下状》。

交易中, 赊卖、分卖等经营方式极为流行。吴自枚在其《梦梁录》中记载: “且言城内外诸铺户, 每户专凭行头于米市作价, 径发米到各铺出粜, 铺家约定日子支打米钱”²⁰⁾。米商将产于苏湖淮广等地的大米大批量运输到杭州后, 由专门的“米行”批发给各家米铺, 米铺并不立即支付价金, 而是“约定日子”清结货款。这种赊买卖行为加快了大米的流转速度, 促进了交易行为的建立和完成。

除此之外, 在布帛、茶、盐等重要商品的大宗交易中, 无论是客商与铺户之间, 还是官府与民众之间, 赊买卖都非常盛行。宋神宗在熙宁十年(公元1077年)就下诏曰:“今后客盐入京, 并于市易务中卖。本务依市价收买。虽贱, 每席不得减十贯, 并画时支还见钱。其京城内外诸路贩卖盐人, 并于本务给印历请买, 愿立限赊请者, 听”²¹⁾。南宋淳熙十二年(公元1185年)十一月的南郊赦文、光宗绍熙二年(公元1191年)、五年(公元1194年)的南郊赦文中也都有类似规定的条款。

宋朝民间信用的最大发展是在商人与生产者之间的赊买卖活动中产生了较高级的商业信用形式——预付货款, 并在某些地区、某些商品的生产流通过程中形成了习惯, 得到了人们的普遍认可和遵从。如砖瓦行业就有预约定钱之惯例。再如四川地区的茶商在与茶园的茶叶交易中, 常采用预付货款的交易方式。熙宁十年三月, 吕陶曾奏称:“茶园人户……自来来年留下客放定钱, 或指当茶苗, 举债负。准备粮米, 雇召夫工。自上春以后, 接续采取。乘势高下, 相度货卖”²²⁾。

另外, 福建荔枝的买卖也采取了预付货款的办法。据蔡襄在其《荔枝谱》中描绘, 当时福建一带种植的荔枝, 销售的基本形式就是预约买卖。每年荔枝“初着花时, 商人计林断之以立券, 若后丰寡商人知之, 不计美恶悉为红盐者。水浮陆转, 以入京师。外至北漠、西夏, 其东南舟行新罗、日本、流求、大食之属, 莫不爱好, 重利以酬之。故商人贩益广, 而乡人种益多, 一岁之出不知几千万亿”。

欧阳修所著《洛阳牡丹记》也有人们预买牡丹的记载:“洛阳之俗, 大抵好花, 春时城中无贵贱皆插花”, 很多富豪之家与“花户”签订预买契约的

20) 吴自枚:《梦梁录》卷16《米铺》。

21)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230, 中华书局点校本。

22) 吕陶:《净德集》卷1《奏具置场买茶旋行出卖远方不便事》。

方式来满足其消费需求。在“秋时立券买之，至春见花，乃归其直”²³⁾。

其次，与前朝比较而言，宋代官民之间的商业信用极其发达，已经制度化、固定化和法律化了。

宋朝政府向民间提供的信用赊卖的范围相当广泛，既有茶、盐、布帛、粮食等商品，也有茶引、盐钞、度牒这样的有价证券。北宋大臣吴充曾在和神宗皇帝谈话时提到：“茶法……立法之初，许商人入邕粟边郡执交钞至京师，或使钱或银、绸、绢或香药、象牙为所欲，商人便之，故法大行”²⁴⁾。王安石变法期间，朝廷在推行市易法之后，更是有组织有计划地进行政府信用赊卖，凡市易司、市易务拥有的商品都可赊卖，范围极其广泛。

不仅如此，宋朝廷对很多商品的预买都形成了固定的法律制度，政府不断制定各种律、令、诏、敕对“预买制度”进行保护。如在四川地区曾经实行过预订麻布制度。范镇在其《东斋记事》中就记载了成都府路在天圣年间“布一匹三百文，依其价，春给以钱，而秋令纳布，民初甚善之”²⁵⁾。宋朝廷还在淮南东西路、浙江西路产盐区，实行过向生产食盐的亭户预付盐本钱的制度。宋孝宗乾道三年五月，“提举两浙西路茶盐公事姚宪言：‘祖宗旧法：支盐本钱，分上下两次。先以上次五分发下催煎场，呼名支散，贫户下户均沾本柄。下次五分，留买纳场，候发盐到秤见实数，却行贴支。行之久远，岁有增羨’²⁶⁾”根据姚宪的奏言不难推断出东南产盐区当时存在的预付盐本钱制度是“行之久远”的“祖宗旧法”。宋真宗时期创设的“和预买绸绢制度”更是推广到了全国大多数地区，成为关系到两宋国计民生的一项重要国策²⁷⁾。姜锡东教授和日本学者曾我部静雄都曾著述对“和预买绸绢制度”进行深入细致的研究。

宋朝廷制定的“预买制度”不仅持续时间很长，而且范围广泛，涉及到了生产和生活的各个方面。预买的商品不仅包括上述的茶、盐、布等日用

23) 欧阳修：《欧阳文忠公文集·洛阳牡丹记》。

24) 徐松：《宋会要辑稿》食货30之11，中华书局1957年版。

25) 范镇：《东斋记事》卷3。

26) 徐松：《宋会要辑稿》食货27之18，中华书局1957年版。

27) “和预买绸绢制度”是典型的官府预买制度，始于宋真宗时期，春季官府向民户预付货款，民户受钱者到夏秋交纳绸绢。三司判官马元方认为“方春民力乏绝，请预给库钱，约而夏秋令输绢于官”。但到了南宋高宗时期，逐渐演变成了一种赋税政策，失去了其最初的作用。

品,还包括矿业品、兵器等重要物资。这些不同种类的“预买制度”虽然客体不同,但其发展轨迹大都相似。在其制度成立前期,预付货款讲究自愿且商品价格公平合理,是宋朝廷向民户提供的一种商业信用,能够极大推动当时商品经济的发展。但是到其制度后期,由于政府腐败、战乱频繁,财政拮据等多种社会因素,使得“预买制度”逐步发生演变,成为强加于民的官营高利贷或巧取豪夺的赋税政策,从而失去了其原有的作用。

第三,为了适应经济的飞速发展,在金融货币业方面,北宋时期出现了种类繁多的信用票据,政府为此出台了大量法律法规加以规制和引导。

社会经济的空前发达,促进了商业信用的高速发展,宋代出现了各种各样涉及各个行业的有价信用票据,如交引、保状、契约等。宋代的交引是茶引、盐钞、矾引、钱引等专用于赈余军需粮草和禁榷专卖品批发销售领域的各种有价信用票据的统称。它名目繁多,性质复杂,对当时的商品经济影响巨大。《文献通考·征榷考》中记载:“商贾之欲贸易者,入钱若金帛京师榷货物,以射六务十三场茶。给券随所射予之,谓之交引”²⁸⁾。它是宋代朝廷发行的有价证券,代表着一定数量的金钱、财富,体现了政府与商贾之间的信用关系。

两宋时期,宋朝廷用诏、敕等多种法律形式对交引的种类、价格、买卖的方式、甚至买卖的市场进行干预和管理。如《长编》中记载:熙宁八年(公元1075年),宋朝“令市易司、买钞场,依商人例以钞请盐自卖”²⁹⁾,可以看出,宋朝廷设置了专门的机构,并制定专门的法律来管理交引。再如《宋史·食货志》中记载宋徽宗政和元年(公元1111年),“诏陕西钞依钞面实价,辄增减者,以违制论”不许官私随意抬高价格³⁰⁾。这样的记载反映出了政府对交引的严密的法律管制。

再次,北宋天圣二年(公元1024年)中国最早的纸币——交子的产生,使得中国古代社会商业信用站在了当时世界商品经济的最高端,比西方国家领先了六百多年。为此政府设立了专门机构并在不同时期根据不同经济关系多次修改法律予以保护。

由于宋代实现了中原和南方的基本统一,交通运输畅通,国民经济具有

28) 马端临:《文献通考》卷18《征榷考5》。

29)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263,中华书局点校本。

30) 徐松:《宋会要辑稿》食货55之31,中华书局1957年版。

了良好的商品流通环境。北宋时江南、四川等发达经济区中集市的数量逐渐增加,标志着商品经济的发展已从城市渗向农村,形成了以城市为中心,结合草市、镇市、虚市而构成的多层次的全国性的市场体系³¹⁾。市坊制的瓦解是宋朝商品经济发展最显著的表现,北宋的商业贸易活动不再有唐朝时那种对地域和时间的限制,使商人获得完全自由³²⁾。

商业和商品流通的扩大,客观上要求有相应的货币流通来满足其发展的需要。铜钱、铁钱这些古老而沉重的流通手段越来越不适应经济发展的需要,极为轻便的交引和纸币更加有利于大宗交易和长途贩卖业务的发展。在“飞钱”原理的影响下,北宋淳化五年(公元994年),四川商民自己开办兑钱业务,采用交子之法。北宋“天圣元年(公元1023年)冬,始置官交子务”³³⁾,意味着朝廷承认了这项业务的合法性并收归官营。同时在此基础上作了进一步发展,对商人交钱换取的票据进行了规范和统一,确定了每张楮券的票面值,且发行中诸如发行数额、期限等均须呈报朝廷核准,使交子产生了类似银行证券的功能。同时又规定准备金的数额,明令禁止民间发行、伪造等等。如李攸在其《宋朝事实》中记载:“今后民间,更不得似日前置交子铺……若民间伪造,许人陈告,支小钱五百贯,犯人决讫,配铜钱界”³⁴⁾。

与北宋相比,南宋时期法律变异较大。南宋将交子改称会子,朝廷在杭州设立“行在会子务”专门管理并印制“会子”。“置行在会子务,后隶都茶场,悉视川钱引法,行之东南诸路,凡上供军需,并同见钱,仍分一千、二千、三千,凡三等。盖权户部侍郎钱端礼主行之,仍赐左帑钱十万缗为本,初命徽州造会子纸,其后,造于成都”³⁵⁾。并且随着会子发行量的逐渐增多,也为了防止伪钞的流通,政府改革会子的发行制度,乾道四年(公元1168年)议定立界限额发行会子,“三年立为一界,界以一千万缗为额”³⁶⁾,且到期作废,以新换旧,先后印造了一千文、两千文、三千文及二百文、三百文、五百文六种面值的会子。从公元1171年到公元1240年,共发行了十八届会子。后来朝廷又立法规定第十七、十八届会子可以永久流通,这是世界

31) 参见宋杰:《中国货币发展史》首都师范大学出版社1999年版

32) 参见宋杰:《中国货币发展史》首都师范大学出版社1999年版。

33) 李心传:《建炎以来朝野杂记》卷10。

34) 李攸:《宋朝事实》卷15。

35) 李心传:《建炎以来系年要录》卷188。

36) 脱脱等撰:《宋史,食货志》卷181,中华书局点校本。

上首次真正意义上由政府发行的纸币。

从具有实际价值的金属货币铜钱，到仅仅是由民间富商在印刷图案的纸上签名题号就可将其作为与铜钱同等价值的货币流通，会子无疑是社会商业信用发达到一定程度的产物。因此，加藤繁指出：“无论柜坊制度，或者飞钱制度，都是信任营业者，把钱物寄托给他们；而赊的制度，则信任对方，在收代价之前，先交付货物。……从飞钱、赊，以及因为赊而造成的种种票据的盛行看来，可以承认：在唐、宋，尤其在宋代，商界已经建立了信义，足以作为征象和证明的票据已经正在发达起来”³⁷⁾。

南宋会子发行初期，由于政府措施得当，发行谨慎，能够维持其币值。淳熙十二年（公元1185年），宋孝宗因担心会子贬值曾对大臣说过：“朕以会子之故，几乎十年睡不着”³⁸⁾，由此可见封建统治者对纸币发行的重视程度。但自宁宗开禧年以来，宋金之间常年的战争使得国库空虚，财政窘迫。政府为了筹措军费，除增加百姓的税收外，大量印造纸币维持国用，从而引起通货膨胀，导致物价飞涨，民不聊生。如宁宗嘉定年间，由于会子发行过多，政府另外发行新会子，以旧会子二换新会子一的比率，收兑旧会，结果“新令一行，物情疑骇，怨咤之声，盈于道路，豪家大姓至有聚楮而焚于通衢者”³⁹⁾。再如度宗咸淳元年（公元1265年），宰相贾似道建议发行新的纸币——“金银见钱关子”，结果“关子行，物价顿踊”⁴⁰⁾。南宋朝廷无视商品经济发展规律，肆意破坏金融货币制度，使得国家经济崩溃，最终导致了政权灭亡。

最后，宋朝廷不断的制订和修改法律法规，使得其商业信用法律体系得到了逐步的扩充和完善。

《宋会要辑稿·食货37》中记载了真宗乾兴元年（1022年）六月的一个诏令：“在京都商税院并南河北市，告示客旅等。自今后如将到行货物色，并须只以一色见钱买货，交相分付。如有大段行货，须至赊卖与人者，即买主量行货多少，召有家活物力人户三五人以上递相委保，写立期限文字交

37) (日)加藤繁：《中国经济史考证》第2卷，《宋代的商业习惯“赊”》第5页，吴杰译，商务印书馆1959年版。

38) 洪迈：《容斋三笔》卷14。

39) 吴泳：《鹤林集》卷21《缴薛极赠官词头》。

40) 《宋季三朝政要》卷3。

还。如违限，别无抵当，只委保人同共填还。若或客旅不切依禀，只令赊买人写立欠钱文字，别无有家业人委保，官中今后更不行理会。若是内有连保人别无家活，虚作有物力，与店户、牙人等通同蒙昧客旅，诳赚保买物色，不还价钱，并乞严行决配”⁴¹⁾。这是宋真宗针对日益流行的赊买卖活动中产生的诸多问题而颁布的一道诏令，规定必须签订契约文书、明确支付现钱期限，确定担保人等，这是现今所能见到的关于赊买赊卖问题最早又比较全面的立法规定。

在宋真宗之后，不断有关于赊买赊卖的规定或补充性的立法，以完善这方面的商业信用体系。其中，最著名的就是宋神宗时期市易法。市易法是宋神宗熙宁五年针对京都开封大商人囤积居奇、操纵物价的经济形势而创立的，是这一时期王安石新法的重要内容之一。政府拨出专用资金一百万贯，在开封设置“市易务”，平价收购商贩不能售出的货物，等到市场缺货时再卖出去。商人向市易务交纳一定的抵押品，就可以赊购市易务储存的货物出去贩卖。“以抵当物力多少，许令均分赊请，相度立一限或两限送纳价钱。若半年纳，出息一分；一年纳即出息二分”⁴²⁾。另外规定：“市易司法听人赊贷县官货财，以田宅或金帛为抵当，三人相保则给之。皆出息十分之二，过期不输息外，每月加罚钱百分之二”⁴³⁾。政府通过市易务向民间提供的这种信用赊卖，对于那些现金不多的中小商人来说，是极为有利的。市易法后来虽然发生了变化，但信用赊卖这一内容一直持续到神宗去世，共推行了14年。

除此之外，贯穿于整个两宋时期，不断修订和变化的茶法、盐法和酒法等专卖法中，有关赊余、赊棗……等等之类的规定、约束细琐繁多。这显然也是对商业信用法律体系的有益补充，它们和市易法共同构成了两宋商业信用法律体系。

四、唐宋时期商业信用述评

(一) 唐宋时期商业信用的特点

41) 徐松：《宋会要辑稿》食货37之9，中华书局1957年版。

42) 徐松：《宋会要辑稿》食货55之31，中华书局1957年版。

43) 司马光：《涑水记闻》卷14，中华书局1957年版。

第一,从类型上看,除了赊买卖行为以外,唐代开始出现了预付贷款的业务。到了宋代,预付贷款开始勃兴,涉及到商品流通的各个方面,成为一种普遍现象。这一时期的商业信用,既有商人之间的信用活动,又有商人直接与生产者之间建立的信用关系。从形式来看,其商业活动已经具备了赊买卖和预付贷款的两种基本信用形式。

第二,从唐到两宋时期,商业信用行为经历了由仅在消费领域大量存在,发展至普遍出现于流通领域,到最终延伸到生产领域的历史演变过程。

从魏晋到隋唐五代,面向消费者的信用业务占了整个商业信用业务的绝大多数。到了宋代,商业信用较多的出现在生产领域,直接为商品生产服务。商人向农民、茶园户、矿冶户等预付贷款并形成了一定的制度,其中影响最大的“和预买绸绢”制度在当时有力的促进了纺织业的发展。

第三,相关的法律法规趋于完善,初步形成了商业信用法律体系。上文业已提及,此处不再赘述。

第四,因其时代的局限性,唐宋时期商业信用存在着弊端和不足。

由于没有约束官府自身的法律,宋朝政府在赊买商人粮草时经常失信。政府一无直接的担保人,二无具体的偿付期限,这种信用本身就不牢靠。如真宗时,因为北方前线吃紧,军需浩繁,政府向民间赊买了巨额粮草。但政府方面的茶叶产储量根本不足以偿付,“不充其给,交引停积。故商旅所得茶,指期于数年以外。京师交引愈贱,至有才得所入当粟之实价者”⁴⁴⁾。宋徽宗时,“京师无见钱之积,而给钞数倍于昔年。钞至京师,无钱可给。遂至钞直十不得一,边郡无人入中,来买不敷”⁴⁵⁾。当然,政府偿付民间赊卖物时的失信行为也是政治腐败的人为结果。

另外,商业信用的发展也增加了经济生活中的投机行为。不过,这是一切社会所有信用的共有现象。

(二) 唐宋时期商业信用对商品经济的影响

44) 脱脱等撰:《宋史》,《食货志·茶》卷183 志 136 中华书局点校本。

45) 脱脱等撰:《宋史》,《食货志·茶》卷182 志 135 中华书局点校本。

第一，节省流通费用。

某些交易及交易的某些阶段完全不用货币，大大降低了交易成本，节省了流通费用。如商人向政府入中粮草而政府偿以茶盐等物的交易，商人向农民赊卖茶盐而购得粮米的交易，都未使用货币⁴⁶⁾。

第二，加速了商品流通和商品转化为货币的速度。

信用行为不仅可以使资金不足的商人能够从事商品流通，也可以使那些没有资金的商人从事商品流通，为他们省去了筹集资金的时间。加藤繁明确指出：“由于这种（赊）习惯的形成，大约商业资本发挥了几倍的效力，物资的流通更加圆滑，通货的使用也大为节约”⁴⁷⁾。

总体来看，唐宋时期的商业信用与其商品经济的发展程度相适应，其中出现的一些信用制度在当时起到了促进商品经济发展的积极作用。唐宋各朝统治者从自身利益出发，通过各种手段对商业信用行为进行了多方面的约束和控制。这些约束和控制对当时商业信用的发展具有积极意义，值得我们肯定和借鉴。但封建法律并不是真正从商人的立场和利益出发，而主要是为了维护封建的统治秩序，故而既不能从根本上保证商业信用的正常运转，也不能在此基础上扩大商业信用外延，使商业信用向新的领域及更高的层次发展。

[参考文献]

《十三经疏》之《周礼》。

欧阳修等：《旧唐书》。

宋 祁，欧阳修等：《新唐书》。

董 诰，徐松等：《全唐文》。

脱脱等撰：《宋史》中华书局点校本。

46) “入中”、“折中”是宋朝的一项重要制度。在盐、粮草等物的买卖中，商人将物货入纳沿边州军或京师，叫“入中”；官府异地支偿茶、盐、香药和钱等叫“折中”。戴裔焯在《宋代钞盐制度研究》中认为：“所谓入中，即商人以刍粟等物输纳于政府之义，所以亦称为中纳或入纳；至于折中则谓将商人所入中货物，优其值以缗钱或茶盐香矾等物折合而偿还商人之谓，故亦谓之折博。”

47) (日)加藤繁：《中国经济史考证》第2卷，《宋代的商业习惯“赊”》第137页，吴杰译，商务印书馆1959年版。

- 徐 松：《宋会要辑稿》中华书局1957年版。
- 李 焘：《续资治通鉴长编》中华书局点校本。
- 马端临：《文献通考》。
- 王钦若，杨亿等：《册府元龟》上海古籍出版社。
- 司马光：《涑水记闻》中华书局1957年版。
- 韩 愈：《昌黎先生集》。
- 白居易：《白氏长庆集》。
- 欧阳修：《欧阳文忠公文集》。
- 苏 轼：《苏东坡全集》。
- 苏 辙：《苏辙集》。
- 吴自枚：《梦粮录》。
- 吕 陶：《净德集》。
- 李昉等：《太平广记》。
- 李 攸：《宋朝事实》。
- 李心传：《建炎以来朝野杂记》、《建炎以来系年要录》。
- 范 镇：《东斋记事》。
- 郑 谷：《云台编》。
- 宋 杰：《中国货币发展史》首都师范大学出版社1999 年版。
- 连劭名：《汉简中的债务文书及“贵卖名籍”》载《考古与文物》 1987年
第3期。
- 《马克思恩格斯全集》第25卷，人民出版社1962年8月版。
- (日)加藤繁：《中国经济史考证》吴杰译，商务印书馆1959年版。

<中文提要>

商业信用是指商品交换和流通过程中买方和卖方之间发生的预购、赊销等信用关系。它的出现是商品交易频繁、商品经济发展的结果。唐代的商业活动较之魏晋南北朝而言更为活跃和多样化，从史料上来看，这一时期的商品流通过程中虽然有预付货款和延期付款等行为，但信用行为并未成为普遍行为。中国古代社会商业信用体系的逐渐形成及完善是在两宋时期完成的，这种在当时极为先进和科学的经济制度的建立推动了宋代商业经济走向繁荣

并达到了高峰。

关键词 : 唐宋时期 商业信用 经济政策 发展演变 述评

<ABSTRACT>

Business credit means the credit relationship between seller and buyer during the exchanges of goods. It is a result of common exchanges of good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business activities in Tang Dynasty were more active and varied than those in Wei&Jin Dynasties. According to the record of history, although payment in advance and delayed payment appeared during that period, business credit had not become common activities. It i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Song Dynasties that ancient Chinese business credit system came into being and developed into complete form. At that time the founding of this advanced and scientific economic policy promote the business economy of Song Dynasty to it's prosperous time.

KEYWORD : Tang and Song dynasties Business Credit
Development and Changes Economic policy
Comment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

신상철*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
- III.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발전과정
-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 범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국가가 성립되면 범죄를 위한 토양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범죄는 정상적인 기능의 합법사회 속에서도 일정한 범죄적 조건이 제공되기만 하면 항상 생길 수 있다.

중국은 2천 여 년의 봉건사회에서 수차례의 농민봉기가 끊임없이 출현하였다. 이는 관료사회의 착취에 시달린 결과이자 토지의 새로운 분배방식을 통해 신분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 한나라 시기 8천 만 명이던 인구는 당, 송, 원, 명 시대의 1억 2천만 명까지 느슨하게 증가하다가 청 왕조시대에 4억 3천만 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²⁾ 이러한 인구증가로 인해 새로운 경지를

* 부산대학교 강사,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1)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45쪽.

2) John King Fairbank, 『CHINA : A NEW HISTORY』, (Harvard

찾아 내륙산간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농민들이 현지 농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자 주위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족·씨족·동향인들로 주축이 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³⁾ 또한 청 왕조시기 장강 및 대운하에서 조운(朝運)에 종사하던 선원(水手)들의 사조직에서 시작된 청방(靑幫)은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치를 내걸었던 홍방(洪幫)과 결합하여 청홍방(靑洪幫)으로 되는데, 신해혁명 후 정치적인 사건에서 철수한 청홍방 조직원 중 일부는 범죄조직으로 전락하여 중국 근대 역사에서 ‘방회’라 일컫는 범죄조직의 대명사가 되었다. 민국시기 국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해 온 청홍방 범죄조직은 홍콩·마카오 등지로 피난하거나 동남아 화교사회로 몸을 숨기는 등 분산되어 삼합회 범죄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중국에 남아있던 청홍방 범죄조직의 잔당은 1949년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죄인 처리 지침에 따라 이후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일반인의 생활로 돌아갔다.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동남 연해도시에서 시작된 개방의 물결을 타고 나타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⁵⁾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모든 지역과 업종으로 파고들었고, 많은 관료들이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의 비호세력이 되어 서로 결탁하고 돕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왔는데, 1단계의 태동기는 개혁개방 초기에서 1980년대 말까지의 기간으로 깡패집단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며, 2단계인 발전기는 깡패들이 집단 패거리 단화(團伙)의 단계를 벗어나 조직을 갖춘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으로 발전하는 시기인 1990년대를 가리키며, 3단계인 정착기는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중국의 범죄조직이 고급화 되고 범죄수법 또한 지능화 되어

University Press, 1992), 252~255쪽.

3) Yiu Kong Chu, 『The Trade as Busin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0) 22쪽.

4) 周育民. 邵雍著, 『中国帮会史』, (上海人民出版社, 1996), 23쪽

5) 신상철,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개념과 해석』 경찰학연구 20권1호, 2010.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서 ‘성질’이란 용어는 우리의 ‘성향’, ‘경향’에 해당하는 의미로서, 아직까지 완벽한 범죄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과도기의 범죄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운영을 통한 합법화 추구, 돈 세탁을 통한 금융범죄, 정교한 위조기술을 통한 위폐제조 등 경제범죄 쪽으로 급선회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범죄조직의 발전과정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고급단계로 발전하면서 조직화가 굳어졌고 수법이 교묘화·지능화 되었으며 특히 관료와의 공생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⁶⁾

지난 2009년 8월 8일 새벽, 서울 남대문로 5가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의 ‘세븐리’ 카지노 앞에서 거한(巨漢) 여럿이 호텔에서 나오는 화교(華僑) 마모(馬某)씨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다 마씨가 거절하자 회칼을 꺼내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 마씨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수도권에서 활약하던 조선족 중국인 조폭이 대만 출신 화교 조폭인 마씨가 가지고 있는 기프트카드(카지노에서 VIP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상품권)유통권의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선족 조직폭력배가 서울 도심 진출과 함께 카지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⁷⁾

지난 몇 년에 걸쳐 국내에서 중국범죄조직에 관한 몇 편의 글이 발표되고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한국 화술정보, 2008, 83), 『조직범죄론』(형설출판사, 2004, 128),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조직범죄수사론』(대왕사, 2003) 등 단행본과 학위논문으로 <동아시아 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에서 중국범죄조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긴 글이 있었고, <중국 흑사회범죄에 관한 소고>(전주대학교 사회과학원, 2005)와 <흑사회범죄의 원인>(비교형사법 연구, 2004), <조직범죄연구--한·중간 조직범죄를 중심으로>(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개념과 해석>(경찰학연구, 2010) 등 몇 편의 글들은 중국 흑사회범죄에 관한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6)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45쪽.

7) 2009/4.7/ 조선일보 16면.

본 논문은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발전과정에 대한 글로, 그간에 발표된 일부 연구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중국범죄조직은 지역이 넓고 서식환경이 다양한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알려진 내용은 별로 없고 조사 또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분야이다. 그래서 이 글은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역사적 기원에서는 중국의 범죄조직의 발달을 고대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중국문헌과 외국문헌 등 중국의 범죄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관점과 반청복명의 사상에서 접근을 시도하였고 문화대혁명 종식 후 개혁개방시기인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라 불리는 범죄조직의 형성과 발전은 중국내 저명한 학자들의 문헌과 통계를 통해 각자의 견해를 짚어가며 분석해 보았다.

II. 중국 범죄조직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

1. 고대 농민반란과 범죄조직의 탄생

중국은 2천 여 년의 봉건사회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농민봉기가 끊임없이 출현하였다.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진나라 말기의 진승·오광 농민봉기⁸⁾를 시작으로 동한 말기의 장각(황건적)의 봉기, 당나라 황소의 난, 원나라 말기의 백련교도 봉기, 청 말기의 태평천국봉기 등을 들 수가 있으나 이것은 근·현대의 범죄활동과 역사상의 농민봉기는 행위와 목적에서 본질적으로 구별이 있다고 할 수

8) 진(秦)에 대한 반항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은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라는 두 농민이 병사로서 징발되어 북변(北邊)을 수비하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큰비를 만나 기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자 참죄(斬罪)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 봉기했다. 그들은 진나라에 대해 불평이 많은 농민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진승 등은 봉기한 지 약 반년 만에 살해당했다. 그들의 행동은 각지에서 봉기를 촉진시켜 진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다. 진승과 오광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봉기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농민봉기는 신분상승과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권을 탈취한다면 토지의 새로운 분배방식을 통해 신분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봉기가 일단 성공하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나, 그러지 못할 경우 봉기에 가담한 농민은 범죄인으로 전락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여타 농민들은 산골로 들어가 범죄조직을 만들어 사회적 고립 속에 생활해 왔기 때문에 농민봉기와 범죄조직의 형성은 중국 고대사회에서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왔다.⁹⁾

2. 비밀결사조직으로서의 홍방(洪幫)과 청방(靑幫)의 탄생

(1) 청 왕조 시기의 인구폭발

한나라 중기인 2세기 무렵에 중국의 인구는 6,000만 명 정도였으며 이 인구는 송대에 와서 1억으로 증가되었고 원나라, 명나라에 걸친 시기와 청 왕조가 들어설 무렵까지 600여 년 동안 인구는 완만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1741년부터 1851년 태평천국의 봉기가 일어날 시기의 기간 동안 중국 인구는 1억 4천 만 명에서 4억 3천 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의 원인은 단위면적당 곡물공급의 증가(남부지방의 2모작 가능)와 땅콩, 담배,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온 구황식물 덕분이었다. 이러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는 인구폭발을 가져왔고 이러한 인구증가는 농가의 노동생산성 감소라는 악순환도 초래하면서 소위 발전 없는 성장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¹⁰⁾

이러한 인구증가에 비례한 농지의 감소는 폭발된 인구에 하여금 내륙 산간으로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내륙산간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농민들은 현지의 농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쓰촨성(四川

9)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42쪽.

10) John King Fairbank, 『CHINA : A NEW HISTORY』, (1992, Harvard University Press), 252~255쪽.

省)과 산시성(陝西省) 부근으로 이주한 농민들은 더욱 심한 배척과 멸시를 받았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관료의 증가도 필수적인데 한나라 시기의 11만 명이던 지방행정 관료의 수는 4억 3천 만 명의 청 왕조시대에 와서 30%가 증가된 15만 여명에 불과해 적은 관료로 많은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편전쟁 이후에는 수도인 베이징(北京)에서 먼 광둥(廣東)과 푸젠(福建) 등의 지방으로는 황제의 위엄과 권한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인구증가에 따른 관료부족현상이 청 왕조의 통치를 어렵게 했고 생활상 신변보호를 받지 못한 농민들은 자체적인 비밀결사 모임을 만들어 자기들 생활을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¹⁾ 이렇듯 쓰촨(四川)과 산시(陝西)지방 등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농민과 광둥과 푸젠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농민들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시초가 사천지방에서 시작된 비밀결사 모임인 국로회(國魯會)이다. 비밀결사 모임인 국로회가 타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가로회(哥老會)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가로회는 동족, 씨족, 동향인들로 주축이 되어 그들 지방의 방언으로 소통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람들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단합이 잘 이루어져 비밀결사를 통한 그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¹²⁾

(2) 홍방(洪幫)의 출현

홍문(洪門)이라고 불리웠던 홍방의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이 주장은 비밀결사조직이 청대 특정지방들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주장의 학자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밀결사조직중 하나인 천지회의 등장도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써 설명한다.¹³⁾ 다른 하나는 홍방이 소림사 승려들 중심의 반청복명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천지회가 반청복명의 배경에서

11) Morgan, W.P. 『Triad Societies in HongKong』. (Government Print, 1960), 34쪽.

12) 周育民. 邵雍著, 『中国帮会史』, (上海人民出版社, 1996), 22쪽.

13) Yiu Kong Chu, 『The Trade as Busin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0), 23쪽.

탄생되었다고 보는 설로 이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농후하고 범죄조직을 미화하려는 측면이 많다.¹⁴⁾

1) 사회경제적 요인

먼저 홍방이 국로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나라 초기 강희제(康熙帝)와 옹정제(雍正帝)이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직업이 없는 유랑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인구가 드문 곳을 찾아 이동하였는데, 건륭제(乾隆帝)와 가경제(嘉慶帝) 시대에 쓰촨성과 산시성 경계에 위치한 남산(南山)과 파산(巴山)의 산림 지대에 이러한 유랑민이 많이 모여 곤궁한 생활을 하였다.

건륭제 초기 유랑민들은 현지인들의 업신여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로회다. 국로회는 건륭제(乾隆帝) 말년부터 가경제(嘉慶帝) 초기에 걸쳐 사천성에서 외부로 발전해갔는데, 이 과정에서 쓰촨성과 산시성 경계에서 이미 강한 세력을 형성한 백련교라는 비밀종교 조직과 서로 접촉하게 되고 가경제와 도광제(道光帝)가 통치하던 시기에 광둥, 푸젠 등 남쪽에서 북쪽으로 발전하고 있던 비밀결사 조직인 천지회 세력과도 만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로회·백련교·천지회라는 서로 다른 조직이 융합되고 이 융합과정에서 중국 근대 역사상 세력이 제일 강했던 비밀결사 조직인 가로회(哥老會)가 탄생하였다. 가로회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신속하게 세력을 확장하여 청나라 정부에 대항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는데 이때부터 가로회를 홍문 또는 홍방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¹⁵⁾

한편 푸젠(福建)과 광둥(廣東)지역은 중국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어 베이징 왕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혼란이 지속되는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폭동이 일어났고,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접근이 어려워 고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푸젠과 광둥지역에 생활하던 푸젠인(福建人)과 커자인(客家人)들은 그들만의 방언을 사용하고 그들끼리

14) Murray, D.H. and Qin, B. 『The Originn of the Tiandihui: The Chiness Triads in Legend and His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1994, 31쪽.

15) 赵文林, 『旧中国的黑社会』, (华夏出版社, 1987), 53쪽.

어울리며 일상생활을 해온 까닭에 자연스럽게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외부세계에 대항하였고, 이에 청 왕조에서도 지역적인 먼 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 나약하고 태만한 정부역할에 그쳤던 것이다. 이처럼 건륭제 초기에 시작된 인구폭등과 경지부족, 그리고 높은 곡물가격 인상의 악순환에 가장 큰 영향은 받은 사람들은 푸젠성과 광둥성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로 그들은 상호보호를 위해 그들끼리 그룹을 지어 다니면서 다양한 상호 보호조합의 형식으로 서로 결속하게 되고 1755년 이후에는 천지회라는 이름의 상호부조형식의 비밀결사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밀결사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18세기 말에는 199개의 비밀결사조직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⁶⁾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범인들의 심문을 토대로 관료에 의해 작성된 당안(檔案, 중국 국가기관에서 보존되어 오는 문서, 오늘날의 사법기관의 심문조서)을 중심으로 사료를 연구하였다.¹⁷⁾

2) 반청복명(反淸復明)사상

반청복명 기원설에 의하면, 천지회가 만주족의 청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구하려는 17세기 중국의 소림사 승려들이 주축이 된 조직에서 유래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강희제(康熙帝) 집권기간(1662~1722)동안 청나라는 서로국(Xilu, 西魯國, 오늘날 티베트 일부지역)의 수차례 공격을 받는다.¹⁸⁾ 이에 청 왕조에서는 서로국을 물리치기 위해 무술이 뛰어난 소림사 승려 128명을 지원받아 몰아내었다. 소림사의 무술에 위협을 느

16) Morgan, W.P. 『Triad Societies in HongKong』. (Government Print, 1960), 63쪽.

17) 周育民. 邵雍著, 『中国帮会史』, (上海人民出版社, 1996), 25쪽.

18) 강희 53년 갑오(1714)년 중국 서역에 있는 西魯國의 30만 대군이 중국 동관(潼關)에 침입한 사건으로 서역을 수비하던 청나라군대는 서로국 장수 팽용천에게 대파되었다. 이에 강희제는 용맹스러운 소림사 무술승들의 도움으로 서로국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국내의 중국범죄조직에 관한 단행본이나 논문에서 소림사 승려들이 무찔렸다는 술루족은 바로 서로족을 가리키는 말로, 한자병음상으로 西魯를 xilu라고 적다보니 한글발음이 술루라고 표기되었다고 본다. 중국역사에서 술루족이라는 종족은 없다. 이는 국내학계에서 잘못된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긴 청 왕조는 불시에 소림사를 습격하여 불을 질러 승려들을 몰살시켰으나 살아남은 5명의 승려가 푸젠성 목양시에 그들의 본거지를 세워 반청복명의 기지로 천지회를 세웠다는 설이다.¹⁹⁾ 이는 주로 청말과 민국 초기 비밀결사를 이용하여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쑨원 등 혁명세력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었는데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농후한 설이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자료를 토대로 연구²⁰⁾하다 보니 범죄조직을 미화한 부분이 많고, 삼합회범죄조직의 탄생이 반청복명을 내세운 소림사 승려에서 기원하였다는 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 판단된다. 아무튼 천지회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은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홍방의 기원이 국로회, 가로회 혹은 천지회로부터 유래가 된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국로회 역시 천지회와 융합되어 가로회가 되었으므로 홍방의 역사에서 천지회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²¹⁾

3) 삼합회의 출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중국내륙에서 남부지방인 광둥성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홍콩에서 아무런 조직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상호부조의 형식인 비밀결사조직을 통하여 동료들끼리 고용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천지회의 성격을 본떠 삼합회라는 명칭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이주노동자인 쿨리(苦力, coolie, 막노동꾼)들이 노동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삼합회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타 그룹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았으며 위협과 폭력을 앞세워 독점권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홍콩의 삼합회는 20세기가 바뀌는 1890년대부터 1910년 사이 홍콩 노동시장에서 출현하였던 것이지, 천지회의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 반청복명을 앞세운 천지회의 홍방조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²²⁾

19) 康树华, 『犯罪学: 历史·现状·未来』, (群众出版社, 1998), 44쪽.

20) 易熙峰, 『中國黑道幫會』, (大眾文藝出版社, 2008), 23쪽.

21) Morgan, W.P. 『Triad Societies in HongKong.』 (Government Print, 1960), 32쪽.

22) Yiu Kong Chu, 『The Trade as Busin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0), 43쪽.

그리고 홍콩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폭력을 통한 삼합회범죄조직을 결성한 조직은 홍콩과 이웃인 광둥 지방에서 넘어온 행상인들로, 이들은 홍콩 내 다른 행상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현지의 깡패들로부터 동료 상인의 갈취를 막고자 '흥승회'(興勝會)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²³⁾ 이러한 동향인, 같은 집안, 같은 방언집단들처럼 강력한 조직을 바탕으로 결성된 삼합회범죄조직은 곧 그들의 판매구역을 독점할 수 있었고 이를 본 다른 행상인들도 이러한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렇게 1890년대 초부터 자신의 고유한 직업을 고수하기 위해 10여개 이상의 삼합회 조직이 출현하여 현지 노동시장을 장악하자 1900년대에는 삼합회범죄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²⁴⁾ 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개인의 다툼을 넘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즉, 조직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영역다툼과 이권개입에 많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이다.

이상의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국내 범죄학 분야에서 주장하거나 제기되어 온²⁵⁾ 중국범죄조직의 역사는 반청복명을 주장한 소림사 승려나 천지회에서 기원 하였다고보다는 17C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산간벽지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그들만의 상부상조 형식의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동향인, 씨족인, 같은 방언 집단끼리 서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구심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

23) 광둥성 출신 동향인들이 주축이 되어 상호부조형식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다 후에 화흥성으로 화(和)계열로 바뀐다.

24) Morgan, W.P. 『Triad Societies in HongKong』. (Government Print, 1960).

25)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한국 화술정보, 2008, 83쪽), 『조직범죄론』(형설출판사, 2004, 128쪽) 등 단행본과, 학위논문으로 <동아시아 조직범죄의 국내 침투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등은 거의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을 반청복명에 기초한다고 하나 이는 정확한 자료와 문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잘못된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오늘날 대다수의 중국학자와 서양의 여러 학자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이주노동자인 콜리들의 비밀결사조직을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 또한 같은 견해이다.

력이었으며, 이들이 신해혁명 주축세력인 천지회 계통의 일부 비밀결사 조직과 연합을 통해 범죄조직화 되어갔던 것이다.

(3) 청방(靑幫)의 기원

청방은 청 왕조시기 남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양식을 대운하를 통해 수도 베이징으로 옮기는 선원(水手)들의 사조직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베이징으로 운반되는 쌀은 약 400만석이었는데 이러한 양식을 운반하던 크고 작은 배가 1,200여척에 뱃사람도 20~30만 명이였다. 조운에 종사하던 뱃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겨우 연명할 정도의 낮은 생활을 하였다. 당시 뱃사람들 사이에 라칭(羅淸)이 만든 라교(羅教)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명나라 시기 백련교(白蓮教)에서 분리되어 나온 비밀종교였다. 라교가 대운하의 뱃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뱃사람에게 홀홀단신이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이 없는 시기에는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배고픈 이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운하 주변의 뱃사람들은 라교를 통해 조직적인 집단으로 변해갔으나 이때는 단순한 모임성격을 가진 조직일 뿐 청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²⁶⁾

중국에서 청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도광제(道光帝)와 함풍제(咸丰帝)가 통치하던 시기이다. 1851년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봉기가 난징을 점령함에 따라 베이징으로 운반하던 쌀의 운송에서 경항(京杭, 베이징-항저우)대운하를 통한 조운이 불가능하자 청 왕조는 해상을 통해 조운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운하 일대의 조운 종사자들이 대부분 실업자 상태에 놓이게 되어 뱃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분화되었다. 허베이성(湖北省)과 산둥성(山東省) 등지에서 종교에 가담하지 않은 뱃사람들은 주로 ‘염당’(捻党)과 ‘태평군’(太平军)에 가담하였고, 강소성(江蘇省)과 저장성(浙江省)지역에서 라교에 가입했던 대다수 뱃사람은 회화(淮河)유역에서 ‘안청도우’(安淸道友)라는 이름의 무장 사염조직(私鹽集團, 당시 소금은 국가 전매업임)에

26) 周育民. 邵雍著, 『中国帮会史』, (上海人民出版社, 1996), 63쪽.

가담했고, 또 다른 소금 전매조직인 '청피당'(靑皮黨)과 함께 소금판매 및 약탈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안칭도우'와 '청피당'이 오랫동안 함께 소금밀매업에 종사한 관계로 이들 두 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조직 간에 융합이 나타나게 되어 이들 조직을 합하여 청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²⁷⁾

(4) 청홍방(靑紅幫)의 탄생

상술한 내용과 같이 조직의 성격이 다른 청방과 홍방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조직인 청홍방으로 발전해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조직이 결합하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상호간에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가로회가 장강(長江) 중상류 지역에서 하류지역과 회하(淮河)지역을 향해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방세력과 만나게 되었다. 이때 두 조직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상대방 조직과 서로 협력하며 이용하였다. 그 당시 청방은 사염(私鹽)을 회하지역으로부터 후난성(湖南省)과 후베이성(湖北省) 등지까지 배로 운반한 후 판매하였는데, 소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청방은 가로회의 보호가 필요하였다. 반면에 가로회는 내륙의 아편를 연해의 부두로 운반한 후 판매하였는데 이때 청방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에 있는 두 조직을 쉽게 분별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든 가로회 조직을 홍방이라고 불렀다. 이후 청방과 홍방이 장강 중하류에서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던 관계로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조직을 통털어 '청홍방(靑紅幫)'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홍방(紅幫)²⁸⁾이라 표기했다.

3. 근대시기 이후 중국의 범죄조직

(1) 신해혁명 이전시기 범죄조직

27) 趙文林, 『旧中国的黑社会』, (华夏出版社, 1987), 54쪽.

28) 홍문(洪門, 의를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홍방(洪幫)에서 홍방(紅幫, 붉은 색의 의미)으로 바뀐 것은 중국인들이 붉은색을 좋아해 청방과 대비되게 같은 음인 홍(hong)자의 발음으로 부르게 된 것임.

1) 아편전쟁 전후의 국내 상황

1840년 아편전쟁이후 중국은 점차로 ‘반식민지 반봉건사회’(半殖民地、半封建社會)²⁹⁾가 되어 외세의 침략으로 전통적 자급자족의 자연경제가 해체되고 서구에 의한 경제활동 및 상품교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농민과 하층의 생활이 빠르게 분화되어 갔고 중국 남부 해안가 농민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등지로 떠나게 되어 오늘날의 화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³⁰⁾ 또한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은 서양의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침략과 청 정부의 부패한 통치에 항거하여 비밀결사조직인 천지회(天地會)를 계승해 오고, 경제가 발달된 지역인 상하이(上海), 수저우(蘇州)등 남부 지방 및 연해지역에는 ‘청방(靑幫)’이 생겨났으며, 항구를 개방한 해안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제주체를 갖춘 비밀조직이 생겨났다. 청 말 시기에 지주나 관료들의 착취가 심해지자 일부 농민이나 노동자등 하층민들은 정부에 대한 반항심이 싹트게 되고 각 지역별로 종사하는 업종별 모임을 통해 천지회 이름으로 비밀결사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³¹⁾

1871년, 청 왕조에서 이들 비밀결사조직 중 반청복명을 주장하는 천지회의 실체를 알아차린 후 이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자 천지회 조직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고 그 이후 천지회의 이름은 중국 전역에 떨치게 되었다. 이들 천지회 비밀결사 조직은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호주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미주지역의 경우는 건설노동자³²⁾로 이주했다. 동남아와 미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쿨리들이 주축이 된 비밀결사조직은 서양인들이 삼합회(Triad)³³⁾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삼합회범죄조직의 기원

29) 마오쩌둥이 이름붙인 것으로 외세의 침략과 전통봉건왕조의 지배로 인해 농민이 착취당하여 중국이 침체기에 있던 시대를 가리킨다.

30) John King Fairbank, 『CHINA : A NEW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61쪽.

31) Murray, D.H. and Qin, B. 『The Origninn of the Tiandihui; The Chiness Triads in Legend and His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1994), 32쪽.

32) 쿨리(coolie, 苦力)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에서도 동향사람들과 종족성 씨집단들은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생활도 비밀결사 모임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쿨리)을 상대로 마약과 매춘 등을 장악하고 중국인 상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비를 갈취하고 이들의 뒤를 봐주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³⁴⁾

2) 빈발한 천지회 봉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개항되어, 영국은 홍콩을 할양받고, 상하이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조차지(조계지)가 생겨났다. 아편전쟁 이후 생활이 궁핍해진 서민들이 이들 개항도시들로 이주해 들어와 비밀결사조직인 방회(幫會)조직을 만들었다. 중국의 근대적인 범죄조직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봉건방회는 가족제도를 모방하여 세웠으나 항상 혈연이나 가족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방’(幫)이란 ‘스승과 제자 관계’를 축으로 형성된 것이고 ‘회’(會)는 ‘형제결의 관계’를 축으로 형성된 것이다³⁵⁾. 19세기 말부터 ‘방’과 ‘회’는 상호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20세기 초 이후 중국에서 비밀조직을 가리킬 때 ‘방회’로 통일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다. 도광말년(1854~1864)에 광둥(廣東) 지역의 천지회 봉기, 광시(廣西)지역 천지회 봉기, 민난(閩南)지역 소도회 봉기(1853~1858), 민중(閩中)지역 홍선회 봉기(1853~1857), 상하이 지역 소도회 봉기(1853~1854) 등의 농민봉기가 있었다.³⁶⁾ 이러한 농민봉기를 통해 형성된 천지회 등의 비밀결사조직은 청 정부에 의해 진압되면서 죽임을 당하거나 해산되었고, 일부 비밀결사조직은 지방에 거점을 마련하여 청 정부에 계속 대항했는데, 쑨원의 홍중회, 중국 동맹

33) 천지회에서 유래한 삼합회(三合會, Traid)는 천(天), 지(地), 인(人)의 세 글자를 합하여 구성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천지회 결성 초기의 상부상조와 반청복명의 구호는 사라지고 이때부터 정치적인 모임에서 탈피하여 일부 방회는 범죄조직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34) Yiu Kong Chu, 『The Trade as Busin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0), 17쪽.

35)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43쪽.

36) 청조말의 농민봉기는 수도인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청 정부의 통치가 직접 미치지 못하였고 북부지역 보다 남부지역이 개방적이고 서양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문화충돌을 겪고 청 왕조의 무기력을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회 등은 중국남부 광둥 지역에서 해외로 거점을 옮기면서 청 정부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비밀결사조직이 되었다. 마침내 1911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자 천지회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비밀결사조직인 천지회는 정치적인 무대에서 물러나고 천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청홍방 조직의 일부가 일반인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조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³⁷⁾

(2)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 집권시기의 범죄조직

1) 신해혁명 전후의 국내 상황

1911년 중화민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해혁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치동란·빈번한 내전·경제쇠퇴·끊임없이 악화되는 지방군벌의 압박과 착취에서 서민들 대부분은 빈곤에 빠져들고 산업의 파괴로 실직된 도시 근로자들과 농민, 그리고 소규모 수공업자·노동자 및 결인 등이 비밀결사조직인 방회조직원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유민들 중 일부는 국내 혁명(즉 군벌을 척결하는 북벌계획)에 참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에 가담하는 등 이중성을 갖고 있었는데, 비밀결사조직인 방회가 시대적인 정치적 이중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방회조직원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위해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 방회조직과 조직원들은 지방정권을 등에 업고 범죄조직으로 형성되어 갔다.³⁸⁾

이 시기에 이르러 청홍방은 서양의 마피아와 비슷한 범죄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신해혁명으로 청조는 무너졌지만 중국은 곧 남북으로 정권이 나누어져 지역을 볼모로 각종 군벌들이 할거하게 되고 군벌들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충하였다.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중앙정권이 사회통제능력을 상실하자 토비·비밀결사(방회)·민간종교 등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발

37) Morgan, W.P. 『Triad Societies in HongKong』. (Government Print, 1960), 53쪽.

38) 국민당 총통이던 장제스도 비밀결사 조직이던 천지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전하기 시작한 공업과 상업을 바탕으로 도시들이 성장하여 도시문명이 확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대적인 도시의 등장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다.³⁹⁾ 즉 의를 중시하는 전통사회에서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사회로 변하게 되었고, 청홍방조직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청조 타도 외침에서 범죄조직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 각지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홍방이 동시에 범죄조직으로 변해간 것은 아니었다. 청홍방의 범죄조직화는 부분적·국지적 현상이었는데, 청홍방 조직 중에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청홍방이 가장 전형적인 범죄조직으로 전환되었다.

2) 당시 상하이의 상황

당송(唐宋)시기 상하이는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지만 원(元)대에 이르러 현으로 승격하였고 아편전쟁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에서 제일 큰 상공 및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상하이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최초의 개항장인 홍콩이 중국 남부인 광둥에 위치해 있고 중국 내륙으로 뻗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상하이는 장강하류에 위치해 있고 베이징과 난징 등 중국 대도시와 가까워 강과 바다 양쪽에서 물류운송이 쉬웠던 지리적 이점이 많았다. 1852년 55만이던 상하이 인구는 1910년 129만, 1927년 264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의 주된 요인은 많은 외국인과 국내인이 대거 상하이로 몰려들었고 상하이로 흘러들어온 대부분 중국인은 노동자 등 하층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 배경아래 청홍방 조직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상하이에 진출하였다.⁴⁰⁾ 상하이로 이주한 청홍방 조직들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범죄활동에 종사하게 되는데, 자신이 속한 조직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범죄활동에 가담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였다. 당시 상하이 생활에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갖추지 못한

39) 赵文林著, 『旧中国的黑社会』, (华夏出版社, 1987), 76쪽.

40) 첫 번째 진출은 아편전쟁 당시 조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운하의 조운이 불가능해지자 상해로 밀려들었고 두 번째는 영국, 프랑스 조차지에서 자유로운 상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대거 인구가 유입된 것이다.

청홍방 조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몸으로 때우는 막노동이나 아편밀매·도박장 개설·윤락·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활동 뿐이었다.⁴¹⁾

이렇게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청홍방이 빠르게 범죄조직으로 변질되어 가게 된 것은 당시 상하이의 특수한 정치 환경이 큰 작용을 하였다. 당시 상하이는 중국·영국·프랑스라는 세 개의 정부에 의해 분할되어 다스려지는 조차지가 있어 불안정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세 개의 정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입법·행정·경찰권 등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 개의 독립적인 정부가 존재함으로 일부 지역은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가 형성되었는데, 청홍방은 이러한 무법지대를 은신처로 삼아 각종 범죄활동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전국적인 비밀결사 조직인 천지회에서 출발한 청홍방 조직이 신해혁명 이후 정치적인 사건에서 철수한 뒤 범죄조직으로 서서히 변모하게 되어 중국 근대 역사에서의 '방회'는 곧 비밀조직 또는 범죄조직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국민당 통치 시기부터 범죄조직의 의미로서 '방회'가 사용되어 점차 보편화 되었고, 지방군벌들은 이들 방회조직의 은밀한 전국적 조직망을 이용해 권력유지 차원에서 이들을 첩보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밀수 및 마약판매에 끌어들이 이용하기도 했다.⁴²⁾

(3) 국민당 시기의 범죄조직

1926년 신해혁명 주역인 쑨원(孫文) 사망 이후 정권을 쥐게 된 장제스(張介石)는 외세를 몰아내기 보다는 공산당 토벌에 더욱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공산당 와해를 위해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군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범죄조직을 끌어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범죄조직이 두웨성(杜月笙) 청홍방 조직다.

1910년 비밀결사조직인 청방에 가입한 두웨성은 당시 상해 청방의 두목이던 황진룡(黃金榮)부하로 들어가 활동하다 프랑스 조계지역 경찰

41) 康树华, 『犯罪学, 历史'现状'未来』, (群众出版社, 1998), 72쪽.

42) 周育民, 邵雍著, 『中国帮会史』, (上海人民出版社, 1996), 131쪽.

반장이 된 후 프랑스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청방의 두목이 된 후 상해지역 아편 전매권을 확보하였다.

1923년 제1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 군벌을 몰아내고 1927년 국민당이 상하이로 들어오자 두웨성은 장제스의 밀명을 받고 공산당을 토벌하였다. 즉 상하이 중국거류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파업을 주도하자 두웨성은 청방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파업 중인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여 5천여 명을 학살하게 되는데, 이 사건⁴³⁾을 계기로 두웨성은 장제스로부터 좌익세력 척결 공로로 포상을 받고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두웨성 청방 조직은 아편·도박·매춘·인신매매 등으로 돈을 벌어 국민당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하였고, 두웨성은 상하이의 '불법아편 금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찰이 증거로 압수해 온 마약을 다시 시장에 내 놓아 거래를 하는 등 상하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4)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범죄조직의 쇠퇴

중일전쟁 기간에도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방회조직을 이용한 정치를 계속했다. 즉 청홍방 범죄조직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고 공산당의 움직임 등 각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이러한 대가로 청홍방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는 등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1949년 제2차 국공내전의 종료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이러한 범죄조직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국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해 온 청홍방 범죄조직은 홍콩·마카오·대만 등지로 피난하거나 동남아 화교사회로 몸을 숨기는 등 분산하여 삼합회범죄조직으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남아있던 청홍방 범죄조직의 잔당은 중화인민공화국 범죄인 처리 지침에 따라 공산당과 인민에 대한 적대행위 범죄에 적극 가담한자는 처형하고 공산당 정책을 지지한 청홍방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후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일반

43) 일명 4.28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당이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이 이후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활동하게 된다.

인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었다.⁴⁴⁾ 그 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강행되던 국내상황에서 범죄조직은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Ⅲ.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발전과정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죽음과 더불어 종료되고 이후 집권에 성공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3차 중앙전체회의를 기점으로 개혁개방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건국 후 사회주의 시기 문화대혁명을 거치는 기간 동안 지하범죄조직이 발생할 수 없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동남 연해도시에서 시작된 개방물결을 타고 태동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모든 지역과 업종으로 파고들어 정착되었다.

1.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태동기(1978년~1989년)

중국 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처럼 비밀결사조직인 청홍방 등 방회조직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구시대의 방회조직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많은 관료들, 특히 공안들이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의 비호세력이 되어 서로 결탁하고 돕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패가 만연하여 범죄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조직이 구시대의 방회조직처럼 전 지역으로 스며들어 고급관료와 결탁을 통해 정치적 부패를 낳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강력한 사회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나 아직 그러한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조직이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 것이다.

44) 赵文林, 『旧中国的黑社会』, (华夏出版社, 1987), 86쪽.

중국 범죄조직의 개념을 정의할 때 대개 홍콩·마카오·대만등지의 범죄조직을 삼합회범죄조직이라 부르고, 중국대륙 내에서 자생하고 발전된 범죄조직을 가리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라 칭한다.⁴⁵⁾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

(1) 범죄조직 태동이전시기 치안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70년대 말까지의 국내치안상황은 비교적 안정적 이어서 사건발생률도 아주 낮았다. 1950년대에서 1966년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17년 간 중국내 주요 형사사건 발생 수를 보면 50년도의 513,461건을 시작으로 57년 211,068건, 65년 216,125건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1964년에서 1966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범죄발생률은 0.03%였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건 대부분은 국민당 잔재세력 적결관련 범죄였고 국내안정과 함께 순수한 형사사건은 점차 줄어들었다. 문화혁명 시기에도 형사사건 발생수가 계속 저조하여 1972년 402,573건, 75년 475,432건, 1978년 535,698건이 발생했다.⁴⁷⁾ 이러한 범죄발생 통계를 근거로 볼 때 건국 후 25년 동안의 치안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각 종류별 범죄발생이 억제되어 가히 치안상태에 있어서는 태평성대라 할 수 있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건국된 후 경제적으로 소련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서방사회로부터 선진화된 기술도입을 거부함에 따라 자본주의 같은 개인과 기업이 주동된 창조적 기업운영이 어려웠다. 또 한술밥주의라고도 표현되는 국가통제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고, 또한 사회주의화 된 민중들의 사회적 지위와 빈부격차도 축소되어 대다수 일반인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약화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군중동원을 빈번하게 발동하던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정부의 지시에 대항할 세력은 아무도 없었다.

45) 신상철,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개념과 해석』, 경찰학연구 20권1호, 2010.

46) 何秉松, 『有组织犯罪研究』, (中国法制出版社, 2002), 54쪽.

47) 刘登阁, 『中国的是非』,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42쪽.

(2)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태동기(1978년~1989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많은 요인들에 의해 중국의 범죄도 증가되었는데 특히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밀집된 개방구의 중·대도시에서 형사사범이 급격히 늘어났다.

1979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형사사건은 636,222건으로 1978년에 비해 100,524건이 증가하였고, 1980년 757,104건은 1979년에 비해 120,882건이 증가하였으며, 1981년 890,281건은 1980년에 비해 133,177건이 증가하였다.⁴⁸⁾ 이는 매년 10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살인·강도·납치·방화 등 중대형 형사사건과 조직을 갖춘 건달패거리 집단들의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었다. 중국어로 단화(團伙)라고 부르는 건달패거리 집단⁴⁹⁾에 의한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자 1979년 12월, 전국 도시 공안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도시 중심으로 치안정화 차원의 형사사범 일제검거활동에 돌입했고, 베이징·톈진·상하이 등 64개 도시에서 11,000여 건의 형사사건에 3,400여 개의 단화(團伙)조직이 소탕되었다. 그 중 일부 집단은 조직원이 비교적 많고 조직체계도 엄밀하며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할 정도로 직업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8)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57쪽.

49) 조직을 갖추기 이전 단계의 범죄를 중국에서는 단화(團伙)범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깡패에 해당하는데, 단화 범죄 집단, 즉 패거리 집단이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건달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범죄패거리는 형법상 규정된 법률개념이 아니고 통일된 정의도 없다. 공안측에서 범죄패거리 집단을 일반 공동범죄 집단으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공안에서 일반 패거리를 공동범죄 집단에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일정한 이유는 없다. 이들이 범한 사건은 발생하는 범죄에 따라 죄명을 붙이며 검거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에 그들을 성질상 구분지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일적인 용어로 범죄패거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범죄 중에 패거리를 가지지 않으면 범죄 집단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범죄단화의 일제소탕

1983년 3월, 사회치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중앙정부에서는 그해 31호 문건을 통해 '3년 기간 동안 3번의 소탕을 벌여 2년 내에 효과를 나타내고 3년 안에 완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후 전국적인 형사범죄자 일제 소탕작전에 돌입했다.⁵⁰⁾ 3년 기간의 범죄소탕 작전에서 전국의 단화(團伙) 197,000여개와 그 조직원 876,000여명을 검거하여 중국내 범죄집단으로서의 단화들은 거의 소탕되었다. 그러나 범죄소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단속 기간 중의 치안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범죄소탕'이 일단락 끝을 맺자 치안상황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여 건달패들이 급증했다. 소탕작전 종료 후인 1986년 한해 전국적으로 검거한 패거리 범죄 집단이 30,476개 그 조직원 수가 114,452명, 1987년도에는 36,000여개의 조직에 조직원 수가 138,000여명, 1988년에는 57,229개 조직에 213,554명, 1989년에는 97,807개 조직에 353,218명, 1990년에는 100,527개 조직에 368,885명 등 급격히 증가하였다.⁵¹⁾

이와 같이 4년간에 걸쳐 검거한 전국의 패거리 범죄 집단인 단화(團伙) 조직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범죄패거리들이 점점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으로 발전하는 시기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범행방법도 잔혹하고 흉포하며, 조직범죄의 특징인 지역과 업종을 장악하고 폭력을 구비한 조직체계가 완성되었고 경제적 실체를 구비한 전형적인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으로 탈바꿈 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2.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발전기(1990년~1999년)

(1) 발전기(1990~1999) 범죄조직의 활동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90년대에 접어들자 중국내 범

50) 朱显有, 『黑社会犯罪遏制战略』, 人民公安报, 2001/8/11/ .

51) 任志中. 周蔚, 『惩治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难点及立法思考』,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2).

죄양상은 조직화·흉포화 되고 사건 발생건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였다.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태동기에서 발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1989년과 1990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전국의 형사사건을 비교해 보면, 1989년 이전에는 80여만 건 이내이던 범죄발생건수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200여만 건으로 격증하였으며, 이러한 발생건수는 2000년대 이후까지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⁵²⁾ 또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범죄양상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요소에서 범죄 원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범죄조직간 상호 연대를 통한 범죄수법의 공유와 대만·홍콩·마카오 등 삼합회범죄조직과의 연합을 통한 국제범죄 조직으로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흑사회성질 범죄조직도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1991년도에 검거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수는 134,000여개 조직원 수는 507,000여명, 1992년도에 검거된 범죄조직 수는 12만 여개 조직원 46만 여명, 1993년도 검거 조직 수는 15만 여개 조직원 수는 57만 여명, 1994년도 검거 조직 수 15만 여개 57만 여명, 1995년도 검거 조직수가 14만 여개, 조직원 수는 50여 만 명이다. 이 몇 년 사이에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수가 계속 15만 여개 이상이며 조직원 수 또한 그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전국 공안기관에서 검거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136,225개 조직에 조직원 495,878명을 검거 하였는데 해당조직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422,389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23.8%를 차지하였다. 1998년 전국 공안기관에서 검거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수는 102,314개 조직에 검거 조직원은 361,927명이었고 이들이 저지른 사건은 338,772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26.8%를 차지했다.⁵³⁾ 이것은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 갈수록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활동범위가 주거지 중심에서 서서히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범죄조직의 조직화는 일시성에서 영속성으로 변해 갔고 범행 또한 태동기의 비밀적인 성향에서 점차 공개적 또는 반공개적으로 바뀌어 갔다.

52) 王云良, 『黑社会性质组织犯罪案件侦办思路』, (江苏警官学院学报, 2006).

53)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66쪽.

(2) 발전기중 중국公安부의 대책

이러한 건달패거리 단화(團伙)가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으로 발전하자 1992년 10월公安부에서 각 성(省)·시(市)·현(縣)의 건달패 범죄집단 대책회의 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대책 연구를 당부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대륙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에 대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 따라 1993년 중국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돌입했는데, 검거작전 중公安요원 300여명이 생명을 잃었고, 1996년 4월말부터 6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公安요원 75명이 희생되었으며 3,0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⁵⁴⁾ 이렇게 범죄조직에 의한公安의 피해가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와 범죄조직을 방치할 수가 없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견고한 조직이라는 표현대신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성향이 짙은 ‘흑사회성질’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흑사회성질조직’이라는 명칭은公安부의 건의에 따라 1997년 수정한 형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형법 제294조에 명시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과 관련된 죄명을 규정 하였으나 무엇이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인지 형법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죄명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법 공포 이후 2~3년이 경과하도록 이 규정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등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새로운 범죄조직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그 후 2000년이 되어서야 중국정부는 비로소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에 대한 명확한 사법해석을 하였던 것이다.⁵⁵⁾

(3)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범죄 양상

54) 张丽霞, 赵红星, 『新形势下有组织犯罪的特点及其对策』, (河北法学, 2005).

55) 신상철,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개념과 해석』, 경찰학연구 20권1호, 2010.

1999년 초, 각 지방의 치안은 계속 악화되고 범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위기가 초래 되었다. 살인·강도·절도 등 대형사건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매음·마약 등 범죄가 많은 지방에서 여전히 만연 하였고, 특히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 시골 마을까지 파고들어 농민들을 억압하여 일부지방에서 혼란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다. 농촌지역에까지 파고든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가족·친척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하여 한 지방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농촌의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어 기층정권에서 마음대로 해당지역을 좌지우지 하는 등의 범죄활동으로 치안질서를 어지럽혀 현지인의 생명·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각 지역별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범죄활동구역에 있어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착형,⁵⁶⁾ 특정지역형,⁵⁷⁾ 타향형,⁵⁸⁾ 신디게이트형⁵⁹⁾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⁰⁾

56) 고정지역형 범죄조직은 활동범위가 본토의 어느 일정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데 구성원 대부분은 현·시·향·진·촌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한 명 혹은 몇 명의 행동대장들이 핵심이 되어 지역이 좁은 관계로 쉽게 조직이 결성된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본토를 벗어나지 않아 대부분 한 개의 현·시·진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죄 대상 지역이다.

57) 이 유형은 범죄조직의 활동범위와 관련이 있는데 주로 도로·바다·강 등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 범죄조직은 대부분 외지거나 지형이 복잡하고 경찰력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곳을 골라 활동하는데 차량과 기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 털이범들(车匪路霸)이다. 국도와 철도의 간선, 그리고 교통 중심지는 이들 범죄조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들 조직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구간에서 지나가는 차량 및 기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며 기사나 승객을 대상으로 약탈과 강간 등을 일삼는다.

58) 타향형 범죄조직은 고향을 떠난 동향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범죄조직으로 중국 범죄조직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향에서 만난 동향인은 문화와 습관 그리고 언어 사용 등에서 동질감이 있어 서로 쉽게 상부상조할 수 있고 쉽게 범죄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이들 범죄조직은 대부분 조직원 출신지를 범죄조직의 명칭으로 삼는다.

59) 이 유형은 국외 및 홍콩 등 다른 지역 범죄조직이 중국 국내에 침투하여 범죄조직을 조직하거나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던 기존의 범죄조직과 결합한 조직을 말한다. 공산당이 대륙에서 정권을 장악할 무렵 대륙에서 활동하던 많은 청홍방 조직원들은 홍콩과 대만 등지로 이주하여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청홍방은 대륙의 개혁개방 정책의 허술한 공간을 비집고 대륙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행동거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 국외의 범죄조

1990년대 이후,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이미 전국의 각 성(省)·시(市)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베이징·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장수(江蘇)·저장(浙江)·하이난(海南)·광둥(廣東)·푸젠(福建)·쓰촨(四川)·꾸이저우(貴州)·후베이(湖北)·간수(甘肅)·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산둥(山東)·산시(山西)·허베이(河北)·허난(河南) 등의 각 성과 중소도시에서 십 수개에서 수십 개의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 검거되었다. 특히 구(舊)중국의 방회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던 지역에서 심하였는데, 과거 청홍방 활동의 주요지역인 장강유역과 대운하일대에서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 대거 자생하고 있어 장강일대를 집중적으로 소탕하여 ‘무호방’ ‘지주방’ ‘신주방’ 등의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30여개를 검거하였다.⁶¹⁾ 이들 조직 중 100여명의 조직원을 가진 흑사회성질 범죄조직도 있었는데 이는 지역 건달패거리들이 농촌지역을 파괴하여 농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끼리 연합하고 발전하여 ‘지역적 기반’을 잡은 세력으로 성장한 후 더 큰 흑사회성질범죄조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4.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정착기(2000년~현재)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정착기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범죄조직이 세력 확장과 조직 체계화를 통해 정착되었고, 둘째는 관계공무원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그들과 공생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셋째는 지역을 넘어 국제범죄조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직도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들 해외 및 외지 범죄조직이 중국 내에 새로운 거점을 확보할 때 대부분 조직의 의식·규칙·범죄수법·조직구성 등을 그대로 운용하였다. 해외 및 외지의 범죄조직은 중국 내에 자신의 분점을 건립하기도 하지만 대륙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조직 및 불량배 조직과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대부분 국외 범죄조직 분점 형태로 존재한다. 내외결합형 범죄조직은 주로 홍콩·마카오·대만과 근접한 동남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60) 马霞, 『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性质、成因及对策分析』, (固原师专学报, 2004).

61)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63쪽.

이다.

(1)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세력 확장

오늘날 중국의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 중국정부의 공식적 표명대로 비교적 낮은 단계의 범죄조직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잔혹한 폭력을 수단으로 활동하고 ‘금자탑’의 탑처럼 두목을 위시한 조직체계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범죄조직의 보스인 두목이 직접 범행현장에 참가하여 지휘하는 비율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데, 1993년에 조직의 두목이 직접 범행을 지휘했던 비율이 90%이상이던 것이 1997년에는 60% 이하로 줄어들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30%, 2010년을 기점으로 최근에는 아예 두목은 현장에서 종적을 감춘 지가 오래되었다. 이는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이 점점 성숙되어 이제 고착화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범죄연합체가 확고히 자리 잡아 합법적인 기업운영 방식을 띠고 있으며 부패된 관료와 결탁되어 있어 그 뿌리를 캐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⁶²⁾

이렇듯 오늘날 중국내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과거 태동기 및 발전기와는 달리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도시와 농촌지역의 범죄조직이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치안은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지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2) 흑사회성질 범죄조직과 당·정·관료와의 공생관계 형성

2000년 이후부터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엄밀한 조직체계, 엄격한 방규를 갖추고 일정한 경제력을 구비한 후 합법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정치·경제 영역에 파고들어 비호세력인 당·정·사법기관 종사자 등과 두터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토착관료와의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특색이다.

범죄조직의 권력화란 범죄조직이 권력을 차지한 후 한 지방의 행정업

62) 张德寿, 『浅析黑社会性质组织犯罪概念及特征』, (云南警官学院学报, 2006).

무를 농단하며 그 지방에서 각종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력형 범죄조직을 받기하거나 조직하는 우두머리는 하층 행정 관리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범죄조직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권력형 범죄조직은 중앙권력이 미치지 어려운 농촌과 내지 및 외지의 현소재지(县城)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의 하층 정권은 몇 사람에게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수중의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형 범죄조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직된 범죄조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또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러한 권력형 범죄조직은 중앙정부의 법령과 법규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하층정권을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는다.⁶³⁾

법집행 기관인 공안은 범죄조직의 결성을 억제하고 범죄조직을 처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안간부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범죄조직의 비호세력으로 전락한다. 범죄조직이 공안을 공략하여 비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수시로 갖은 향연을 베푼다. 이리하여 형성된 비호세력은 범죄조직에게 많은 특혜를 베푸는데 예를 들면 범죄활동을 묵인하거나 공안기관이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붙잡힌 범인이 탈주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이다.⁶⁴⁾ 이와 같이 범죄조직이 비호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찬조와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각 당·정·관료들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하여 호감을 산 후 개별적으로 공략에 착수하여 비호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조직이 공안을 공략하는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뇌물공여이다. 특히 도박을 통한 뇌물공여는 뇌물공여자나 수뢰자가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자는 도박판에서 일부러 돈을 잃어준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결과 공안은 범죄조직에게 경찰복·경찰차·공안증명까지 대여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다.⁶⁵⁾

63) 刘志伟, 『包庇、纵容黑社会性质组织罪客观要件中疑难问题研析』, (中国人民大学学报, 2006).

64) 张丽霞·赵红星, 『新形势下有组织犯罪的特点及其对策』, (河北法学, 2005).

65) 甘清华, 『论我国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特征与形成原因』, (江西公安专科学校)

당·정·관료들이 범죄조직과 공생관계를 맺는 주요 원인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돈의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농촌 간부들은 범죄조직이 내미는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본분과 직책을 망각하고 범죄조직에 뛰어 든다.

또 다른 이유는 당 간부나 관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범죄조직을 결성한다.⁶⁶⁾ 이것은 중국 공무원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관료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기층간부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관료주의 바람은 자기 과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공산당 간부가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게 되면 그는 흑백세계(黑白世界), 즉 범죄세계와 관료세계를 모두 장악한 지방의 최고 실력자가 되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독립적인 왕국을 건설하여 토황제(土皇帝) 즉 지방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3)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국제범죄조직으로의 발전

2000년 이후 현재 중국 대륙의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그 발전방향이나 속도가 국제범죄조직(즉 마피아나 삼합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의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은 아직 중화민국 시기의 방회조직,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삼합회처럼 그렇게 엄밀하지 못하고, 규모면에서 거대한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의 광범위성, 특히 그 범죄의 심각성 면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 했다고 볼 수 있다.⁶⁷⁾

최근 들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전국 각 법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심리중인 사건 중에 흑사회성질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각급 법원 재판부가 심의하는 흑사회성질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건 수는 매년 3.4배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된 범죄 피의자의 수도 해마다 평균 6.5배 상승하고 있다. 범죄규모 면에서도 마피아나 삼합회 등의 고도화된 조직으로 향한 발전

学报, 2005).

66) 陆学艺, 『当代中国社会阶层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2), 57쪽

67) 康树华, 『有组织犯罪透视』, (北京大学出版社, 2001), 174쪽

변화 추세가 뚜렷했으며, 내부 조직화 정도가 점점 단단해졌고 활동 영역도 일정 지역 추세에서 벗어나 점점 국경을 사이에 둔 국제적 범죄추세로 가고 있다.⁶⁸⁾ 그리고 범죄행위도 직업화, 지능화되어 수단 또한 다양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수단이 흉포화 되고 잔인할수록 사회치안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홍콩의 삼합회 범죄조직이 2000년 이후 대륙으로 스며들어 흑사회성질 범죄조직과 서로 연합하여 국제범죄화 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치안에도 악영향이 되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된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IV. 맺는 말

중국 삼합회 범죄조직의 기원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걸었던 소림사의 승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중국 청 왕조시대의 인구폭발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와 이주민들은 타지에 정착할 때 현지인의 업신여김과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고향사람들 위주로 상부상조의 성격이 짙은 비밀결사를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비밀결사 가입시 각종 언어(특히 방언), 몸놀림, 손동작, 부호 등을 배워 물려주었던 방회(방회)의식이 이를 증명해 준다. 하지만 처음의 상호부조 형태의 순수했던 비밀결사모임은 세월이 흐를수록 상부상조의 취지보다 일부는 민중봉기 형태의 천지회로, 일부는 범죄조직의 형태인 방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 국가인 청 왕조가 망하자 천지회 등의 비밀결사는 정치적인 색채가 열어지고 일부세력은 범죄단체로서의 방회로 남게 되었다. 또한 신해혁명 주역인 쑨원의 사망 이후 정권을 쥐게 된 장제스(張介石)는 외세를 몰아내기 보다는 공산당 토벌에 더욱 주력하면서 방회세력인 청홍방 조직원들을 공산당 와해를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조직의 각종범행을 묵인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제2차 국공내전의 종료와 국민당의 대만으로의 퇴각은 이러한 범죄조직과 정치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청홍방 범죄조직은 국민

68)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79쪽.

당의 패망으로 홍콩·마카오 등지로 피난하거나 동남아 화교사회로 몸을 숨기는 등 분산되어 향후 삼합회 범죄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동남 연해지방으로부터 시장경제의 바람을 타고 밀려 들어온 경제자유화 물결은 범죄조직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어 중국 조직범죄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탄생하게 된다. 1단계 태동기, 2단계 발전기, 3단계 정착기로 발전한 중국 범죄조직은 오늘날 고급화 되고 범죄수법 또한 지능화 되었으며, 예전의 강도·절도·공갈·협박 등의 범죄에서 벗어나 기업운영을 통한 합법화 추구, 돈 세탁을 통한 금융범죄, 정교한 위조기술을 통한 위폐제조 등 경제범죄 쪽으로 급선회 하였으며, 특히 당·정·관료와의 결탁을 통한 공생관계가 만연하여 관료와의 유착이 심해졌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래 한족 및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고향·친지방문으로, 일부는 산업 기술연수생과 유학생으로, 일부는 단순노무 등 3D업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입국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포함한 80여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공단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110만 명으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폭력조직이 14개국 65개 파(派)이고 4,600여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지역 건달’이나 ‘불량배’가 포함된 숫자는 아니다. 특히 국내체류 중국인 범죄조직원들은 등에 칼, 다리에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차이나타운 유흥업소와 도박장에서 돈을 뜯어 가는데 ‘피를 뒤집어쓸 때까지’ 싸우는 잔인함에 타 조직이 떨 정도이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하여 국내거주 중국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들이 출신지 별로 조직을 만들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는 바로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태동기인 80년대 말의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에 대규모화된 중국인 국제범죄조직이 서서히 활동을 확대하고 날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I. 단행본

1. 국내문헌

- 전대양·송병호, 『조직범죄론』, (대양출판사, 2004).
송태중,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화술정보, 2008).
양태규, 『조직범죄수사론』, (대왕사, 2003).
조선일보, 2009/10/16.

2. 외국문헌

- John King Fairbank, 『CHINA : A NEW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Yiu Kong Chu, 『The Trade as Busin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0).
Morgan, W.P. 『Triad Societies in HongKong』. (Government Print, 1960).
Murray, D.H. and Qin, B. 『The Orignn of the Tiandihui; The Chiness Triads in Legend and Hist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1994).

3. 중국문헌

- 賈宏宇, 『中國大陸黑社會組織犯罪與對策』, (中國共產黨 黨校出版社, 2006).
周育民. 邵雍著, 『中国帮会史』, (上海人民出版社, 1996).
赵文林 『旧中国的黑社会』, (华夏出版社, 1987).
康树华, 『犯罪学: 历史`现状`未来』, (群众出版社, 1998).
何秉松, 『有组织犯罪研究』, (中国法制出版社, 2002).
刘登阁, 『中国的是非』,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 陆学艺, 『当代中国社会阶层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2).
康树华, 『有组织犯罪透视』, (北京大学出版社, 2001).
易熙峰, 『中國黑道幫會』, (大眾文藝出版社, 2008).
朱显有, 『黑社会犯罪遏制战略』, 人民公安报, 2001/8/11/

II. 논문

1. 국내논문

- 이진권, 『조직범죄연구(한·중간 조직범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신상철, 『중국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개념과 해석』, (경찰학연구, 2010).
이만춘, 『중국 흑사회범죄의 소고』, (비교형사법학, 2004).
송량화, 『동아시아 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송태중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2. 중국논문

- 任志中. 周蔚, 『惩治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难点及立法思考』,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2).
王云良, 『黑社会性质组织犯罪案件侦办思路』, (江苏警官学院学报, 2006).
张丽霞. 赵红星, 『新形势下有组织犯罪的特点及其对策』, (河北法学, 2005).
张德寿, 『浅析黑社会性质组织犯罪概念及特征』, (云南警官学院学报, 2006).
刘志伟, 『包庇、纵容黑社会性质组织罪客观要件中疑难问题研析』, (中国人民大学学报, 2006).
张丽霞.赵红星, 『新形势下有组织犯罪的特点及其对策』, (河北法学, 2005).
甘清华, 『论我国黑社会性质组织犯罪的特征与形成原因』, (江西公安专科

学院学报, 2005).

陆学艺,『当代中国社会阶层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2).

<ABSTRACT>

China was a feudal country for about 2,000 years when a number of uprising by peasants took place endlessly because of exploitation by bureaucrats. Those peasants requested reforms in land distribution system that would raise their social position and bring financial profits to them. The Chinese population was about 80 million in the Han period. It was slowly increased to 120 million which was maintained in the T'ang, Song, Win and Ming periods. But the population was explosively increased to 430 million in the Ching period. or this reason, lots of peasants moved to inland, mountainous places where they faced resistance from natives who had been farming there for generations.

Cheongbang' was a private organization that was initially formed in the Ching period by seamen who worked at a large canal in the southern part of China. It was later integrated with Hongbang into 'Chenghongbang'. After the Xinhai Revolution, Cheonghongbang didn't intervene in political incidents any more. But som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med another organization, or 'Banghoe'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rime bodies in the modern history of China. Leaders of Cheonghongbang who had been the puppets of the Chinese National Party were later moved to Taiwan along with the party, took refuge to Hong Kong and Macao or hid themselves in the Chinese emigrants of southeastern Asian countries. And there, they formed a pan-Asian crime organization, that is, 'Triad' or 'Samhaphoe'. The other members of Cheonghongbang who were left in the mainland China return to the life of ordinary people

after submitting a written oath not to involve in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anti-crime guidelin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as founded in 1949. As Deng Xiaoping implemented policies for national reforms and opening,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began to gradually emerge in the southeastern coastal cities of the country. Since then, about 30 years have passed. Now, the organizations exist in all regions and business fields of China. They are maintaining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security police. The organization is offering bribes to the police. In return, the police is aiding the crime bodies to be firmly established and continuously developed.

주제어 : 천지회(Tiandihui), 홍방(Hongbang), 청방(Qingbang), 청홍방(Qinghongbang), 삼합회('Triad' or 'Sanhehui'), 흑사회성질 범죄조직(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투 고 일 : 2010.6.28
심 사 일 : 2010.7.10~7.31
게재확정일 : 2010.8.10

286·中國學 第36輯(2010.8)

<빈 페이지>

《中國學》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3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년 3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4월	8월	12월
원고마감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

평가 의뢰			
논문심사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
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

-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の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理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이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理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研究理事,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한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研究理事를 겸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定된 研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 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적합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논문투고 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5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	바탕	바탕	바탕
	한자	SimSun	SimSun	SimSun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별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

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 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 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전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

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年三刊 **中國學** 第 36 輯

2010년 8월 27일 인쇄
2010년 8월 31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李 在 夏
發行處：釜山市 南區 大淵3洞 (☎ 608-736)
慶星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內
TEL : (051) 663-4264
H.P. : 010-9366-7478
E-mail : whahum@ks.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 424-9977

ISSN 1229-9618